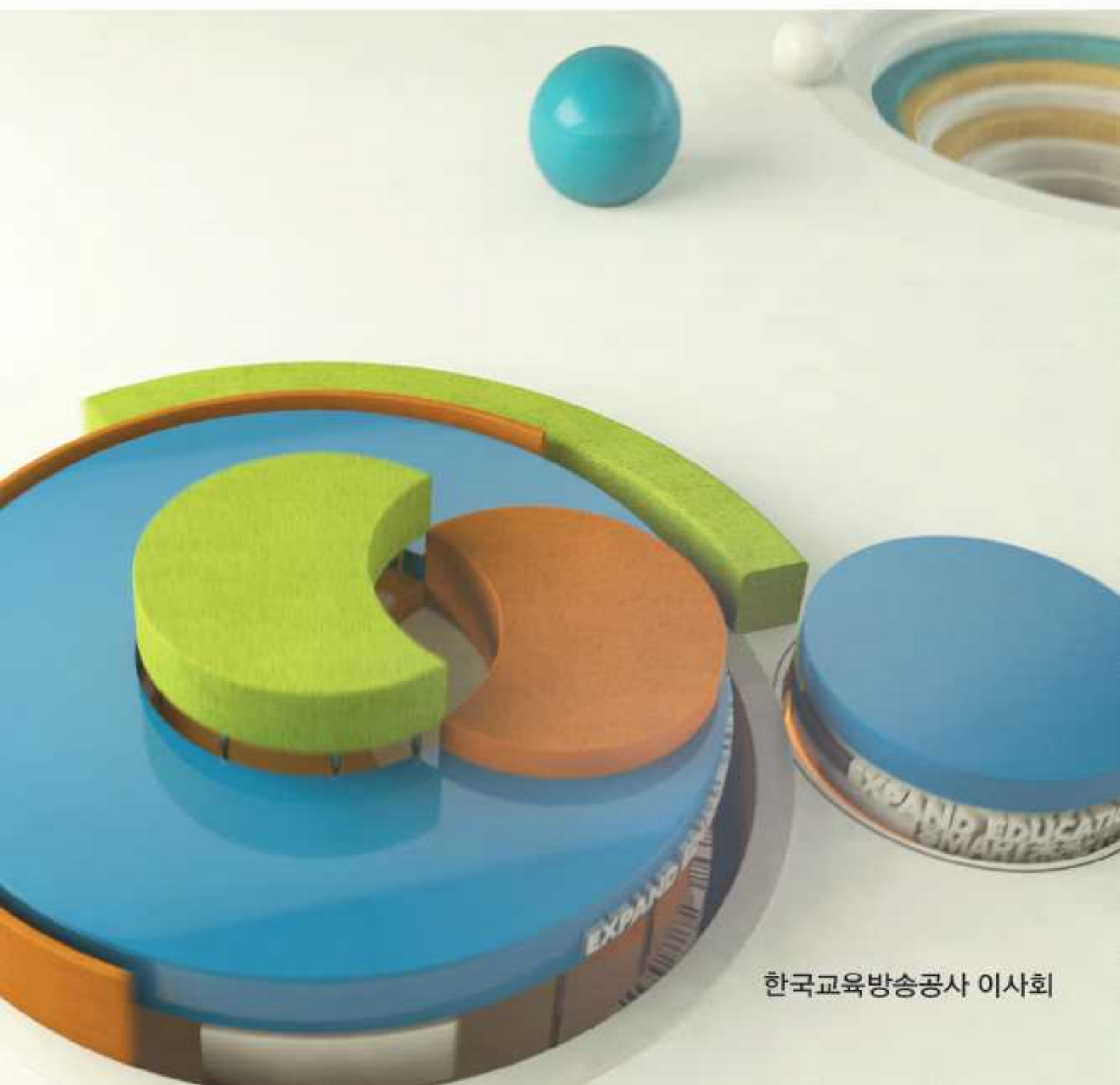


2018 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차 례

제1장 경영평가 개요

1. 경영평가 근거 및 목적	11
2.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11
3. 평가 부문 및 평가 항목	12
4. 평가 방법 및 평가 과정	16

제2장 경영 개황

1. 2018년도 경영 목표	19
2. 매체 운영 현황	20
3. 2018년 편성 목표 및 내용	22
4. 조직 및 인원 현황	24
5. 시설 현황	25
6. 예산 현황	26
7. 재무 현황	27

제3장 경영평가 결과

1. 총평	33
2. 부문별 총평	42
가. 경영부문	42
나. 방송부문	45
다. 교육부문	48
라. 기술부문	51

제4장 부문별 평가


1. 경영부문	57
가. 경영 목표 및 전략	58
평가 내용	58
1) 경영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58
2) 책임 및 윤리경영의 제고 노력	60
평가 결과 및 제언	63
나. 조직 및 인사 관리	64
평가 내용	64
1) 조직 운영의 효율성	64
2) 인사 관리의 적정성	66
3) 노사 관리의 안정화 정도	70
4) 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71
평가 결과 및 제언	73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75
평가 내용	75
1)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75
2)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76
3)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82
4) 경영정보 관리의 적정성	85
평가 결과 및 제언	86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87
평가 내용	87
1)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87
2)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90
평가 결과 및 제언	95
마.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96

평가 내용	96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96
평가 결과 및 제언	99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100
평가 내용	100
1)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정도	100
평가 결과 및 제언	103
2. 방송부문	104
가. 방송 목표	105
평가 내용	105
1) 방송 편성목표의 적정성	105
평가 결과 및 제언	108
나. 방송 편성과 운영	111
평가 내용	111
1) 방송 편성 비율의 적정성	111
2)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116
3) 방송 운행의 정시성 정도	119
4)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120
평가 결과 및 제언	123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128
평가 내용	128
1)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128
2)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130
3)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134
평가 결과 및 제언	138
라. 시청자 서비스	142
평가 내용	142


1)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142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145
평가 결과 및 제언	147
마. 방송성과	149
평가 내용	149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149
2)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153
3)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156
평가 결과 및 제언	159
바.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162
평가 내용	162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162
평가 결과 및 제언	166
사.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168
평가 내용	168
1)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정도	168
평가 결과 및 제언	169
3. 교육부문	170
가. 방송교육 목표	171
평가 내용	171
1) 방송교육 목표의 적정성	171
평가 결과 및 제언	175
나. 교육방송 시스템	177
평가 내용	177
1)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 협력의 정도	177
2)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181
3) 제작 직원의 교육 전문성 제고 정도	186

4) 참여자들의 교육 전문성 제고 정도	188
5)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193
6)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197
평가 결과 및 제언	200
다. 방송교육 과정	208
평가 내용	208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208
평가결과 및 제언	215
라. 방송교육 성과	217
평가 내용	217
1) 타겟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 적정성	217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	218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220
평가 결과 및 제언	224
마.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227
평가 내용	227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227
평가 결과 및 제언	231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233
평가내용	233
1)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233
평가 결과 및 제언	236
3. 기술부문	237
가. 방송기술 목표	238
평가 내용	238
1) 방송기술 목표의 적정성	238
평가 결과 및 제언	242

나. IT 환경 대응	243
평가 내용	243
1)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243
2)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246
3)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248
평가 결과 및 제언	250
다. 미디어 환경 대응	251
평가 내용	251
1) 융합 서비스 추진 노력의 적정성	251
2)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적정성	258
3) 프로그램 품질 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259
4)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265
5)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적정성	269
6) 방송망 관리의 안정성	273
평가 결과 및 제언	278
라.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279
평가 내용	279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279
평가 결과 및 제언	283
마.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284
평가 내용	284
1)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284
평가 결과 및 제언	289



제1장 경영평가 개요



1. 경영평가 근거 및 목적

본 경영평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의 규정에 의거해 실시하였으며, 경영 개선을 통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 목적인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여 공적 책임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경영 관리를 도모하는 데에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다.

2.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가. 경영평가단 구성

경영평가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2항 규정에 따라 경영, 방송, 교육, 기술 관련 전문가 각 1명, 비상임 이사 2명 및 EBS 상임감사 1명 등 총 7인을 이사회가 위촉해 구성하였다. 단장은 경영평가단에서 호선하였으며, 평가위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 문종대(EBS 이사)

경영부문: 류현욱(신한대학교 교수)

방송부문: 정용국(동국대학교 교수)

교육부문: 이창희(상도중학교 교사)

기술부문: 문형남(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위원: 박강호(EBS 이사)

위원: 조경식(EBS 상임감사)

나. 운영기간: 2019년 1월 ~ 2019년 5월

3. 평가 부문 및 평가 항목

평가 부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1항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정관 제13조(기능) 제3항에 명기된 6개항 ①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② 예산 집행의 효율성, ③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 제도, ④ 재무상태 등 경영 실적, ⑤ 시설투자, ⑥ 기타 EBS 발전과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EBS 업무와 연관 지어 경영, 방송, 교육, 기술 4개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2018사업연도 경영평가는 제277회 이사회(2018. 12. 26)에서 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경영부문 14항목, 방송부문 15항목, 교육부문 13항목, 기술부문 12항목 총 54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가. 평가 대상 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나. 부문별 평가 항목

1) 경영부문

가) 경영 목표 및 전략

- ① 경영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② 책임 및 윤리 경영의 제고 노력

나) 조직 및 인사 관리

- ① 조직 운영의 효율성
- ② 인사 관리의 적정성
- ③ 노사 관리의 안정화 정도
- ④ 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 ①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 ②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③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 ④ 경영정보 관리의 적정성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 ①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 ②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마)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 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 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2) 방송부문

가) 방송 목표

- ① 방송편성 목표의 적정성

나) 방송편성과 운영

- ①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 ②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 ③ 방송운행의 정시성 정도
- ④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 ①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 ② 외주제작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 ③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라) 시청자 서비스

- ①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 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적정성

마) 방송성과

- ①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 ② 프로그램의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 ③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바)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 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사)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 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3) 교육부문

가) 방송교육 목표

- ① 방송교육 목표의 적정성

나) 교육방송 시스템

- ①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협력의 정도
- ②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③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 ④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 ⑤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 ⑥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다) 방송교육 과정

- ①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라) 방송교육 성과

- ① 타겟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 적정성
- ②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 ③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마)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 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 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4) 기술부문

가) 방송기술 목표

- ① 방송기술 목표의 적정성

나) IT 환경 대응

- ①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 ②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 ③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다) 미디어 환경 대응

- ① 융합서비스 추진 노력의 적정성
- ②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적정성
- ③ 프로그램 품질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 ④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 ⑤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적정성
- ⑥ 방송망 관리의 안정성

라)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 ①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마)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 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4. 평가 방법 및 평가 과정

2018사업연도 경영평가는 2018년 12월 26일에 개최된 제277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8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실시 계획에 따라 경영 실적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위하여 부문 책임자와 실무지원 담당을 두고 경영평가 편람을 바탕으로 업무를 정리, 분석하여 경영, 방송, 교육, 기술 등 부문별로 실적보고서를 작성, 경영평가단에 제출하였다. 경영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경영진 및 각 부문 책임자 면담을 실시했으며, 평가에 부족한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기에 현장평가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경영평가결과를 도출하였다.

2018사업연도 경영평가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18. 12. 26: 2018사업연도 경영평가 실시 계획(안) 이사회 의결
- 2019. 1. 16: 경영평가 위원 위촉 및 상견례
- 2019. 1. 16: 제1차 경영평가단 회의
- 2019. 2. 12: 제2차 경영평가단 회의
- 2019. 3. 15: 제3차 경영평가단 회의
- 2019. 3. 22: 부문별 부서장 면담을 통한 현장평가 실시
- 2019. 3. 29: 제4차 경영평가단 회의
- 2019. 4. 12: 제5차 경영평가단 회의
- 2019. 5. 2: 제6차 경영평가단 회의
- 2019. 5. 10: 제7차 경영평가단 회의(예정)
- 2019. 5. 22: 2018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이사회 보고 및 의결
- 2019. 5. 31: 2018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공표(방송 및 인터넷)
- 2019. 5. 31: 2018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타 언론사 및 방송사 배포



제2장 경영개황



1. 2018년도 경영 목표

1) 기본 방향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2) 경영 목표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 플랫폼
서비스**

**지속성장
기반 구축**

3) 10대 약속

1. 행복한 교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2. 늘 곁에 있는 7개 EBS 채널
3.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주기 맞춤형 콘텐츠
4. 놀며 체험하는 첨단교육 테마파크
5. 020 현장밀착형 교육 서비스
6. 창의적, 실험적 크로스미디어 프로그램
7. 특화된 사회공헌 사업
8. 협력·상생하는 EBS
9.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EBS 미래
10. 자율과 창의로 활력 넘치는 콘텐츠 창작회사

2. 매체 운영 현황

1) 방송 채널

구 분		편성 내용	주간 방송시간
지상파	디지털TV EBS1	지식 · 민주시민교육	05:00~26:00(21시간)
	디지털TV EBS2	창의융합교육	06:00~25:00(19시간)
	라디오 FM	인문 · 문화 · 교양	05:00~26:00(21시간)
위성 케이블 IPTV	EBS 플러스1	수능 · 내신 · 논술	00:00~24:00(24시간)
	EBS 플러스2	초중학 · 직업 교육	07:00~25:00(18시간)
	EBS English	생활 · 실용 영어 학습	06:00~24:00(18시간)

※ EBS 1TV(지상파)는 방송법 제78조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에 의거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및 IPTV 등에 동시재전송(EBS 2TV 제외)

※ 유아 어린이 전문 PP채널 『EBS KIDS』는 자회사인 EBS 미디어㈜에서 운영

2)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주소		주요 서비스	유 · 무료
www.ebs.co.kr		TV, 플러스2, FM VOD·AOD 서비스	유 · 무료
	primary.ebs.co.kr	초등 학습 콘텐츠 서비스	무료
	mid.ebs.co.kr	중학 학습 콘텐츠 서비스	유 · 무료
	clipbank.ebs.co.kr	클립 서비스	무료
	free.ebs.co.kr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무료
	durian.ebs.co.kr	다문화 한글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무료
www.ebsi.co.kr		플러스1 및 수능 인터넷 강좌 서비스	무료
www.ebse.co.kr		영어방송 다시보기 서비스	무료
www.ebsmath.co.kr		수학교육 전문 사이트	무료
www.ebslang.co.kr		종합 외국어 인터넷 강의 서비스	유료
인터넷 총 회원 수 (2018년 12월 31일 기준, SSO-Single Sign On)			407만 명

3) 채널별 편성 비율

매체			편성비율				
지상파	EBS 1TV	지식·민주시민교육	평생 교육			계	
			유아·어린이	청소년	성인		
			30.9%	18.3%	50.8%	100%	
지상파	EBS 2TV	창의융합교육	초등	중등	외국어	교육격차해소	계
			36.1%	11.3%	24.7%	27.8%	100%
			※ 교육격차해소: 경제·다문화·성인문해교육 등				
지상파	FM 라디오	인문·문화교양	평생 교육				계
			청소년	영어	제2외국어	사회교육	
			1.4%	32%	3.4%	63.2%	100%
위성 케이블 IPTV (PP채널)	EBS 플러스1 (수능전문)	수능·내신·논술	학교교육		평생교육		계
			96.3%		3.7%		100%
	EBS 플러스2 (중학·직업)	초중학·직업 교육	초등교육	중학교육	직업	평생교육	계
			26.6%	45.8%	14.4%	13.2%	100%
위성 케이블 IPTV (PP채널)	EBS English (영어교육)	생활·실용 영어 학습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계
			7.9%	25.9%	39.8%	26.4%	100%

※ 유아 어린이 전문 PP채널 『EBS KIDS』는 자회사인 EBS미디어(주)에서 직접 편성

3. 2018년 편성 목표 및 내용

1

EBS 콘텐츠 정체성 강화

- 감성지식 및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 강화
 - 사회통합 및 공동체 교육 콘텐츠 강화
 -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 확대
 -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빅 콘텐츠 편성
 - 어젠다 설정을 위한 전략 콘텐츠 편성

2

콘텐츠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채널별 편성 블록 전략 강화
 - (1TV) 사회통합·공동체 존, 생활 역량 존, 민주시민 교육 존 등 신설
 - (2TV) 창의융합교육 존, 교육현장 존, 미래교육 존 등 신설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빅 콘텐츠 편성
 - 주요 프로그램 러닝타임 확대
 - 시즌제 확대를 통한 인력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
 - 프리미엄 프로그램 편성

3

혁신성 높은 콘텐츠로 젊은 타깃 유입

- 파일럿 존(Zone) 설정
 - 창의적·실험적 파일럿 프로그램 편성
- 트랜스 미디어 콘텐츠 전략 강화
 - 디지털 인터랙티브 콘텐츠 및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 원천 콘텐츠를 통한 방송 및 웹툰, 모바일 서비스 기획
 -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및 무빙툰 제작

4 콘텐츠 다양성 확대

- 독립 PD 및 외주사에 대한 기획 제작 참여 확대
 -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 파일럿 존 기획안 상시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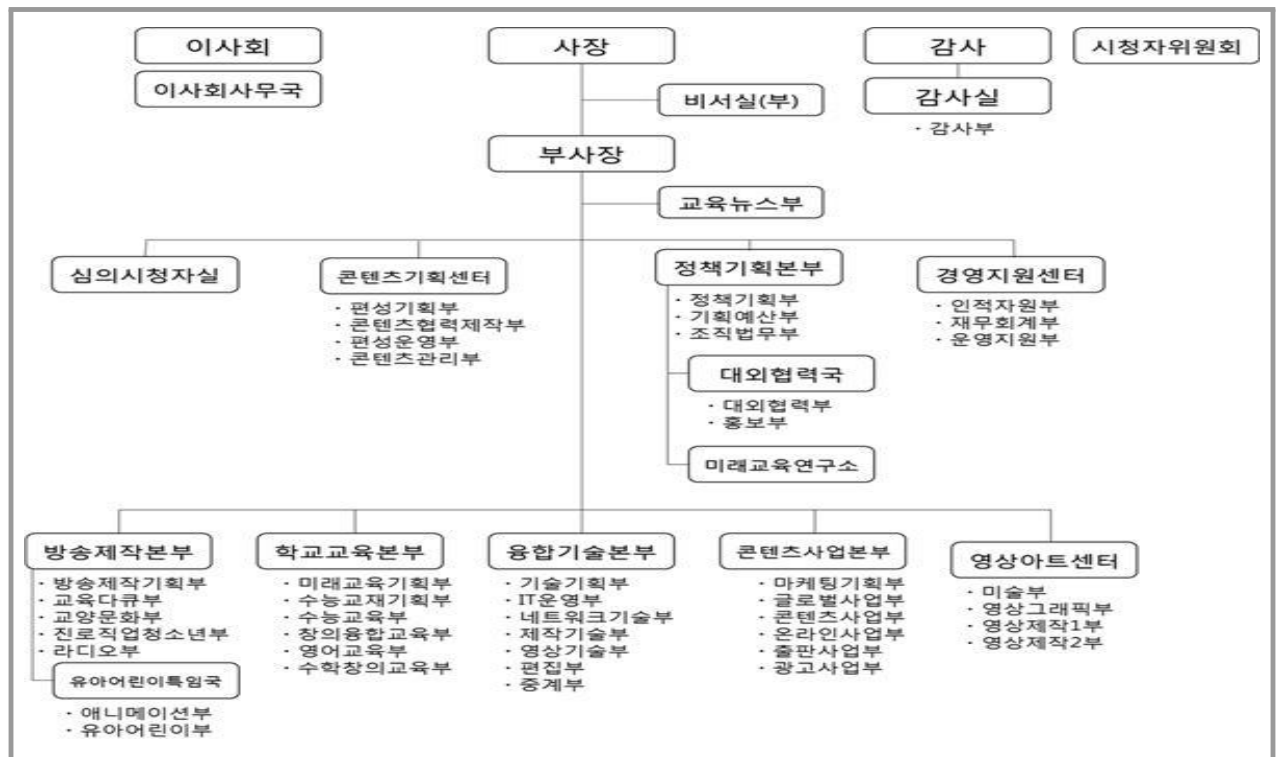
5 창의융합 및 교육현장 콘텐츠 강화

- 창의융합 등 교육을 위한 블록 존(Zone) 확대
 - 소프트웨어 교육 존, 교육현장 존, 미래교육 존 등 신설
 - 수학·과학·소프트웨어 등 창의융합교육 콘텐츠 확대
- 교육현장을 온·오프라인 연계한 옴니 채널(Omni-Channel) 콘텐츠 확대
 - 변화하는 교육과정 및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콘텐츠 편성
 - K-MOOC 등 교육콘텐츠를 방송 프로그램으로 서비스

4. 조직 및 인원 현황

1) 조직 현황

2018. 12. 31. 현재



※ 한시조직 4단 1실 3팀 별도

(수신료정상화추진단, ERP추진단, 다채널방송추진단, 남북교육교류추진단, 사회책임경영실, 유아어린이사업팀, 소프트웨어교육팀, 시설관리팀)

2) 인원 현황

○ 현재원: 595명(정원: 644명)

구분	임원	일반직(별정직포함)	계(명)
정원	3	641	644
현원	2	593	595
과부족	△1	△48	△49

※ 개방형 계약직 포함 (2018. 12. 31. 현재)

5. 시설 현황

1) 업무 시설

○ 본사 개요

위치	면적	용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부지 14,836㎡ 건물 61,375㎡	사무실, 방송 제작 및 기타 지원시설

○ 본사 주요 시설

구 분	면 적	용 도
방송시설	15,240㎡ (4,610평)	스튜디오 20실(TV 4실, FM 4실, 이더닝 12실) 주조정실 2실(TV 1실, 라디오 1실) 1:1편집실 40실, 더빙실 4실, 다목적홀 1실, 세트실 등
업무시설	14,631㎡ (4,426평)	사무실, 회의실, 세미나실, 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31,332㎡ (9,478평)	주차장(513구획), 전가기계실, 엘리베이터, 복도 등

○ 임차 시설

위치		면적	용도
우박빌딩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24㎡	이더닝 제작
세트 창고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62㎡	세트 보관
계		786㎡	

2) 방송 시설

송출시설(주조)	스튜디오	편집시설	중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주조정실 1실 (지상파 2채널 PP 4채널) ○ 라디오주조정실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스튜디오 5실 (스페이스홀 1실 포함) ○ 더빙 스튜디오 3실 ○ 라디오 스튜디오 5실 ○ e-러닝 스튜디오 14실 (우박빌딩 2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종편 5실 ○ 사운드믹싱룸 3실 ○ 특수편집실 6실 ○ 색보정실 4실 ○ NLE(1대1)편집실 45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16톤) 1대 ○ HD(5톤) 1대 ○ 스마트밴(4톤) 1대

6. 예산 현황

1) 2018년 예산 현황

총 예산	공적재원	상업적 자원(자체수입)
2,869억 원	748억 원(25.9%)	2,143억 원(74.1%)

○ 공적 자원

TV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소계
182억 원(6.3%)	318억 원(11.0%)	248억 원(8.6%)	748억 원(25.9%)

① TV수신료 배분			② 방통발전기금(방통위, 미래부)		③ 특별교부금(교육부)	
KBS	90.4%	5,876억 원	글로벌교육콘텐츠	12억 원	수능강의	160억 원
EBS	2.8%	182억 원	장애인 방송	1억 원	영어채널	60억 원
한전	6.8%	442억 원	장애인 인터넷	2억 원	수학교육	26억 원
계	100.0%	6,500억 원	소프트웨어 플랫폼	20억 원	소프트웨어교육	2억 원
월 TV수신료 2,500원 중 EBS 몫은 70원			계	318억 원	계	248억 원

○ 자체 수입

수능교재	기타출판	방송광고	온라인사업	제작협찬	기타매출	사업 외	소계
462억 원 (16.0%)	385억 원 (13.3%)	373억 원 (12.9%)	264억 원 (9.1%)	157억 원 (5.4%)	480억 원 (16.6%)	22억 원 (0.8%)	2,143억 원 (74.1%)

2) 자본금 납입현황

법정자본금	납입자본금	미납입액	비 고
1,000억 원	889억 원(88.9%)	111억 원(11.1%)	2017.3.22. 11차 납입

7. 재무 현황

1) 재무제표

○ 제19기: 2018년 12월 31일 현재

○ 제18기: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단위: 억 원)

계 정 과 목	제19(당)기	제18(전)기	증감액	증감률
I. 유동자산	604	710	△106	△14.9%
(1) 당좌자산	578	687	△109	△15.9%
1. 현금및현금성자산	30	108	△78	△72.2%
2. 단기투자자산	107	105	2	1.9%
3. 매출채권	322	338	△16	△4.7%
4. 미수금	16	23	△7	△30.4%
5. 미수수익	1	1	-	-
6. 선급법인세	1	1	-	-
7. 선급비용	68	64	4	6.3%
8. 부가세선급금	33	47	△14	△29.8%
(2) 재고자산	26	23	3	13.0%
II. 비유동자산	1,858	1,913	△55	△2.9%
(1) 투자자산	25	25	-	-
1. 장기투자증권	-	3	△3	△100.0%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5	22	3	13.6%
(2) 유형자산	1,821	1,876	△55	△2.9%
1. 토지	186	186	-	-
2. 건물	1,328	1,355	△27	△2.0%
3. 구축물	14	15	△1	△6.7%
4. 방송장비	209	248	△39	△15.7%
5. 기계장치	19	27	△8	△29.6%
6. 차량운반구	-	1	△1	△100.0%
7. 공기구비품	34	43	△9	△20.9%
8. 건설중인자산	31	1	30	3000.0%
(3) 무형자산	1	1	-	-
(4) 기타비유동자산	11	11	-	-
[자 산 총 계]	2,462	2,623	△161	△6.1%

[부채와 자본]

(단위: 억 원)

계 정 과 목	제19(당)기	제18(전)기	증감액	증감률
I. 유동부채	440	415	25	6.0%
1. 단기차입금	140	-	140	-
2. 매입채무	50	73	△23	△31.5%
3. 미지급금	96	138	△42	△30.4%
4. 예수제세금	10	20	△10	△50.0%
5. 예수보관금	2	2	-	-
6. 예수보증금	2	3	△1	△33.3%
7. 부가세예수금	-	-	-	-
8. 미지급비용	8	7	1	14.3%
9. 미지급법인세	-	-	-	-
10. 환급추정부채	4	10	△6	△60.0%
11. 반품추정부채	41	98	△57	△58.2%
12. 선수금	86	64	22	34.4%
13. 기타의 유동부채	1	-	1	-
II. 비유동부채	400	355	45	12.7%
1. 퇴직급여충당부채	400	355	45	12.7%
[부 채 총 계]	840	770	70	9.1%
I. 자본금	889	889	-	-
1. 자본금	889	889	-	-
II. 이익잉여금	733	964	△231	△24.0%
1. 이익준비금	207	172	35	20.3%
2. 임의적립금	738	622	116	18.6%
3. 미처분이익잉여금	-212	170	△382	△224.7%
[자 본 총 계]	1,622	1,853	△231	△12.5%
[부채와 자본총계]	2,462	2,623	△161	△6.1%

2)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억 원)

	계 정 과 목	제19(당)기	제18(전)기	증감액	증감률
I .	매출액	2,497	2,513	△16	△0.6%
(1)	방송사업수입	1,165	1,172	△7	△0.6%
1.	수신료수입	184	181	3	1.7%
2.	방송발전기금수입	314	302	12	4.0%
3.	국고보조금수입	264	237	27	11.4%
4.	방송광고수입	313	355	△42	△11.8%
5.	방송사업 기타수입	90	97	△7	△7.2%
(2)	부대사업수입	1,332	1,341	△9	△0.7%
1.	출판사업수입	811	803	8	1.0%
2.	문화콘텐츠부대사업수입	94	100	△6	△6.0%
3.	콘텐츠사업수입	292	295	△3	△1.0%
4.	부대사업 기타수입	135	143	△8	△5.6%
II .	매출원가	2,362	2,483	△121	△4.9%
(1)	방송사업비	1,629	1,658	△29	△1.7%
1.	방송제작비	1,235	1,259	△24	△1.9%
2.	기술제작비	287	281	6	2.1%
3.	방통융합제작비	107	118	△11	△9.3%
(2)	부대사업비	733	825	△92	△11.2%
1.	출판사업비	433	466	△33	△7.1%
2.	문화콘텐츠부대사업비	8	5	3	60.0%
3.	콘텐츠사업비	208	247	△39	△15.8%
4.	기타부대사업비	84	107	△23	△21.5%
III.	매출총이익	135	30	105	350.0%
IV.	판매비와일반관리비	366	380	△14	△3.7%
1.	판매비	73	78	△5	△6.4%
2.	일반관리비	293	302	△9	△3.0%
V .	사업이익(손실)	-231	-350	119	△34.0%
VI.	사업외수입	21	525	△504	△96.0%
VII.	사업외비용	2	5	△3	△60.0%
VIII.	경상이익	-212	170	△382	△224.7%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12	170	△382	△224.7%
X .	법인세비용	-	-	-	-
XI.	당기순이익(손실)	-212	170	△382	△224.7%

1. 총평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평가

EBS 이사회는 공사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에 따라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 공표해야 한다. 시행령 제9조에는 ① 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② 예산집행의 효율성, ③ 인사·조직 등 경영관리제도, ④ 재무상태 등 경영실적, ⑤ 시설투자, ⑥ 기타 공사의 발전과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EBS 이사회는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 및 <경영평가편람>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른 비상경영 추진 성과, 제작비 감소 등 방송 제작환경에서 방송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창의 융합형 콘텐츠 개발 추진 성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역량 강화 노력 등 중점평가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정도도 평가하도록 하였다.

경영평가 실시를 위하여 공사의 상임감사 1인, 공사의 비상임 이사 2인, 방송편성 및 제작, 방송기술, 방송경영, 교육전문가 각 1인 등 총 7인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했다.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경영, 방송, 교육, 기술>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경영평가단은 이사회의 평가지침 및 <경영평가편람>에 따른 평가와 이사회가 제시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등을 평가했다. 경영평가단은 1) 소관집행부서가 제출한 실적보고서 검토를 통한 서면평가, 2) 부문별 책임자 및 실무자와 면담 실시 등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평가, 3) 각 부문별 경영평가위원 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평가하였다.

나. 대내외 방송환경변화와 EBS의 경영 현실

미디어 시장이 글로벌화되고 있다. 특히 구글의 유튜브는 검색 채널로 이용될 정도로 폭발적이다. 넷플릭스는 해당 국가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젊은 층의 동영상 시청패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OTT 서비스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영상 시장이 전통적인 방송시장에서 OTT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광고시장 변화는 이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은 2015년 이후 광고 총액에서 전년 대비 매년 마이너스 성장이다. 반면에 케이블 PP와 IPTV, 모바일 광고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상파 TV 광고시장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케이블 PP, IPTV, 모바일 광고시장은 성장 추세에 있다. 2019년 추정치로 본다면 지상파 TV의 총 광고는 1조 4천억 정도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제성장률 및 총광고비 성장률을 감안하면 매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표 1-1> 매체 유형별 총광고비(단위: 백만 원, %)

매체 유형		15년 (전년대비 증감율)	16년 (전년대비 증감율)	17년 (전년대비 증감율)	18년(e) (전년대비 증감율)	19년(e) (전년대비 증감율)
총광고비		11,790,6341 (5.6%)	12,162,657 (3.2%)	12,854,822 (5.7%)	13,683,609 (6.4%)	14,337,886 (4.8%)
방 송	지상파 TV	1,932,390 (-1.6%)	1,745,314 (-9.7%)	1,551,679 (-11.1%)	1,486,773 (-4.2%)	1,447,342 (-2.7%)
	케이블 PP	2,004,946 (15.0%)	1,895,123 (-5.5%)	1,995,032 (3.2%)	2,131,591 (9.0%)	2,238,633 (5.0%)
	IPTV	90,271 (43.1%)	84,586 (-6.3%)	99,307 (17.4%)	114,656 (15.5%)	116,020 (1.2%)
온 라 인	인터넷	2,053,373 (-4.1%)	2,173,087 (5.8%)	1,902,192 (-12.1%)	1,915,487 (0.3%)	2,083,570 (8.8%)
	모바일	1,374,442 (51.1%)	1,981,637 (44.2%)	2,865,945 (44.6%)	3,597,819 (25.5%)	3,976,475 (8.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8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보고서(2018, 12)

이런 미디어 환경시장에서 국내 방송산업의 위기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방송 사업자의 매출액 성장률도 3년 연속 명목 GDP 성장률 아래에 있다(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p.25).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상파 방송3사의 TV부문 매출액은 연평균 KBS 1.62%, SBS 3.33%, MBC(지역MBC제외) 5.96% 감소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7년 매출액도 전년 대비 KBS 3.7%, MBC 19.8%, SBS 7.9% 감소했다. 2018년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지표는 앞으로도 지상파의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1-2> 방송사업 매출액 성장률(2018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통신위원회, p.29)

년도	2011	2013	2015	2017
방송사업매출액 성장률	13.6%	6.3%	4.1%	3.8%
명목GDP	5.3%	3.8%	5.3%	5.4%

EBS도 2015년 이후 매출액에 있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EBS의 주 수익원은 공적재원(2018년 30%)과 자체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자체 수입은 광고수익(2018년 자체 수입 중 17.8%), 출판사업 수익(46.2%), 콘텐츠 사업 수입(16.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고수익은 방송광고시장 침체 및 지상파 채널의 경쟁력 약화로 2015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다. 또한 출판사업 역시 학령 인구 감소, 교재정가 동결, 연계교재 책수 축소, 교육정책 변화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이다. 2018년 출판수익은 2015년 대비 13% 줄었다. 콘텐츠 사업 역시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표 1-3> EBS의 연도별 자체 수입 현황(단위: 백만 원)

년도	2015	2016	2017	2018
광고수익	40,862	37,010	35,475	31,264
출판사업	93,610	88,163	80,604	81,106
콘텐츠사업	38,481	34,940	29,538	29,175

이 결과 매출액도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사업이익도 2016년 이후 적자다. 2016년 19억 4천만 원, 2017년 349억 9천만 원, 2018년 230억 8천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2019년 예산 역시 180억 적자예산을 편성하였다. 각별한 재정관리가 요구된다.

<표 1-4> EBS 매출액 추이(단위: 억 원)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2,768	2,699(-2.5%)	2,613(-3.2%)	2,513(-3.8%)	2,497(-0.7%)

<표 1-5> EBS 연도별 사업 이익

년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
사업이익	23억 원	-20억 원	-350억 원	-231억 원	-180억 원

다. 위기의 EBS 경영구조와 불확실한 미래

EBS는 2017년 이후 매년 100억 이상의 적자경영 상태다. 이런 적자경영으로 EBS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다. 모바일, 인터넷 플랫폼과 종합편성채널의 약진 속에서 지상파의 매체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광고수익 역시 줄어들고 있다. EBS 매출액의 32%(2018년)를 차지하는 출판사업 역시 학령 인구 감소와 수능연계 약화에 따라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공적재원은 600억 내외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시장구조 속에서 EBS의 매출액은 증가할 가능성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경영 방식으로는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어렵다.

1) 기형적 EBS 경영구조

EBS의 설립 목적은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에 따르면 공사 경비는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2)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제10조(기타수입금 재원)는 1) 방송광고수입, 2) 사업수입, 3)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법에 명시된 EBS의 소유구조 및 재원 구조와는 달리 EBS의 운영은 상업방송체제다. 정부가 출자하고, 공사 운영경비를 정부 보조금으로 하도록 한 EBS는 공영방송체제다. 그러나 상업방송처럼 경영하고 있다. 공사법에 따르면 공사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수입의 70%는 기타 수익금이다. 기타 수익금이 주 수입구조인 특이한 공영방송구조다. 오히려 정부 보조금 70%, 기타 사업수입이 30% 구조로 되는 것이 더 정상적이다. TV 방송 수신료 배분 방식도 기형적이다. 방송법 제68조(수신료의 사용)에는 “수신료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49조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금액은 한국전력 위탁수수료 6.15%보다 적은 금액이다. EBS에 지원되는 수신료 액수는 2018년 기준

184억으로 EBS 총매출액 대비 7%에 불과하다. 수신료 배분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EBS의 정부 보조금액을 늘릴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수신료 인상 및 배분을 둘러싼 여당·야당 간 견해차와 KBS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수신료 인상 및 수신료 배분 정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기형적 구조 속에서 EBS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송시장에서 지상파가 우위에 있었고, 대학 수능정책의 EBS 수능방송 연계 출제에 따른 출판사업소득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케이블 PP들의 약진으로 지상파의 매체경쟁력이 약화되고, 학령 인구 감소와 수능연계 약화에 따라 출판사업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장구조에서 기존 방식의 EBS 경영은 위기의 경영구조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2) 비상경영 성과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응

EBS는 현재 3년 연속 매출 하락, 최악의 사업 손실, 자본잠식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디어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다. 3년 연속 매출 하락에도 EBS가 대응한 경영전략을 보면 현재에도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 우려스럽다.

EBS는 경기도 일산시대를 맞이하여 제2창사를 표방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Restart EBS’를 선언하면서,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성장 기반구축 등 2018년도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EBS는 사장직속 <경영혁신팀(2017. 9. 25.- 2018. 9. 21)>을 신설하고 “내일의 비전과 오늘의 혁신: EBS 혁신 2022”을 발표했다. 비록 EBS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실행계획까지 도출하지 못했지만, 나름 미래의 비전과 방향을 잘 제시한 보고서였다. 무엇보다도 2022년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 목표 및 경영전략, 우선 과제 등을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도록 재설정하였다는 면에서 높이 평가할만했다.

그러나 이 혁신안은 현재 위기에 처한 KBS, MBC 등 지상파의 혁신안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반적이고 보편적 제안이었다. EBS의 내적 역량과 경영 현실, EBS의 미디어 시장 내 위치 등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하고 있지 못했다. 그리고

노사갈등으로 인한 경영 공백으로 혁신안에 따른 경영혁신 실행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혁신안에 걸맞은 조직개편도 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과년도와 달리 위기를 인식하고 혁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다만, 혁신안은 수립이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 목표이므로 혁신안 마련 이후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했다.

2018사업 년도에는 전년도의 사업 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인 비용 절감과 경영개선 노력을 했다. 그 결과 매출 총이익 10,494백만 원 증가, 영업손실 11,913백만 원 감소 등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이것은 경영·제작·사업에서의 각종 비효율을 점검, 분석하여 비용을 줄인 결과로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단순 비용절감방식으로는 2018년만큼의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2019년에도 2018년만큼의 사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운영방식이라면 몇 년 내에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추정된다. 비용절감만으로는 재정안정화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EBS는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교육방송의 설립목적에 맞는 재정수입구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보조금보다 방송광고 및 사업 수입 등 ‘기타 소득’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재정수입구조는 비정상적이다. 수신료 수입 등 정부 보조금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경영진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BS 설립목적을 상업방송 운영형식으로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공영방송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 시장에 맡기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목적은 시장에서 실패할 수 있는 공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다. 공영방송을 상업방송 운영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상업성과 설립목적인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 경우 공적 가치실현과 상업적 이윤실현 사이의 모순은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안정적이고 생존 가능한 미래지향의 교육방송 운영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2015년 이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연말 결산을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장기적 재무상황을 예측한 후에, 조직과 인력충원계획, 편성과 제작전략 등 경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까지의 비용 절감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의 경영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가장 안정적이고 생존 가능한 교육방송 운영 모델을 찾아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인력충원, 채널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 외주정책, 해외프로그램 수입편성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정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높은 방송산업의 특성상 인력 운영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EBS의 경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9명씩 정년 퇴직한다. 이 현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입구조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이후 지상파 방송의 경우 광고수입은 계속 줄어든 반면, 재송신 대가와 프로그램 판매, 협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17년 지상파의 경우 광고수입 38.33%, 수신료 38.33%, 프로그램 판매 17.45%, 협찬 11.03%, 재송신 11.03%, 기타 11.03%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고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든 반면, 프로그램 판매, 재송신 대가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EBS도 광고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판매, 재송신, 협찬 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 판매 및 재송신 수입의 경우 비용 대비 수입이 매우 높다. 이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디어 시장 변화, EBS의 미디어 시장 내 위치와 시장 크기, EBS 목표시장, 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전략, EBS 시청자의 시청행태 및 라이프 스타일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재정 추정 모델개발, 부서별 직무분석 및 조직편제 분석,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의 원가관리에 대한 자료 분석 등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책기획부가 있지만 전문성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싱크탱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기획부를 확대 재편하거나, 사장직속 연구실 또는 정책기획센터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 EBS 1TV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EBS 1TV는 지식채널, 공동체, 생명, 미디어 문해교육, 역사 등 민주시민 교육 채널로 특화하고 있다. KBS의 2019-2022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KBS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 역사드라마 복원, 인문학융합 교양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KBS1은 EBS 1TV와 경쟁 관계다. EBS1은 KBS와 차별화된 프로그램 편성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방송통신발전기금 50억원 지원으로 운영하는 EBS 2TV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에 따른 신규제작 비율은 단지 9%에 불과하다. 추가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2TV 채널 정체성은 물론이고, EBS 경영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EBS 2TV의 의무재송신 채널 지정과 광고 및 협찬이 가능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과학적인 프로그램 제작 편성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 시간대 운영, 부가가치 높은 콘텐츠 개발, 일자리·청년창업·통일 등 민주시민교육콘텐츠, 다양한 형태의 특강 프로그램 등의 노력을 해온 EBS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EBS 주 시청자 군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동일 시간대 편성된 타 방송국 프로그램 편성, EBS 프로그램에 대한 주 시청자의 시청 형태 분석 등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편성전략이 필요하다. 단순 시청률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편성시간을 변경하면 더 좋은 시청률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타 방송국의 편성 프로그램 및 주 시청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

여덟째, EBS는 UHD 송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EBS송신 지원 범위'를 법령에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송신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KBS와 EBS,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제처도 2019년 1월 29일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KBS가 EBS의 송신장비 구매를 포함한 방송 송신 일체를 지원하도록 방송법 제54조의 송신지원 개념을 구체화"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EBS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를 설득하는 한편, 국회 및 학계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홉째, EBS는 EBS만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어떤 방송보다도 신뢰받는 교육·교양방송이 되어야 한다. 특히 2018년에 발생한 <빽치미> 프로그램의 공정성 시비, EBS미디어(주)의 종이교구사업의 인물시리즈로 인한 논란, 동아시아사 수능 강의의 부적절한 표현 문제 같은 것들은 EBS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지침 마련과 자체심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EBS 및 EBS 자회사의 상업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열번째, 공사의 인사 및 조직 시스템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및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및 노동시간 배분 문제, EBS의 매출액 대비 586명 직원 규모의 적절성 문제, 인력 채용에 있어서의 우선 직종, 신규·경력직 채용 비율 등을 EBS의 장기 경영전략 아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열한번째, EBS 경영진은 노·사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노·사 간의 관계가 생산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영위기가 크면 클수록 노·사 간 갈등이 더 많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18년에도 노·사 갈등에 의한 경영 공백으로 경영혁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노사관리 안정화에 실패한 경영진은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EBS 경영진은 노사관리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2. 부문별 총평

가. 경영부문

2018년 EBS는 일산시대를 맞아 제2창사를 표방, 디지털시대에 맞는 'Restart EBS'를 선언하고 3대 경영 목표를 앞세워 공영교육방송으로의 정체성 확립을 시도하였다.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과 플랫폼 서비스' 기치를 올려 공영교육방송에 걸맞은 콘텐츠의 질적 제고를 꾀하는 한편 적자구조 탈피를 위한 단기적 비용 절감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중기적으로 경영수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장 직속 경영혁신팀이 '경영계획 및 운용규정'을 마련하여 전략체계를 구축했으며, 경영수지 개선의 계량적 접근을 위해 5년까지의 재무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추정모델을 개발하여 주요 재무의사결정에 활용하였다. 전년도 349억 원의 사업손실을 감안, 당해 185억 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비상경영회의'를 연중 운영한 결과 총 138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사업 비효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방과후학교 사업'을 종료하고 EBSu를 자회사로 이관하는 등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출판사업의 실적을 끌어올린 성과도 보였다. 이사회도 경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함께 노력하였다.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도는 전년 대비 26%p 향상됐으나, 만족도는 약 3점 하락한 점수를 보였다.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받은 공공기관 청렴도는 최하로부터 1개 등급 상승했으며, 당해 연도 중점평가사항인 공사 미래비전 달성 계획에 따른 성과는 부단한 노력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속적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영부문 평가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공사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지속가능한 이윤 창출을 경영목표로 삼고 달성해야 한다. 지난 4년간 EBS는 통합사옥 이전 등에 따른 적자 경영시대를 대비, 수입 확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급변하는 외부 요인 등에 따른 매출 부진과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 되었다. 2018년, 3년 연속 사업손실을 기록하며 순손실 장기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되었으며 차입금 발생으로 손실이 가중될 것이다.

〈표 1-6〉 EBS 연도별 사업 손익 추이(단위: 억 원)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2,700	2,613	2,513	2,497
매출원가	2,331	2,331	2,483	2,362
판매관리비	302	302	380	366
사업 손익	67	(20)	(350)	(231)

2) 사업 운영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과 시행이 필요하다

2018년 예산을 통제하고 수입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적 재원은 전년 대비 약 42억 원 증가한 762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체 사업 확대 노력 또한 공격적 투자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전년 대비 약 562억 원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학령 인구 감소 등 외적 요인에 따른 한계로 볼 수 있다.

수익성 개선 방향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각 사업 및 프로그램별 원가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한계사업을 정리하는 등 ‘사업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 재구조화 작업을 주도할 정책기획본부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적절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성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사업 또는 제작 증감에 비례하여 변동하는 인건비 비중을 확대하는 ‘인력 운영 효율화’가 필요하다. 정부 발주사업 수주 등 자체 수입 확대 측면에서도 관리 지향적 접근을 지양하고 직영인력 투입체제를 통한 수익성 개선에 힘써야 한다.

3) 조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

‘공영교육’을 표방하는 EBS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2018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 청렴도’ 부문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BS가 내·외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2018년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 ‘조직애착’, ‘조직몰입도’ 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사/승진평가’, ‘경영혁신활동’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조직구성원은 EBS를 ‘좋은 직장’으로 인식하는 반면 ‘좋은 회사’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직장으로서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변화 없이 향상성을 유지하려는 안정기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정비는 리더십 강화와 성과·보상체계 고도화를 중심으로 하는 인사정책의 혁신과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평성 중심의 관행적 성과보상 인사제도를 투명하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개선하고, 조직 내 리더(들)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추진 과정에서 인력재배치 내지는 혁신사업에 유용한 인적자원 관련 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EBS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대 강점은 신뢰에 기반한 ‘EBS’ 브랜드로 이는 소중한 자산이다. EBS 프로그램 경쟁력은 물론 수익사업 대부분이 브랜드 경쟁력에 기반한다고 보이는 바, 브랜드 가치 제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브랜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브랜드 제휴사업을 전개할 때 가치 손상 여부(사고 방지) 등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책임 부서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방송부문

2018년도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명시된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구현, 민주적 시민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하여 '채널별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의 3가지 경영 목표를 수립하였다. 또한 이 경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편성 목표를 설정하고, 지상파 TV(EBS 1TV, EBS 2TV), 지상파 라디오(EBS FM), 3개의 PP(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8년 비상경영체제 하에서 예산 및 인력을 비롯한 제작 여건 악화로 인해 양질의 콘텐츠 생산을 위한 제작 기반 마련에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EBS 방송부문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방송부분 경영평가를 통해 도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채널 정체성 강화와 채널별 특성화 추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첫째, EBS1과 EBS2 TV의 채널 정체성 강화와 채널별 특성화 추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BS 1TV는 지식채널, 공동체, 생명, 미디어 문해교육, 역사 등 민주 시민 교육 채널로, 2TV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STEAM 교육, 코딩교육,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인재교육을 위한 창의 · 융합 콘텐츠 중심 채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BS1 TV의 발전 방향은 다른 공영방송의 목표와 중첩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KBS1 역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 역사 드라마 복원, 인문학 융합 교양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다른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품질이 높아지고 공영성이 강화될수록 EBS는 교육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EBS는 현재 보유한 2개의 지상파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EBS1을 민주시민 교육, EBS2를 창의 · 융합에 기반 한 미래인재 교육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2) EBS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는 EBS가 스스로 정한 철학에서 만들어진다

타방송사의 교양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EBS만의 콘텐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 창의 · 융합 교육, 실험적인 파일럿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하지만 학교 교육 보완이라는 정체성 이외 평생 교육과 민주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정체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교육전문 공영방송’ EBS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과연 그런 정체성이 존재하기는 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 정도이다.

한 가지 명확한 점은 EBS의 정체성은 콘텐츠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시청자는 결국 특정한 콘텐츠를 통해 EBS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지, EBS가 꼭 이런 것만을 방송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BS 자신의 철학에 근거한 소신을 독심 있게 밀어붙이는 콘텐츠 전략이야말로 EBS만의 차별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3) 평생교육과 민주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평생교육과 민주교육 프로그램의 내실을 좀 더 다질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민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찾는 것은 공허하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정의나 민주교육에 대한 학계의 정의는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실제로 현재 EBS에서 공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교양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으며, 민주교육 프로그램은 시사, 토론, 다큐멘터리가 뒤섞여있다. 이는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기치에 딱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을 형식적 명명에 귀속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그러한 목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킬러 콘텐츠를 한두 개 정도 시청자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기 앞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기획·편성한다면 동일한 노력을 들이더라도 성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EBS가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4) 유튜브로부터 유아와 어린이 시청자를 찾아와야 한다

EBS는 핵심 시청자층인 유아 및 어린이 시청자를 놓고 유튜브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실은 불리하다.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률은

수년 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토이푸딩 TV(ToyPudding TV)'의 구독자는 2,300만이 넘고, '보람튜브'의 구독자 역시 1,000만이 넘어간다. 이러한 경쟁자들과 승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아·어린이들의 시청 행태를 고려하고 최신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공적 책무, 내용 규제, 상업적 협찬 등에서 자유로운 유튜브 방송과 경쟁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튜브의 그런 특성 때문에 EBS 프로그램의 가치가 올라 갈 수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혁신적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5) 시청자의 참여적 관여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EBS를 지지해 줄 든든한 고관여 시청자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에서 고객의 참여(engagement)가 중요한 것처럼, 방송사 역시 시청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방송사의 입장에서 시청자 참여는 EBS의 공익적 역할을 시청자가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EBS에 대한 관여도와 호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시청자가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EBS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

특히 최근에는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여를 바탕으로 하는 OTT와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시청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포맷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6)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되는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 지표의 개발에 대한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 시청률의 한계는 이미 오래전에 확인되었고, 변화한 이용자의 소비 패턴도 확인되었고,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등 크로스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 지표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작진들이 납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개발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 지표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다. 교육부문

EBS는 학교교육 보완 및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EBS의 2018사업연도에 설정된 경영 목표는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성장 기반구축’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이와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교강의사업, 교재발간사업, 창의융합 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소프트웨어교육사업 등 6개 교육 사업에 10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교육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학교교육의 보완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사교육비 절감, 소외계층 없는 교육 실현에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 결과를 얻었다. 특히 소프트웨어교육, 창의융합교육부문에서 미래의 교육 트렌드를 잘 반영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점은 높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현재의 교육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학교교육은 교육과정 개정의 주기가 짧아졌고, 수업 방법, 평가 방법 등도 계속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EBS 설립목표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향후의 EBS는 변화 따라잡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앞서 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교육부문에서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었지만, 발전적으로 평가한다면 아쉬운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처가 다소 늦어진 점, 소프트웨어교육 사업이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다가서지 못한 점,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특화된 콘텐츠 개발 미흡 등이다. 따라서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EBS의 가치를 한 층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EBS 경영평가의 교육부문 평가를 발전적으로 확대해 볼 때,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와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대처

2018년도는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최초 시행되었다.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시행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과는 추구하는 바가 매우 다르다. EBS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대비하여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빠른 대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 학생 참여 수업 등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하고 있지만, 과정중심평가나 교사별 평가, 핵심역량 함양 등의 반영은 아쉽게 다가온다. 따라서 2019년에는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중·고등학교는 2학년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확대 적용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문제풀이식 강의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2) 교재정가 조정 및 검인정 교과서 발행 검토

EBS 교재의 가격은 타사 비슷한 유형의 교재에 비해 턱없이 저렴하다. 공익성과 연계교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타사 대비 20%p 정도만 저렴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따라서 수익성을 늘리고 교재정가의 합리화를 위해 정가 조정을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가 조정에 따른 수익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 등의 교재 지원에 확대 투입하는 것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검인정 교과서 발행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3)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 및 홍보 활동 강화

EBS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교사들이 많이 접하여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콘텐츠 활용과 홍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질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나 창의융합교육 콘텐츠를 제작했어도, 실제적인 활용이 많지 않다면 사장되기 쉽다. 따라서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을 활용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연수를 진행한다면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예: 소프트웨어, 창의융합프로그램 등)

4)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콘텐츠가 개발되면, 학생, 교사의 활용 빈도가 높아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는 소프트웨어교육이 정규교과로 편입되면서 소프트웨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여 EBS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교육관련 콘텐츠를 개발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발해 놓은 콘텐츠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홍보를 확대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중학교의 정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EBS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관련 연수 프로그램이나 의견청취 기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한다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홍보 효과도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창의융합교육 콘텐츠의 다양화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실시, 지필고사 전면폐지 및 과정 중심평가 확대 등 교육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초·중학교 교육은 문제풀이식 교육보다는 다양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지식을 갖춘 인재보다는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과 위주의 콘텐츠 개발과 함께 창의융합 콘텐츠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교육방송 직원들의 전문성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 실시 및 인력 재배치 검토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를 비롯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다만 부서별로 인력의 경력, 학력 등에서 불균형을 보이고, 업무량에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재 담당하는 업무뿐 아니라 교육방송에서 다루어지는 여타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높여 어떤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무리 없는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입사원 선발 방법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 기술부문

2018년 방송기술 부문은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 성장 기반 구축’ 등 EBS 경영 목표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플랫폼 혁신’, ‘콘텐츠 제작 혁신’, ‘미래 서비스 발굴’ 등을 기술부문 운영목표로 설정하고, 그 역할을 완수하고자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한다. 방송기술 부문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플랫폼 혁신


‘서비스 플랫폼 혁신’ 목표 달성을 위해 웹 사이트 클라우드 도입, New 반디 개발, 웹 사이트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였다. 수학 사이트 웹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IT 인프라의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New 반디 개발을 통해 UI/UX 개선, 다양한 AOD 관련 기능 추가, 결제기능 도입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지상파방송 최초로 스마트폰에 하이브리드 라디오 기능을 탑재하여 차세대 라디오 방송 플랫폼으로서의 선도 입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EBS 메인사이트 개인화 추천 서비스 적용 확대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콘텐츠 제작 혁신

‘콘텐츠 제작 혁신’ 목표 달성을 위해 VR·AR 콘텐츠 제작 활성화, UHD 워크플로우 마련, LTE 및 드론을 활용한 중계 시스템 개선, 소통과 참여 중심의 제작 환경 마련 업무를 추진하였다.

TV 프로그램 ‘판다다’, ‘공룡대백과’ 내에 VR·AR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화면효과 연출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UHD 파일 기반 방송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UHD 종합편집·HDR·리마스터링을 통해 UHD 전반에 대한 제작 역량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LTE 및 드론 촬영을 통해 중계 제작을 활성화하였으며, 프로그램 스텝 전담제 및 제작소통위원회 시행을 통해 PD와 스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작여건을 개선하였다.

3) 미래 서비스 발굴

‘미래 서비스 발굴’ 목표 달성을 위해 자체 기술 사업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수능교재 수요 예측 모델 마련, 신규 서비스 동향 분석을 추진하였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MOTION(라디오방송솔루션)의 사업화를 통해 파키스탄 라디오방송국에 솔루션을 보급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전파방송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EBS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ETRI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효율적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연구를 통해 선도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동국대와 산학협력으로 수능교재 수요 예측 모델 마련을 통해 수능교재 폐기율을 줄여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 현장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에듀테크,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교육 및 미디어 관련 서비스 동향 분석을 통해 EBS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2~3년 동안 미디어는 급격한 변화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TV에서 모바일로의 시청자 이용 형태의 변화, 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미디어의 출연과 종합편성채널의 약진으로 어느 때보다 지상파방송의 입지는 낮아지고 있다. 상업화된 미디어 환경에서 공영성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규제를 받는 지상파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원구조 조차도 EBS는 더 불리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여건 속에서도 EBS는 설립목적에 충실한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과 자체 생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등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기술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이 때로는 시행착오로 성과 없이 끝난 경우도 많았지만, 향후 유사한 업무 추진 시 밑거름이 되리라 여겨진다.

기술부문은 ‘서비스 플랫폼 혁신’, ‘콘텐츠 제작 혁신’, ‘미래 서비스 발굴’ 등 방송기술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충분한 성과를 거두었다.

아쉬운 점은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등 4개 주요 웹사이트의 고객만족도가 모두 하락한 점, UHD 송신지원 문제 미해결로 UHD 본방송이 지연된 점, 인력 고령화에 따라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웹사이트의 고객만족도가 하락한 부문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UHD 송신지원

문제와 인력 고령화 부분은 자체 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대내외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등 4개 주요 웹사이트 모두 고객만족도가 하락한 부문은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고객만족도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고객만족도 증감률로 보면, 초등 사이트가 -3.2%p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고객만족도 지수로 보면 메인 사이트가 81.3%로 가장 낮아 특히 이들 두 사이트의 고객만족도 하락 원인 분석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UHD 방송서비스 실시를 위해 요구되는 UHD 방송 송신설비 구축이 전년도에 이어 2018년도에도 KBS의 송신 지원 문제 미해결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HD 본방송 실시가 늦어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상파 3사는 2017년 5월 31일 수도권 UHD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EBS만 주파수 배정을 받고도 아직까지도 UHD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EBS·KBS 결산감사와 감사원의 KBS 감사 등에서 EBS의 UHD 방송 미실시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방송법 제54조에 따른 KBS의 '선 송신 지원, 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BS의 UHD 방송 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 요청과 KBS에 협조 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학계,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KBS의 선 송신 지원과 후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제4장 부문별 평가



1. 경영부문

2018사업연도 경영부문에 대한 평가는 경영 목표 및 전략, 조직 및 인사 관리,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홍보 및 사회공헌도에 대한 분야에서 세부 추진과제에 따른 과업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등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평가는 각 부서에서 작성·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검토하고 항목별 담당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완료하였다.

전년도 대비 일부 평가 지표에 변경된 부분이 반영되었으며, 전반적으로는 공사의 설립 취지에 기반을 둔 목표를 구현하려는 노력의 정도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을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성과 및 비상경영 계획·성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표 1-1> 경영부문 경영평가 분야의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가. 경영 목표 및 전략	1. 경영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2. 책임 및 윤리경영의 제고 노력
나. 조직 및 인사 관리	1. 조직 운영의 효율성 2. 인사 관리의 적정성 3. 노사 관리의 안정화 정도 4. 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1.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2.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3.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4. 경영정보 관리의 적정성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1.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2.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마.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1. 공사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2. 비상경영 계획 및 성과의 적정성

가. 경영 목표 및 전략

평가 내용

1) 경영 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경영 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경영 목표에 따라 경영 전략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프로세스 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한다. 세부 평가 기준은 ① 경영 목표의 적정성, ② 경영 전략의 적정성 및 프로세스 개선 노력 정도, ③ 경영전략 대비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경영 목표의 적정성

2018년도 EBS는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및 플랫폼 서비스,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공사 설립 목적에서 규정한 사명과 경영 목표 간 상호 연계성을 높여 구성원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전년 대비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함으로 Digital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모바일·인터넷 플랫폼과 종합편성채널의 약진 속에 지상파 광고시장 축소가 지속되고, 학령 인구 감소와 수능연계 약화에 따른 출판사업 부진, 그리고 시장경쟁 심화에 따른 콘텐츠사업수익의 지속적 감소를 감안한 방향 설정에 따른 것이며 EBS 프로그램 혁신, 경영 효율성 제고, 신사업 개발을 통한 재정위기 극복을 목표설정의 배경으로 삼았다.

EBS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EBS가 운영하는 채널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 각 채널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예로서 EBS 2TV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STEAM, 코딩,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창의·융

합 콘텐츠 중심 채널로 성격을 명확히 하고 방송 실시를 준비하였으며, FM라디오는 인문교양 채널로 민주시민의 지식교양을 높일 다양한 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자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사용자와 소통하는 ‘크로스미디어(Multi-platform)’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와 소통하는 등 세대와 공감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였다.

셋째, ‘혁신’을 목표로 조직(경영혁신팀 가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관성과 관행 속에 유지되고 있는 경영·제작·사업에서의 각종 비효율을 점검·분석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ERP시스템 도입에 업무역량을 투입하고 사업 조직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3대 목표 달성을 위해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EBS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주기 맞춤형 콘텐츠’, ‘O2O 현장밀착형 교육 서비스’ 등 10대 약속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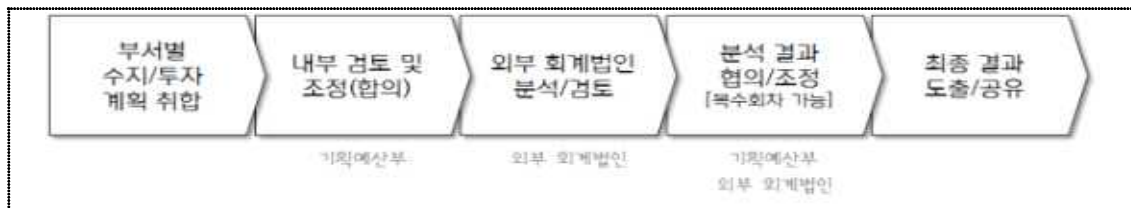
② 경영 전략 수립의 적정성 및 프로세스 개선 노력 정도

EBS는 한국교육공사법 제1조인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및 플랫폼 서비스’,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의 경영 목표를 수립하였다.

경영 전략의 수립 절차는 EBS 내규인 ‘직제규정시행세칙’ 등에 따라 정책기획본부 정책기획부가 주관부서이나 작금의 경영 상황을 감안, ‘경영혁신팀’이 정책기획부와 함께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매년 수립하는 단기 전략인 ‘방송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로서 확정한다.

③ 경영 전략 대비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의 적정성

중장기 재무계획은 (1) 부서별, 사업별 중장기 수지계획, 투자계획 분석 및 적정성 검토, (2) 중장기 자금수지 전망에 따른 차입 운영계획 검토, (3) 중장기 재정 전망에 따른 추정재무제표 분석 등의 내용으로 추진했으며, 추진 절차는 부서별 기초자료를 취합한 후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 위탁하여 분석과 검토 용역을 진행하였다.



<그림 1-1>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추진 절차

2) 책임 및 윤리경영의 제고 노력

가) 평가 기준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및 감사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①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정도, ② 감사 활동의 활성화 정도, ③ 직원의 청렴도 제고 노력 정도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 사항

①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정도

이사회는 월 1회 정례 회의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이사회,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다. 안건은 사전에 공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방청 희망자에게 심의 절차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회의 내용에 대한 의사록은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2018년 이사회 및 간담회는 총 21회 개최하여 5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운영계획, 회계 결산 등 총 18건을 이사회 규정에 따라 의결하고 EBS 위기관리 매뉴얼, ERP 구축사업 추진 경과, 에듀테크 기반 EBSedu 설립 계획(안) 등 29건의 보고안건을 심의하였으며, 공사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워크숍을 9회 개최하였다.

<표 1-2> 전년도 대비 이사회 운영 현황

	구 분	개최횟수	심의·의결 안건수			
			총건수	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
2017	정기이사회	12	34	13	21	-
	임시이사회	2	10	9	1	-
	간담회/워크숍	7	15	-	-	15
	계	21	59	22	22	15
2018	정기이사회	12	41	12	29	-
	임시이사회	2	6	6	-	-
	간담회/워크숍	9	10			10
	계	23	57	18	29	10

※ 심의·의결 안건수: 워크숍 제외

EBS 경영평가의 수용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고 실행성을 높이기 위한 일부 지표 중심의 개선·보완을 위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을 통해 전년도 경영평가 편람의 개정작업을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항목을 방송부문 지표로 이동시키고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을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항목에 명기시키도록 보완하는 등 경영, 방송, 교육, 기술부문에 각각 7, 5, 1, 1개 항목을 개정하였다.

EBS 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법 제13조에 따라 전원 비상임 이사 9인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의장과 집행부의 분리 운영으로 이사회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다. 이사회 의사결정 방식은 동법 및 정관에 의해 의사결정 방법, 절차 및 회의 공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 회의 운영 관련 심의안건과 경영 현안에 대해서는 이사진 간 사전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기본으로 하며, 쟁점안건에 대해서도 발의부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사회는 방송, 언론, 교육 및 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하여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교육전문 공영방송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EBS 주요사업에 대한 의사결정 기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② 감사활동의 활성화 정도

감사부서는 의결기관인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8년도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등을 실시하였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하여 법·규정 등 객관적인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한 바 있다.

<표 1-3> 2018년도 감사 건수 현황

구분	일상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	외부감사
건수	1,820	1	3	1

2018년 감사원으로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출판유통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 수감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사항별로 기한내 이행을 완료하였다.

③ 직원의 청렴도 제고 노력 정도

2018년 EBS는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을 실시하였는데, '청렴업무 수행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및 청렴의지 환기를 위한 간담회'를 5월부터 2개월간 총 11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찾아가는 청렴콘서트'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렴 및 윤리 교육'을 총 8건 시행하였다. 그 밖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 21회의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부채신고창구 운영, 청렴인식 캠페인 영상물 상영, 게시판 공지, 청렴포스터 부착 등 다각적 홍보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임원 중심의 청렴반부패 T/F를 신설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신설함으로 청렴도 향상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8.24점으로 전년대비 1등급 상승한 4등급을 기록하였다.



<그림 1-2> 청렴도 점수 추이

		(단위: 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GAP ('18-'17)
종합 청렴도	한국교육방송공사	8.00	7.45	8.24	+0.79
	파유형	8.15	8.34	8.48	+0.14
	공직유관단체	8.17	8.29	8.40	+0.11
	전체기관	7.85	7.94	8.12	+0.18

<표 1-4>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및 제언

2018년 EBS는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약식 추정 모델을 개발·활용하여 사업손실을 만회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내부경쟁력을 점검하려는 노력의 의지로 보인다.

EBS 채널의 정체성을 재정립함으로 채널별 운영 방향성을 제시한 시도와 '지속성장 기반 구축'을 3대 경영목표에 포함시킨 부분은 성과로 평가한다.

특히, 1인 미디어, OTT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등에 따른 환경변화를 감안한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를 경영 목표로 설정한 부분은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변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경영계획 및 운용 규정'을 추진함으로 프로세스 제도화를 추진한 사항은 경영 전략 수립 체계화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한다. 다만, 노사갈등에 따라 프로세스 제도화가 시행되지 못하는 등 경영혁신 계획 수립의 제한적 성과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년도 지적받았던 '중·장기 재무계획 반영 건'은 과거 실적과 환경변화까지 고려할 수 있는 재정전망 추정 모델의 개발과 수시 공유체제 확립으로 일부 진척을 보였으나, 경영혁신계획의 미수립에 따라 중·장기 재무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채 단기계획 반영에 그쳤다. 향후 해당 관리 규정의 신설 그리고 구체화된 중·장기 재무계획을 구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8년 이사회 및 간담회 심의 건수가 총 2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소통 활성화로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편람 개정을 통해 전반적 경영평가의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은 높게 평가한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승한 성과는 인정되나, 내부 청렴도 평가결과 부패행위 적발·처벌의 적절성 개선이 요구되는 등 공사가 신뢰받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경주해야 한다.

나. 조직 및 인사관리

평가 내용

1)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가) 평가 기준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변화관리 노력 정도, 인력 운영의 적정성, 직원만족도 정도 및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① 조직운영 관련 문제해결 노력 정도, ② 인력 운영의 적정성, ③ 조직 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 정도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수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조직 운영 관련 문제해결 노력 정도

2018년 EBS는 외부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 전문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시조직 신설에 따른 인력 수요, 공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 신설된 ‘경영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을 해체하였다.

<표 1-5> 한시조직 운영 현황

	조직명	업무 내용	신설일자
1	소프트웨어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미래인재육성 과업 수행 • 생애주기별 교육콘텐츠 기획제작 및 홍보 • 학교교육본부 내 설치 	2018.02.06
2	남북교육교류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화해분위기 고조에 따른 관련 교육콘텐츠 확보 • 남북교류 활성화 관련 대정부 사업 추진 • 부사장 직속 설치 	2018.06.15
3	사회책임경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가치 제고 차원의 CSV 사업 확대운영 •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기획·제작관리 기능 • 사장 직속 설치 	2018.07.13
4	ERP구축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ERP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화 목적 • BPR 업무 외 내부 교육 실시 등 • 정책기획본부 내 설치 	2018.07.19
5	정보보호관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안 관련 정책 강화에 따른 전담조직의 필요성 • 관련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공격대응 업무 외 • 부사장 직속 설치 	2018.10.01
6	수신료정상화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공적재원 확보 • 공영방송의 필요성·신뢰성 역할 등 관련 제도에 대응 • 사장 직속 설치 	2018.10.01

② 인력 운영의 적정성

EBS는 일반직의 채용 기간이 길고 비탄력적임을 고려하여 한시전문조직을 신설하고 해당 인력을 겸직 발령하여 인건비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정원외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필요부서에 적절히 정원을 배정하는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노력한 바 있다.

<표 1-6> 정원외인력 배정 현황('18.12.31 기준)

번호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	기획예산부	예산 전문 인력(계약직 3등급) 1명 배정	
2	소프트웨어 교육팀	콘텐츠기획 인력(계약직 2등급) 1명, 사업관리 인력(계약직 1등급) 1명 배정 업무 지원 인력(파견직 제작보조) 1명 배정	한시 조직 인력
3	편성운영부	방송운영 보조 인력(계약직 1등급) 1명 배정	
4	홍보부	프로그램 홍보 인력(계약직 1등급) 1명 배정	
5	제작기술부	라디오 송출 및 시스템 관리 인력 1명 배정	퇴직자 용역 배정

주) 기 배정 정원 21명 연장 운영(계약직 20, 파견직 1), 파견직 5명 순감

EBS는 정원외인력 일부를 축소(계약직 5명, 파견직 11명)하고 경기북부병무지청의 지원을 받아 총 7명의 사회복지요원을 배정받아 2018년 8월 조직법무부, 대외협력부 등 총 6개 부서에 신규 배치하였다. 이러한 대체 노력을 통해 기존의 파견직 대비 월 188만 원씩 5개월 치 인건비 약 4,136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여 내부인력 고령화 및 관련 비용 부담에 대처하였다.

③ 조직 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 정도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수준

조직 운영에 대한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직원만족도 수치는 71.1%로 2017년 77.6% 대비 6.5%p 하락하였으며 조사 참여도 개선 수치는 84.4%를 기록하였다.

- 직원만족도 산출식(%):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40\text{점}$$

- 직원만족도 조사 참여도 개선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실적의 평균} \times 60\%) }{\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직원들의 만족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 조사기관(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19년 1월 30일부터 약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전 직원의 76.5%가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6%p 증가한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전반적 만족도 점수(Employee Satisfaction Index)는 52.8점으로 전년 대비 9.5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총 16개의 평가 부분 중에 '부서 내 동료'(66.3점), '부서 내 상급자'(65.3점), '업무'(64.4점)에서 비교적 만족하고, '인사/승진평가'(37.3점), '경영진 리더십'(37.5점), '교육훈련제도'(38.3점) 부문에서 가장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의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윤리경영시스템'(54.6점), '윤리규범 실천'(59.4점), '윤리의식'(56.8점) 등 3개 평가 요소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며 52.8점을 기록했으며, 조직진단 평가점수 역시 전년 대비 9.2점 하락한 66.8점을 기록하였다.



<그림 1-3> 16개 평가요소 만족도 조사 결과

2) 인사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채용, 평가, 보상 등 관련 제도와 관리의 합리성 및 노력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채용,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제도의 적정성, ② 임금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③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 노력 정도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나) 평가 사항

① 채용,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제도의 적정성

EBS는 전년에 도입한 블라인드 방식의 전형 과정을 거쳐서 2018년 총 4명의 정규직과 총 26명의 계약직을 수시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하였다.

정규직은 '서류-필기-실무역량평가-최종면접'의 총 4단계 전형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계약직의 경우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전형으로 진행한다.

EBS는 '중장기 인력 채용 계획' 및 '2018 퇴직 인원'을 바탕으로 필요 채용인원을 산정하였으며, 인력 수요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분야별 필요인력 분배를 추진하였다. 재정 상황 악화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채용 시기는 2019년 하반기로 순연하였으며 규모는 11명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채용과정에서 분야별 직무능력 위주로 평가가 진행되도록 직무별 과제 출제 및 평가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표 1-7>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형별 도입제도

구분	내용
자기소개서	· 경력기술서 추가로 경력사항 평가 강화
필기시험	· 분야별 현업 전문가 출제 - 현장 중심의 필요 지식 및 능력 검증
실무역량평가	· 직무상황과 유사한 실행과제 제시 · 기획안 작성, PT, 스토리보드 작성, 드로잉 등 평가방법 직무별 필요역량을 고려하여 상이한 과제 및 평가기준 마련
최종임원면접	· 현업 근무 중인 실무자를 평가자에 포함하여 전문성 검증

업적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고려하여 다면평가(하향, 상향, 동료)를 전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계약직까지 포함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했다. 하향평가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60:20:20의 비율로 평가하며 '근무실적' 평가는 핵심성과지표(KPI)에 의해 상대평가방식을 채택·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경영방침 및 지표에 따른 부서별 업무추진계획을 반영하여 수정·평가함으로써 조직전략목표와 일치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동료

평가는 동일 부서에 2개월 이상 근무한 일반직 차장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상호 평가하며, 상향평가는 부장, 부서장 등 일반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계약직원을 포함한 전체 소속 직원이 평가하는 방식이다. 2018년도 EBS는 평가를 위해 2회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성과지표 마련을 통한 조직전략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서별 소속부장과 직원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부별 KPI를 설정(추출 및 수정관리)하도록 함으로 담당업무에 따른 평가지표의 선별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가 절차는 절대 평가방식이 적용되며, 부서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산식(기준점수, 표준편차, 분산도 적용)을 활용하는 한편 주관적 평가에 의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장과 부서장이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고 직렬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평가 오류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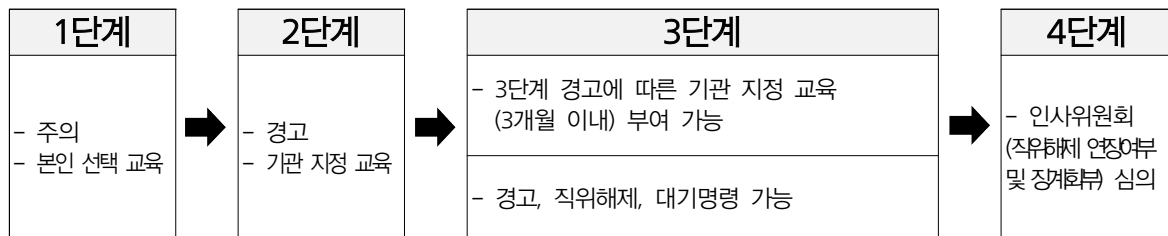
<표 1-8> 평가단계별 반영 비율

(단위: 점)

구 분		부장	부서장	부사장	조정위원회	사장	동료평가	합계
일반직	차장이하	54	36	-	10	-	-	100
	부장	-	48	32	-	20	-	100
	부서장	-	-	60	-	40	-	100
계약직원		50	30	-	10	-	10	100

※ 상향평가 결과는 부장 이상 승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

EBS는 매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하위 5% 중 60점 미만인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개선대상자에 대한 관리자 면담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업무조정 조치를 통한 개인과 조직의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림 1-4> 단계별 관리절차

② 임금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부장 및 부서장 승진은 승진후보자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 및 상향평가 결과를 보직 임용에 활용하고 있으며, 차장 승진의 경우 평균점수 78점 미만인 자는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한다.

최근 1년 및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를 공개한 후 심사를 거쳐 '교육연수 및 포상'의 비금전적 보상을 하고 있으며, 자비 연수를 위한 휴직자의 경우 업적평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최근 3년 이내의 하향평가 점수가 76점 미만인 자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③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노력 정도

2018년 직원 1인당 연수 시간은 62.9시간으로 전년 대비 22.4시간(26.3%) 감소했으며 1인당 연수비 역시 약 46%만큼 축소 집행되었다.

<표 1-9> 2018 교육훈련 실적					(단위: 시간, 천 원)
구분	2017	2018	증감	증감률	비고
직원 1인당 연수 시간	85.3	62.9	-22.4	-26.3%	
직원 1인당 연수비	681.5	368.6	-312.9	-45.9%	
연수비 집행률 (배정 예산대비 집행 실적)	91.0%	82.9%	-8.1%p	-8.9%	

2018년 EBS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사내 성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내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다. 법정 의무교육과정에 '장애인 인식개선'을 추가·실시했으며 '폭력 예방', '부패방지' 등 총 3개 의무과정의 평균이수율 96.2%를 기록했다. EBS는 핵심 인재 발굴/육성을 통해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자 I&A(Innovation and Action) 연수를 신설하여 5명의 인재를 대상으로 선진기업 방문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표 1-10> 연도별 교육훈련비 비중								(단위: 백만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매출액(a)	253,162	256,250	271,425	276,804	269,958	261,336	251,315	249,665
교육훈련비(b)	783	833	491	457	503	372	448	293
비중(b/a)	0.31%	0.33%	0.18%	0.17%	0.19%	0.14%	0.18%	0.12%

3) 노사 관리의 안정화 정도

가) 평가 기준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노사 간 충분한 의견교류 및 공유를 이룰 수 있도록 의사소통 채널의 공식화 수준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사협력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① 노사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도, ②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사협력 정도가 평가항목이다.

나) 평가 사항

① 노사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도

EBS는 노사 간 상시적 정보교환 체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유지하고 있다. 제작 및 사업부서장 회의를 공지하고 직원 채용 및 각종 위원회 안건 내용을 공유하고 경영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경영 관련 정보공유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내 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원의 근로환경개선과 고충처리 관련 노사 실무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노사 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업무협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도 EBS는 노사 간 의사소통을 위해 정기적 채널을 가동했으며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한 정보 교환과 노사 간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정보 공유는 인력 운영 계획, 분기별 사업계획, 외부감사 지적사항 관련 조치사항, ERP 구축 추진사항, 예산실적 및 전망, 공공 프로젝트 추진계획 및 실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사업별 전년 대비 실적 현황 등을 포함하며 임직원 건강검진 실시 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공유한 바 있다.

노사 간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은 교섭위원 전체회의(2018년 12월 11일)와 5회에 걸친 실무소위원회 회의(2018년 12월 14일~24일)를 통해 진행되었다.

②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사협력 정도

2018년 노사 간 협력사례 중 EBS 경영합리화로의 기여도가 높은 내용으로는 편성·보도·제작 책임자 임명 및 평가와 관련된 회의에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을 받

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사례가 있다. 특히 장시간 제작 지양, 유연 근무제도 도입, 고용환경 개선, 불필요한 업무 지양, 인력 충원, 제작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제작환경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공정 경쟁에 반하는 차별규제를 해소하고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등에 관한 정책요구서를 전달·실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 노력도록 합의한 실적이 있다.

EBS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8 예산 및 재정 안정화 방안’, ‘2017 회계연도 결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결과’, ‘경영/예산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노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조 차원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특히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조가 찾아가는 소통카페를 운영하여 각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여 노조의 제안과 부서의 현안 등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유연 근무 강요’, ‘시간외 근무 신청 방해 및 회유’, ‘공짜노동’ 또는 ‘부당노동 행위’ 의심 사안 등의 제보를 받을 목적으로 『위법·탈법 사례 제보 센터』를 운영하였다.

4) 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가) 평가 기준

자체 미래교육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EBS 미래교육연구소의 운영 현황을 전문성 확보 전략 및 활용 성과 중심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자체 미래교육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2018년 EBS 미래교육연구소는 교육 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교육·미디어 분야 동향 분석·공지, 교육방송연구대회 개최, EBS 시범학교 운영 등 2017년에 시행했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방송 학술지 ‘미디어와 교육’을 두 차례 발간하였다.

<표 1-11> 미디어와 교육 발간 내용

	내 용	저자/참여
제 8 권 1 호 6 월	DIY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환경으로서의 메이커 교육	강인애(경희대학교)
	실감미디어와 교육콘텐츠의 교차로 탐색	송진(한국콘텐츠진흥원)
	기업가정신 교육과 교육방송의 역할	김정환(네이버)
	EBS 교육뉴스콘텐츠 확산을 위한 플랫폼전략의 방향과 방안	김위근(한국언론진흥재단)
	블록체인이 미디어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조망	주용완(한국인터넷진흥원)
	MCN 2.0시대,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미래 교육 방안과 전략	유진희(한국엠씨엔협회)
제 8 권 2 호 12 월	지상파 방송의 미래, 그리고 교육방송	주정민(전남대학교)
	미래 교육과 교육방송	이영준(한국교원대학교)
	한류콘텐츠와 빅데이터 분석	정정주(경북대학교)
	진실이 가려진 시대	김선호(한국언론진흥재단)
	교육방송의 큐레이션 서비스 방향성에 대한 탐색	김형지(서울대학교)
	EBS를 활용한 학교현장 교육에 대하여	김현우(동래초등학교)
	EBS 콘텐츠로 혁신적 방식의 수업하기	김영곤(상명여자중학교)
	2+ EBS콘텐츠 활용을 통한 유아의 창의·인성능력 신장	신혜영(다솔유치원)

평가 결과 및 제언

조직 운영을 위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 참여율은 2016년부터 점진적 개선을 보인 데 반해 만족도 점수는 전년 수치인 62.3점을 하회하는 59.4점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사제도, 리더십, 경영혁신활동, 윤리의식 등과 관련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만족도 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가·보상 관련 제도의 선진화는 혁신에 필수 선행요건임을 고려하여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영지원센터는 인사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성과 보상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내부 전문성을 개발하고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와 성과 보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사와 직원 간 공식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여 불신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사고과에 따른 구성원의 업적평가제도는 KPI에 의한 기 검증된 방법을 통한 상대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조직전략과의 일치성, 업적평가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부분이나 우수인력 확보 및 육성을 위해서는 성과급 차등 지급을 확대·실시하는 방향으로 평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직무급 도입 검토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보상제도 운용이 필요하다. 형평성 중심의 순환보직제도는 지양하고 인사 자료 관리를 체계화하여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성을 지향하는 기관 특성상 직종별·직급별·분야별 성과측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으나 직무 중심형 성과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개인평가 결과가 조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BS는 40세 이상 구성원이 72.8%(428명)를 차지하고 2023년부터 연평균 29명씩 퇴직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중·장기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적극적인 노사 간 의사소통을 시도하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제작환경을 개선하고 공정 경쟁에 반하는 차별규제를 해소하고자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시도, 특히 임금동결안을 확정 지은 부분은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부분 등, 앞으로 고용안정과 조직의 생산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는 경영진의 노력이 필요하다.

신설된 사회책임경영실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CSR 시대의 비 전략적 자선 행위를 지양하고, 기업이 가진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해 공적 목표와 이윤 획득을 달성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의 과감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CSV 전략 수립을 비롯하여 인사제도개편 등 조직혁신은 최고경영층의 비전 제시와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최고경영자의 관심과 실질적 관여를 바탕으로 공사 내부혁신의 방향설정과 목표들을 성취시켜나가야 한다.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평가 내용

1)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가) 평가 기준

이익 구조 및 재무 구조의 개선 노력과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이익 구조의 개선 성과, ② 재무 구조의 개선 성과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 사항

① 이익 구조의 개선 성과

- 산정지수: EBITDA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2018년 EBS의 현금창출능력 관련 지수는 306.15%이며 이는 전년(-1439.7%) 대비 1745.8% 증가했다.

<표 1-12> 연도별 EBITDA 현황

(단위: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평균	2018년
사업이익 (A)	2,347,351,410	-1,949,666,997	-34,998,562,818	-11,533,626,135	-23,085,008,984
감가상각비 (B)	4,403,450,409	3,909,654,310	6,951,805,515	5,088,303,411	10,338,292,439
EBITDA (A+B)	6,750,803,834	1,959,989,329	-28,046,757,303	-6,445,322,724	-12,746,716,545

② 재무 구조의 개선 성과

- 산정지수: 부채 비율 및 유동 부채, 자산
- 산출식(%)

$$\left(\frac{1 - \frac{\text{부채(당해년도)}}{\text{자산(당해년도)}}}{1 - \frac{\text{부채(전년도)}}{\text{자산(전년도)}}} \right) \times 50 + \left(\frac{\frac{\text{유동 부채(당해년도)}}{\text{유동 자산(당해년도)}}}{\frac{\text{유동 부채(전년도)}}{\text{유동 자산(전년도)}}} \right) \times 50$$

2018년 중 유동자산 감소와 유동부채 증가에 따른 EBS의 재무구조 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108.82%이다.

<표 1-13> 연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원)

구 분	자산	유동자산	부채	유동부채
2017년	262,286,571,914	70,941,946,739	76,973,432,471	41,503,803,488
2018년	246,166,913,927	60,401,350,020	84,002,372,310	43,960,746,090

2)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관리회계와 위험관리 시스템 연계 현황의 분석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고려한 수익관리체계 정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율로 판매관리비의 적정성과 판매관리비 구성 항목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익 구조 창출을 위해 공적재원 확대 노력과 성과 및 신규 수익 항목 개발을 통한 자체 사업수익의 확대 노력의 정도와 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적정성, ② 재무관리 회계와 위험관리 시스템의 연계정도, ③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양성 노력의 적정성, ④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의 정도, ⑤ 판매관리비 구성 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⑥ 공적 재원 확대 성과, ⑦ 공적 재원 확대 노력 정도, ⑧ 자체 사업 수익 확대 성과 및 노력 정도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 사항

①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적정성

2018년 EBS의 재무성과는 당좌자산이 감소하고 단기차입금이 발생함에 따라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 안정성 지표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현금비율 하락은 현금성 자산 감소에 기인했으며, 당기 발생한 단기차입금 140억 원은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구조에 다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1-14> 2018 주요 재무비율 분석 결과

(단위: %)

구 분	2017년	2018년
유동비율	170.9	137.4
부채비율	41.5	51.8
차입금의존도	-	5.7
자기자본비율	70.7	65.9
현금비율	26.1	6.9
매출액영업이익률	-13.9	-9.3
매출액순이익률	6.8	-8.5
총자산순이익률	6.7	-8.3
자기자본순이익률	9.2	-13.1
이자보상비율	-	-75288.9
매출액증가율	-3.8	-0.7
총자산증가율	6.4	-6.2
유형자산증가율	5.0	-2.9
자기자본증가율	15.5	-12.5
유동자산증가율	10.4	-14.9

전년 대비 사업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등 수익성에 편성된 지표 대부분이 악화하였다. 전반적인 성장 관련 지표가 악화된 가운데 매출액 하락세는 전년(-3.83%) 대비 -0.66%로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재무제표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통해 기업회계기준 준수 여부와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연 2회에 걸쳐 결산 및 회계감사 수검을 진행한 바 있으며 결산 재무제표 및 결산서의 대외 검증을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 및 국회 승인을 거친 후 재무제표를 공표하는 절차를 전년과 동일하게 준수하고 있다.

② 재무관리 회계와 위험관리 시스템의 연계정도

EBS는 재무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7년 구축한 통합자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 신속·정확한 출납업무와 자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추가와 고도화로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동 시스템을 통한 출납업무는 2017년에 이어 무사고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EBS는 ERP 도입에 따른 전자문서 사무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회계 전자증빙 제도를 추진하고 법인카드 및 매출전자(세금)계산서의 우선 도입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계, 세무, 자금 부문 실무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ERP시스템의 구현을 추진하였다.

사업손실 등을 고려한 장·단기 재무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KDB산업은행과 차입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전에 차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 기관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활한 자금의 관리 및 차입규모를 추정함에 있어 새로이 구축된 ERP시스템을 활용하여 현금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적시 자금 조달 및 차입·상환에 기여하는 한편 회계전표별 대금 지출일자를 지정하여 자금 이체를 관리하고 있다.

③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양성 노력의 적정성

2018년 EBS는 전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회계·세무 교육을 하였으며 전자증빙 등 현업으로부터의 질의 사항에 답변하고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아울러 재무회계부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표 1-15> 재무관리 전문가 현황

담당업무	인원	주요경력	특기사항
자 금	1명	1991. 1. EBS 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자금운영 경력 10년 이상
회계 및 세무	1명	2006. 1. EBS 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회계사(KICPA)

<표 1-16> 회계, 세무직무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담당업무	인원	집행 내역	예산집행액
회계, 세무 및 관리업무	8명	재무, 회계, 세무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연간)	994,875 원
회계, 세무 전사 실무자 교육	10명	각 부서별 실무진 대상 오프라인 질의 응답 간담회 실시(하반기)	284,037 원

④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의 정도

- 산정지수: 매출액 중 판매관리비 비율
- 산출식(%) *목표부여 평가 하향지표, 판매관리비에서 감가상각비는 제외함.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4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9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40\%)} \right) \times 100$$

2018년 EBS의 매출액은 2017년 251,315백만 원 대비 249,665백만 원으로 1,650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 판매관리비는 전년 38,003백만 원 대비 1,420백만 원 감소한 36,583백만 원을 기록했다. 업무추진비를 40% 가까이 절감하는 등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은 전년 대비 0.5%P 하락한 13.5%를 나타냈으며, 관련 비율의 정도는 73.68%로 전년(88.64%) 대비 14.96%P 만큼 감소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표 1-17> 연도별 판매·일반관리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3개년 평균	2018년
판매·일반관리비	30,673	30,174	38,003	32,950	36,583
감가상각비	607	558	2,926	1,364	2,836
차감액	30,066	29,615	35,077	31,586	33,747

⑤ 판매관리비 구성 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2018년 한 해 동안의 비용 절감 노력의 결과로 판매관리비의 항목 전반에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고정비 성격의 인건비에 대한 추가 절감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1-18> 판매관리비 구성 내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4결산	2015결산	2016결산	2017결산	2018결산	전년대비 증감률
판매비	8,486	8,692	7,862	7,811	7,286	-6.72%
인건비성비용	1,089	1,341	1,240	1,166	1,345	15.35%
세금과공과	1,193	650	585	571	499	-12.61%
판매수수료	5,756	5,809	5,492	5,318	4,866	-8.50%
기타	448	892	544	756	576	-23.81%
일반관리비	21,842	21,981	22,503	30,190	29,297	-2.96%
인건비성비용	11,262	10,691	11,997	10,847	9,938	-8.38%
세금과공과	1,847	2,239	1,654	1,275	2,627	106.04%
지급수수료	3,147	3,652	3,710	6,826	6,243	-8.54%
감가상각비	636	607	434	2,926	2,836	-3.08%
광고선전비	567	503	470	510	438	-14.12%
교육훈련비	601	608	478	528	289	-45.27%
법정부담금	615	627	641	681	765	12.33%
업무추진비	682	679	776	688	415	-39.68%
임차료	654	877	920	572	195	-65.91%
기타	1,833	1,497	1,423	5,337	5,551	4.01%
판관비 합계	30,328	30,673	30,365	38,002	36,583	-3.73%

주, 인건비성 비용: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특별수당 등 포함

※ 2018년도 결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⑥ 공적 자원 확대 성과

- 산정지수: 공적 자원 금액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EBS는 공적 자원 확대 노력의 성과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 287억 원, 방송 인프라 개선 28억 원 등 전년 대비 4,247백만 원 증가한 재원을 확보하였다. 공적자원 확대 노력과 성과에 관한 산정지수는 112.8%로 전년(100.6%) 대비 상향되었다.

<표 1-19> 연도별 공적 자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전 3년 평균
수신료수익	17,501	17,712	18,076	18,451	17,763
정부기금수익	25,475	27,322	30,171	31,354	27,656
국고보조금수익	23,610	22,931	23,760	26,448	23,434
합계	66,586	67,965	72,007	76,254	68,853

※ 손익계산서상 금액 기준

⑦ 공적 자원 확대 노력 정도

EBS의 공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성과로 2018년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으로 282억 원, 방송 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으로 3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비(정진기금) 신규 수주를 통해 18억 원, 소프트웨어 교육 교실 수업 지원 사업비(특별교부금)를 6.4억 원 증액하였다.

다만, 안정적인 공적자원 지속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보조금 지원액 증액을 위한 노력, SW교육 등 주요 정부 사업에 대한 보조금 추가 확보를 위한 협업, 2TV 광고 법제화와 운영 자원 확보를 위하여 방통기금 등 공적자원 확충 노력 등이 절실하다.

⑧ 자체 사업 수익 확대 성과 및 노력 정도

- 산정지수: 자체 사업수익 금액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 \right) \times 100$$

2018년 EBS는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비 자원 조달을 위해 제작협찬 수입의 공격적인 확대 편성을 추진했으며, 유아어린이사업팀 신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외에도 광양 어린이 테마파크, 강진 고려청자 박물관 내 번개타운 구축 등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해 투자예산을 편성하였다.

자체 사업 수익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평균 실적인 211,7백만 원에 못 미친 175,5백만 원에 그쳤다. 자체 사업 수익 확대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산정 지수는 전년(94%) 대비 50.8%를 기록했으며 이는 출판사업 외 자체 사업 수익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가 구조 개선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고민과 함께 한계사업 정리 문제 관련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표 1-20> 연도별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결산	2016결산	2017결산	2018결산	직전3년 평균	결과
자체수입	207,287	196,330	231,769	175,526	211,795	50.8%
방송광고	40,862	37,010	35,475	31,264		
제작협찬	5,383	5,593	4,809	4,470		
프로그램공급	4,801	4,712	4,899	4,543		
출판사업	93,610	88,163	80,604	81,106		
- 연계교재	48,405	46,546	42,296	41,946		
- 연계교재 외	45,205	41,617	38,308	39,160		
문화콘텐츠부대사업	8,353	8,932	9,985	9,416		
콘텐츠사업	38,481	34,940	29,538	29,175		
기타부대수입	11,883	14,020	14,298	13,437		
사업외수입	3,915	2,959	52,461	2,115		

3)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전체 예산 구조의 건전성과 함께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정당성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합리성을 평가하고 관련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예산 구조의 건전성 유지 노력 정도, ②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 ③ 예산 절감 노력 정도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 사항

① 예산 구조의 건전성 유지 노력 정도

2018년 EBS의 공적재원은 특별교부금 증가 및 정부 보조 사업(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의 확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수입 확보 부진까지 반영되어 공적재원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30.3%를 기록하였다.

<표 1-21> 재원구성 비교

(단위: 억 원)

구분	2017수입	2018수입	전년 대비	
			증감	증감률
총 수 입(A)	3,038	2,518	-520	-17.1%
공적재원(B)	720	763	42	5.8%
수신료	181	184	3	1.7%
방통발전기금	302	314	12	4.0%
특별교부금	237	264	27	11.4%
자체수입	2,318	1,755	-562	-24.3%
공적재원비율(B/A)	23.7%	30.3%	6.6%	27.7%

부대 사업의 총수입은 감소하였으나 비용 절감 및 사업 재구조화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수익성이 개선되었다.

<표 1-22> 부대사업 수입-비용 비교

(단위: 억 원)

구분	2017			2018			전년대비 손익증감
	수입	비용	손익 (손익률)	수입	비용	손익 (손익률)	
출판사업	803	466	337 (42%)	811	433	378 (47%)	41 (5%)
문화콘텐츠 부대사업	100	5	95 (95%)	94	8	86 (91%)	-9 (-4%)
콘텐츠사업	295	247	48 (16%)	292	208	84 (29%)	36 (12%)
부대사업 기타	143	107	36 (25%)	135	84	51 (38%)	15 (13%)
계	1,341	825	516 (38%)	1,332	733	599 (45%)	83 (6%)

② 예산 편성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

EBS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 일정을 수립하고 부서별 요구사항 등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정여건, 예산 편성 방향, 예산요구 일반 및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하면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실무진 대상 업무협의를 통해 현업 요구를 수렴하고, 기존 예산과목 및 회계 계정 재조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확정된다.

2018년 EBS는 2018년도 예산 편성 기준을 수립(2017.12)하는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합리적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등 지침을 강화하여 전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했다. 매출목표 현실화, 일반경비 전사적 감액 등을 주로 하는 예산집행지침을 수립(2018.01)함으로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자 노력했다.

기관 운영목표 및 부서별 운영목표, 중점 추진사업, 과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요구예산을 검토하였다.

③ 예산 절감 노력 정도

EBS는 자체 사업 매출 감소를 극복하고자 비상경영회의를 연중 운영하는 등 예산 절감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부가 집계한 월 단위 예산실적과 2018년 연간 손익 추정 데이터를 전사적으로 공유했으며, 부서별 비용 157억원 절감안을 수립하여 수시로 이행점검을 하였다.

2018년 EBS는 수입 전망에 따라 비용 절감 정책을 시행했으며 수입 및 비용 실적은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비용예산 집행률은 수입목표 달성률과 비슷한 수준인 86%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콘텐츠 제작비 절감에 비해 노사합의가 필요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한 예산 절감 방안의 실천이 미흡했다. 자체 사업 수입예산의 경우 향후 달성 여부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비용예산 편성 시 수입예산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부서별·사업별 예산의 수익성 산출기준 확립 및 수익성에 따른 편성 가능 여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중기적으로는 적자 소요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 등 전사적 구성원의 위기의식과 적자구조 극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표 1-23> 연도별 비용예산 집행률

(단위: 억 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	결산	예산대비	예산	결산	예산대비	예산	결산	예산대비	예산	결산	예산대비
수입	3,001	2,739	91.3%	2,871	2,654	92.4%	3,263	3,037	93.0%	2,991	2,518	84.1%
비용	3,001	2,693	89.7%	2,871	2,644	92.1%	3,047	2,868	94.1%	3,176	2,730	86.0%
이익	-	46		-	10		216	169		-185	-212	

* '15 ~ '18년 : 결산 손익계산서 기준

4) 경영정보 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경영정보의 제공을 통해 경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였는지, 또한 투명성 제고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① EBS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개선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EBS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개선 정도

- 산정지수: EBS 정보시스템의 이용자(경영자 및 관리자 포함) 만족도 수치
- 산출식(%): 실적평가 60점과 개선도 평가 40점으로 나누어 총합 100점으로 평가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40\text{점}$$

EBS 정보시스템 이용자 대상 만족도 평가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9년 2월 18일부터 약 4일간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한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중요도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개선 과업을 진행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고객 만족도 점수는 전년도 67.4점 대비 향상된 70.26점을 기록하였다.

2018년 EBS는 법인카드 전산 증빙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업무개선, 신한카드 수신 연계 확대, 일일임차 배차 시스템 개발, 통합 ERP 시스템 1차 오픈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작업 등의 시행으로 통합의사결정체계를 확보하고 경영체질 개선에 기여하였다. 다만,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BPR 이후 구성된 점, ERP구축단으로의 겸직 발령 및 내부 전담인력 부족에 따라 프로젝트 완료 이후 자체 운영을 위한 기술습득 기간 사용자 지원 방안이 필요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표 1-24> 고객 만족도 산출식 결과

연도	만족도점수(100점만점)	실적평가	개선도평가	평가점수
2016	54.2	32.52	34.86	67.38
2017	67.36	40.42	45.83	86.25
2018	70.26	42.16	39.79	81.95
증감(전년대비)	4.31%	4.31%	-13.17%	-4.98%

평가 결과 및 제언

2018년 EBS는 전기 대비 17.1% 감소한 251,780백만 원의 총수입과 21,156백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이는 등 수익성과 성장성 전반에 걸쳐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다만,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각각 12,144백만 원과 1,419백만 원 절감하는 등 강도 높은 전사적 비용감축 노력에 따라 매출총이익이 전년 대비 10,494백만 원 증가한 수익 개선은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한다.

684백만 원의 특별교부금(고교강의 및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과 1,800백만 원의 정진기금(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수주하는 등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수입이 확대되었으며, 총 81,106백만 원(전년 대비 802백만 원 증가)의 출판사업수익을 기록하는 등 자체 수입 확대 노력에도 성과가 있었다.

공적재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4,200백만 원 감소한 광고부문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온라인사업수입 부진에 따른 부대 사업수입 감소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조속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2017년에 이어 23,100백만 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한 만큼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사업별 원가 구조 분석을 통하여 수익성 개선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한계사업을 추가로 정리하는 등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 재구조화 액션플랜 마련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

ERP시스템을 통한 회계 전자증빙 제도 추진 등 재무 및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2018년이 ERP 가동이 본격화되는 만큼, 해당 사업의 성공적이고 안정적 개시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도별 공적 재원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직전 3년 평균인 68,8백만 원보다 높은 76,2백만 원을 기록한 바 있으며, 향후 EBS의 내부정비를 거쳐 공적 재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 예산편성 및 지침을 강화하여 전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고 '비상경영회의'를 연중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이끌어낸 점 등,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으나, 중·장기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한 점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평가 내용

1)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가) 평가 기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①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시스템 운영전략의 적정성, ②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활동의 적정성으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 사항

①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시스템 운영전략의 적정성

EBS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기자 설명회 포맷을 변경하고 각종 행사 다양화를 통한 언론 노출을 강화했으며 SNS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같은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내 소셜미디어 담당자 그룹을 운영하는 한편 시청자를 통한 자연스러운 홍보 확산 효과를 위한 스토리기자단을 운영했다. 기관 홍보는 전통적인 광고 매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EBS 사옥 공간 개선 사업을 통해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②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활동의 적정성

2018년 대외 홍보 활동 실적은 세 가지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언론 홍보 진행을 통해 각종 콘텐츠 홍보를 강화했으며 EIDF 기자 설명회, 영화 점박이2 언론배급 시사회 개최 등 유형별 맞춤 홍보를 진행했다. 부정 이슈 발생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부정 여론 조기 진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소통 채널 단일화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했다. 관련 실적은 다음과 같다.

○ 전체 보도량: 13,356건

○ 기획기사 보도량: 11,927건

○ 프로그램 제작발표회 및 기자 초청 설명회: 5건

(신년 기자 설명회, 편성 설명회, EIDF, 한반도의 공룡 점박이 시사회 등)

둘째로 소셜미디어 채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이 증가하는 등 SNS 채널로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한 해를 보냈다. 구체적인 채널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블로그

- 키워드 작업 및 시의성에 맞는 콘텐츠 발행을 통해 전년 대비 방문자수 증대
- 일평균 페이지뷰 9,530회
- 포스팅 수 687건 (일 평균 1.8건)

○ 포스트

- 연 누적 페이지뷰 2,540,537회
- 포스팅 수 256건
- 네이버 모바일 메인 채널 노출 수 48건 (월 평균 4건)

○ 페이스북

- 총 도달률 26,292,877회
- 100만 이상 노출을 기록한 콘텐츠: 총 4건
- 10만 이상 노출을 기록한 콘텐츠: 총 39건

○ 카카오톡: 주부 대상 정보성 콘텐츠 전달 및 이용자와의 소통

- EBS 프로그램과 연계한 큐레이션 콘텐츠 제작
- 정기 이벤트 진행으로 이용자와의 소통 강화

○ 유튜브

- 동영상 시청시간: 35,172,767분 (전년 대비 2,250,379분 증가)
- 조회수: 15,247,246회

○ 인스타그램

- 좋아요 1,000개 이상 콘텐츠: 총 25건

<표 1-25> 소셜미디어 채널별 상세 실적

운영 매체	기준	2018년 실적	※ 총 누적 실적 (2018.12.31.기준)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수	2,990,878	31,150,059
네이버 포스트	조회수	1,519,556	4,542,622
페이스북	도달률	26,292,877	112,430,478
카카오스토리	반응자수	127,476	723,776
유튜브	조회수	15,247,547	45,884,111
인스타그램	팔로워수	8,212	15,682

마지막으로 기관 홍보는 EBS 사옥의 공간 개선 사업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시도했다. 예로서 캐릭터 야외광장 조성, 로비 공간 디자인 개선을 통한 시청자 접근성 강화, 지하 임대공간 디자인 개선을 통한 정체성 강화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대중교통을 활용한 콘텐츠 및 기관 홍보

- 경기G버스: 1일 60회, 60초 동영상 홍보(매주 월, 목요일 편성)
 - 버스 13,300대에 설치(버스당 TV 2대 설치)
 - 활용프로그램: 세계테마기행, 올리버쌤 영어꿀팁 등
- 지하철 3호선 음성광고
 - ‘EBS 교육방송으로 가실 분은 주엽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 EBS FM 주파수 안내 표지판 총 67조 운영 및 관리

○ 대외 공사 홍보 인쇄물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격주 발행(총 24회), 매회 탄력적 인쇄
- 매회 약 19만여 명 회원에게 발송 (메일 수신 동의한 회원)
-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모바일 접근성 강화

○ EBS다이어리(8,750부) 제작 배포

○ 대표 캐릭터를 이용한 탁상용 달력(10,000부) 제작 배포

○ <세계테마기행> 홍보를 위한 벽걸이용 달력 제작(700부)

○ 2018년 연지 제작 및 홈페이지 탑재

○ EBS 기관 홍보 브로슈어 제작

○ EBS 브랜드 이미지 광고 4건 제작 (채널광고)

- 차량 랩핑을 통한 기관 홍보: 사내 차량(15대) 대상 3회 랩핑
- EBS 본사 건물 외벽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연 4회 제작
- 프로그램 및 기관행사 홍보 스팟 운영: 사옥 로비 및 엘리베이터
- 사진 제작(촬영): 247건, 사진 이미지 제공(보도자료, 사보 등): 656건

<표 1-26> 홍보부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 원)

구분	배정액	집행액	집행율
프로그램및기관홍보	427,778	413,591	96.68%
홍보자료 발간	94,874	92,837	97.85%
홍보존 구축	1,975,344	567,109	28.71%

2)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가) 평가 기준

사회공헌활동 테마 선정 시 EBS의 사회적 책임경영 목표에 잘 부합하였는지, 마케팅 및 홍보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①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및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 ② 사회공헌활동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 정도로 구성하였다.

나) 평가 사항

①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및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

2018년도 EBS 사회공헌 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소외계층 지원과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 및 기회 제공과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인식개선과 교육 서비스 제공이 공사CSR의 큰 축으로 자리 잡았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EBS 교재나 수강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빈부의 차가 학력의 차이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교재 점역 서비스를 통해 누구도 교육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특히 2018년도에는 적극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의식 확산, 나눔 문화 확산,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기부 분야에 진출하여 사회 인식개선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처럼 2018년 한 해 동안 교육 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② 사회공헌활동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 정도

소외계층 지원 사업은 ‘방송 모금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외 후원, ‘EBS 교재 무상지원’, ‘EBS 교재 점역 서비스’ 제공, ‘EBS 꿈장학생 선발 및 지원’, ‘VOD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 및 소외계층 지원 활동을 시행했으며 활동 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방송 모금 프로그램 후원

(1) 방법

- 국내: ‘나눔0700’으로 방송 모금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후원
- 해외: ‘글로벌프로젝트 나눔’; 월드비전과 사례 발굴·제작하여 지원

(2) 실적

- 국내: 1,250백만 원 (전년 대비 9.7% 증가)
- 해외: 9,459백만 원 모금 (42개국 375개 국제개발 및 구호사업 등)

(나) EBS 교재 무상지원

(1) 추진 목적

-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2) 지원 대상

- 교육부와 연계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가정의 고교 학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된 일부 차상위계층 및 교육적 배려 초·중고 학생
- 순직 경찰 유가족,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 등의 초·중고 학생

(3) 지원 교재

- 고교: 1학년(올림포스)/2학년(올림포스)/3학년(수능특강, 수능완성)
- 중학: 뉴런/TV중학(국·수·영)
- 초등: 만점왕(국·수·사·과)

<표 1-27> EBS교재 무상지원 현황

지원 대상	지원 학생수(명)	지원 부수(부)	지원 금액	소요 예산 (인쇄·물류비 등)
고1~3학년	162,000명	571,500부	65억 9,290만원	12억 7,949만원
중1~3학년	15,000명	60,000부		
초1~6학년	30,000명	100,000부		
계	207,000명	731,500부		

(다) EBS 교재 점역 서비스

(1) 추진 목적

- 시각장애 학생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
- 다양한 방송교재 점역을 통한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능력 향상

(2) 교재 내역

교재 구분	중학	고교	계	비 고
점역책 수	31	140	171	*점역수행기관: 국립특수교육원 (예산: 226백만 원)

(3) 제작 유형과 보급

- 유형: 인쇄용 점역 파일, 음성지원용 점역 파일 등
- 보급: 국립특수교육원 E-YAB와 EBS 장애인 서비스에 점역 파일 탑재

(라) EBS 꿈장학생 선발 및 지원

(1) 추진 목적

- 어려운 학습환경에 처한 장학생 선발을 통해 교육 희망 메시지 전달
- EBS서비스 활용에 따른 높은 학업 성취 사례 발굴·소개로 사회적 기여 홍보

(2) 추진 실적

- 25명 선발, 총 140백만 원 장학금 지원
- 멘토·멘티 클래스 운영

(마) VOD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소외계층 지원

(1) 추진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2) 지원 내역

- EBS방송 VOD/AOD 유료 프로그램 이용
- EBS중학 프리미엄 무료 이용
- EBSlang(어학) 온라인 유료강좌 무료 이용 외

(3) 추진 실적

- 총 2,308명을 대상으로 약 668백만 원 규모 지원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서비스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청소년 생명존중 사업’, ‘나눔 문화 확산 사업’, ‘청소년 진로 멘토링’,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두리안〉 사이트 운영’, ‘사회통합교육 멘토링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1) 사업 개요

- 주제: 언어폭력 예방 “따뜻하게 말해줘”
- 기간: 2018.05.28.~07.15(7주), 2018.09.03.~10.21(7주)

(2) 추진 실적

- 참여 학급: 2,046개 (전년 대비 1.9% 증가)
- 참여 인원: 50,765명 (전년 대비 4.9% 증가)
- 참여 학교: 1,114개교 (전년 대비 0.4% 증가)

(나) 청소년 생명존중 사업

(1) 사업 목적

-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생명존중 인식 확대
- 청소년 상담 플랫폼 「다 들어줄 개」 홍보 통한 청소년 자살 예방에 기여

(2) 추진 실적

- EBS-TV 및 라디오 SPOT 정규 프로그램을 통한 캠페인 전개
- 청소년 참여 모바일용 뮤지컬 웹드라마 제작 및 바이럴

(다) 나눔 문화 확산 사업

(1) 사업 목적

- 생애주기별 나눔 문화 콘텐츠 확산을 통한 나눔 문화 발전에 기여
-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 수행

(2) 추진 실적

- 나눔 교육 콘텐츠 제작: 유아 및 유아 부모 대상 콘텐츠 3편 제작
- 나눔대축제 캐릭터 공연: 2018나눔대축제에서 공연(2011.10~11)

(라) 청소년 진로 멘토링

(1) 사업 목적

- 취약계층 청소년들 대상으로 상담 및 진로 탐색 기회 제공
- 공사의 공적 네트워크 자원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2) 추진 실적

- 상반기: 서울 신림종합복지관 취약계층 청소년 100명 대상 멘토링 외
- 하반기: 전남 신안군 임자도 청소년 26명 대상 멘토링, 지역주민 26명
공익법률상담(대한변호사협회 협력)

(마)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두리안〉 사이트 운영

(1) 사업 목적

- EBS 다문화 콘텐츠를 국내거주 다문화 외국인과 자녀에게 무료 제공
- 다문화 교육지원으로 EBS의 사회 책무 수행
- 다문화 관련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통한 EBS 브랜드 인지도 제고

(2) 추진 실적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교재와 연계한 웹 콘텐츠 신규제작 및 참여 이벤트
- 누적 콘텐츠 총 6,356편 제공

(바) 사회통합교육 멘토링 사업

(1) 사업 목적

- 교육 배려대상자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흥미와 재능 탐색의 새로운 기회 제공

(2) 추진 실적

- 경상남도교육청: 초중고 49개교, 304명 멘토링
- 정선교육지원청: 3개교, 29명 멘토링
- 국방부: 중학 2년, 185명 멘토링

평가 결과 및 제언

공적재원 확보 등의 목표에 따라 시청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중심으로 홍보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전년에 이어 2018년 EBS는 기관 주요 사업 및 정책,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EBS의 최대 강점은 국민적 지지와 신뢰에 기반한 브랜드이다. EBS 브랜드는 신뢰를 의미하며, 미래지향적 가치와 더불어 이롭고 맑은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EBS의 프로그램 경쟁력은 물론 수익사업의 대부분이 '브랜드 경쟁력'에 기반한다고 보인다.

브랜드 가치 제고가 공사의 경영위기 돌파를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브랜드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브랜드 제휴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브랜드가 훼손당할 위험은 없는지' 등 과거 사례(김정은 교구 파문 외)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험요인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EBS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소셜미디어 채널별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채널별 대상(target users) 분석 등 해당 채널을 통해 브랜드를 홍보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 수가 3,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성과가 있었다.

다양한 형태의 언론 및 소셜미디어 홍보 확대는 양적 측면에서 잘된 점으로 평가하나, 향후에는 질적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수입 다각화 시도 과정에서 EBS미디어가 겪은 종이교구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사차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평가 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가) 평가 기준

경영평가의 목적은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전년도 경영부문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전년도 경영부문 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 개선 정도

EBS는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권고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였다.

첫째, 경영혁신팀과 비상경영회의 운영 원년으로 ‘인건비, 제작비, 사업비, 경상비 절감 방안’ 등을 마련하였으나 노사협의 등 전사 차원의 합의 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2018년 당초 예산은 수입 2,890억 원, 비용 3,075억 원, 당기순손실 185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광고시장 축소 및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수입 감소, 통합사옥 이전에 따른 관리비 증가 등에 따른 비용 절감의 한계로 인하여 연말 추정 실적은 비상경영체제 진행에도 불구하고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EBS는 방송을 통한 교육 증진이라는 공사의 소명에 따라 명확한 기준 정립을 바탕으로 경영목표 및 경영전략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으며 교육방송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에 경영혁신팀은 기술의 발전, 미디어와 교육 환경의 변화, 미래 인재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EBS의 과업을 재정의하기 위해 5대 혁신과제 18대 실천과제를 수립하였다. 또한 EBS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공공가치의 체계화를 갖추고자 ‘사명·비전·가치’ 안을 수립하고, EBS 신사옥 개관 및 창립기념식에서 제안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미디어 및 교육 환경에 부응하는 EBS의 과업을 재정의하기 위해 5대 혁신과제와 18대 세부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가) 새로운 비전체계 설정

공사의 존립 이유인 EBS 만이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공공가치의 체계화·시스템화(철학·지향점-현장 반영-대국민 공유), '사명·비전·가치·경영목표·경영전략·세부과제' 체계화

- (1) 미션 비전 가치체계 안 수립
- (2) 내외부 의견수렴 및 공표
- (3) 법·제도 반영 추진
- (4) 공사경영 프로그램 제작 전반 반영(방송기본계획 및 경영계획 간 명확화 과제 통합)

(나) 새로운 채널 정체성 재정립

공사 사명·비전·가치·경영목표 기반 7개 채널 지향점 제안(BBC 연차보고서, 경영계획서 등 채널별 가치 구현 세부설명과 목표 제시)

- (1) 채널 정체성 재규정
- (2) 채널별, 사업별 성과 평가 방안 구체화

(다) 공영 교육플랫폼 역할 강화

교육 콘텐츠 허브(빅픽처), 지상파(On Air)·IP기반(UHD·OTT·모바일 및 SNS 라이프 스트리밍 등)·오프라인(OMO) 등 접점(연결·connectivity) 확대

- (1) 방송편성-제작-사업 프로세스 개선
- (2) 공공프로젝트 추진으로 새로운 역할 찾기
- (3) 선형적인 방송에서 비선형의 미디어 플랫폼으로 발전
- (4) 다른 미디어 기업·에듀테크 등과 공동사업 전개

(라) 교육 현장 네트워크 강화

교육 서비스 이루어지는 모든 장(場·학교·사회·가정 등) 책무 확장, 교육 현장은 EBS 콘텐츠 소비처·기획이 시작되는 곳

- (1) 교육 현장·교육청·지자체 네트워크 재건
- (2) 시민단체·국회 등 대외협력 강화
- (3) 수신료 기반 공영방송으로서 설명책임 강화
- (4) 콘텐츠 배급창구로써 콘텐츠 제작기지로써 교육 현장 네트워크 발전

(마) 미래지향 젊은 공영교육방송 재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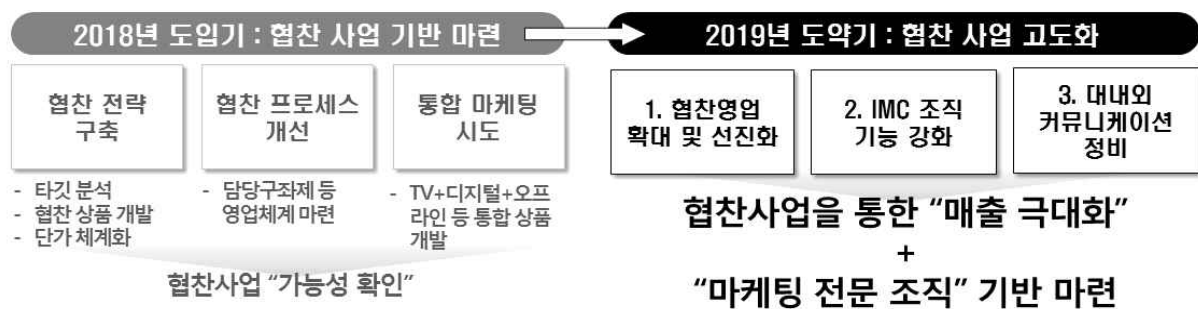
전통적인 TV 시청 세대와 인터넷·모바일 디지털 네이티브를 아우르는 공영 교육 방송 서비스로 쇄신

- (1) 모바일 전용 서비스 실시
- (2) 채널 로고 개선
- (3) 디지털 네이티브와 호흡하는 교육 서비스 지속 발굴
- (4) EBS다운 사회공헌 사업 강화

셋째, 조직이 선진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도를 하였다.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신상필벌 원칙을 확립·진행하였는데,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구성원 만족도 조사의 취지 등에 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만족도 조사 참여율을 개선한 실적(2017년, 421명 → 2018년 627명)을 보였다. 또한 직원들의 경력개발 등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환보직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일반(순환)직무·전문(장기)직무로 분류 후 적정 순환 기간 설정,
- ② 전문 직무·비선호부서·전략적 육성직무 등에 대한 인센티브(안) 마련,
- ③ 우수인력의 부서 간 균형 배치를 위한 ‘드래프트제도’ 도입 등이 있음.

넷째,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협찬사업을 고도화하고 유아·다큐·교양 중심의 YouTube 유통을 성장시켜 매출을 증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체제를 정비하였다. ‘통합 마케팅 전략’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EBSlang 어학 사업의 공동 제휴 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사업 구조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고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감소세를 보이던 출판사업 부문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매출 반등(2017년, 803억 → 2018년, 811억) 실적을 보였다.



<그림 1-5> 협찬사업 고도화 기본계획

<표 1-28> 유튜브 제휴 사업 성과

(단위: 억 원·억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목표
매출액	1.9	5.6	11.7	13.0	14.0	37	43.0
연간 조회수	1.1	3.0	7.7	9.7	11.0	17.5	

※ 2018.12.31. 기준

평가 결과 및 제언

EBS는 수익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업의 재정의를 통한 향후 추진 방향 설정, 그리고 인적 자원 중심의 조직 내부정비를 전년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사항 이행을 추진하였다.

2018년을 비상경영회의 운영 원년으로 비용 절감(안)을 수립하고 다각도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했으며 공사의 '사명-비전-핵심가치' 체계를 제안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EBS는 협찬 영업 및 상품 다양화를 통해 관련 매출이 증대되는 실적을 보였으며 삼성 멀티캠퍼스와 EBSlang 공동 제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사업 재구조화 노력과 성과도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사업 재구조화 노력은 더 많은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수입 감소와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경영수지 개선에 제한적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실현 가능한 비상경영 과제가 도출 및 구현되기 위한 노사합의는 극복해야 할 필수과제로 지적한다.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평가 내용

1) 공사의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가) 평가 기준

공사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전사 차원의 계획 수립 정도와 ② 추진 계획 대비 추진 노력 및 성과 수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전사 차원의 계획 수립 정도

EBS는 경영혁신팀을 통해 공사 미래비전의 달성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도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사장간담회’ 26회, ‘구성원 간담회’,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수립된 미래비전에 기반한 세부 경영목표와 과제를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사 설명회 및 부서장 보고 등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일정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7.09.25) 사장직속 경영혁신팀 신설
- (‘18.01.26) 경영혁신 방향(안) 전사원 대상 설명회
- (‘18.04.19) 제267회 정기 이사회, ‘EBS 혁신 전략 2022’ 보고
- (‘18.04.23) ‘EBS 혁신 전략 2022’ 부장단 공유 및 액션플랜 협조 요청
- (‘18.05.10) 경영인협회, 연구인협회, 기자협회 등 직능단체 간담회

② 추진 계획 대비 추진 노력 및 성과 수준

EBS는 2018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39가지 과제를 도출·제한하였으며, 공영교육플랫폼으로 거듭나고 교육 의제를 중심으로 EBS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15개 공공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구체적 실천과제는 ‘창의융합 교육’, ‘민주시민 교육’, ‘현장과 네트워크’, ‘글로벌 교육’ 영역에서 총 15개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표 1-29> 15개 공공프로젝트 주요 내용

프로젝트명		내용	성과
1. 창의 융합 교육	1) EBS Science ICT 기반 인재 육성	-수학과학 전문 콘텐츠 강화	-EBS SCIENCE 제안
	2) 소프트웨어(SW) 교육	-SW 교육전문플랫폼 구축	-SW교육플랫폼 개발 운영사업 진행 중
	3) PBL(Project-Based Learning)	-PBL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	
	4) 창업교육(발명교육)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개발	-창업진흥원 등 유관기관 간 협의 중
	5) 문화예술교육(ART)	-랜드마크 문화예술 콘텐츠 제공	-한국문화예술진흥원 MOU 등
	6) 차세대교육플랫폼(클립뱅크)	-학교현장 활용가능 플랫폼 구축	-미래부 지원 사업 진행 중
2. 민주 시민 교육	7) 미디어 리터러시	-방과후자유학기 콘텐츠 개발	-시청자미디어재단 공동사업 제안
	8) 다문화 교육	-유아성인 대상 전문 콘텐츠 제작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미팅
	9) 민주시민 교육	-토론다큐클립형 콘텐츠 제작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MOU 및 사업제안
	10) 통일 교육	-역사교육콘텐츠 및 남북공동 제작	-통일부 및 통일교육원 미팅
3. 현장 네트워크	11) 지자체 O2O	-EBS 지역 캠퍼스 및 유아학교 구축	-충남교육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MOU
	12) 에듀테크(AI·AR·VR)	-지역문화 체험형 콘텐츠 개발	
	13) 지역유산(불멸의 기억)	-국내외 문화유산 VR 기록	-문화재청 외 4개 기관 협찬 유치
4. 글로벌 교육	14) EBS 교육모델 수출(ODA)	-개도국 대상 교육모델 수출	-총리업무보고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15) 특수외국어 교육	-동남아 등 특수외국어 수요 대응	-기재부 제안서 제출

2) 비상경영 계획 및 성과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경영여건의 변화에 따른 비상경영 계획 대비 실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비상경영 목적에 부합하는 추진계획의 수립 정도, ② 비상경영 계획 대비 추진 노력 및 성과 수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비상경영 목적에 부합하는 추진계획의 수립 정도

2018년 EBS는 적자 예산편성으로 비상경영회의를 발족·운영(39차례)했다. 운영 목적은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을, 중기적으로 구조개선을 통한 안정성 재고였다. 재정위기 극복의 방편으로 2018년 4월 수립한 비용 절감안(157억 원 규모)을 마련하여 수시 점검하였다.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 212억 원을 기록하여 당초 편정 기준에 따른 185억 원의 손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강도 높은 비용 절감 노력에 따라 기초 예상 순손실(270억 원) 대비 58억 원만큼 감소시켰다.

② 비상경영 계획 대비 추진 노력 및 성과 수준

EBS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연초부터 전 부서 비용 10% 절감을 추진하였다. 신년업무 보고에서 비상경영상황을 공유하고 부서별 비용 절감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후 임원진은 ‘비상경영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여 단기적 비용 절감과 구조적 개선방안을 찾아 나섰다. 비상경영회의는 부서장 전원과 정책 기획본부 부장단, 각 사업부서 부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사적 비용 절감을 추진 하기에 앞서 간부의 직책 수당과 임원 급여를 삭감하는 등 솔선수범을 통해 내부 구성원에 대한 혁신의 공감을 이끌어 내었다.

2018년 총수입은 2,518억 원으로 당초 예산 2,991억 원 대비 473억 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3,176억 원의 비용이 편성되었으며 결산기준 2,729억 원으로 446억 원만큼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강도 높은 비용 절감 노력에도 당초 손실 추정치보다 악화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 결과 및 제언

EBS는 전년도 결산에 따라 순손실 185억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추정 영업손실에 따른 대응책 이행과정에서 비상경영회의(2018년 1월)를 발족·운영하였다. 재정적자 위기 극복을 위해 전사적 비용 10% 감축을 기조로 고강도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기획예산부 예산실적 분석과 연간 손익 추정 자료를 전사에 공유했으며 부서별 비용예산 절감 방안을 수립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상 순손실 규모를 약 27억 원만큼 줄일 수 있었다.

재정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이익구조 개선과 재무 구조 개선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은 인정되나 근본적인 개선책이 거듭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 운영·제작 운영·사업 운영·공사 운영 효율화 과제를 실행에 옮기는 실질적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경영부문 대표 집필위원: 류현욱 위원

2. 방송부문

EBS의 설립 목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이다. 방송부문 평가의 목적은 EBS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을 실천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은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송 구현이라는 평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평가는 방송 목표, 방송 편성과 운영,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시청자 서비스, 방송성과,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등 총 7개 평가 항목을 구성하고, 각 항목에 1~4개의 하위 지표를 설정하여 양적 및 질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방송부분 경영평가의 평가 항목과 평가지 표는 <표 2-1>과 같다.

<표 2-1> 방송부문 경영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가. 방송 목표	1. 방송 편성목표의 적정성
나. 방송 편성과 운영	1. 방송 편성비율의 적정성
	2. 프로그램 신성 및 폐지의 적정성
	3. 방송운행의 정시정 정도
	4.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1. 제작예산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2.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3. 프로그램의 내부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라. 시청자 서비스	1. 시청자 의견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2.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마. 방송성과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2. 프로그램의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3. 콘텐츠 내부관리 및 멀티플랫폼을 활용한 유통/사업화 정도
바.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이행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사.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1. 방송품질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가. 방송 목표

평가 내용

1) 방송 편성목표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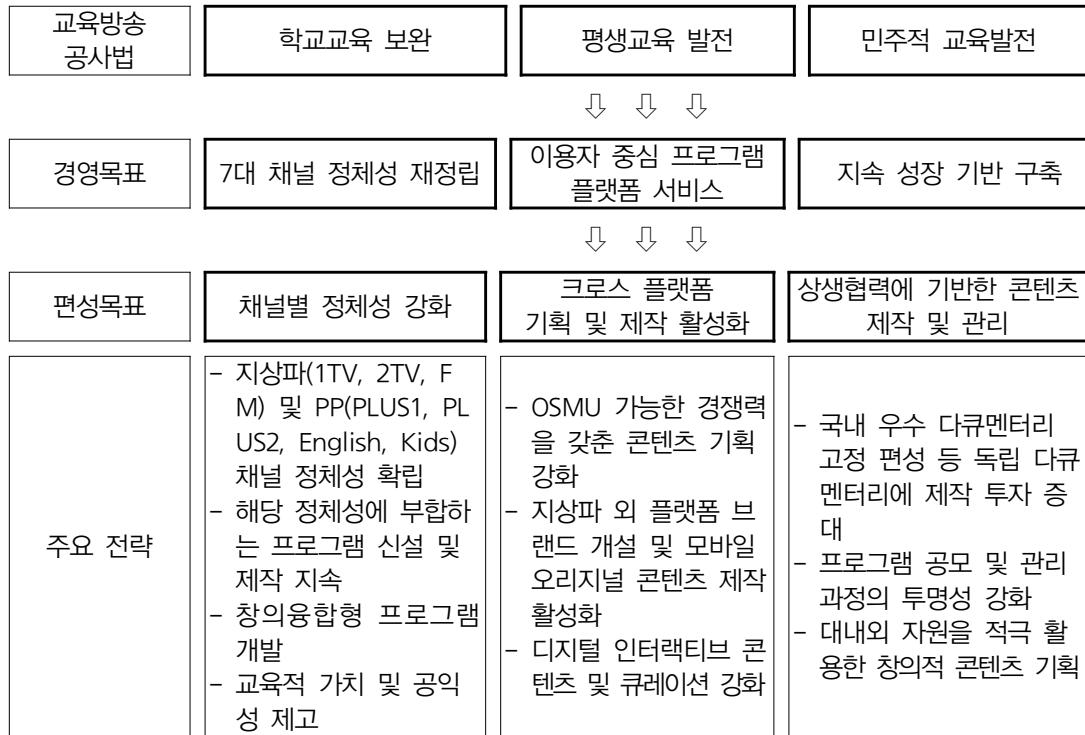
가) 평가 기준

‘방송 편성목표의 적정성’은 방송의 편성목표가 당해연도 경영목표를 적절하게 고려하여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각 프로그램의 기획 및 배치가 편성목표를 반영하여 이루어진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① 당해 연도 경영목표에 따른 방송편성 설정의 적절성, ② 방송 평가목표 달성 차원의 성과 등 2가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방송 편성목표의 경영목표 부합 정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EBS에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발전’,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3대 과제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EBS는 ‘7대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3대 경영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EBS는 3대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편성목표를 ‘채널별 정체성 강화’, ‘크로스 플랫폼 기획 및 제작 활성화’, ‘상생협력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로 설정한 후, 각각의 편성목표에 걸맞은 편성전략을 수립하였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경영목표, 편성목표, 편성전략의 연계성은 <그림 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경영목표, 편성목표, 편성전략의 연계성

구체적으로, 첫 번째 경영목표인 ‘채널 정체성 재정립’과 연계된 ‘채널별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채널 설립목적에 충실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제작을 통해 국민의 평생교육 니즈(Needs)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학 대상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국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경영목표인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크로스 플랫폼 기획 및 제작 활성화’를 편성목표로 설정하고,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행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을 실시하였다.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OSMU(One Source Multi Use)가 가능한 포맷을 고려하였으며, EBS 모바일 브랜드 MOMOe를 정식 런칭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에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였다. DIC(Digital Interactive Contents)를 통해 기존 콘텐츠의 재가공 및 큐레이션을 강화하여 이용자와의 쌍방향 소통 및 콘텐츠 접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경영목표인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를 목표로, 독립 다큐멘터리 고정 편성 등 독립 피디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외주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EBS 대내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었다.

② 방송 편성목표의 반영 성과

첫 번째 편성목표인 ‘채널별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 EBS는 7개 채널 설립목적에 충실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였다. 〈EBS 다크프라임〉, 〈세계테마기행〉, 〈지식채널e〉, 〈극한직업〉, 〈다큐 시선〉,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등 기존 EBS의 대표 프로그램들의 경우, 시청자의 니즈를 반영한 참신한 아이템을 개발하고, 다양한 촬영 및 연출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배가시켰다. 또한 〈EBS 교육저널〉, 〈탈탈라 뿌우〉, 〈명령이다, 비트!〉, 〈세미와 매직큐브〉, 〈디지털 할배〉 등과 같은 창의·융합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공격적으로 편성하였고,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 복지 서비스를 강화시켰다.

두 번째 편성목표인 ‘크로스 플랫폼 기획 및 제작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의 미디어 소비행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전략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조식포함 아파트〉, 〈배워서 남줄라〉 등의 신규 프로그램에 OSMU 전략을 적용하고, EBS 모바일 브랜드 MOMOe를 통해 〈밥친부터 시작〉, 〈아부지 뭐하시노〉, 〈설채현의 설견지명〉, 〈청춘여락〉, 〈승헌쓰 이꼬르 잉글리시〉, 〈강형욱과 빅마마의 개술랭가이드〉 등과 같이 젊고 참신한 콘텐츠를 공급하였다. 또한 기존 콘텐츠의 재가공 및 큐레이션을 강화하여 이용자와의 쌍방향 소통 및 콘텐츠 접근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있었다.

세 번째 편성목표인 ‘상생협력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를 위해, 독립 피디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외주 공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상생 협력을 위한 EBS만의 선도적인 노력을 지속하였다. 또한 독립 피디가 제작한 독립 다큐멘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다큐 시네마〉로 고정 편성하였으며, 투명한 외주 공모 절차를 통해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인터뷰 대한민국 2018〉, 〈아빠타〉, 〈초이슈〉, 파일럿 프로그램 〈상상식탁〉, 〈중2끼리 하우스〉 등의 경쟁력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평가 결과 및 제언

2018년도 EBS 방송편성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① 방송 편성목표의 경영목표 부합 정도와 ② 방송편성목표의 반영 성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방송 편성목표의 경영목표 부합 정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EBS 3대 경영목표는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채널 정체성 재정립’은 EBS1부터 EBS Kids까지 총 7개 채널의 정체성에 적합한 편성 및 제작 전략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는 ‘모바일 중심·멀티 플랫폼 이용’이라는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패턴에 부합하는 콘텐츠 제작 여건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로,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은 자율과 창의, 그리고 협력과 상생의 기운이 넘치는 콘텐츠 제작 회사로의 적극적인 변모를 의미한다.

각각의 경영목표는 편성목표 속에서 구체화되었는데, ‘채널별 정체성 강화’, ‘크로스 플랫폼 기획 및 제작 활성화’, ‘상생협력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 등 3가지이다. 이를 2017년 경영목표 및 편성목표에 비교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가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경영목표와 편성목표는 ‘미래·창의 교육 강화-미래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최고 교육콘텐츠 확대-콘텐츠 전략성 강화 및 채널 경쟁력 강화’, ‘스마트 서비스 실현-멀티 플랫폼 콘텐츠 전략 강화’ 등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합 수준을 갖고 있었다. 이에 비해 2018년 경영목표와 편성목표는 채널, 이용자, 콘텐츠 제작의 측면에서 EBS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각 관련 주체들의 노력이 EBS의 전체 성과로 귀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방송편성목표의 반영 성과는 전체적으로 우수하였다. 첫째, ‘채널별 정체성 강화’를 위해 각 채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국민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반영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유튜브 등 지상파 외 플

랫폼에서의 콘텐츠 활용도가 현저히 증가하여 EBS 브랜드의 저변을 확대한 한편 기획 단계부터 모바일 오리지널 등 멀티 플랫폼 유통을 고려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였다. 셋째, 2017년 발생한 독립 피디 사건의 보상과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독립 다큐멘터리 고정 편성 등 EBS와 독립 피디 간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을 선도적으로 마련하였다.

이상의 평가를 종합하여 도출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 패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BS는 핵심 시청자층이 유아, 어린이부터 장년, 노인층까지 다양하고 이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세대별 미디어 이용 패턴을 장기적으로 확인하고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EBS 내에 안정적으로 이용자 프로파일을 추적하는 전담 인력이나 부서에 대한 전향적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경영목표와 편성목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8년 경영목표와 편성목표는 2017년에 비해 체계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과연 앞으로의 방송 환경 변화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까지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채널별 정체성 확립과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기획·배치하는 것은 EBS의 중요한 경영 및 편성목표일 수 있으나, 과연 그 목표가 미래의 방송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최선인지는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미디어 이용자들은 채널 중심 소비에서 콘텐츠 중심 소비로 빠르게 이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널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편성목표의 성과를 측정하는 세부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채널별 정체성 강화’, ‘크로스 플랫폼 기획 및 활성화’, ‘상생협력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라는 편성목표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목표의 특성에 맞는 성과 관리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EPEI나 시청률, 모바일 콘텐츠 이용률 등은 편성전략의 성과에 대해 매우 지엽적인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의 증가를 편성전략의 성과로 치환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EBS는 지난 수년간 ‘채널 정체성 강화’를 주요한

편성목표로 설정하였지만, 매년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해가 지나면서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현재 EBS 채널과 프로그램의 성과를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EPEI와 CI 지수뿐인데, 이를 통해서는 채널 정체성 강화 노력의 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널 정체성에 대한 내부적 노력과 시청자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크로스 플랫폼 기획 및 제작 활성화’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용자의 증가뿐만 아니라 실제 방송시간 혹은 프로그램 편수에서 클로스 플랫폼 기획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혹은 제작 과정에서 크로스 플랫폼이 적용된 프로그램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상생 협력에 기반한 콘텐츠 제작 및 관리’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역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생 협력의 또 다른 주체인, 독립제작사의 평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EBS의 내부적인 노력과 시스템의 개선은 인정하지만, 과연 그러한 노력이 상생 협력의 당사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지금까지는 주로 정부 차원에서 외주제작사의 현황 및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지만, EBS가 선도적으로 외주제작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상생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방송 편성과 운영

평가 내용

1) 방송 편성 비율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방송 편성 비율의 적정성’은 법정 및 의무 편성 비율 준수 정도, 채널 특성화 및 목표 시청자별 프로그램 배치, 평생교육 및 민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① 법정 편성 비율 준수 정도, ② EBS 특성에 따른 편성의 특성화 전략 고려, ③ 타겟 시청자별 목표 대상층별 시간 배분과 프로그램 배분의 균형성, ④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 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 등 5가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법정 편성 비율 준수 정도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EBS 1TV는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의 국내제작(60% 이상), 국내제작영화(25% 이상), 국내제작 애니메이션(8% 이상), 국내제작 대중음악(60% 이상) 등 법정 편성 비율을 준수하였다.

<표 2-2> EBS 1TV 법정 편성 비율 준수 현황

방통위 고시		국내제작	국내제작영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국내제작 대중음악
		60% 이상	25% 이상	8% 이상	60% 이상
2018년	봄	88.2%	38.7%	102.5%	100%
	가을	88.4%	38.2%	103.2%	100%

※ 국내제작 영화: 주시청시간대(평일 19:00~23:00, 주말/공휴일 18:00~23:00)에 편성 시 편성 시간의 1.5배 가중치 적용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1.5배 가중치 시간대 적용 값
- 평일 19:00~23:00, 주말/공휴일 18:00~23:00

또한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타 의무 편성 비율도 모두 준수하였으며, 특히 외주제작 편성 비율은 의무편성 비율 20%를 초과하여 모두 30%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표 2-3> 기타 의무 편성 비율 준수 현황

점검항목	대상 채널	기준	의무 편성 비율	실제 반영 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EBS 1TV	전체 방송시간	16% 이상	봄 편성	30.3%
				가을 편성	30.5%
비상업적 공익광고	EBS 1TV	전체 방송시간	0.2% 이상	준수	
	FM, 플러스1, 2, EBS English	전체 방송시간	0.1% 이상	준수	
국내제작 프로그램	플러스1, 2, EBS English	전체 방송시간	40% 이상	준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EBS 1TV	전체 방송시간	0.3% 이상	준수	

※ EBS 2TV는 시범서비스 기간으로 의무 편성 비율 없음

② 채널 특성화 전략

EBS는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특성에 따른 채널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매체별 차별화 전략과 더불어 일부 채널 간 중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편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의 특성에 따른 채널별 특성화 전략은 <표 2-4>와 <표 2-5>에 나타나 있다.

<표 2-4> 지상파 채널별 특성화 전략

매체	구분	내용
EBS 1TV	채널 정체성	○ 지식민주시민교육 채널 및 평생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대·최고의 유아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채널 ○ 국내 최대·최고의 교육 다큐멘터리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사회통합·공동체 교육 콘텐츠 강화 ○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 확대 ○ 생활역량 강화를 위한 빅 콘텐츠 편성 ○ 창의적·실험적 파일럿 및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 ○ 다큐멘터리 장르 스펙트럼 확장 ○ 크로스미디어, UHD 등 방송 환경 변화 대비 콘텐츠 기획

매체	구분	내용
EBS 2TV	채널 정체성	◦ 창의·융합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고 초중학 창의·융합 콘텐츠 교육 채널 ◦ 사교육비 경감 및 지식(교육) 격차 해소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초·중 대상 창의·융합 콘텐츠 기획·제작 ◦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 확대 ◦ 지식(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어 및 디지털,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EBS FM	채널 정체성	◦ 외국어 학습 및 인문 교양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인문·교양 채널로의 정체성 제고
	채널 특성화 전략	◦ 프리미엄 지식·정보 프로그램 개발 ◦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외국어 콘텐츠 편성 ◦ 인문·교양 채널 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주말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표 2-5> 케이블 채널별 특성화 전략

매체	구분	내용
EBS 플러스1	채널 정체성	◦ 대수능 및 고교 학습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유일의 고교 대상 학습 및 정보 채널(무료)
	채널 특성화 전략	◦ 수능 및 내신 대비 전 교과 수준별 편성 ◦ 입시, 논술 등 각종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교과 학습용 클립형 콘텐츠를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EBS 플러스2	채널 정체성	◦ 초·중학 학습 및 직업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고품질 학습 프로그램 ◦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험대비, 실무 콘텐츠
	채널 특성화 전략	◦ 초·중학생 및 성인 생활시간대에 맞춘 블록 편성 강화 ◦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 강화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맞춤형 직업교육 콘텐츠 제작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EBS English	채널 정체성	◦ 영어교육 전문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대·최고의 고품격 영어 학습 콘텐츠 제공
	채널 특성화 전략	◦ 학교 커리큘럼 반영 및 학교 현장 활용 가능한 융합 교과형 프로그램 강화 ◦ 모바일 및 웹 학습 환경을 반영한 클립형 콘텐츠 제작

또한 EBS는 소수계층과 장애인 시청자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소수계층 시청자에 대한 배려의 경우, 2018년 EBS 1TV는 소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총 방송시간 35,880분 중 7.67%를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다문화 고부열전〉 등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나눔 070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등이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장수의 비밀〉, 〈성인 문해교육 프로젝트 영어하기 좋은 날〉 등이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희망풍경〉 등이다.

다음으로 장애인 시청자의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해 전체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자막방송 100%, 수화방송 7.1%, 화면해설방송 12.4%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모두 2018년 정부 목표를 상회하는 실적이었다.

③ 시청 타겟별 편성의 균형성

EBS 각 채널은 채널 정체성에 근거한 고유의 편성 내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편성의 균형성은 각 채널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편성된 정도를 의미한다. 먼저 EBS 1TV의 주요 편성 내용은 ‘유아·어린이 교육’, ‘청소년 인성·진로 교육’, ‘성인 평생교육’이다. 2018년 EBS 1TV는 연간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유아 20.1%, 어린이 10.8%, 청소년 20.3%, 성인 및 일반 48.8%를 편성했다. EBS 2TV의 주요 편성 내용은 ‘초등·중학 창의 융합 콘텐츠’, ‘외국어 및 교육격차 해소’이다.

EBS 2TV는 초등 35.9%, 중등 11.5%, 외국어 24.8%, 교육격차 해소 27.8%를 편성하였다. EBS FM의 주요 편성 내용은 ‘인문·문화·독서 교육’과 ‘외국어 교육’이다. EBS FM은 청소년 1.4%, 영어 31.3%, 제2외국어 3.3%, 사회교육 64%를 편성하였다. EBS 플러스1의 주요 편성 내용은 ‘대학 입시 관련 사교육비 경감 콘텐츠(수능, 내신, 논술 교육)’이다. EBS 플러스1은 학교교육 96.3%와 평생교육 3.7%를 편성하였다.

EBS 플러스2의 주요 편성 내용은 ‘초·중학 사교육비 경감 콘텐츠’와 ‘직업능력 향상 콘텐츠’이다. EBS 플러스2는 초등교육 21.8%, 중학교육 52.0%, 직업교육 13.0%, 평생교육 13.2%를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EBS English는 영어 교육 전문 채널로서, 유아 7.9%, 어린이 25.9%, 청소년 39.8%, 성인 26.4%를 편성하였다.

④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편성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이 정의하고 있는 ‘평생 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더 넓게 말하면 평생교육은 개인이 자아실현을 위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평생에 걸쳐 형식과 틀에 관계없이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EBS 전 채널에서 편성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EBS는 채널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채널별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EBS 1TV의 경우 <EBS 다큐프라임>, <명의>, <스페이스 공감> 등, EBS 2TV의 경우 <생각하는 콘서트>, <질문 있는 특강 쇼 빅뱅>, <EBS 아카데미> 등, EBS FM의 경우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TOPIK> 등, EBS 플러스1은 <EBS 교육 대토론>, <행복한 교육세상>, <EBS 교육저널> 등, EBS 플러스2는 <자격증 시험대비 강좌>, <극한직업>, <지식채널e> 등, EBS English는 <EBSe 영어뉴스>, <EBS 생활영어>, <매일 10분 영어> 등이다. 이상과 같이, EBS에서 제공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의 방송 시간 별 비중은 <표 2-6>에 제시하였다.

<표 2-6> 2018 채널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편성 비율

구분	연중 전체 방송 시간	대상 프로그램 방송 시간		비고
EBS 1TV	467,454분	228,254분	48.8%	
EBS 2TV	422,545분	224,012분	53.0%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105,618분) 포함
EBS FM	459,900분	453,461분	98.6%	영어/외국어교육 프로그램 (159,126분) 포함
EBS Plus1	525,900분	19,460분	3.7%	
EBS Plus2	394,200분	103,387분	26.2%	직업 교육 프로그램 (51,244분)포함
EBS english	394,200분	104,070분	26.4%	

⑤ 민주교육 프로그램의 편성

민주교육 프로그램이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각종 문제에 대해 시청자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식을 증진함으로써, 건강하고 합리적인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콘텐츠를 지칭한다. 이런 바탕에서 EBS는 교육정책과 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제시, 인문학적 소양의 저변 확대, 시민의식의 함양,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증진, 통일과 같은 한국사회의 거시적 과제 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하고 있다.

EBS는 채널별 특성에 따라 민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채널별 대표적인 민주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EBS 1TV의 경우 〈다큐 시선〉, 〈지식채널e〉 등, EBS 2TV의 경우 〈생각하는 콘서트〉, 〈질문 있는 특강 쇼 빅뱅〉 등, EBS FM의 경우 〈EBS 공감시대〉 등이다. 이상과 같이, EBS에서 제공하는 민주교육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별 비중은 〈표 2-7〉에 제시하였다.

〈표 2-7〉 2018 채널별 민주교육 프로그램 편성 비율

구분	연중 전체 방송 시간	대상 프로그램 방송 시간		비고
EBS 1TV	467,454분	32,120분	6.9%	
EBS 2TV	422,545분	28,960분	6.9%	
EBS FM	459,900분	50,880분	11.1%	

※ 재활용 프로그램 포함

2)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은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가 일정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①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의 적정성과 ②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 2가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의 적정성

EBS는 공사의 설립 목적, 채널별 정체성 및 연초에 수립한 편성 목표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가치, 공익·공공성, 트렌드 반영, 프로그램 경쟁력, 제작·방송 환경, EBS 가치 구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신설 및 폐지 여부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설과 폐지는 크게 지상파 채널과 케이블 채널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지상파 TV와 라디오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신설과 폐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신설 기준은 ①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서 EBS의 채널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② 시대의 변화 및 시청자 기호의 변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③ 일일 생활 시간대별 세분화한 타겟(유아, 어린이, 청소년 및 가족, 성인)에 맞는 창의적 프로그램, ④ EBS가 연초 시청자에게 표방하는 대 기획에 따른 중점 추진 프로그램, ⑤ 시청자(수요자)의 주요 관심 사항 및 생활패턴에 맞는 프로그램, ⑥ 다문화 가정 등 소외 계층을 위한 공영 프로그램 등 6가지이다. 반면 폐지 기준은 ① 프로그램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그램(시·청취율, EPEI 등), ② 시청자 기호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③ 제작비, 인력 등의 투입 대비 시청자 반응 미흡 프로그램, ④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해 통합 또는 축소가 필요한 프로그램, ⑤ 기획의도, 주요 구성방식 등이 변경되어 신규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프로그램, ⑥ 편성기간 내 계획 편수를 마무리한 프로그램 등 6가지이다.

다음으로 케이블 채널은 다음과 같은 신설과 폐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신설 기준은 ①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 수요를 예측한 교재 발간 계획에 맞춰 프로그램 신설, ② 초중고 학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창의적 형태의 프로그램, ③ 자체 커리큘럼에 의한 발달 단계별 영어 교육 프로그램, ④ 실용성을 강화한 현장 중심의 교과 및 외국어 프로그램 등 4가지이다. 반면 폐지 기준은 ① 편성기간 내 계획 편수를 마무리한 프로그램, ② 시대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프로그램, ③ 방송 및 교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는 프로그램 등 3가지이다.

②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 적용의 적정성

앞에서 살펴본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EBS는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에 객관적 지표와 다차원적 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지표는 시청률 및 청취율, EPEI 지수가 대표적이었다. 또한 EBS는 편성 목표와 채널 정체성에 대한 부합 수준 역시 제작 및 편성 부서 합동 간담회, 프로그램 시사회, 각종 편성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가 활용하는 신설 및 폐지 기준 적용 방식은 <표 2-8>에 정리하였다.

이상과 같은 평가 결과, EBS는 종합적인 평가 기준과 연구 결과를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시에 활용함으로써 설립목적(학교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과 방송목표('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 성장 기반 구축')가 구체적으로 편성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신설 및 폐지 기준의 주요 내용 및 적용 방식

구분	기준 주요 내용	적용 방식
시청률 및 청취율	○닐슨코리아 등 시청률 조사기관을 통한 시청률 조사	○ 시간대별, 연령별, 프로그램별 시청률 분석에 따라 주요 시청층 및 시청 흐름 분석 ○ 분석 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EPEI (EBS Program Evaluation Index)	○EBS 프로그램 평가 지수, EBS 전체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수용자 평가	○ 조사 대상 프로그램 선정(총 37개) ○ 전국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비에 비례한 표본 추출을 통한 인터넷 설문 조사 실시 ○ 1,095명의 패널을 5주 동안 조사 ○ 분석 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편성목표	○2018년 편성목표인 'EBS 콘텐츠 정체성 강화', '콘텐츠 브랜드 경쟁력 강화', '혁신성 높은 콘텐츠로 젊은 타겟 유입'과의 부합 정도 평가	○ 제작 및 편성부서 합동 간담회, 프로그램 시사회, 각종 편성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사내외 기획안 공모(연간 2회)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채널 정체성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서 EBS의 채널 정체성과의 부합 정도 평가	○ 제작 및 편성부서 합동 간담회, 프로그램 시사회, 각종 편성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 사내외 기획안 공모(연간 2회)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3) 방송 운행의 정시성 정도

가) 평가 기준

‘방송 운행의 정시성 정도’는 시청취자와의 기본적인 약속인 프로그램 편성표를 정시운행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요소는 ① 표준 제작 시간 준수 여부와 ②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 정도 및 프로그램 고지 방송의 과다 편성 정도이다. 이에 추가해서 10분 이상 오차가 발생한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나) 평가 사항

① 표준제작 시간 위반 정도

2018년도 표준제작 시간 초과 프로그램은 전체 방송 편수를 기준으로 1.5%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도와 동일하고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8년 지상파 1TV의 표준제작 시간 초과 현황은 <표 2-9>와 같다.

<표 2-9> 2018 지상파 1TV 표준제작시간 초과 현황

총편수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15,927편	15	22	30	32	26	16	17	14	15	14	17	13	231편

- 표준제작시간 초과 프로그램 비율(편수 기준): 1.5%
- 2017년 표준제작시간 초과 프로그램 비율 1.5%와 동일
- 표준제작시간 초과 현황 검출 방법: 실제 방송된 프로그램 최종본(광고 포함)을 대상으로 검출하는 관계로 광고시간을 감안한 별도 검출 기준 산정
- 위반 프로그램 검출 기준
 - 편성시간 25분부터 그 이상 프로그램: (편성시간-60초=기준R/T)
 - ※ 오차 허용범위 ± 60초
 - 편성시간 20분부터 그 이하 프로그램: (편성시간-30초=기준R/T)
 - ※ 오차 허용범위 ± 30초

하지만 2018년도에는 정시운행 10분 이상 오차가 발생한 프로그램이 1개 나타나 감점 요인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2월 2일(금) 22:45~00:25 총 1시간 40분 편성된 생방송 프로그램인 “[연중기획] 교육, 세상을 바꾸다 - 미래 사회의 교육개혁 김상곤 부총리에게 듣는다”가 긴급 연장 방송됨으로써 후속 편성된 “성

난 물고기” 프로그램이 실제 방송 시간 기준 11분 55초(광고 포함 12분 38초) 지연 방송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연 사유는 정부 부처 교육부총리가 출연한 생방송 프로그램으로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와 대담이 길어져 긴급 연장이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②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 정도 및 프로그램 고지방송의 과다 편성 정도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 정도 및 프로그램 고지방송의 과다편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은 교육뉴스부의 편성계획에 따른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① 당해연도 편성계획 대비 달성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과 ② 당해연도 성과에 대한 환류 및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이다.

나) 평가 사항

① 당해연도 편성계획 대비 달성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

EBS 교육뉴스부의 제작계획 대비 달성 노력 및 성과는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감 선거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교육의 의제를 선도하였다. 대표적으로, 6.13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 공약과 이슈를 점검하는 다양한 기획을 5차례에 걸쳐 총 36편을 보도함으로써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자 전원을 인터뷰해 시리즈로 방송함으로써 향후 4년간 지역 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전망하였다.

둘째, 심층 기획 보도로 교육 어젠다를 제시하였다. 특히, 재혼가정 자녀의 인권침해 실태를 다룬 <마이너스 가정의 아이들>을 23회에 걸쳐 심층 보도해 제16회 언론인권상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바람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를 취재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 - 이제는 가족이 경쟁력이다>를 8회 걸쳐 심층 보도해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셋째, 시의성 있는 기획 및 단독 보도를 발굴하였다. 예를 들어, 새 역사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장애 영유아 의무교육,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기획 보도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였다. 또한 고은 시 교과서 퇴출, 스쿨미투 피해자 인터뷰, 사립대 교수 갑질 등 모두 18건의 단독 기사를 발굴하여 EBS에 특화된 이슈를 선도하였다.

넷째, 양질의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뉴스를 강화하였다. 복잡한 대입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명문대에 입학한 선배대학생들이 매주 스튜디오에 나와 합격 노하우를 공개하는 <대학입시 포커스>를 신설하였고, EBS 대표 강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출연해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참여형 뉴스를 확대하였다.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소식을 직접 취재하고 제작하는 스쿨리포트를 격주 2회에서 4월부터 매주 2회로 확대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청소년 미디어교육에 기여하였다.

여섯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콘텐츠 기획하였다. 새로 신설한 <학과Tip 진로Talk>, 기존의 <꿈을 job아라> 코너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망한 학과와 직업을 소개하였다.

② 당해연도 성과에 대한 환류 및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

교육뉴스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EBS 교육 뉴스의 TV시청률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표 2-10>에서 볼 수 있듯이, EBS 교육뉴스 시청률은 2016년 0.49에서 2017년 0.36을 거쳐 2018년에는 0.31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VOD 클릭 수는 2016년 약 233만회에서 2017년 249만회를 거쳐 2018년 299만회를 상회할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표 2-10> EBS 교육뉴스 시청률과 VOD 히트 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청률	0.49	0.36	0.31
VOD 히트 수 (PC+Mobile)	2,339,737	2,499,699	2,997,456

교육뉴스부의 차년도 계획은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연중 심층 기획 시리즈를 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안된 주제는 크게 3가지로, 사교육 실태 점검, 대한민국 교육지도 작성, 특수교육 점검 등이다. 먼저, 사교육 실태 심층 기획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대입까지 이어지는 사교육의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 사교육비 통계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조사 방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사교육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교육지도 심층 기획은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동네의 교육환경을 살펴보는 교육지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의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 격차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육 심층 기획은 2017년 특수학교 설립 갈등에 이어 2018년 특수학교 폭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특수교육을 둘러싼 교육계 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수학교 울타리를 넘어서서 진정한 통합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어볼 예정이다.

둘째, 지역 연계 교육 뉴스를 활성화한다. 교육감 취임 1년 성과와 과제 시리즈 기획하고, 취임 1년을 맞는 17개 시도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특색 사업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 중심의 보도 관행을 탈피해 지역의 우수한 교육 정책을 발굴해 보도할 예정이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기획한다. 예를 들어, 학교 공간을 혁신적으로 디자인해 학생들의 창의력과 개성, 학습 능력을 키우고 있는 학교들을 집중 조명하는 ‘학교 공간 혁신’ 기획 보도, 칠판과 교과서 중심의 교실이 아닌 로봇, 태블릿, VR이 상용되는 미래 교실의 모습을 취재하는 ‘미래 교실을 가다’ 기획 보도 등을 준비 중이다.

넷째, 온라인·모바일 뉴스 콘텐츠를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따로 업로드하는 TV 뉴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고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취재 내용과 후기 등을 유튜브용 뉴스로 제작하는 등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및 제언

2018년 EBS 방송 편성과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① 방송 편성 비율의 적정성, ②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의 적정성, ③ 방송 운행의 정시성 정도, ④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 등 4개의 평가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방송 편성 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① 법정 편성 비율 준수 정도, ② EBS 특성에 따른 편성의 특성화 전략 고려, ③ 타겟 시청자별, 목표 대상 층별 시간 배분과 프로그램 배분의 균형성, ④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 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의 적정성 등 5가지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 편성 비율 준수 정도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BS는 외주제작, 공익광고, 국내제작, 국내제작영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국내제작 대중음악 등 프로그램 편성에서 법정 편성 비율을 준수하였다.

둘째, EBS 특성에 따른 편성의 특성화 전략에 대한 고려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BS는 각 채널의 설립 목적과 특성에 맞게 전문 편성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타겟 시청자별 프로그램 배분의 균형성은 무난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채널이 자신의 편성 대상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와 다섯째, 평생교육과 민주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은 무난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각 채널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수준에서 평생교육과 민주교육 프로그램 편성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EBS1과 EBS2 TV의 채널 정체성 강화와 채널별 특성화 추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EBS 1TV는 지식채널, 공동체, 생명, 미디어 문해교육, 역사 등 민주 시민 교육 채널로, 2TV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STEAM 교육, 코딩교육,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인재교육을 위한 창의·융합 콘텐츠 중심 채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EBS1 TV의 발전방향은 다른 공영방송의 목표와 중첩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KBS1 역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연 다큐멘터리 제작, 역사드라마 복원, 인문학융합 교양 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다른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품질이 높아지고 공영성이 강화될수록 EBS는 교육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고민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EBS는 현재 보유한 2개의 지상파 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EBS1은 민주시민 교육, EBS2는 창의·융합에 기반한 미래인재 교육이라는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EBS 측에서 본다면 채널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에 따라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협찬과 외부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조직의 재정 및 인력 자원을 관리하는 데도 채널의 정체성이 일정 정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널 정체성의 목표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공급자 차원의 채널 정체성과 이용자 차원의 채널 정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조망하고, 각 차원에서 채널 정체성과 특성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청 타겟별 균형성에 대한 기계적 적용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청 대상별 균형성은 채널 특성화 전략에 시청 대상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예를 들어, EBS 1TV의 특성화 전략에 따른 시청 대상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유아 약 20%, 어린이 약 10%, 청소년 약 20%, 성인 약 50%’로 맞춰서 제공된다. EBS 2TV의 채널 특성화 전략은 ‘초중학 창의융합 콘텐츠’ 제공과 ‘사교육비 경감 및 지식 격차 해소’ 콘텐츠 제공이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초등 약 35%, 중등 약 11%, 외국어 약 25%, 교육격차 해소 약 28%가 편성된다. 외형적 지표에 의해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보다는 시청자의 선호와 이용 패턴에 따라 좀 더 탄력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생교육과 민주교육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이 무엇인지, 민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찾는 것은 공허하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정의나 민주교육에 대한 학계의 정의는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다.

실제로 현재 EBS에서 공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교양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없으며, 민주교육 프로그램은 시사, 토론, 다큐멘터리가 뒤섞여있다. 이는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기치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을 형식적 명명에 귀속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그러한 목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킬러 콘텐츠를 한두 개 정도 시청자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기에 앞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기획·편성한다면 동일한 노력을 들이더라도 성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즉, EBS가 우리나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①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의 적정성과 ②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 2가지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EBS는 공사의 설립 목적, 채널별 정체성, 편성 목표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교육적 가치, 공익·공공성, 트렌드 반영, 프로그램 경쟁력, 제작·방송 환경, EBS 가치 구현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하여 신설 및 폐지 여부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과 웹 기반 플랫폼을 이용하는 콘텐츠 소비와 트렌드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1년 단위 정기 편성 개편을 지양하고, 2018년에는 시즌제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 수시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다면적 평가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소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화제성 지수를 조사하였다. 빅 데이터 분석에 기반을 둔 평가 지표를 통하여 기존의 지표들을 보완하고 향후 프로그램 신설, 폐지 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방송 편성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탄력적 수시편성이다. 즉, 멀티 플랫폼 시대 소비자의 미디어 이용 패턴과 콘텐츠 소비 패턴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유연한 편성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용자의 소비 동향과 트렌드를 분석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최신 기법을 동원한 과학적 조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빠짐없이 덧붙여진다. EBS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탄력적 수시 편성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였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원칙이 얼마나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EBS 1TV에서 폐지가 결정된 프로그램은 대부분 예정된 시즌이 종료되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이는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가 실제로 그다지 탄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물론 하나의 프로그램 신설하고 폐지하는 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방송사 조직의 입장에서는 제작 인력, 부서간 이해관계 조정, 예산 배정, 방송사의 이미지 등 모든 문제가 얹여 있기 때문에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프로그램을 넣고 빼고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상파 방송들도 ‘종편성’이나 ‘일일 드라마 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편성 전략을 시도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EBS라고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시청자의 요구와 이용 패턴에 좀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송운행의 정시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① 표준제작 시간 준수 여부와 ②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 정도 및 프로그램 고지방송의 과다 편성 정도 등 2가지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EBS는 방송 3일 전 프로그램 입고 원칙 준수, 시간대별 광고량을 고려한 표준제작 시간 산정, SPOT, FILLER 등의 적절한 운영 등 프로그램 정시운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긴급 연장으로 EBS 1TV 1개 프로그램이 10분 이상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EBS는 자체적으로 생방송 사전 표준제작 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뉴스부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① 당해연도 편성계획 대비 달성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과 ② 당해연도 성과에 대한 환류 및 차년도 계획의 적정성 등 2가지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평가 결과, 교육뉴스부는 교육감 선거 기획 보도, 심층 기획 보도 강화, 시의 적절한 기획 및 단독 보도, 양질의 입시정보 제공, 청소년 참여형 뉴스 확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콘텐츠 기획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뉴스 프로그램 시청률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비록 시청률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만 볼 때, 2년 동안 약 37% 정도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다. 다행히, VOD 히트수(PC+모바일)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이 고무적이지만, 뉴스의 특성상 실시간 시청률이 낮다는 것은 뉴스 프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EBS는 교육 뉴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자 타겟층을 명확히 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다소 조심스럽지만, 교육 뉴스의 범위를 과감하게 확장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 뉴스 보도의 주제를 살펴보면, 교육(68.2%), 사회(21.5%), 문화(1.1%), 과학(1.4%), 생활(7.8%)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육 뉴스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한 확장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교육과의 연관성을 과감하게 제기하고 뉴스화할 필요가 있다.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평가 내용

1)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가) 평가 기준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은 제작에 투입된 예산이 적절한지와 투입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요소는 ① 제작 투자비율 수준의 적정성, ② 표준제작비 집행의 적절성, ③ 제작비 협찬 정도 등 3가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제작 투자비의 적정성

제작 투자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액, 매출액, 제작 투자 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2018년도 매출액은 약 892억 원으로, 2017년 929억 원에 비해 4.06% 감소하였다. 또한 제작비 집행액은 약 543억 원으로, 2017년 약 577억 원보다 5.98% 감소하였다. 매출액보다 제작비 집행액의 감소 규모가 더 큰 관계로, 2018년의 제작 투자 비율은 60.85%로, 2017년 62.13%에 비해 2.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집행액 및 매출액은 <표 2-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2018년 집행액과 매출액

제작비 집행액 (원)		매출액 (원)		집행액/매출액
TV	38,433,187,150	수신료수입	18,451,488,044	
FM	3,939,168,315	방송통신발전기금수입	31,354,466,298	
Plus2	4,856,453,856	방송광고수입	31,264,478,000	
2TV	7,030,527,530	제작협찬수입	3,557,054,544	
		프로그램공급수입	4,542,515,455	
(계)	54,259,336,851	(계)	89,170,002,341	60.85%

※ 집행액: 종합정보표준제작비집행현황(방송일자기준 (20180101~20181231))

※ 매출액: 종합정보손익계산서 (2018.1~2018.12)

② 표준제작비 집행의 적절성

표준제작비 집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2-1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프로그램의 제작비 집행을 평균은 98.1%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99%, 2017년 99.88%였던 제작비 집행률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표 2-12> 2018년 유형별 표준제작비 집행 현황 (단위: 원)

유형	표준제작비	실집행액	차액	집행율
다큐	16,106,491,762	15,841,013,829	265,477,933	98.4%
드라마	205,008,526	201,835,099	3,173,427	98.4%
애니메이션	1,344,793,701	1,182,046,196	162,747,505	87.9%
영화	251,866,200	204,645,163	47,221,037	81.3%
일반구성	688,211,335	1,072,341,175	-384,129,840	155.8%
종합구성	14,669,607,886	14,189,380,314	480,227,572	96.7%
취재/구성	3,975,544,486	3,983,739,743	-8,195,257	100.2%
취재/보도	1,200,600,000	1,147,600,016	52,999,984	95.6%
SB/캠페인/필러	742,162,930	610,585,615	131,577,315	82.3%
(계)	39,184,286,826	38,433,187,150	751,099,676	98.1%

※ 집행액: 종합정보표준제작비집행현황(1TV), 방송일자기준(20180101~20181231)

③ 제작비 협찬 정도

제작비 협찬 정도는 크게 제작 협찬사업과 협찬용역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작협찬사업은 협찬자로부터 프로그램 제작에 드는 제작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협찬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다. 협찬용역사업은 위탁자로부터 단위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8년 EBS의 제작비 협찬 건수는 총 154건, 협찬 규모는 약 149억 원으로 2017년 협찬 건수 총 148건, 협찬 규모 약 110억 원과 비교할 때, 협찬 건수는 6회, 규모는 약 39억 원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다.

2)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은 외주제작정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받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은 ① 외주제작비율의 적정성, ②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외주제작비율 준수 정도, ③ 양질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한 시스템 운영의 적절성, ④ 외주제작사의 EBS 설립목적 및 교육이념에 대한 이해, 제작물 내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운영 정도 등 4가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외주제작 비율의 적정성

외주제작 비율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상파TV 전체 제작비와 외주 제작비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2-13>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도 지상파TV 전체 제작비는 약 331억 원, 외주 제작비는 약 131억 원으로, 외주 제작비 비율은 39.5%로 나타났다. 이를 2017년과 비교할 때, 2017년도의 전체 제작비는 약 378억 원, 외주 제작비는 약 131억 원으로, 외주 제작비 비율은 34.6%였다. 따라서 2018년도의 외주제작 비율 증가는 전체 제작비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3> 2018년도 지상파TV 외주제작 비율 현황

구분	전체제작비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비율
외주 제작비 비율	33,168,523,430원	13,113,109,694원	39.5%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방송된 프로그램의 집행액 기준

②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외주제작 비율 준수 정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외주제작 비율은 16% 이상이며, 이 비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총점 5점에서 1%당 1점씩 감점한다. <표 2-14>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도 EBS 지상파 TV의 외주 편성 비율은 봄 30.3%, 가을 30.5%로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표 2-14> 2018년도 지상파TV 외주편성 비율 현황

구분	2018년 봄	2018년 가을
자체	69.7%	69.5%
외주	30.3%	30.5%

③ 양질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한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제작 관리 및 검수 시스템은 양질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 선정, 효율적인 제작관리 전략 추진, 내부평가 및 심의 등 양질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공 담보가 가능한 제작관리 및 검수 시스템 등이 중심을 이룬다.

EBS는 외주 관리 PD의 제작 노하우와 외주제작사 제작진의 제작능력을 결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작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BS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제작 관리 및 검수 절차를 위한 업무와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15>에 잘 나타나 있다. 외주제작 관리 및 검수 절차는 외주제작사 사전 교육 → 프로그램 공동 세부 기획(내부 PD, 외주제작사 제작진) → 편별 세부구성안 공동조정(내부 PD, 외주제작사 제작진) → 제작 진행 사항 조정 → 가편집 관리 및 조정 → 최종 대본 검토 → 완성본 시사 → 종합 시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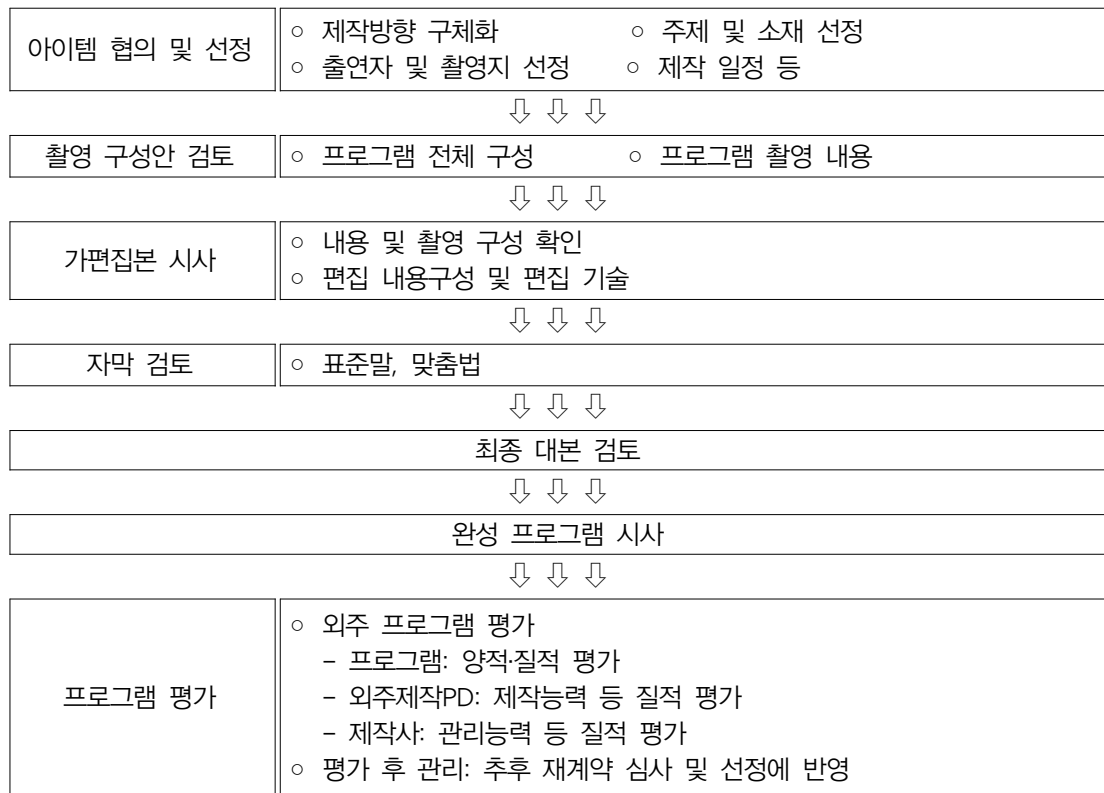
<표 2-15>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관리 및 검수 절차

순서	업무	주요내용
1	외주제작사 사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된 외주제작사의 전 제작진을 대상으로 제작지침, 심의지침 등 교육 실시 ○ 교육 내용: 교육방송 강령, 해당 편성에서의 제작 주안점,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제작 기술 표준사항, 문자 그래픽 관련 제작 표준, 심의 지침 및 사례, 홍보자료 작성 등 홍보 관련 사항 ○ 'EBS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 매뉴얼' 배포
2	프로그램 공동 세부 기획 (내부 PD, 외주제작사 제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프로그램 단위 편별로 매회 세부기획을 공동 진행 ○ 프로그램 아이템 검토 및 확정, 문제점 점검, 아이템별 강조점 및 강화 방안 세부 조정 등

3	편별 세부구성안 공동조정 (내부 PD, 외주제작사 제작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별 아이টে을 확인한 후 현지 사전 답사 결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촬영 방안, 구체적인 내용 전개, 촬영 외 필요한 구성요소(CG, 영상자료 등)를 공동 설계
4	제작 진행 사항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구성 확정 후, 제작 진행에 따른 주요 조정 사항 및 인허가 사항 등 처리 관계 기관 공문 발송, 촬영 허가 관련 사항 진행(내부 PD의 주관하에 진행), 내부 스태프와의 업무 조율(스튜디오 제작 시 회의 주관 등) 상해보험 등 안전 관련 대책 확인, 점검
5	가편집 관리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촬영 직후 촬영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단계에서 편집 구성안 확정 및 편집 진행, 촬영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촬영 진행 여부 등 결정
6	최종 대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레이션 톤, 프로그램 내용, 자막, 표준어 사용, 성우 결정, 그래픽 내용 등 최종 프로그램 완성에 필요한 사항 결정
7	완성본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완성본을 기획자 및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사, 방송 적합성, 기획의도 구현 여부, 완성도 등을 최종 검토함
8	종합 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성기획 관계자, 방송 기술 관계자, 동료 PD 등이 참여하는 종합시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시사 의견을 듣고, 시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편 수정 또는 다음 기획에 반영함(월 1회 정도 시행)

④ 외주제작사의 EBS 설립목적 및 교육이념에 대한 이해, 제작물 내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운영 정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관리 절차와 지침은 EBS 설립목적과 교육이념을 외주제작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작 과정에서의 실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획 및 평가관리시스템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টে을 협의 및 선정 과정부터 시작하여, 촬영 구성안 검토, 가편집본 시사, 자막 검토, 최종대본 검토, 완성 프로그램 시사를 거쳐 프로그램 평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관리 절차는 <그림 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획 및 평가관리 절차

EBS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고 EBS 채널 정체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외주 프로그램 평가를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외주제작사 선발 및 외주 프로그램 제작 관리에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관리자들과의 관리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전달하여 프로그램 관리를 점점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다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개별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기획 및 내용 관리(50점), 흥미 유발도(30점), 제작 능력(20점) 등의 기준에 의한 평가를 시행한다. 또한 관리자 평가, 시청률, 심의 점수, 종합평가, 수상 및 주의 등 기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시행한다. 이러한 평가는 누적적으로 관리되며 제작비 지급 및 재계약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추가로, 외주제작 프로그램 중간 점검 및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신규 프로그램 및 주요 프로그램의 시청자 반응, 시청률

및 내부 평가 등을 토대로 향후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질 제고를 위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외주제작사에서 작성한 분석 보고서와 관리 담당 프로듀서의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외주관리 CP의 집중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 도출하였다.

3)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프로그램 내부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한 내부 평가 및 심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① 프로그램 내부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및 결과와 ② 프로그램 내부심의제도의 운영 현황 및 결과 등 2가지이다.

나) 평가사항

① 프로그램 내부 평가제도의 운영 현황 및 결과

프로그램 내부 평가는 프로그램 방송 모니터링 실적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EBS는 시청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시청자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8년 총 3,496건의 모니터링 결과가 제작진에 전달되었다. 2018년도부터 교육 및 교과 프로그램 직접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시청자모니터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제를 제시하여 집중 모니터링 보고서를 신설, 추가로 접수하여 제작진에게 ‘시청자의 소리’를 전달하였다.

하지만 예상외로 청소년 시청자모니터단의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로 「시청자모니터단」을 2017년도에 150명에서 2018년도에 100명으로 축소하여 모니터링 건수가 2017년 대비 39% 정도 감소하였다. <표 2-16>은 최근 3년간 프로그램 모니터링 건수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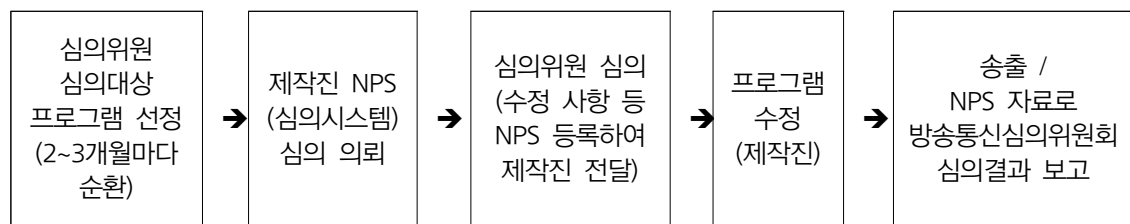
<표 2-16> 최근 3년 간 모니터링 건수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소 계
건 수	2,941건	5,773건	3,496건	12,210건 (평균 4,07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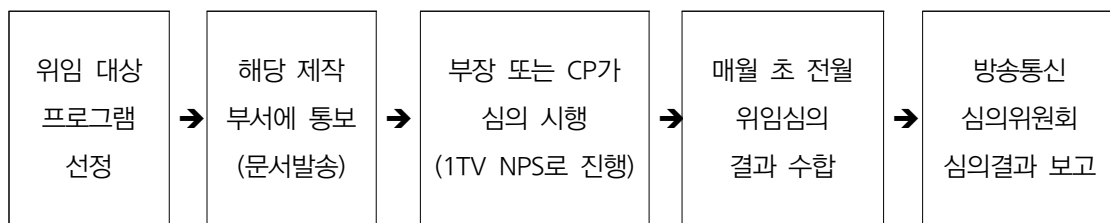
② 프로그램 내부심의제도의 운영 현황 및 결과

프로그램 심의는 EBS 지상파 1TV, 지상파 2TV, 지상파 라디오 콘텐츠를 심의위원 심의 또는 제작부서 부장 또는 CP에게 위임하는 부서위임심의로 나뉘어 심의하고 있다. <그림 2-3>은 심의위원 심의와 부서위임 심의가 이루어지는 심의 프로세스를 보여준다.

■ 심의위원 심의



■ 부서위임 심의



<그림 2-3> EBS의 내부 심의 프로세스

2018년 심의위원 심의는 신규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위주로 총 1,712편 (6%)을 심의하여 자막, 간접광고, 화면 내용 등의 오류 1,341건의 수정을 요청하여 방송 전 수정을 완료하였다. EBS 1TV, EBS 2TV, EBS FM 3개 채널의 심의 대상인 총 29,569편의 심의 결과를 월 단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표 2-17>은 채널별 심의 실적을 보여준다.

<표 2-17> 채널별 심의 실적

채널명	1TV	라디오	2TV	합계(비율)
심의대상 편수 (재활용 포함)	9,299편	8,877편	11,393편	29,569편(100%)
심의위원 심의 편수	1,525편	-	307편	1,832편(6%)
위임심의 편수	7,774편	8,877편	11,086편	27,737편(94%)

심의위원들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심의·평가함으로써 2017년 대비 50% 정도 심의량을 확대했으며, 부서 위임심의를 보완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에 기여 및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리뷰 회의, 합동 심의·평가회의 등을 통하여 심의위원들 간의 심의 기준·수준을 공유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여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표 2-18> 2018년 합동 심의평가 개최 내역

연번	일시	프로그램명	담당 부서(담당)
1	2018.3.14	생방송 판다다	창의융합교육부 조혜경, 임시진
2	2018.3.21	행복한 교육세상	진로직업청소년부 박영주
3	2018.4.11	미스터리 유물도둑과 역사 탐정단	콘텐츠협력제작부 오정석
4	2018.4.18	랄랄라 뿌우	유아어린이부 안소진, 이민수
5	2018.4.25	펫 다이어리	진로직업청소년부 류재호, 민정홍
6	2018.5.9	뽕치미	교양문화부 한송희
7	2018.5.16	배워서 남줄랩	진로직업청소년부 류재호, 김훈석, 김민지
8	2018.5.23	생각하는 콘서트	콘텐츠협력제작부 권오민
9	2018.6.20	초이슈	콘텐츠협력제작부 심예원
10	2018.6.27	4남매쇼	유아어린이부 안소진, 고현미
11	2018.9.7	조식포함 아파트	진로직업청소년부 류재호, 최수진, 최현선
12	2018.9.13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 - 부모성적표	콘텐츠협력제작부 이주희
13	2018.9.18	EBS 교육저널	진로직업청소년부 김현
14	2018.11.15	4남매쇼(시즌2)	유아어린이부 고현미

또한 2018년도에는 제작진의 심의 감수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 규정을 소재로 한 ‘알기 쉬운 심의 퀴즈’ 시리즈와 언론분쟁을 소재로 한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지식’ 시리즈를 공지사항에 연재하였다. ‘알기 쉬운 심의 퀴즈’는 협찬 고지 규칙,

등급 고지 규칙 등 제작과 관련된 규칙과 선거 방송 심의, 청소년 보호 시간대, 실정법 준수, 광고 효과, 자료화면 사용, 여론조사 등 심의 규정 관련 사항을 다루었다.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지식’ 시리즈에서는 초상권 등과 관련한 촬영 동의, 초상권의 범위, 영상물 재사용의 허용 범위 등 언론분쟁과 관련된 사항을 다룸으로써 제작진이 제작할 때 심의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에 제작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표 2-19>는 심의 관련 공지 현황에 대한 요약 자료이다.

<표 2-19> 2018년도 심의 관련 공지 현황

구분	공지 건수	주요 내용
알기 쉬운 심의 퀴즈	25건 (종합편 포함)	협찬고지 방식 / 여론조사 / 선거방송 / 광고효과 / 등급고지 / 간접광고 / 재연연출 / 청소년보호시간대 / 실정법 준수 / 음주 미화 / 등급기호 등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지식	6건	초상권 침해 / 초상권의 기준 / 동의받은 영상물의 활용 범위 / 미성년자의 초상권 / 모자이크 처리

평가 결과 및 제언

2018년 EBS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①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②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③ 프로그램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등 3개 평가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① 제작투자비율 수준의 적정성, ② 표준제작비 집행의 적절성, ③ 제작 협찬 수준 정도 등 3개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평가 결과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콘텐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단위당 투입요소(예산, 인력, 기간)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실질적 제작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EBS는 방송발전기금 등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비상경영체제 도입으로 투자액 삭감 및 집행을 절감을 실시하여 결과적으로 제작 투자비율과 투자액이 예년보다 감소하였다.

둘째, 제작비 집행률이 소폭 하락하였다. 구체적으로 2016년 99%, 2017년 99.88%였던 제작비 집행률이 2018년도에는 98.1%로 하락하였다. 이는 비상경영체제 도입으로 인한 집행을 절감의 효과로 파악되며, 콘텐츠 경쟁 심화와 제작비 상승이라는 추세를 고려하면 열악한 여건하에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2018 EBS의 제작비 협찬 수준은 2017년에 비해 39억여 원 상승한 14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수신료 수입이 182억 원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협찬의 중요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공적 재원의 투자가 현실화되지 않는 한 협찬은 제작비 보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찬은 EBS의 정체성과 공적 역할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찬 대상 업체와 협찬 의도의 노출 등에 섬세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재원은 곧 콘텐츠이다. 제작 여건이 어려운데 좋은 콘텐츠가 나오기 어렵다. 공적 자금 확보는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노골적으로 상업화 전략을 취하기도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협찬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다. 다만, 협찬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EBS의 공영성과 교육성을 증진시키는 한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① 외주제작 비율의 적정성, ②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외주제작비율 준수 정도, ③ 외주제작 관리 및 프로그램 검수 시스템 활용 정도, ④ 외주제작사와 제작물에 대한 평가 시스템 운영 정도 등 4가지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평가 결과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EBS의 외주제작 비율은 제작비 기준 39.5%로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 비해 전체 제작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외주 제작비는 작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외주제작 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영 조건에서도 상생협력의 원칙을 지키려는 EBS의 노력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기준 외주제작 비율 준수 정도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가 고시한 외주제작 비율은 16% 이상이나, EBS는 2018년 평균 30%를 상회하는 외주제작 편성 실적을 보여주었다.

셋째, 외주제작 관리 및 프로그램 검수 시스템 활용 정도 역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BS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작 관리 및 검수의 시스템화가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프로그램 부제별로 프로그램 품질, 시청자 소구도, 기술적 완성도에 관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전산으로 입력, 누적 데이터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편성 단위(6개월)별로 외주제작사 및 제작진에 대한 총 평가를 시행하여 외주제작사와 프로그램 제작진 선정 및 교체 등에 필요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넷째, 외주제작사와 제작물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외주관리 프로듀서의 풍부한 제작 경험 활용 및 전문성을 신장하여 외주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며, 외주제작사 선정 시, 공정성 제고 및 과학적인 데이터 활용, 외주제작사의 창의적인 기획 수용 등을 통해 우수한 외주제작사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주 제작진들이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EBS 정체성 및 방송 제작에 필수적인 기준을 습득도록 하여 EBS 정체성 구현 및 프로그램 품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였다. 추가로,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해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SNS 홍보 전략을 수행하고,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력에 대한 기관의 의지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외주제작사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외주제작 관리에 대한 평가를 통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제도적 개선과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사로부터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등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EBS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상파 방송사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다. 하지만 EBS는 그동안 독립 PD들과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를 여러 번 경험했다는 점에서, 타 지상파 방송사보다 좀 더 선도적인 노력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정된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여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CP 교육 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노력 역시 배가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① 내부 평가제도 운영 현황과 결과, ② 내부심의제도 운영 현황과 결과 등 2가지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평가결과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평가제도의 핵심인 시청자모니터링이 운영 미비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충실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쉽다. 시청자모니터단에 교육 콘텐츠의 직접 수요층인 청소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시청자모니터단의 규모를 축소한 점 또한 아쉬운 부분이다. 시청자모니터링은 프로그램의 평가가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EBS에 충성도가 높은 시청자 집단을 양성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EBS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내부심의회제는 인력 부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 지상파 1TV를 부서위임심의를 포함하여 NPS(Network Production System)를 통한 심의를 전면 시행한 해로 심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부서위임심의 담당자들에게 심의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또한 제작진의 심의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퀴즈와 같은 창의적인 방식을 활용한 것 또한 좋은 시도였다. EBS는 특히 교육과 공익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제도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라. 시청자 서비스

평가 내용

1)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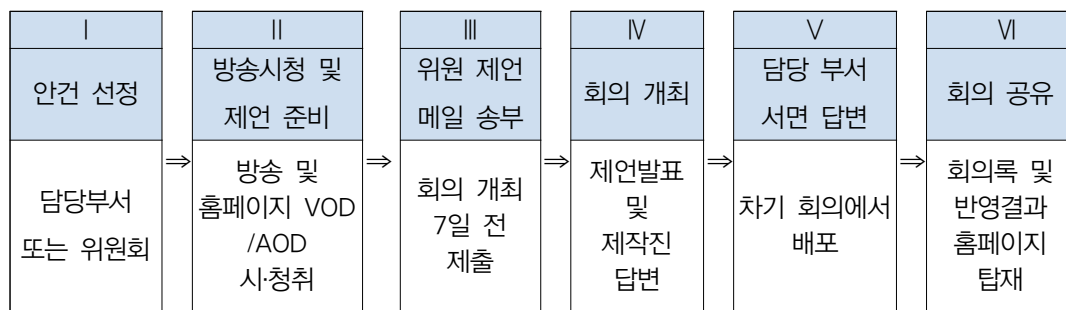
가) 평가 기준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은 공영방송사로서 책무 이행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의견을 프로그램에 어떻게 반영하고 피드백하는지, 시청자들의 수요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요소는 ① 시청자 의견 수렴 시스템의 적정성, ② 시청자 의견 반영 및 피드백 현황과 성과 등 2가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시청자 의견 수렴 시스템의 적정성 및 운영 정도

EBS는 시청자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교사 시청자위원회’,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먼저,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상(방송법 제87조) 설치 의무는 없으나, 시청자들의 의견 수렴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NGO, 시청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교육 및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제작 관련 부서장, 담당 부장과 PD가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회의 제언을 청취하고 반영하고 있다. 매월 회의 개최 후 ‘제언 반영결과’는 차기 회의 때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EBS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페이지에 정기회의 ‘회의록 전문’과 ‘제언 반영결과’ 자료를 탑재, 공개하여 일반 시청자도 시청자위원회 운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월 1회 정기회의 외에도 제작진과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임원진 및 제작진과 시청자위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2-4〉는 시청자 위원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도해이다.



<그림 2-4> 시청자위원회 의견 수렴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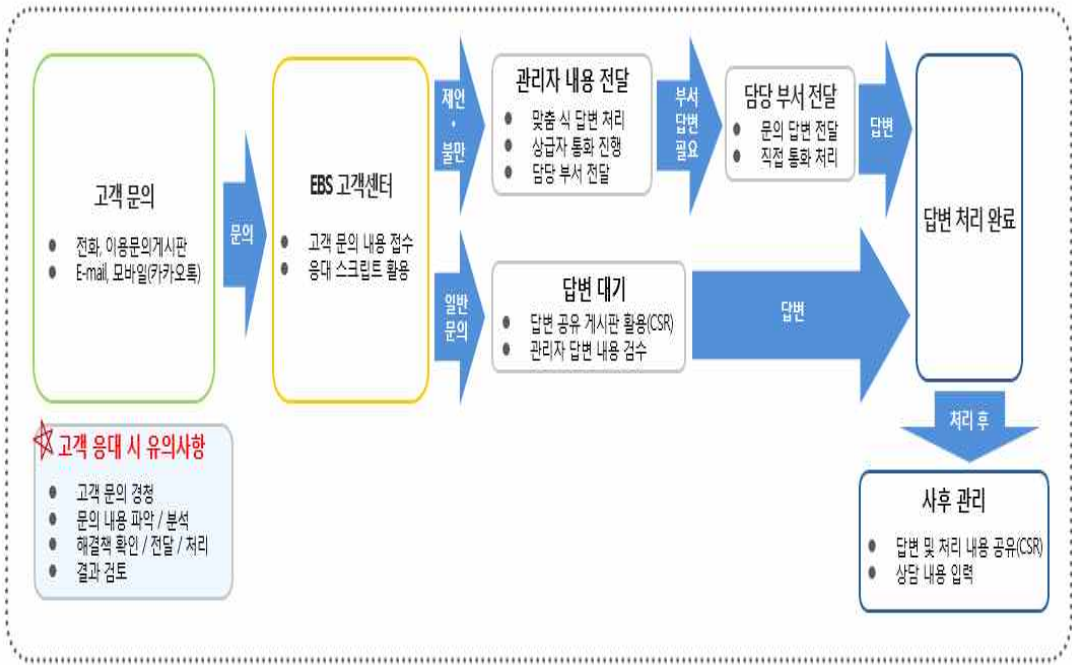
다음으로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는 EBS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또는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당한 것을 담당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시청자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EBS 심의시청자실장, 조직법무부 변호사 등 내부 직원이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처리 내용이 미흡한 경우 2차로 ‘시청자위원회’ 산하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는 이준웅 위원장, 김춘효 위원, 장준영 위원(변호사/당연직)으로 구성되어있다.

<표 2-20>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의 구성

구분	위원회 구성
1차(내부)	심의시청자실장, 조직법무부 변호사, 민원 프로그램 제작진 및 부장
2차(외부)	EBS 시청자위원회 이준웅 위원장, 김춘효 위원, 장준영 위원

또한 ‘교사 시청자위원회’는 교육부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EBS 고교강의 사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로, 시도교육청별 추천 고등학교 교사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 총 3회 회의를 개최하고, 4회 고교강의 발전을 위한 자료조사 및 제언자료를 받아 교사 입장에서 EBS 교육콘텐츠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는 시청자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 접수하고 수렴하여, 그 내용을 신속하게 조직 내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2교대에서 4교대로 변경하면서 상담사 인력을 효율화하였고 그로 인하여 1일 평균 27명의 상담사가 근무하였다. <그림 2-5>는 고객센터 접수 프로세스에 대한 도해이다.



<그림 2-5> 고객센터 접수 프로세스

② 시청자 의견 반영의 정도

시청자 의견의 반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교사 시청자위원회’, ‘고객센터’의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청자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총 238건의 제언을 받아 그중 226건(95%)의 제언을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에는 초상권 등 시청자 권익침해 관련 민원이 34건 인입되었고, 모든 민원이 처리되었다. 민원 내용과 건수는 <표 2-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21> 시청자 권익침해 관련 민원 접수 현황

구분	내용	건수
1	동의 없는 방송 노출(실명, 자료화면, 모자이크미처리 등)	7건
2	타 매체를 통한 출연 불만	11건
3	방송 이후 생활의 불편 및 가족 피해 우려	7건
4	기타(단순 본인 요청 등)	9건
계		34건

다음으로, ‘교사 시청자위원회’의 제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1학년 교과서 강의와 관련해서, 학습 주제 압축 정리 동영상, 학생들이 예습이나 복습을 할 수 있는 강좌, 실생활을 기반으로 한 심화학습 클립 제작 등의 확충,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진도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 등을 요청하였다.

둘째, 고교강의 사업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 역시 제시되었는데, EBS 콘텐츠 접근성 제고 필요, 편리한 검색 기능 추가 개발, 수행평가 개념완성 같은 단기강좌 서비스 시기 조정, EBS 활용 관련 많은 홍보 필요, 학생 중심·과정 중심 수업 지원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객센터’로는 전화, 게시판,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총 194,107건이 인입되었고, 그중 178,280건(92%)이 접수되어 각 부서에 전달되었다.

<표 2-22> 2018년도 고객센터 접수 및 처리 내역

구 분	전화	1:1문의	이메일	SNS	소 계
접수건	161,950	23,147	2,829	6,181	194,107
처리건	146,023	23,247	3,829	6,181	178,280
응대율(%)	(90.2%)	(100.4%)	(100.0%)	(100.0%)	(91.8%)

주) 1:1문의 및 이메일상담은 기준일 이전 상담처리 건수가 반영됨.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적정성’은 프로그램의 리얼리티를 살리면서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시청자 의견을 프로그램에 직접 반영하거나, 시청자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요소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비율 및 운영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비율 및 운영 정도

2018년 EBS는 EBS 1TV 연간 편성 시간의 16.3%, 2TV 18%, FM 라디오의 27.5%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편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시청자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대표적으로, 〈모여라 덩동댕〉, 〈방귀대장 뽕뽕이〉 등 유아어린이를 위한 EBS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 편성하고 특히, 〈초이슈〉, 〈아빠타〉, 〈랄랄라 뿌우〉 등 어린이들이 직접 출연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포맷의 신규 프로그램을 확장하였다. TV에서의 소외계층인 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배워서 남줄랩〉, 〈장학퀴즈-학교에 가다〉 등으로 공영방송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생방송 프로그램 〈창사특집 생방송 -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는 1,000개의 질문〉, 〈생방송 EBS 교육저널〉, 〈생방송 톡톡 보니 하니〉,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시청할 수 있는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조식포함 아파트〉를 편성하여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글로벌창업도전기-사부의 가게〉, 〈EBS 창사특별기획-최종면접〉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 시청자들의 참여와 도전을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시청자의 신청과 제보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반려묘를 소재로 한 〈고양이를 부탁해〉를 확대 편성하였으며 〈나눔 070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 계층을 위한 시청자 참여형 기부문화 조성에도 힘쓰고 있었다.

이외에도 〈EBS 스페이스 공감〉을 통해 시청자 대상 무료 콘서트를 매주 진행하고 방송함으로써 문화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FM 라디오에서는 〈EBS 북 카페〉, 〈모닝 스페셜〉, 〈니하오 차이나〉 등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한편,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백성문의 오천만의 변호인〉, 〈다문화 음악여행〉 등의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취자 참여를 지속해서 확대하였다.

평가 결과 및 제언

2018년 EBS 시청자 서비스 운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①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적정성 등 2개 평가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① 시청자의견 수렴 시스템의 적정성, ② 시청자 의견 반영 및 피드백 현황과 성과 등 2개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평가 결과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BS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권리보호위원회’, ‘교사시청자위원회’, ‘고객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특히 방송법상 설치 의무가 없는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시청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2018년에 시청자위원회 내부에 ‘시청자권리보호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자, 언론인, 법조인의 시각에서 시청자 권리 보호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은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시청자권의 침해 관련 민원이 2017년 대비 100%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원 내용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정 절차를 체계화시킨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총 6기까지 운영되던 ‘청소년시청자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비록 ‘시청자모니터단’에 청소년 모니터 요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참여 역시 매우 저조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 시청자층인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할 방안으로 ‘청소년위원회’를 다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시청자 의견 반영 및 피드백 현황과 성과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자위원회의 제언 중 95%, 시청자권익침해 민원이 100%, 고객센터 접수 민원의 92%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다. 다만, 홈페이지 내에서 ‘EBS 시청자권리보호위원

회'의 노출을 개선하여 시청자가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민원 처리 내용 또한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해결 과정의 투명성을 시청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 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및 운영 정도를 확인하였다. 2018년 EBS는 EBS 1TV 연간 편성 시간의 16.3%, 2TV 18%, FM 라디오의 27.5%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할 때, EBS 1TV와 EBS FM은 비슷한 수준이고, 2TV는 약 8%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편성 비율로만 놓고 볼 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무난한 수준이나, 더 중요한 것은 시청자 참여의 질이다.

방송사의 입장에서 시청자 참여는 EBS의 공익적 역할을 시청자가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EBS에 대한 관여도와 호감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시청자가 다양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EBS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들수록 좋다. 특히 최근에는 시청자들의 매체 이용 행태 변화에 따라 모바일, 웹, IPTV VOD 등 다양한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시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MCN 방송,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매체 환경 속에서 시청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포맷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마. 방송성과

평가 내용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가) 평가 기준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는 EBS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 참신성, 실험성, EPEI/CI 지표를 통한 시청자 평가와 프로그램의 국내외 기관의 평가를 중점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요소는 ① 기존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결과, ② 신규 프로그램의 참신성, 실험성 및 제작 횟수, ③ EPEI와 CI 신장 정도, ④ 프로그램의 국내·외 평가 정도 등 4가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기존 프로그램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결과

기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EBS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빅 콘텐츠 및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제작 확대하였다. 대표적으로, 프라임 타임대 방송 중인 <세계테마기행>, <극한직업> 등 화제성과 시청률이 검증된 프로그램의 RT를 확대하여 프로그램의 경쟁력과 완성도를 제고함으로써 동 시간대 시청률을 전년 대비 9.4%(1.59%-)1.74%)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조식포함 아파트>, <부모성적표>, <배워서 남줄랩> 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신규 개발하여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역량 강화와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전 기획 및 시즌제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를 통해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대기획-번아웃 키즈>, <예술교육, 미래를 열다>, <4차 인간> 등의 다큐멘터리를 사전 기획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변화하는 교육 현장과 정책에 대한 어젠다 설정에 기여하고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사 오천년, 생존의 길>, <창사특집 5원소, 문명의 기원>,

〈경제대기획 빛〉, 〈밤의 제국〉, 〈청춘 전당포〉 등 과학, 역사, 인문교양 다큐멘터리를 강화하여 EBS 다큐 프라임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표 2-23〉과 〈표 2-24〉는 각각 2018 사전기획 및 제작 프로그램 내역과 주요 시즌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표 2-23> 2018년 주요 사전기획·제작 프로그램 내역(신규 제작 본방 기준)

프로그램명	편수	방송일시	투입 제작비(천 원)
교육대기획-번아웃 키즈	4부작	1.1~2.8~2.9	195,000
한국사 오천년, 생존의길	6부작	1.29~2.31/2.5~2.7	791,970
개띠열전	3부작	2.12~2.14	120,000
4차 인간	3부작	3.5~3.7	217,000
예술, 할까요?	3부작	4.23~4.25	150,000
불의 검	3부작	4.30/5.1~5.2	285,000
빠	3부작	5.14~5.16	240,000
맛의 배신	2부작	5.21~5.22	97,000
밤의 제국	2부작	5.28~5.29	220,000
창사특집 5원소, 문명의 기원	5부작	6.19~6.20/6.25~6.27	1,144,032
진화와 공존의 섬, 갈라파고스	3부작	8.6~8.8	234,999
역사의 빛, 청년	1	8.15	66,500
내 운동화는 몇 명인가	1	8.27	70,562
샤먼로드	1	8.29	30,000
한글, 전란 속에 성장하다	1	10.9	55,000
알츠하이머 보고서	2부작	10.29~10.30	122,000
경제대기획 빛	3부작	12.3~12.5	138,978
웃픈 다큐, 청춘 전당포	3부작	12.24~12.26	150,000

<표 2-24> 2018년 주요 시즌제 프로그램 내역

프로그램명	편수	방송일시	투입 제작비(천 원)
조식포함 아파트	12부작	9.10~12.2	520,000
부모성적표	14부작	7.30~11.11	672,000
배워서 남줄랩	13부작	4.23~7.20/10.29~1.13(2019)	670,153
아빠타	13부작	2.26~5.20	335,400
초이슈	13부작	5.21~8.26	325,000

② 신규 프로그램의 참신성, 실험성 및 제작 횟수

2018년 비상경영 체제하의 EBS는 신규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대신 참신하고 실험적인 파일럿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함으로써, 신규 시청자 유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도시에 익숙한 4남매의 시골 라이프를 통해 아이들이 함께 놀고 도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다큐멘터리 <4남매쇼>, 초등학교의 시각에서 사회이슈를 살펴보는 <초이슈>, 사춘기 아이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2끼리 하우스>, 힙합과 지식의 콜라보 토크 쇼 <배워서 남줄랩>, 청소년의 시각에서 부모의 모습과 역할을 돌아보는 <부모성적표> 등 가족 및 사회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또한 모바일과 SNS 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콘텐츠 소비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젊은 감성의 5~10분 내외의 모바일 전용 콘텐츠의 제작을 확대하여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트랜스 미디어 전략을 추진하였다. 2018년 주요 파일럿 프로그램을 <표 2-25>에 제시하였다.

<표 2-25> 2018년 주요 파일럿 프로그램 내역(본방기준)

프로그램명	편수	방송일시	투입 제작비(천 원)
상상식탁	4편	3.31~4.21 매주(토)	144,000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3편	4.1~4.22 매주(일)	144,000
조식포함 아파트	4편	4.29~5.20 매주(일)	180,830
EBS 특별기획 <인터뷰 대한민국 2018>	4편	5.27~6.17 매주(일)	120,000
100 투 더 퓨처	2편	9.2~9.9 매주(일)	80,000
중2끼리 하우스	4편	7.22~8.12 매주(일)	144,000

③ EPEI와 CI 신장 정도

2018 종합 EPEI 평가지수는 7.81로 전년 대비 오차 범위($\pm 5\%$) 내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하지만 지난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표 2-26> 참조). 세부적인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1년 이상 제작, 방송된 교양, 인문 프로그램은 인지도나 평가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조식포함 아파트>, <다문화 고부열전>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2-26> 2015년~2018년 EPEI 지수 추이

(단위: 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종합EPEI	7.80	7.83	7.85	7.81
창의성	7.39	7.44	7.47	7.46
완성도	7.51	7.57	7.59	7.56
흥미성	7.49	7.50	7.53	7.49
공익성	7.43	7.51	7.56	7.51
교육성	7.51	7.55	7.56	7.52

2018년 종합 CI 점수는 7.62점으로 2017년 대비 64점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이후 4년간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표 2-27> 참조). 2018년은 특히 아동으로부터의 평가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채널의 교육성과 유익성 차원에서 타 교육 채널과 비교한 점수 역시 EBS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2015년~2018년 CI 지수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아동	부모	평균	아동	부모	평균	아동	부모	평균	아동	부모	평균
전체 CI		6.96	7.34	7.15	6.85	7.51	7.18	6.30	7.66	6.98	7.46	7.78	7.62
내용		6.84	7.40	7.12	6.74	7.52	7.13	6.23	7.64	6.93	7.29	7.66	7.48
기획/제작		7.02	7.48	7.25	6.89	7.64	7.27	6.32	7.80	7.06	7.56	7.92	7.74
기여도		7.02	7.28	7.15	6.93	7.37	7.15	6.34	7.53	6.93	7.53	7.75	7.64
채널 평가	교육성	EBS 4.32 재능 3.38 대교 3.29 (5점척도)			EBS 4.40 재능 3.31 대교 3.26 (5점척도)			EBS 4.25 재능 3.57 대교 3.52 (5점척도)			EBS 4.35 재능 3.46 대교 3.58 (5점척도)		
	유익성	EBS 4.33 재능 3.29 대교 3.32 (5점척도)			EBS 4.39 재능 3.29 대교 3.24 (5점척도)			EBS 4.28 재능 3.56 대교 3.52 (5점척도)			EBS 4.34 재능 3.43 대교 3.38 (5점척도)		

※ CI 평가지수는 EBS 채널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점수의 평균이며 전체 CI는 10점, 채널평가는 5점 척도로 환산 측정

④ 프로그램의 국내·외 평가 정도

2018년도 EBS 국내·외 수상실적은 총 47건으로 작년 대비 2건 많아졌지만, 지난 3년의 추세를 고려할 때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표 2-28〉 참조). 또한 2018년의 성과는 수상실적에 대한 기대 목표를 100으로 계량화했을 때 약 90%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28〉 2015~2018 수상 실적 (단위: 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평균
48	46	45	47	46.5

2)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가) 평가 기준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는 EBS 프로그램에 대하여 시청률, 점유율, 그리고 VOD 이용 정도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방송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요소는 ① 주 시청 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 정도, ② 타겟 시청자 시청률 및 점유율, ③ 온라인/모바일 VOD 이용률 등 3가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주 시청 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 정도

EBS에서 설정한 주 시청 시간대는 월~금 06:00~11:00 및 17:00~24:00, 토·일 06:00~25:00이다. 시청 가구를 기준으로 주시청시간대 시청률과 점유율을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살펴본 결과, 시청률과 점유율 모두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29) 참조). 2018년 주 시청 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을 계량화하여 목표 대비 성과 수준을 파악해본 결과, 시청률은 목표의 61.95%, 점유율은 목표의 70.1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 2014~2018년 주 시청 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가구 기준)

주 시청 시간대	시청률	점유율
2018년	0.87	2.03%
2017년	0.90	2.07%
2016년	0.99	2.21%
2015년	1.08	2.37%
2014년	1.06	2.28%

② 타겟 시청자 시청률 및 점유율 정도

EBS는 지상파 TV의 편성 시간대를 유아어린이 시간대, 성인 시간대 등 대상으로 블록화하고 목표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편성전략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먼저, EBS는 월~금 07:00~09:40 및 16:00~19:30, 토 07:00~11:00, 일 07:00~10:30을 유아어린이 시간대로 설정하여 타겟 시청 층에 맞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어린이 시간대는 유아·어린이의 시청행태 변화와 늘سن 시청률 통계 기준 변경(2016년 8월 1일) 등으로 인해 2016년부터 시작된 하락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겟 시청률(남녀 4~9세) 또한 2017년 1.79에서 2018년 1.27로, 점유율도 2017년 18.57%에서 2018년 12.63%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표 2-30> 참조). 이를 계량화하여 목표 대비 성과 수준을 파악해본 결과, 유아 및 어린이 시간대 시청률은 목표 대비 - 14.75%, 점유율은 목표 대비 - 14.3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0> 연도별 유아어린이 시간대 타겟 시청률 및 점유율(남녀 4~9세)

유아어린이 시간대	시청률	점유율
2018년	1.27	12.63%
2017년	1.79	18.57%
2016년	2.68	26.74%
2015년	2.67	25.47%
2014년	2.55	23.87%

다음으로 EBS는 월~금 09:40~11:00, 19:30~24:00, 토 11:00~24:00, 일 10:30~25:00를 성인 시간대로 설명하여 성인 시청자의 평생 교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성인 시간대 프로그램 타겟 시청률은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상승하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 성인 시간대의 타겟 시청률은 0.54%를, 타겟 점유율은 2.10%를 기록하여 (<표 2-31> 참조) 목표 대비 시청률 70.05%와 점유율 65.24%의 수치를 달성하였다.

<표 2-31> 연도별 성인 시간대 타겟 시청률 및 점유율(남녀 20세 이상)

성인 시간대	시청률	점유율
2018년	0.54	2.10%
2017년	0.60	2.31%
2016년	0.57	2.32%
2015년	0.60	2.42%
2014년	0.58	2.32%

③ 온라인/모바일 VOD 이용 정도

EBS 메인사이트,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한 VOD 공급 확대, EBS Collection 채널(여행/건강/라이프스타일)을 통한 콘텐츠 재가공 및 선별 큐레이션, SNS 채널 마케팅을 통해 유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콘텐츠 VOD 이용 건수도 증가하였다(<표 2-32> 참조). 전체적으로 TV VOD 이용은 목표 대비 248.80%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2> 유아성인 대상 VOD 이용건수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유아	599,177,614	611,526,249	582,479,027	930,374,130
성인	268,196,228	467,581,844	646,911,796	869,853,976
합계	867,373,842	1,079,108,093	1,229,390,823	1,800,228,106
성인비중	30.9%	43.3%	52.6%	48.6%

주: EBS 메인사이트, 유튜브, 네이버TV

전체 VOD 이용 건수를 플랫폼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표 2-33> 참조), EBS 홈페이지와 네이버 TV를 통한 VOD 이용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유튜브를 통한 VOD 이용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33> 플랫폼 별 VOD 이용 건수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EBS 사이트	24,410,415	29,529,308	24,843,577	22,670,354
유튜브	758,981,180	969,187,785	1,151,374,571	1,749,817,618
네이버TV	70,294,621	66,978,618	45,075,291	27,740,134
합계	867,373,842	1,079,108,093	1,229,390,823	1,800,228,106

주: EBS 메인사이트, 유튜브, 네이버TV

하지만 EBS 홈페이지를 통해 라디오 AOD를 이용하는 건수는 작년보다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목표 대비 산출 결과도 28.65%에 불과하였다. 2015년에 약 1,000만 건이던 이용 건수가 2018년 약 650만 건으로 감소한 것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표 2-34> FM AOD (EBS 홈페이지 이용 건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스트리밍	10,448,206	8,065,430	8,097,384	6,465,744

3)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가) 평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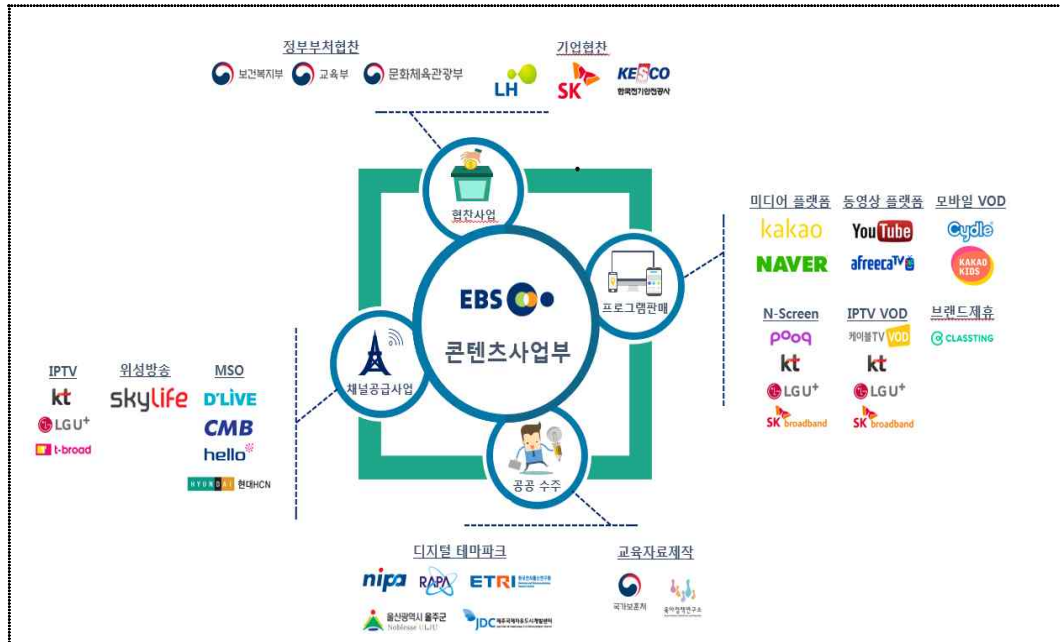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① 콘텐츠 내부 관리 체계의 적정성, ②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의 외부활용 실적 및 재활용 정도, ③ 제작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와 콘텐츠 다각화를 위한 협의 정도 등 3가지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나) 평가 사항

① 콘텐츠 내부 관리 체계의 적정성

EBS 콘텐츠사업부는 콘텐츠 내부 관리 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콘텐츠사업부의 임무는 ① 프로그램 판매(애니메이션, 유아 콘텐츠 등 유료 콘텐츠 유통 및 VOD 서비스), ② 협찬사업(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찬과 공익성 캠페인 협찬), ③ 채널공급사업(Skylife, MSO, IPTV 사업자 대상 실시간 채널 판매), ④

공공수주(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제작 협찬 수주), ⑤ 메인사이트기반 및 온라인광고 사업(VOD/AOD 다시 보기/온라인·대학배너광고) 등 5가지로 구분된다(그림 2-6) 참조).



<그림 2-6> 콘텐츠 사업부 업무 도해

②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의 유통 및 사업화 정도

EBS는 EBS 사이트, 포털, N스크린(모바일/태블릿/인터넷), 웹하드, 케이블, 위성방송, IPTV, B2B 등 공급 가능한 모든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 서비스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표 2-35) 참조). 그 결과, EBS 콘텐츠의 멀티 플랫폼 공급을 통한 사업수익은 2017년 164.6억 원에서 2018년 191.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2-35> 멀티 플랫폼 콘텐츠 공급

구분	내용	비고
VOD 유통사업	IPTV(CATV) VOD 유통사업	
B2B판매 및 제휴 (영상공급포함)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제작 공급 등	
모바일서비스	모바일 교육콘텐츠, N-SCREEN	
웹하드 양성화 사업	45개 업체 52개 사이트와 제휴	
IPTV 및 위성방송	SkyLife, KT, LGU+, SKT 공급	
SO 런칭	총 90개 처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등 미디어플랫폼	
EBS 육아학교	신규사업	
메인사이트 VOD 및 온라인 광고	메인사이트 VOD/온라인광고, 사이트 온라인 광고	

또한 콘텐츠사업부는 문화사업을 통해 콘텐츠 재활용 및 판매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6> 참조).

<표 2-36> 문화사업

구분	내용	비고
협찬사업	방송프로그램, 시험대비강좌, 캠페인 등 협찬	
대행보급사업	한국산학경영 연구소, 러닝코리아 등	EBS미디어
방송권 판매	<다큐프라임>, <극한직업> 등	EBS미디어
공연권 판매	<세계테마기행>, <명의> 등	EBS미디어
셀스루 제품 판매	<방귀대장 뽕뽕이>, <뽕뽕 뽕로로> 등	EBS미디어
복사 판매	<다큐프라임> 등	EBS미디어
캐릭터 제품	<방귀대장 뽕뽕이>, <딩동댕 유치원> 등	EBS미디어

③ 제작 단계부터 사업부서와 제작부서 간 협력시스템의 운영 정도

EBS는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사업부서와 제작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협력 체계는 크게 EBS 내부 조직 간 협력 관계와 EBS와 외부 조직 간 협력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EBS 내부에서는 편성-제작-사업부서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편성-제작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편성위원회를 통해 편성 정책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EBS와 외부 유관 기관과의 협력 관계 역시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KOCCA, KISA, KCA 등과의 수시 간담회를 통해 제작비 협찬 및 글로벌 프리미엄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 관련 현안(예, 학교 폭력, 수능 정책 변경, 방과 후 학교 정책 등)을 수시 협의하고 이를 편성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평가 결과 및 제언

2018년 EBS의 방송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① 프로그램 완성도, ②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③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등 3개 평가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프로그램 완성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① 기존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 정도, ② 신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의 참신성과 실험성 정도, ③ EPEI와 CI 정도, ④ 프로그램의 국내·외 평가 정도 등 4개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평가결과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BS는 기존 프로그램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화제성과 시청률이 검증된 <세계테마기행>, <극한직업>, <다문화고부열전>, <다큐시선>, <팻다이어리> 등을 확대 편성하여 동 시간대 시청률 상승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사전 기획과 시즌제 프로그램 제작의 정착으로 인력 및 제작비의 효율적 운영과 개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였다. 둘째,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4남매쇼>, <초이슈>, <중2끼리 하우스>, <조식포함아파트>, <부모성적표> 등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제작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모바일과 SNS 플랫폼을 통한 동영상 소비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셋째, EPEI 지수는 매년 큰 변동이 없으나, CI 지수는 2018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아동으로부터의 우호적인 평가가 높아졌다. 넷째, 국내외 수상은 예년 수준의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화제성과 시청률이 입증된 대표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거나 스핀오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빅 콘텐츠 전략은 시청률과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EBS를 대표하는 빅콘텐츠는 시청자에게 EBS의 정체성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EBS라는 방송사의 브랜드 강화 효과에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대표 프로그램의 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EBS가 추구해야할 미래의 목표를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 현재

KBS를 비롯한 모든 지상파 채널이 시청자의 고령화로 고전하고 있으며, 젊은 시청자를 유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EBS 이용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불가능하지만, EBS라고 해서 시청자 고령화의 추세에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차세대 신규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이용 패턴을 반영하고 다변화된 플랫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와 그에 따른 마케팅, 편성 전략을 통해 EBS의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킬러 콘텐츠를 통해 프로그램 라인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EBS 전체 브랜드의 노쇠화를 피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① 주 시청 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 ② 타겟 시청자 시청률 및 점유율, ③ 온라인/모바일 VOD 이용률 등 3개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각각의 평가 결과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 가구를 기준으로 주 시청 시간대 시청률과 점유율은 모두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 시청자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아 및 어린이 시청자의 이탈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셋째, 어린이와 성인 시청자의 온라인과 모바일 VOD 이용률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종합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 및 어린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시청률 하락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EBS는 핵심 시청자층인 유아 및 어린이 시청자를 놓고 유튜브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현재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토이푸딩 TV(ToyPudding TV)’의 구독자는 2,300만이 넘고, ‘보람튜브’의 구독자 역시 1,000만이 넘어간다. 이러한 경쟁자들과 대결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유아·어린이들의 시청 행태를 고려하고 최신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여야 한다. 물론 공적 책무, 내용 규제, 상업적 협찬 등에서 자유로운 유튜브 방송과의 경쟁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오히려 유튜브의 그런 특성 때문에 EBS 프로그램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혁신적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실시간 시청에서 비실시간 시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재의 시청 행태를 반영하여 기존 시청률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다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정확한 시청자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통합 콘텐츠 이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정량적인 TV 시청률 지표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와 화제성, VOD 서비스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형태의 지표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① 콘텐츠 내부 관리의 체계성 정도, ②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의 유통 및 사업화 정도, ③ 조직 내·외 협력 시스템 운영 정도 등 3개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평가 결과와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방송, 온라인, 모바일, 출판, 콘텐츠 유통 등 EBS 보유 매체 활용 및 플랫폼 전반의 통합 협찬상품을 기획하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협찬으로 매출 규모가 증대되었다. EBS 보유 콘텐츠를 시기별, 주제별로 요약 및 재가공한, 2차 저작물 모바일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동시다발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기존의 콘텐츠 홍보 및 2차 저작물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 VOD 및 모바일 앱 서비스 내 EBS 교양/다큐 등의 콘텐츠를 추가로 공급하고 방송분 이외의 오디오 및 스크립트, 영상 클립, 영상 스틸 이미지 등을 자료화하여 판매 가능한 신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외부 업무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콘텐츠 창출 수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출 및 공급 시간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공익캠페인 송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사업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캠페인 관련 큐시트 제공으로 광고주 만족도 제고 및 단가 세분화 및 협찬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신규 제작으로 공익적 콘텐츠를 확보하여야 하며, 제작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제작단계에서 저작권 관련 출처 및 증빙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바.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평가 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가) 평가 기준

경영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한 현실 진단과 개선 사항 도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 방송부문 경영평가결과에서 제안된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성과를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전년도 방송부문 경영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2017년도 방송부문 경영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권고사항은 다음 5가지이다.

① 대표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내용과 포맷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 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타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수용자 소비행태에 맞추어 교육공영방송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손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민주시민 교육 관련하여 실험성과 도전정신이 드러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⑤ 외주제작 관행을 획기적으로, 지속해서 개선해나가야 한다.

각 권고사항에 대한 EBS의 조치 결과는 <표 2-37>과 같다.

<표 2-37> 전년도 방송부문 경영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 및 조치 결과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1. 대표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내용과 포맷의 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빅 콘텐츠 편성으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제성과 시청률이 검증된 기존 프로그램을 빅 콘텐츠로 전환하여 RT 확대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테마기행> 40분 -> 50분 확대 편성 - <극한직업>, <다문화교류열선>, <강형욱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분 -> 70분 확대 편성 · 파일럿 존, 생활역량 존의 주요 프로그램에 인력과 제작비를 집중 편성하여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성적표>, <조식포함 아파트>, <배워서 남줄랩> 등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로그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대별 편성 존(Zone) 설정하여 편성블록 전략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시간대에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편성 존(Zone)을 설정하여 채널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 유도· 1TV : 사회통합 공동체 존, 생활역량 존, 민주시민교육 존 신설· 2TV : 창의융합교육 존, 교육현장 존, 미래교육 존 신설																
2.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타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보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EBS 콘텐츠 정체성 강화 모색<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이 아닌 자율성과 창의력, 소통능력 등 기본 소양 함양· 인간 중심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민주시민 소양 증진· 교육 관련 의제와 정보제공으로 교육 공론의 장을 마련<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통합 공동체 콘텐츠: <다문화 고부열전 스페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배워서 남줄랩>- 생활역량 강화 콘텐츠: <극한직업>- 어젠다 설정 콘텐츠: <EBS 교육저널> <div><div>민주시민 교육</div><div>사회통합 · 공동체</div><div>EBS 1TV “평생 교육 채널”</div><div>생활역량 강화</div><div>어젠다 설정</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비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융합교육 콘텐츠 개발<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학 창의융합 콘텐츠: <영동남매공작소>, <과학할고양>, <생방송 판다다>, <세미와 매직큐브> 등- 과학 다큐멘터리 신규 개발: <과학다큐-비온드>- 지식격차 해소 프로그램: <생각하는 콘서트>,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 <호모 이코노미쿠스>, <디지털 할배>○ 혁신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신규 시청자 유입 확대 모색<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파일럿 콘텐츠 편성: <부모성적표>, <중2끼리 하우스>, <조식 포함 아파트>, <상상식탁> 등																
3.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수용자 소비 행태에 맞추어 교육 공영 방송에 적합한 평가 기준을 손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미디어 기기를 통한 비실시간 시청 확산으로 고정형 TV 중심의 시청률 조사는 한계가 있음○ 시청률 외에 이용자의 다양한 반응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 개발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 계획 <table><tr><th>구분</th><th>추진 과제</th><th>내용</th><th>비고</th></tr><tr><td>1단계</td><td>텍스트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마련</td><td>· EBS 관련 텍스트 마이닝 체계 마련 및 프로그램 기획제작에 활용</td><td>2018</td></tr><tr><td>2단계</td><td>신규 평가지표 개발</td><td>· 시청률 포함 통합 평가 지표 개발 및 프로그램 영향력 분석 · 이용자 반응 정성·정량 평가</td><td>2019</td></tr><tr><td>3단계</td><td>신규 평가지표 정착</td><td>· 프로그램 영향력 강화 및 채널 브랜드·이미지 재구축 · 채널·프로그램 충성도 확보</td><td>2020</td></tr></table>	구분	추진 과제	내용	비고	1단계	텍스트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마련	· EBS 관련 텍스트 마이닝 체계 마련 및 프로그램 기획제작에 활용	2018	2단계	신규 평가지표 개발	· 시청률 포함 통합 평가 지표 개발 및 프로그램 영향력 분석 · 이용자 반응 정성·정량 평가	2019	3단계	신규 평가지표 정착	· 프로그램 영향력 강화 및 채널 브랜드·이미지 재구축 · 채널·프로그램 충성도 확보	2020
구분	추진 과제	내용	비고														
1단계	텍스트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마련	· EBS 관련 텍스트 마이닝 체계 마련 및 프로그램 기획제작에 활용	2018														
2단계	신규 평가지표 개발	· 시청률 포함 통합 평가 지표 개발 및 프로그램 영향력 분석 · 이용자 반응 정성·정량 평가	2019														
3단계	신규 평가지표 정착	· 프로그램 영향력 강화 및 채널 브랜드·이미지 재구축 · 채널·프로그램 충성도 확보	2020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 실적: 1단계 텍스트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모바일 데이터 마이닝 전문업체를 활용, EBS 탑 25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 조사매체: 매스미디어,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 '19년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에 소셜 빅데이터 자료 활용 체계화하고 평가지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평가지표 추진방향: EBS 콘텐츠 활용지수 (EBS Contents Application Index) - 시청률, 소셜 빅데이터 분석, 패널 데이터 조사 등을 통합한 EBS 프로그램 활용률을 조사함으로써 크로스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지수 개발 추진 ○ EBS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업그레이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매년 EPEI(EBS Program Evaluation Index)와 CI (Children Index)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하여 조사 · EPEI: 시청자에게 인지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경쟁력 평가 · CI: 영역별 구분 삭제 및 제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조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 ○ 외부 기관의 다양한 시청률 자료 비교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위원회와 닐슨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평가지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
4. 민주시민 교육 관련하여 실험성과 도전정신이 드러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 배려, 시민의식, 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존(밤 23시 55분) 신설 및 프로그램 확대 · <배워서 남줄랩>: 10대들에게 익숙한 힙합 장르와 지식인의 강연을 콜라보함으로써 재미있고 친근하게 접근하는 시민교육 토크 쇼 ·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 뽀빠미>: 일상 속의 불편함과 불만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프로그램 · <질문 있는 특강 쇼 빅뱅>: 사회 이슈 및 현상에 대한 질문을 키워드로 청중과 강연자가 소통하며 강연을 진행하는 토크 쇼 · <행복한 교육세상>: 행복한 교육을 주제로 교육현장과 연계하여 행복한 교육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 <공감시대>: 교육과 행복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라디오 정보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시각에서 사회현안과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 ○ 다문화 가정, 탈북민, 노인 등 소외 계층을 보듬는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 <다문화 고부열전>: 갈등 상황에 놓인 다문화 가정의 고부가 며느리 나라에 방문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담아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p>낸 다큐멘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기러기 아빠와 아빠를 타국으로 떠나보낸 가족의 만남을 주선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다큐멘터리 ○ 세대 갈등 해소와 공동체 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식포함 아파트>: 아파트로 인해 사라진 이웃의 정과 공동체의식을 되살리고자 기획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셰프와 연예인이 밥차 군단으로 출동하여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하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프로그램 · <부모 성적표>: 부모와 사춘기 자녀들의 일상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봄으로써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세대공감 콘텐츠 · 사회문제를 초등생의 시각에서 풀어가는 <초이슈>, 아빠와 자녀의 공감을 넓히는 <아빠타>, 사춘기 청소년들만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10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의 자성을 유도하는 <중2끼리 하우스> 등
<p>5. 외주제작 관행을 획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큐 프라임> 독립 PD 사망사건 이후 EBS는 '콘텐츠협력제작 운영기준'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외주제작사와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독립PD 진흥목적 제작지원 사업 대상 EBS 제작비를 비조정하여 상생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으로 축소해 온 정부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EBS지원 제작비 조정을 진흥목적의 제작지원 사업에 대해 전면 폐지함으로써, 독립 PD 제작여건 개선에 기여 · 안전 대책 강화: 상해보험 가입 및 확인 의무화하는 등 독립 PD 제작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제작진 및 출연자 등의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제작자의 안전 시스템 제고 - 상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비를 증액하여 지원 · 촬영 원본 사용 절차 간소화를 통한 수익 분배 강화 ○ 독립제작사 및 독립 PD의 기획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독립다큐멘터리 제작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다큐 시네마> 신설하여 제작비 지원 · 독립제작사 및 독립 PD의 기획안 상시 접수 ○ EBS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기간 중 EBS Docu 펀드를 통해 독립 다큐에 제작투자 함으로써 신진 감독 발굴 및 제작 활성화 유도 ○ 향후에도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평가 결과 및 제언

2017년도 방송부문 경영평가를 통해 도출된 5가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EBS는 예산 적자 편성에 따라 비상경영체제를 실시하면서도 2017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빅 콘텐츠 전략에 대한 성과는 시청률 상승으로 인해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대별 편성 존(Zone)을 설정하여 편성 블록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인지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현재 EBS는 주요 시간대에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편성 존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존은 시청자의 생활 시간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일 저녁 19시 50분은 'Family & Parenting Zone', 평일 밤 23시 50분은 '민주시민 교육 Zone', 평일 밤 22시 45분은 '생활역량 Zone' 등이다. 하지만 현재의 시청자들이 이런 규칙적인 생활 시간대를 기반으로 시청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편성 존의 실효성을 시청자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타 방송사의 교양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EBS만의 콘텐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시민 교육, 창의·융합 교육, 실험적인 파일럿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하지만 학교 교육 보완이라는 정체성 이외 평생 교육과 민주 교육 콘텐츠에 대한 정체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교육전문 공영방송' EBS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과연 그런 정체성이 존재 하기는 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들 정도이다.

한 가지 명확한 점은 EBS의 정체성은 콘텐츠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것이다. 시청자는 결국 특정한 콘텐츠를 통해 EBS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지, EBS가 꼭 이런 것만을 방송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EBS 스스로의 철학에 근거한 참신하고 독심 있는 콘텐츠 전략이야말로 EBS만의 차별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지표의 개발에 대한 강조는 지나치지 않다. 시청률의 한계는 이미 오래전에 확인되었고, 이용자의 변화한 이용 패턴도 확인되었고, 빅데이터와 소셜미디어 등 크로스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작진들이 납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개발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지표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2018년 EBS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참신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선보였다. 다만, 화제성과 임팩트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섯째, 외주제작사와 상생 협력은 저작권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및 지상파 방송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EBS의 자체적인 의지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2018년 EBS는 외주제작 관행 개선을 위해 타 지상파 방송보다 더 큰 노력을 하였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사.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평가내용

1) 방송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가) 평가 기준

2018년 방송부문 경영평가의 중점평가사항은 방송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이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① 제작비 감소 등 제작환경의 변화 대비 품질 유지 계획의 적정성과 ② 방송 품질 유지 계획 대비 추진 노력 및 성과의 적정성 등 2개 평가요소를 살펴보았다.

나) 평가 사항

① 방송 품질 유지 계획의 적정성

시청률 등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적 재할용 활성화로 재할용 편성 비율이 전년 대비 32.8% 증가(2017년 봄 23.8% ⇒ 2018년 봄 31.6%)하였다. 또한 제작비 집행액이 전년 대비 5.98% 감소(2017년 577억 원 ⇒ 2018년 543억 원)하였다.

부족한 제작 환경 속에서 연간 파일럿 프로그램 12개를 신설하였다. 그중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대중성을 검토하여 2개의 프로그램(〈조식포함아파트〉, 〈우리 가족 거리줍히기-부모성적표〉)을 시즌제로 전환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10건의 시즌제 프로그램을 제작 및 재할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② 방송 품질 유지 계획 대비 추진 노력 및 성과분석

타 지상파 방송의 급격한 시청률 하락 추이에도 불구하고, EBS는 연간 평균 가구 시청률(전 시간대)은 0.62에서 0.61로 전년대와 유사한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EBS 편성과 프로그램에 관한 객관적인 외부 평가척도인 EPEI(EBS Program Evaluation Index) 종합점수 역시 오차범위 내의 소폭 감소에 그쳤다.

평가 결과 및 제언

방송 품질 유지를 위한 EBS의 노력은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EBS는 비상경영체제로 인한 제작비 감소 등 제작 여건이 악화된 환경에서도, 제작 및 재활용 비율 조정 및 경쟁력 있는 콘텐츠의 선별적 재활용을 추진하여 전반적인 프로그램 품질 관리를 도모하였다.

또한 정규 프로그램 대비 제작 편수가 적은 파일럿 프로그램 및 시즌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제한된 예산 규모 내에서 신설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을 지속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품질 유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 먼저,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 및 협력업체 상생 방안에 따른 제작비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 악화에 따른 제작비 절감은 콘텐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또한 재활용 프로그램의 증가는 단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으로는 EBS의 콘텐츠 경쟁력 및 채널 이미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또한 주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당장은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제작 여건 조성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부문 대표 집필위원: 정용국 위원

3. 교육부문

EBS의 설립목적인 학교교육 보완 및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10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교육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문은 이러한 사업들에 대하여 2018년 12월에 개정된 2018 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편람에서 보는 것처럼 방송교육 목표, 교육방송 시스템, 방송교육 과정, 방송교육 성과,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당해연도 중점 평가사항 등 6개 항목을 13개 지표로 나누어 평가한다.

교육부문의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3-1> 교육부문 경영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가. 방송교육 목표	1. 방송교육 목표의 적정성
나. 교육방송 시스템	1.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협력의 정도
	2.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3. 제작 직원의 교육 전문성 제고 정도
	4. 참여자들의 교육 전문성 제고 정도
	5.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6.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다. 방송교육 과정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라. 방송교육 성과	1. 타깃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 적정성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현장의 평가 정도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마.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1.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의 노력 및 성과

가. 방송교육 목표

평가 내용

1) 방송교육 목표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방송교육 목표가 당해연도의 경영 목표에 기반하여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개별 프로그램 기획 및 배치에 교육목표 반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 요소는 ① 당해연도 경영 목표에 따른 방송교육목표 설정의 적정성, ② 방송교육목표 달성 차원의 성과이다.

나) 평가 사항

방송교육 목표의 적정성의 평점은 ① 경영 목표와 방송교육 목표의 부합 정도, ② 방송교육 목표의 반영 성과의 두 가지 기준으로 부여한다.

① 경영 목표와 방송교육 목표와의 부합 정도

EBS의 2018사업연도의 경영 목표는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이와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교강의사업, 교재발간사업, 창의융합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소프트웨어교육사업 등 6개 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8년 경영 목표가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 평가 기능의 도입 및 사이트 재구조화 진행’, ‘학습 메뉴 구성의 재정비를 통한 개인화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과연계 프로그램의 기획’으로 경영 목표를 적절히 반영하여 방송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고교강의사업은 2018년 방송교육 목표를 ‘미래 교육 콘텐츠 기획’, ‘고교 사이트 기획·운영 및 차세대 교육플랫폼 구축’, ‘교육 유관기관 정책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현장 연계’, ‘학교 교육 사회공헌 프로젝트’, ‘교육 혁신 어젠다 선도’로 설정하고, 국가시책 특교 사업인 ‘EBS 수능강의 사업’을 ‘EBS 고교강의 사업’으로 확대해 학생 중심·과정 중심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보다 차세대 교육플랫폼 및 교육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 목표 및 EBS 설립 목적 실현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재발간사업의 2018년 방송교육 목표는 ‘수능-EBS 연계 정책 수행의 근간이 되는 수능 연계교재의 완성도 제고’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고1·2 학교 시험 대비 교재 라인 보강 등을 통한 비연계 교재 경쟁력 강화’,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통합과학 학습 콘텐츠 개발’로 설정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2018년 방송교육 목표를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 콘텐츠 제작’, ‘학습자 맞춤형 창의융합 교육 모델 개발’, ‘신개념 초·중학 강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로 설정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의 2018년도 방송교육 목표는 ‘교실혁명을 통해 학교 영어교육의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시간과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 영어 학습 환경 구축’, ‘소외 계층의 영어 학습 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정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의 방송교육 목표는 ‘창의융합과학교육 콘텐츠 강화’와 ‘최고 교육 콘텐츠 확대’이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사업목표를 1) 고교 1~2학년 신규 제작 및 중학 1~3학년 수학 콘텐츠 보완 제작, 2) 사이트 기능 개선 및 인프라 상시 운영, 3) EBSMath 사이트 활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 실시로 정하여 추진하였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의 방송교육 목표는 SW교육 의무화 및 모두가 알아야 하는 기초 소양으로 경제적 격차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SW 기본 학습 서비스를 위한 SW 교육 플랫폼 ‘이숲(EBS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축 및 시범운영으로 정하였다.

② 방송교육 목표의 반영 성과

방송교육 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고교강의사업, 교재발간사업, 창의융합 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소프트웨어교육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교강의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기반 콘텐츠 제작을 통한 개정교육과정 안착 지원 및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 보조는 물론, 기초 학습이 부족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참여 중심 수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기초개념학습의 보조수단으로서 새 교육과정의 원활한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한 ‘교과서 강의’ 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애주기 맞춤형 콘텐츠’ 및 ‘교육 현장 연계’를 위해 노력하였고, 기존의 수능 중심에서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교육 콘텐츠 강화를 시도하였으며, EBS의 서비스 목표를 「수능 → 학교교육」으로 중심을 이동시킴으로써 ‘생애주기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런 점은 급변하는 교육 현실에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교사 대상 교재 문항 한글파일 무상 지원’은 EBS 리소스 제공을 통한 교수학습지원을 목표로 2017년 1월 서비스를 오픈하여 ‘17년 약 170책’, ‘18년 약 270책’의 EBS 교재의 문항 한글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교재 한글파일 다운로드 수의 경우 총 32만 건 이상으로 ’17년도 대비 37% 상승하였다. ‘교사 시청자위원회 전국 확대’로 16개 시도교육청(제주 제외) 추천 교사 16명으로 교사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였고, EBS 고교강의사업 사업 담당자 및 교사 시청자위원 협의회를 1회 확대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의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꿈 장학생 장학금 확대’로 전년 대비 4천5백만 원 증가하여, 실제 어려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EBS를 통해 교육소외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교재발간사업에서는 EBS 연계교재 완성도 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초고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자체 검토를 내실화하였으며, 평가원 감수를 강화하였다. 또한 교재발간 후 발생하는 정정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오류 관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2018년 고교 비연계 교재 194책(신규 교재 88책 포함)을 개발하였고, 모의고사 중심의 수능 대비 학습 트렌드를 반영하여 모의고사 ‘고난도 시크릿 X’ 시리즈, 고난도 문제집 ‘4주특강 고난도 신유형’ 시리즈 등 문항집을 확대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내신·수행평가 확대 등의 내신 평가 변화와 국내외 출판시장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프리미엄 수학 기본서 ‘수학의 왕도’ 시리즈, 사탐·과탐

기본서 교재 ‘개념완성’ 시리즈, 예비 고1/고3 대상의 겨울방학 단기 학습용 ‘지금, 내 등급은?’, 예비 고2 대상 ‘단기특강’ 시리즈 등 다양한 교재를 개발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2018년 방송교육 목표를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 콘텐츠 제작’, ‘학습자 맞춤형 창의융합 교육 모델 개발’, ‘신개념 초·중학 강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로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의 EBS English는 개인화 맞춤 환경 구축, 영어교육의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유아, 초등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프로그램 제작’,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클립형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성인을 대상으로 한 10분 내외 콘텐츠’를 제작하여 상시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전년 대비 프로그램 VOD 히트 수 20.96% 상승을 가져왔다.

수학교육사업은 ‘2018년 EBSMath 사이트 운영 및 콘텐츠 개발, 활용확산’으로 총 이용 건수 5,084,758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성장을 가져왔고, 총 방문 수 1,945,609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1% 성장을 가져왔다. ‘서비스 개선 및 콘텐츠 연계를 통한 이용 편의 도모’를 통해 ‘영상 모바일 다운로드 서비스 및 모바일 앱 오픈으로 모바일 편의 강화’, ‘e학습터(KERIS) 및 EBS 장애인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방문 수 및 이용 건수의 지속성장’을 가져왔다. ‘자체 사이트, SNS를 통한 활용 확산 활동’, ‘사이트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온라인 활용확산 활동’, ‘찾아가는 EBSMath 체험관운영’을 통한 사이트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대하였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SW 교육 플랫폼 구축’을 하여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였고, ‘LMS 기반의 자기주도 학습 지원’, ‘설치 없는 블록코딩 및 텍스트코딩 실습’, ‘SW교육 관련 EBS 방송콘텐츠 탑재’, ‘EBS 방송과 연계한 에듀테인먼트형 SW교육 콘텐츠 제공’, ‘누구나 강의를 제공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및 멘토로 참여’, ‘기기(Devices)의 제약 없는 학습 서비스’, ‘SW 오프라인 기관과 연계를 위한 SW교육 지원 홈페이지 빌더’ 등을 개발하였다.

평가 결과 및 제언

EBS의 2018사업연도에 설정된 경영 목표는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며, 교육부문에서는 이와 부합하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교강의사업, 교재발간사업, 창의융합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소프트웨어교육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반적으로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어냈으나, 일부 개선점도 포착되었다.

고교강의사업은 대입제도의 변화를 감지하고 적극적·다각적으로 변화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시책 특교 사업인 ‘EBS 수능강의 사업’을 ‘EBS 고교강의 사업’으로 확대해 학생 중심·과정 중심으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전년보다 차세대 교육플랫폼 및 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 목표 및 EBS 설립 목적 실현을 구현하고자 노력한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즉 차세대 교육과정에 맞는 방향으로 수능강의사업에서 고교강의사업으로 범위를 좀 더 높여 급변하는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작단가 상승 및 일부 프로그램의 종료로 인하여 콘텐츠 제작 편수가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감소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인 것은 창의융합 콘텐츠가 전년 대비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최근의 트렌드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교재발간사업은 ‘수능연계교재 완성도 제고’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변화’를 반영한 신규혁신교재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교육 격차 해소 및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경감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2018년 수능 연계 교재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연석회의, 합숙검토, 영역별 특화 검토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수능 연계교재 1책당 정정 건수를 2017년 4.9건에서 2018년 4.3건으로 줄인 것도 우수하게 평가하였다.

질 높은 교재발간으로 새 교육과정에 대처하였고, 사교육비 절감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것도 우수한 점이다. 추후 더욱더 질 높은 교재 개발을 통해 학교 교육대체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사업은 ‘학습자 맞춤형 창의융합 교육 모델 개발’에 부합되는 콘텐츠 제작, ‘신개념 초·중학 강의 콘텐츠 기획 및 개발’에 부합되는 초·중학 강의 콘텐츠 제작, Q&A 활용 고도화,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초·중학 학습콘텐츠 DB 구축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다만 만점왕 수학 문제 풀이 클립 제작이 2017년도에 완료되어 초·중학 클립 제작 편수가 감소한 부분은 다소 아쉽다 하겠다.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① 경영 목표에 부합되는 사업 추진, ② 고교강의사업과 교재발간사업의 미래가치를 지속해서 높일 수 있는 방안 연구, ③ 창의융합사업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빠른 대처 등이다.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은 교육방송의 위상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며, 고교강의사업과 교재발간 사업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 대입제도 변화와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명암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

고민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처 차원의 방안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뿐 아니라 과거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던 사항으로 과정 중심평가와 연계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평가와 수업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업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나. 교육방송 시스템

평가 내용

1)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 협력의 정도

가) 평가 기준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설계 및 관리(교육 관련 부서와의 연계 등)를 위한 체계,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연구조직 및 그 과정이 확립되어 있는 정도 등을 평가한다. 평가 요소는 ①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설계 및 관리(교육 관련 부서와 내·외의 부서 및 기관 등과의 연계 등) 체계의 적정성, ② 외부 교육전문가 또는 연구조직의 활용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 설계 및 관리(교육 관련 부서와 내·외의 부서 및 기관 등과의 연계 등)체계의 적정성

고교강의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한 ‘EBS-교육부-검인정 교과서 협회’ 회의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현장 적용을 위해 [EBS-교육부-검인정 교과서 협회(12개 출판사)]의 협력 체계 마련 운영”을 목표로 운영하였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EBS 교과서 강의 제작 목적 공유’ 및 ‘검인정 교과서 협회 참여 독려 및 저작권 협조’였다.

교재발간사업은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공조를 통한 수능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를 목표로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수능-EBS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 종합 대책 안’의 전면 적용을 통한 평가원 감수 기능 강화, 긴밀한 상호 공조를 통한 교육과정 및 수능체제의 충실한 반영을 추진과제로 정하여 수능 출제기관과 연계 교재 개발 기관이 협의 하에 감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능의 실질적인 시험 범위가 되는 연계교재의 난이도와 방향성, 교육과정상의 적정성을 조율, 교육과정 및 수능체제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긴밀한 상호 공조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를 위해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 기능 강화에 따른 연계 교재의 완성도 제고', 'EBS 수능연계교재의 개발 기조와 대수능 및 모의고사의 방향성 일치', '논란 소지가 있는 교육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사전 점검', '집필진의 교육과정 관련 소양 증진에 따른 교재 내용 및 문항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차례 협의회와 감수위원회를 열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부 이러닝과, 대입제도과와 업무 협력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수능연계교재 목록 결정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및 시의적절한 의사 결정 노력, 수능 및 입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 채널을 가동할 수 있게 되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EBS 시범학교 운영을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정책구현, 학습에 직접 적용한 사례를 연구하고 차기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는 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PD-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콘텐츠 모델을 개발하였고, 초·중학 강의 콘텐츠 기획 시 '교재개발 교과연구원-CP-ECD-강사'로 구성된 합동 회의를 통하여 교재개발 기획 의도가 강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어교육사업은 교육부, 시도 교육청 영어과 장학사 및 홍보 교사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찾아가는 EBSe 활용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활발하게 설계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수학교육사업의 EBSMath는 2012년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 2015년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 등에 의거하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수학교육 사업으로서, 사업을 수탁한 EBS가 2012년부터 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여, 2013년 3월 14일에 본격 서비스를 개시하였던바, 범국가적인 교육정책 및 목표에 따라 그 성격도 '자기 주도 학습지원사이트'에서 '수학 학습자료 지원 사이트'로 변모해 왔으며, 콘텐츠의 다양성 및 규모도 중학 1~3학년 전 과정 및 초등학교 3~6학년 콘텐츠, 고등학교 과정 콘텐츠까지 확대·발전되어 오고 있어 기초학력 증진부터 체계적인 수학교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장기 수학교육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EBSMath사업은 교육부-시·도교육청-EBS를 중심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자문위원회를 포함하고 있어 예산지원, 커리큘럼연구, 사업의 정책적 목표 부합여부 및 발전방향을 제언하는 등

정책적 협력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향후 발전이 기대된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사업임을 인지하고 'SW교육 플랫폼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SW교육 관련 민간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SW교육 관련 공공기관 및 교육 협의체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학교 교육 대체 효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체제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참여기관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하여 교육정책 협의 및 동향파악을 하고 있고, 교육청 및 연구기관과의 정기 협의회 및 공동 토론회도 개최하여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② 외부 교육 전문가 또는 연구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 정도

교재발간사업에서는 수능 70% 연계 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교육부,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에 교육부,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공동으로 마련한 '수능-EBS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 종합 대책안'을 2016년부터는 전면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수능연계교재의 품질 및 신뢰도 제고의 중요 요소인 평가원 감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교육청 및 평가원의 추천을 받은 학계 전문가로 교재 정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교재 개발 참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선정 시 역량 검증 시스템 활용하여 교재의 질을 높였으며, 2018 신규 집필진 공모를 통해 전국의 우수 교사를 집필진으로 영입하였다. 또한 교재 개발의 주안점 및 방향을 참여자와 효과적으로 공유하여, 교재 집필 착수 전 내용선정협의회를 통해 교재 개발 계획안 및 세부 지침 자료를 개발 참여자와 공유하는 등 교재의 전반적인 수준 및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재 개발 완료 보고서에 집필 역량, 공동과제 수행 정도, 발행 후 관리, EBS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참여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 향후 교재 개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에서는 창의융합교육 및 초·중학 강의 콘텐츠 기획-제작-검수 전 과정에 현직 교사(외부 교육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창의융합 콘텐츠 커리큘럼 개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연계 커리큘럼을 제작하였다. 또한 교사

-PD-전문가로 구성된 미래교육연구회를 조직하여 미래교육을 위한 콘텐츠 모델 개발하였다.

<표 3-2> 2018년 창의융합 콘텐츠 커리큘럼 개발 위원회 성과

내용	참석자	성과	비고
<과학할고양> 콘텐츠 커리큘럼 개발회의	현직 교사 6명 융합과학교육원 연구원 1명 EBS 관계자 9명	- 관찰/탐구 중심 과학교육 콘텐츠 <과학할고양> 제작 - <과학할고양> 콘텐츠 연계 STEAM 교육과정 개발	연 12회 개최
<영동 남매 공작소> 콘텐츠 커리큘럼 개발회의	현직 교사 9명 대학 교수 1명 EBS 관계자 5명	- 메이커 교육 콘텐츠 <영동 남매 공작소> 제작 - <영동 남매 공작소> 콘텐츠 연계 메이커 프로젝트학습 교육과정 개발	연 12회 개최

<표 3-3> 2018년 미래교육연구회 성과

내용	참석자	성과	비고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회의	현직 교사 3명 국립과학관 연구원 1명 EBS 관계자 5명	- 세계 미래교육 동향 분석 - 학교 현장 미래교육 사례 발굴 -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	연 12회 개최

수학교육사업에서는 EBSMath 커리큘럼을 연구개발하였고, EBSMath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였다. 자문위원회의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교육부 수학교육종합계획에 따른 EBSMath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고, 초등콘텐츠 개발 및 홍보 방안을 자문받았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SW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하였고, EBS 소프트웨어교육 플랫폼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교원직무연수 기관(특수분야연수기관) 승인을 받아 중등정보교육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연수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에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교사들과 소통함으로써 EBS 콘텐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홍보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가) 평가 기준

교육 콘텐츠 확보와 개발을 위한 조직, 부서, 인원의 구성 및 배치, 예산집행 등을 평가한다. 평가 요소로는 ①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②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자원 확보 정도는 어떠한가이다.

나) 평가 사항

①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정도

고교강의사업은 EBS의 중요한 사업으로 여타의 분야보다 심혈을 기울여 콘텐츠 개발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2018년 EBS 고교강의는 고교 입시 동향에 맞추어 수능 콘텐츠, 내신 콘텐츠, 대학별 콘텐츠를 기획하여 제공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 고1 교과서 강의' 개발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을 뒷받침하는 기본개념강의 제공을 목표로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 도서 산간농어촌지역 및 학교 밖 아이들에게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여 학생 간 학력 격차 및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세부 강좌를 살펴보면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기본개념 위주의 강의를 제공하는 '교과서 진도 특강'과 시험 대비를 위해 단기간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을 제작하였다. 아울러 EBS 온라인 대입 전형&입시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대학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최대한 상세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 신규 EBS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대입 경향에 맞춘 콘텐츠도 강화하여 콘텐츠의 다양성을 꾀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2019~2020학년도 대입 대비 학생부종합전형 콘텐츠 제작, 교육 관련 의제 설정 및 진로 진학 콘텐츠 제작, 학교 현장 활용 및 보완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하여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교재발간사업은 연계교재 발간과 비연계교재 발간으로 나뉘어진다. 연계교재 발간은 2018년 1월 '2019학년도 수능특강' 47책(서책 31책, PDF 16책), 6월 '2019학년도 수능완성' 40책(서책 21책, PDF 19책)을 발간하였다. 또한 연계교재는 교과 성격에 따라 외부전문가 활용, 지문과 계산, 수식 등을 검토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 완성도 높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연계교재 발간은 2018년 비연계교재 194책(신간 교재 88책 포함)을 발간하였고, 이전 연도 발행교재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3월 신학기부터 기 발간 교재에 대한 온·오프라인 피드백 점검, 교재 수요자(학생·교사·서점관계자, 출연강사 및 총판) 및 유관부서(미래교육기획부·수능교육부·출판사업부) 대면 및 유선 인터뷰, 국내외 출판 시장조사, 새로 도입되는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사교육 동향 분석 등을 참고하여 체계적인 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창의융합교육콘텐츠로 ‘생방송 판다다’, ‘과학할고양’, ‘엉뚱남매 공작소’, ‘엉뚱남매 요리조리쇼’, ‘티라노의 심장 대탐험’, ‘역사 탐험 경복궁’ 등 509편을 제작하였고, 초·중학 강의 콘텐츠 중 초등용은 ‘만점왕’, ‘만점왕 평가문제 풀이’, ‘계산왕’, ‘수학의 자신감’, ‘초등생활, 그것이 궁금하다.’ 등 404편을, 중학용은 ‘중학 뉴런’, ‘중학 수학 @포스’, ‘한 장 수학’, ‘MY GRAMMAR COACH’, ‘중학생생활, 그것이 궁금하다.’, ‘중학 수학1 문제풀이 클립’, ‘EBS 수학의 답’, ‘중학 과학1,2 실험영상 클립’ 등 2,739편을 제작하였다. 전체적으로 중학용의 제작 편수가 월등히 높아 창의융합 관련 교육이 중학교에서 활발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어교육사업은 방송 프로그램을 총 4,347편 제작하였으며, e클립 콘텐츠를 총 1,226편 제작하였다. 신규제작/재활용/재방송 편성 비율은 30.5%(2,307분), 42%(3,173분), 27.5%(2,080분)이었으며, 시청대상별 편성 비율은 유아·초등 29.62%(2,240분), 중·고생 21.82%(1,650분), 성인 48.54%(3,670분)로 성인 대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총 방송 시간은 7,560분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실적에 비해 제작 편수는 감소하였으나, 방송 시간은 동일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은 2018년 EBSMath 교육 콘텐츠 신규 제작이 128편이었으며, 고교수학 핵심개념 클립형 신규 콘텐츠 개발은 단원별 핵심개념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돕는 고교수학 개념형 동영상 47편, 인기 아이돌과 함께하는 고교수학 핵심 공식 암기 콘텐츠 〈수학친구=여자친구〉 20편을 제작하였고, 입체적이고 다채로운 동영상 구성으로 융합적·창의적 사고를 돕도록 제작하였으며 현직 수학 교사들이 뽑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수학 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중학 콘텐츠 보완을 위해 신설·변경된 개념을 보완하는 <중학수학 업데이트> 6편과 수학사 또는 실생활 관련 주제와 연관된 ‘교과 융합형’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개념형 동영상 <4차 산업혁명은 수학혁명>을 제작하였고,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및 고도화 및 특집 콘텐츠도 제작하였다.

② 콘텐츠 제작 성과

고교강의사업의 콘텐츠 제작 성과는 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16,422편에 비해 2018년도 실적은 15,287편으로 산출식에 의해 74%의 결과를 얻었다. 제작 편수의 감소는 강의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 축소에 따른 제작 편수 감소 및 온라인 강의 학습 부담 완화를 위해 RT 증가를 통한 편수 감소 방법 채택이 원인이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의 콘텐츠 제작 성과는 직전 3개년도 실적 4,658편에 비해 2018년도 실적은 3,652편으로 산출식에 의해 40.89%의 성과를 기록하여 전년도 보다 대폭 감소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의 콘텐츠 제작 성과는 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5,252편에 비해 2018년도 실적은 4,347편으로 산출식에 의해 50.57%의 성과를 기록하여 전년도 보다 대폭 감소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의 콘텐츠 제작 성과 역시 직전 3개년도 실적의 평균 165편에 비해 2018년도 실적은 128편으로 대폭 감소하여 산출식에 의해 39%의 성과를 기록하였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SW교육 수요를 고려한 핵심 콘텐츠로 언플러그드(명령이다 비트, 10편), 엔트리(하상욱의 슬기로운 코딩, 10편), 파이선(내손안의 파이선, 15편)을 제작하였고, EBS가 제작한 영상클립을 활용한 이러닝 콘텐츠 제작(12종 83편), 교양/상식으로 2014년부터 제작한 SW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공(17종 194편), SW교육 관련 교육뉴스 제공(28편), SW교육 의무화 지원 교실 수업 지원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비교적 많은 성과를 기록하였다.

2018년도가 최초 사업연도이기 때문에 산출식으로 성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향후 관심을 가질 사업으로 발전이 기대된다.

③ 교재 개발 노력 정도

EBS의 학교교육본부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각 세부 사업별로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본부의 전체 인원은 104명으로 전년도 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인 인력구성은 일반직이 67명으로 전년도 보다 5명이 증가하였고, 계약직이 14명으로 전년도 보다 1명이 증가하였다. 파견직은 15명으로 전년도 보다 1명 감소하였고, 파견 교사는 8명으로 전년도 보다 2명이 증가하였다.

<표 3-4> 학교교육본부 인원 현황((2018년 12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일반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파견교사
학교교육본부	1	1	-	-	-	-
미래교육기획부	19	14	3	2	-	-
수능교재기획부	32	24	5	3	-	-
수능교육부	14	8	1	2	-	3
창의융합교육부	14	7	1	3	-	3
소프트웨어교육팀	9	4	2	1	-	2
영어교육부	10	5	2	3	-	-
수학창의교육부	5	4	-	1	-	-
합 계	104	67	14	15	0	8

학교교육본부의 세부 사업은 고교강의사업, 교재발간사업, 창의융합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소프트웨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SW교육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도 전체 예산은 47,804,816천 원이다.

<표 3-5> 학교교육본부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사업명	부 명	주요 내용	예산액
수능	미래교육 기 획 부	학습지원	2,916,013
		수능강의 제작지원(임차료, 시내교통비, 커리큘럼 등)	321,062
		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화선료, 위탁운영 등)	6,897,202
		고교강의사업 연구지원	218,695
	수능교재 기 획 부	수능연계교재 개발	5,830,534
		고교(비연계) 교재 개발	3,721,199
		직탐/제2외국어교재개발(수능해설), KICE감수료 등	2,551,426
		출판기획지원	215,750
	수 능 교 육 부	수능강의 제작	8,879,493
		수능강의 제작지원(파견교사 등)	499,809
초중학	창의융합 교 육 부	학습Q&A/입시설명회/온라인입시상담	961,400
		창의융합 콘텐츠 제작	1,345,800
		초중학 콘텐츠 제작(플러스2)	926,177
		초중학 콘텐츠 제작지원	1,340
		초중학 인터넷 서비스	59,916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교 육 팀	SW 온라인 교육 플랫폼 방송콘텐츠 제작	350,073
		SW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이트 구축 개발	1,449,927
		SW교육 리소스 발굴 방송연계 콘텐츠 제작	200,000
		SW 교육 교실수업 지원 콘텐츠 제작	868,400
		집합연수 및 평가조사, 사업관리 운영	175,600
영어채널	영 어 교 육 부	영어콘텐츠 제작	3,144,873
		사이트 및 인프라 구축 운영, 송출	3,565,127
		연구조사 및 지원	205,000
수학교육	수학창의 교 육 부	수학콘텐츠 제작	893,000
		사이트 및 인프라 구축 운영	1,012,800
		연구지원 및 운영	594,200
		합 계	47,804,816

④ 교재 개발 성과

교재발간사업 수능연계교재의 교과목과 책 수는 ‘수능-EBS 연계정책’에 의거 교육부에서 결정·통보함으로써 52책(직탐 및 제2외국어·한문 PDF 교재 35책 제외)의 개발실적을 올렸다.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78.05%를 기록하였다. 비연계교재는 교육과정 변화, 출판시장 동향 및 수요자의 학습 니즈 변화 등을 조사·연구하여 이를 반영해 수립한 고교 비연계교재 개발 계획에 의거 개발하고 있으며, 194책을 개발하여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118.29%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영어교육사업은 총 11권을 개발하여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50%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은 성과를 거두었다. 주요 개발 교재는 ‘매일 10분 영어’ 5권, ‘왕초보 영어’ 강의노트 2권 & 워크북 2권, ‘생활영어’ 강의노트 2권 등이다.

3) 제작 직원의 교육 전문성 제고 정도

가) 평가 기준

제작 직원이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는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학적 전문성에 대한 고려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등의 실시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제작 직원의 교육 전문성 정도, ② 직원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정도, ③ 신입사원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제작 직원의 교육 전문성 정도

수능교육부의 고교강의사업 담당은 박사 1명, 석사 3명, 학사 3명으로 총 7명의 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15~25년의 경력자로 구성된 점이 특이하다. 이 중에서 교육관련 전공자가 6명이며 교사자격증 보유자가 5명, 평생교육자격증 보유자가 1명이다.

수능교재기획부의 교재개발 인력은 총 28명이며, 대부분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외국어 등 교과 및 교과교육 전공이며, 석·박사 학위자 또는 교재개발·출판 경험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공은 교육 관련 전공자가 18명이며 모두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이 높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교육 관련 전공자가 전체 제작인력 8명 중 4명이며 이들 모두 교원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경력도 고른 분포를 이루고 있어 경쟁력이 높아 보인다.

영어교육사업은 CP와 CM으로 나누어지며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학교육사업은 5명의 직원 중 교육 관련 전공자가 1명 있으며 경력은 모두 5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계약직원 및 파견 교사를 포함하여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력은 모두 5년 이상이다. 교육 관련 전공자는 8명 중 3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3명이다.

② 직원의 전문적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정도

전사인력관리 부분에서 가치공유·리더십·직무역량·전략·기타지원 등 총 5개의 전문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구성·지원하였고, 특히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와 능력개발을 위해 직무역량과정에 중점으로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림 3-1] 2018 교육훈련 체계도

공통과 전문 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서별로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대학원 및 전문가과정 지원(시간, 재정, 행정 등) 실적 중심을 표방하였음에도 2018 비상경영체제 전환으로 교육 훈련예산이 2017 대비 40% 이상 감소하여 대학원 및 위탁파견 연수 등 5개 지원과정을 폐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신규선발 없이 기 선발자 4명의 상위학위 취득만을 지원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다.

고교강의사업 부문에서는 수능강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수능강의 연간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집중 워크숍도 실시하였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재발간사업 부문에서는 수능교재기획부 전체 워크숍을 실시하여 2018년 교육 변화 및 이슈 공유, 교재 개발 협업 역량개발 특강 등을 하였으며, 교재출판 기획·개발 실무 관련 오프라인 연수를 총 4회 실시하기도 하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소프트웨어교육사업 부문에서 SW 교육 플랫폼의 교사 수업 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원직무 연수 운영을 통해 시도교육청 강사 요원을 양성(102명 신청 중 99명 최종 수료)한 것이다.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진행함으로써 의미 있는 연수가 되었을 것으로 본다.

③ 신입사원의 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정도

2018년에는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았으나, 향후 신입사원을 선발하면 교육방송에 대한 기본이해, 교육 및 미디어 전반에 관한 심화 내용 등을 입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며, 특히 평생교육, 학교교육, 유아어린이교육 등 EBS의 주요 역할 및 핵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별 교육을 담당 부서장 및 담당부장이 직접 교육자료를 구성해 교육함으로써 신입사원의 교육학적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참여자들의 교육 전문성 제고 정도

가) 평가 기준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감수자가 기관 교육목표와 편성 의도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 후 이들의 의식·인지평가 및 추후 반응을 위한 시스템(DB)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출연자 선정 시 교육 전문성 고려 비중, ② 제작 직원,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감수자가 기관 교육 목표와 편성 의도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활용 정도 ③ 프로그램 참여 후 이들의 의식·인지도 평가 및 반응을 위한 시스템(DB) 운영 정도 등이다.

나) 평가 사항

①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출연자 선정 시 교육 전문성 고려 정도

고교강의사업의 2018년도 강사 선정 절차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카메라 테스트 및 역량면접), 3단계(최종면접) 등을 거쳐 선발하는데, 각각 8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018년도 온라인 교사 심사 절차(검수 및 Q&A)는 총 2단계에 걸쳐 실시되었고, 주로 전문성과 경력, EBS 이해도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프리 PD 선정의 기본 방식은 공모, 업무 수행 상위 20% 자동 계

약 연장이며, 선정 단계는 2단계 심사를 하게 되는데, 1단계 서류 전형과 2단계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교재발간사업의 수능연계교재 집필진에 대한 자격 기준은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표 3-6> 수능연계교재 집필진 자격 기준

<p>1. 아래 항목의 하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 경력을 가진 자</p> <p>① 고등학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현직 교사</p> <p>② 대학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현직 교수</p> <p>③ (외국어 교재) 해당 언어 사용 국가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국내외 대학 및 고등학교의 전임 또는 초빙교원 및 강사, 대학부설 기관의 연구원 또는 강사, 해당국의 주한 외국 대사관이 추천하는 자 중의 하나에 해당함</p> <p>2. 최근 10년 이내에 아래 항목의 하나 또는 그에 준하는 집필 및 검토 경력을 가진 자</p> <p>① 고등학교 참고서(자습서 포함) 집필</p> <p>② 고등학교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집필</p> <p>③ 전국단위 시험 출제 및 검토</p> <p>④ 학술논문 5편 또는 저서 2권 이상 집필</p> <p>⑤ EBS 교재 집필 경력자</p> <p>3. 출제 업무, 학습 검토 및 일반 활동을 함에 있어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자</p>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집필 후보군이 구성되면 ‘집필진 선정 위원회’에서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서류 심사 및 샘플 원고 심사 등을 통하여 집필 역량과 소양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연계 집필진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의 교과전문제작자(ECD) 공모 심사 절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면접에서는 제작경력 및 전문성,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주안점을 둔다.

출연 강사 공모 심사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카메라 테스트 및 역량면접, 3차 면접심사로 선정한다. 프리랜서 PD 공모 심사 절차는 1차 서류심사에서 교육 콘텐츠 제작 경력을, 2차 면접심사에서는 제작경력 및 전문성, 성실성, 구성력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다.

수학교육사업의 수학교육사업(EBSMath) 콘텐츠 제작참여자(직원 제외)에 대한 선정 방침은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교과 및 교육

전문성이 참여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특히 주로 내용 구성에 관여해야 하므로 참여자 대부분이 현재 수학(교육)분야 종사자이다.

따라서 EBSMath에서는 대부분 한국의 수학 교과과정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현직 수학(교육)과 교수, 중등수학교사, 초등교사를 추천 받아 검증된 pool 내에서 참여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중 초등교사는 대개의 경우 전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교대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했거나 수학 교과서 개발에 참여했던 교사군을 활용하여 제작에 참여시키고 있다. 또한 EBS 내에서 EBSi(수능 콘텐츠), EBS 초·중학 인터넷 강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실력이나 인성 면에서 검증된 교사 및 강사 pool도 확보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프리랜서 PD의 경우, 전공 분야의 관련정보다는 방송 또는 이러닝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가 더 중요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EBSi 등 이러닝 콘텐츠 제작 경험이 풍부하거나, 수학(교육) 과목을 전공했을 경우, 이를 적절히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프리랜서 PD 공모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② 제작 직원,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감수자의 EBS 교육 목표와 편성 의도 이해를 위한 시스템의 운영 정도

고교강의사업은 영역별 워크숍을 통해 ‘방송교육 목표, 편성 의도’에 대한 인식 및 인지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향후 교육 및 연수에 기획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2018년도에는 연간 총 26회 이상의 제작 참여자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교재발간사업은 연계교재 집필진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 연수를 실시하였는데, 목적은 수능 문항에 준하는 EBS 교재 문항 개발을 위한 집필진의 출제 전문성 개발이었으며, 구체적으로 평가원 수능출제연구실장을 초빙하여 수능 출제 기조 및 연계교재 집필 가이드라인,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교육과정상의 적정성과 문항 난이도 조정 방법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수능특강 집필진 연수(2018. 2. 10)와 수능완성 집필진 연수(2018. 6. 16)로 나누어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 밖의 실적으로는 EBS 교재 저작물 이용 매뉴얼 마련, 집필진 대상 연수와 교재 개발 참여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이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초·중학 강사진 및 제작진을 대상으로 강의 질 제고를 위한 워크숍 실시, 콘텐츠 제작 매뉴얼 배포를 통하여 제작진들이 숙지 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또한 제작 PD 오리엔테이션 실시, EBS 콘텐츠 제작방향 공유 및 제작 시 유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초·중학 검수 교사를 대상으로 초·중학 검수 관리 시스템 및 검수 방향 정립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하였다.

영어교육사업 역시 전년도와 유사하게 제작진 워크숍을 통해 방송 교육 목표 및 편성 의도, 제작 시 유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별 기획 회의 공동 시사, 스텝 회의 등을 통해 교육 콘텐츠 제작방향 및 유의 사항을 공유하였다. 장학사, 홍보교사 워크숍을 통해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및 제작 조언 청취 후 제작에 반영하였다.

수학교육사업은 모든 아이템 선정 및 기획회의, 원고제작회의를 진행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용어와 표현, 설명방법 등을 회의를 통해 숙지 및 공유하였고,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교수와 교사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오류 최소화 및 참여자들의 콘텐츠 제작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하고자 노력하였다. 매년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해 수학교육 콘텐츠의 품질 관리를 위해 시사 및 수학교육 콘텐츠 제작진 연수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③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및 프리랜서 PD 등)의 참여 후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운영 정도

고교강의사업의 수능 출연 강사는 연 3회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강의 이용률 Data 분석을 통한 정량 평가와 강의 제작 시 성실함,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평가를 통해 평가 점수가 낮은 일부 강사는 다음 강의 배정을 제한하여 고교강의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대비 개선 사항으로는 정량 평가 항목으로 '강의 완강률'을 추가하여 강사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였고, 2018년 1회 평가에서 3회로 확대함에 따라 지속적 평가 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ECD(프리랜서 PD) 평가는 6개 영역 CP별 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 기준은 제작 이해도, 제작 전문성, 제작 협조도, EBS 수능사업에 대한 이해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강의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개진 정도 및 개발 노력, 담당 강사와 과목에 대한 콘텐츠 이해 노력과 개선 정도, 강의 제작 오류의 발생 정도, 강의 검수에 대한 대응 노력 및 개선 정도, CP, 강사, 다른 ECD들과의 협업 노력 정도, 기타 담당 영역 콘텐츠의 개발 노력 정도이다.

교재발간사업은 교재개발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능연계교재 품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교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오류 발생 개수를 교재 개발 참여자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교재 오류 발생 시 페널티 조항을 적용하여 오류 건수에 대한 집필료, 검토료, 편집료를 차감하고, 다수의 오류 발생 시 향후 교재 개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EBS 교과위원이 작성하는 교재 개발 완료 보고서에 개발 참여자들의 집필 참여도, 공동 작업 역량 및 목표 공유 수준에 대한 정성, 정량 평가가 포함되며 평가 결과는 향후 인력을 구성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EBS 교재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유출 방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 공유 및 보안 서약서를 수령하고 있다. 집필자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역량 미달 집필자 판단 기준에 내용 오류만 포함되던 것을 내용 오류·단순 오타자·맞춤법 위배로 확대·적용하여 교재의 질적 측면을 중요시하고 있다.

반면 2018년 고교 교재 우수 집필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교재 개발 완료 보고 기준으로 5개 영역 교과 영역별 상위 피평가자 총 56명을 선정하여 상품을 지급하는 등 집필진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초·중학교교육사업에서는 초·중학 출연 강사에 대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평가를 통해 다음 출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프리랜서 PD는 연 2회 평가를 통해 다음 제작 여부 결정하고 있으며 출연자 및 콘텐츠 개발 기획 참여자는 해당 콘텐츠 제작 완료 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수학교육사업의 수학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나 제작진 등 참여자 평가는 제작된 수학 콘텐츠의 교육적 목표 달성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제작 완료 후 콘텐츠 공동 시사 및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연구, 이용자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EBSMath(www.ebsmath.co.kr) 사이트의 이용 건수가 매일 통계자료로 공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 기간마다 콘텐츠 유형별 이용 건수의 증감 추이 및 콘텐츠별 이용 건수 및 이용 행태의 변화 등을 통해 수학교육 콘텐츠의 교육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5)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가) 평가 기준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EBS의 특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 이러한 독립 채널이 가진 교육 노하우 등의 상호 협조를 위한 체제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제작과정에서 각 매체별 상호보완체제를 고려한 정도 ② 제작과정에서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성과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제작과정에서 매체별 상호보완시스템을 고려한 성과

이 평가 항목은 2017년도와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인다. 특성상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매체별 상호보완시스템을 고려한 채널별 특성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EBS는 채널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국민의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채널별 차별화 전략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널 간 교차편성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채널별 특성화 전략은 <표 3-7>과 같다.

<표 3-7> 채널별 특성화 전략

매체	구분	내용
EBS 1TV	채널 Identity	○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교육 채널 및 평생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대·최고의 유아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채널 ○ 국내 최대·최고의 교육 다큐멘터리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사회통합, 공동체 교육 콘텐츠 강화 ○ 자존감, 공존-공감 능력, 행복감 등의 생활 역량 강화 콘텐츠 ○ 교육 어젠다 설정에 적극 대응하는 콘텐츠 개발 ○ 크로스미디어, UHD 등 방송 환경 변화 대비 콘텐츠 기획 ○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콘텐츠 기획 개발
EBS 2TV	채널 Identity	○ 창의·융합 채널
	채널 포지셔닝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국내 최고 창의·융합 콘텐츠 교육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초·중 대상 창의·융합 콘텐츠 기획·제작 ○ 학교 현장과 연계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콘텐츠 강화 ○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일반인 대상 교양 프로그램 강화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EBS FM	채널 Identity	○ 인문·교양, 외국어 학습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인문·교양, 외국어 학습 라디오 채널로 EBS FM 정체성 제고
	채널 특성화 전략	○ 시간대별 Zone 개념 편성 전략(영어제2외국어 / 문화예술교육 / 부 모·교사교육 / 민주시민 교육 / 음악과 인문학 / 청소년) ○ 인문·교양 채널 정체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수준별·대상별 다양한 외국어 콘텐츠 편성 ○ 음악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EBS 플러스1	채널 Identity	○ 대수능 및 고교 학습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유일의 고교 대상 학습 및 정보 채널(무료)
	채널 특성화 전략	○ 수능 및 내신 대비 전 교과 수준별 편성 ○ 입시, 논술 등 각종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교과 학습용 클립형 콘텐츠를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EBS 플러스2	채널 Identity	○ 초·중 공교육 보완 및 직업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고품질 학습 프로그램 ○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험 대비, 실무 콘텐츠
	채널 특성화 전략	○ 초·중학생 및 성인 생활시간대에 맞춘 블록 편성 강화 ○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공교육 보완 콘텐츠 강화 ○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맞춤형 직업교육 콘텐츠 제작 ○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EBS English	채널 Identity	○ 영어교육 전문 채널
	채널 포지셔닝	○ 국내 최대·최고의 고품격 영어 학습 콘텐츠 제공
	채널 특성화 전략	○ 학교 커리큘럼 반영 및 학교 현장 활용 가능한 융합 교과형 프로그램 강화 ○ 모바일 및 웹 학습 환경을 반영한 클립형 콘텐츠 제작 확대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및 EBS English 채널의 학교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지상파 1TV·2TV에, 지상파 1TV의 유아·어린이 인성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TV, 플러스 1, 플러스 2 채널에 교차편성하고 있다. 또한 2TV의 창의 융합 콘텐츠들은 1TV, 플러스 1, 플러스 2 채널에 교차 편성하고 있으며 일부 영어 프로그램들 또한 EBS English 채널에 교차 편성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간 141건의 교차 편성을 실시함으로써 채널 간 콘텐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3-8> 2018년 채널 간 교차 편성 유형 및 건수 현황

기간	교차 유형		교차 편성 건수	계
	주매체	부매체		
2018년	1TV	2TV	10	141
		플러스1	4	
		플러스2	14	
	2TV	1TV	23	
		플러스1	5	
		플러스2	14	
		EBS English	8	
	플러스1	1TV	3	
		2TV	2	
		플러스2	4	
		EBS English	0	
	플러스2	1TV	13	
		2TV	20	
		플러스1	4	
		EBS English	2	
	EBS English	1TV	0	
		2TV	12	
		플러스2	3	

② 제작과정에서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상호보완을 위해 노력한 정도

EBS의 설립 목적을 기반으로 한 해당 연도의 경영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2018년 편성 목표를 수립하여 실행하였다.

교육방송공사법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발전	민주적 교육 발전
↓ ↓ ↓			
경영 목표	채널 정체성 확립	이용자 중심 플랫폼 구현	지속성장 기반 경영혁신
↓ ↓ ↓			
편성 목표 및 주요 프로그램	민주시민 및 창의·융합 교육 강화	선택과 집중 전략 타깃 시청층 확대	트랜스 미디어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시민 교육 콘텐츠 제작 : <배워서 남줄랩>, <빽치미>, <질문있는 특강쇼-빅뱅>, F M <공감시대> 등 제작 ○ 교육 현장 연계 콘텐츠 : <행복한 교육세상>, <EBS 교육 대토론>, <EBS 교육 저널>, <생방송 EBS 교육 저널> 등 제작 ○ 2TV 창의융합 교육 존 : <생방송 판다다>, <과학할고양>, <영동남매 공작소>, <명령이다 비트>, <사이언스타Q>, <미스터리 식당 Q> 등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닝타임 확대 프로그램 편성 : <세계테마기행>, <극한직업>, <다문화 고부열전>,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 평생교육 관련 기존 인기 프로그램 러닝타임 확대 ○ 파일럿 프로그램 편성을 통한 신규 시청층 확대 : <상상식탁>, <부모성적표>, <조식포함 아파트>, <중2 끼리 하우스> 등 신규 교양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새로운 시청층 유입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전용 채널 momo @ 오픈 : <개술랭 가이드>, <밥친부 터 시작>, <설채현의 설견 지명>, <아부지 모하시 노>, <초필사기> 등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 디지털 인터랙티브 콘텐츠 : <개념어 마인드맵>, <한국사 오천년>, <철학하라> 등 제작

<그림 3-2> 2018년 경영 목표와 편성 목표

이러한 편성 목표는 EBS 각 채널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되었다.

<표 3-9> 편성 목표에 따른 채널들의 효율적 활용 및 실현 방안

구분		주요 편성 목표	비고
지상파	EBS 1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어린이 및 평생교육 ■ 세대별 인성 및 교양 함양 	Broadcasting의 특성 고려한 범용적 콘텐츠, EBS 브랜드 가치 제고, 시청률 견인
	EBS 2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 창의·융합 교육 ■ 교육 격차 해소 및 외국어 교육 	
	EBS F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양함양 및 외국어 교육 	
PP	EBS Plu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능·내신·논술 교육 	채널별 목표 시청자 대상 콘텐츠 및 교육3주체 대상 콘텐츠 강화
	EBS Plus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중학·직업 교육 	
	EBS Englis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교육 	
모바일	mo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 젊은 감성의 가벼운 교양 콘텐츠 제작을 통한 신규 시청자 유입 	모바일 콘텐츠 전용 채널을 통한 콘텐츠 제공

6)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교육 관련 출판물의 집필진과 편집 외주사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제작한 교재와 출판물들이 다른 교재, 출판물들과 비교하여 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출판물 제작 집필진과 편집 외주제작사가 EBS 교육이념을 숙지하고 있으며, 제작한 출판물이 EBS 방송교육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과 시스템 운영 현황 ② 교육 관련 출판물 제작 외주사들의 전문성 정도, 타사 대비 제작한 교재들의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외주제작사 및 집필진의 EBS 교육 목표 이해 정도와 출판물의 교육 목표 부합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과 시스템 운영 및 운영 정도

EBS는 질 높은 교재발간사업(고교 교재-수능교재기획부)을 위해서 'EBS 교재에 대한 기획 평가관리 절차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BS 교재에 대한 기획은 내부 교과위원을 중심으로 한 교재 기획 인력들이 교재의 기본 방향성을 선정한 후, 집필진과 함께 세부 내용을 기획하는 '내용선정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획 단계에서 교재의 구성, 내용, 사양, 개발 일정 등을 EBS의 교육이념 실현을 고려하여 결정한 후, 집필자 등과 EBS 교재 집필 지침을 공유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능연계교재의 경우 최대한 수능의 출제 기조에 맞도록 KICE(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상호 소통하여, 이를 근거로 교재별 '내용선정협의회'를 실시하며 긴밀한 협업을 수행한다.

'무오류 교재 제작'을 목표로 집필 전 과정에서 오류 발생 관련 지침을 명확히 공유하고, EBS 교과위원이 교재 개발 참여자들과 지속적 커뮤니케이션(면대면 검토, 합숙형 검토)을 통해 교재의 질을 높이고 있다.

기획 단계를 지나게 되면, 교재 개발 공정의 어느 단계를 외주화하느냐에 따라 투입 자원이 결정되고 전체적인 개발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하고 있다. 수능연계교재는 직영출판물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장 많은 공정을 내부에서 담당하며

편집(책임편집자) 및 조판, 인쇄에 있어서 외주를 활용하므로 이에 대해 EBS 교과위원이 밀착형 총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표 3-10> 표지 디자인 선정 프로세스

업무 단계	세부 업무 사항
디자인 시안 요청	- 시리즈 특성 및 콘셉트 설명
경쟁 PT 진행	- 교재 콘셉트에 맞는 디자인인지 확인 - 사회적 논란 소지 가능성을 확인 → 출품 가능 디자인 시안 후보군 3개 선정
후보 시안 Develop 진행	-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시 수정된 시안으로 설문 진행
학생 설문 조사 진행	- EBS 【두나공감】 게시판 활용 - 배너, 팝업창, 알림방 공지를 통한 설문 홍보 - 아이디 당 1번 참여로 제한
표지 디자인 최종 확정	- 학생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최종 시안 확정
확정 시안 업체 공지	- 선정된 디자인에 대한 수정 의견 등 전달
표지 검토위원회 진행 / 결과 보고	- 미래교육기획부, 출판사업부, 홍보부, 미술부, 영상그래픽부장 검토위원회 진행 및 평가 결과표 작성
과목별 VARIATION 진행	- 과목별 표지 디자인 수정 및 검토 진행

교재 디자인도 평가관리 절차 및 지침에 따라 표지 디자인은 기획 의도가 잘 반영되었는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지를 표지선정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디자인 결과가 최종적으로 교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디자인, 조판, 인쇄 등 다수 업체의 협업이 필요하므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업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자인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공유하고 EBS 담당자가 진행 과정을 확인한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연계교재의 경우 EBSi 사이트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최종 단계에서 학생 선호도를 조사하여 결과에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밀착형 교재를 디자인하여 사용자 친화적 교재를 디자인한다.

② 교육 관련 출판물 외주제작사의 전문성 정도, 출판물의 타사 대비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 정도

교재발간사업(전체-출판사업부) 관련하여 외주 출판물 제작사로는 교재 인쇄·제본 업무를 담당하는 「인쇄업체」가 있으며, 외주 출판사로는 학교 현장 연계 및 초등 방학학습 교재 발간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인쇄업체는 연간 교재 제조량을 고려하여 「11개처」를 운용하며,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다.

교재발간사업의 초·중학 교재-출판사업부의 외주 출판물 제작사 선정 절차 및 기준을 살펴보면 외주 출판물 제작사(조판/편집)는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와 등록 계약하여 선정하고, 외주 디자인 제작사는 편집사보다 1회의 시안 평가가 추가되어 총 2차의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

<표 3-11> 외주 제작사 자격 요건

- 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출판 또는 편집)을 교부받은 자
- 나. 본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250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하는 자
- 다. 편집 전담 담당자(일부교과기능)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자
- 라.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
- 마. 위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참가서류를 등록마감일시까지 제출한 자

외주 제작사 선정기준은 응모 업체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평가위원들이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 최종 현장 실사를 하여(업체평가 후 3일 이내)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외주 제작 교재의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은 최근 3개년 간 초·중학 교재의 책당 내용 정정 건수는 약 0.5건으로 시중 교과서를 상회하는 완성도와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질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교재 시장 전반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중에도 EBS 초등 교재는 성장세를 기록하여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평가 결과 및 제언

교육방송 시스템 영역에서는 ‘교육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대외협력의 정도’,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제작 직원의 교육 전문성 제고 정도’, ‘참여자들의 교육 전문성 제고 정도’,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등 총 6개의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EBS의 고교강의사업은 고등학생이라는 특정 대상에게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지역 및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EBS의 중요한 사업으로 여타의 분야보다 심혈을 기울여 콘텐츠 개발에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 더구나 EBS와 수능이 연계 고리를 이어가고 있어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수능 정책은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라 급격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는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불확실한 사업이기도 하다.

한편, <학교 교육 변화에 맞추어 EBSi 서비스 목표 중심 이동>으로 EBSi의 서비스 목표를 기존 수능 중심에서 학교교육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내신 대비 콘텐츠를 강화하였고, <고1 교과서 강의 제공>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참여 중심 수업의 현장 적용을 위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강의’도 제공하였으며, <강사 평가 체제 개편>으로 강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강사 평가 체제를 보강하여 EBS 고교강의를 통한 학습 효과를 높이려 노력한 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책을 재빠르게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분류 기준 체제 마련>을 통해 EBSi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문제 및 강의 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콘텐츠 분류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EBSi에서 제공되는 문제를 재분류한 점과 2018년 EBSi 인터넷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에 집중한 점도 수능 중심의 강의사업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12월 말 인공지능 서비스 단추 오픈을 통해 학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맞춤 강좌를 추천, 맞춤 문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도 우수하게 평가할 만하다.

다만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기존의 문제 풀이 방식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과정 중심평가로의 평가 방법 전환에 따른 수업 방법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향후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과제이다. 수능 강의의 장점은 살리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고교강의사업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인력 활용 측면에서 신입사원 보충 등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 현실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분야별로 경력의 고른 분포를 통해 체계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해진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 회의 등에 각 시도교육청 장학사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교재발간사업은 연계교재와 비연계교재로 구분된다. 수능 연계교재 부문에서는 EBS-수능 70% 연계정책의 원천 콘텐츠로서 완성도 높은 교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2015년 교육부-평가원 등과 함께 수립한 <수능-EBS 연계교재 완성도 종합대책>에 따라 <2019학년도 수능특강> 40책, <2019학년도 수능완성> 47책 등 총 87책을 개발하였다. 초고의 완성도를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필진 관리 및 역량 강화에 특별히 집중한 한 해였으며, <집필진 선정위원회>, <표지검토 위원회>, <교재정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교재개발 전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EBS-수능 70% 연계는 언제라도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며 교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EBS의 수익구조를 일시에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의 시중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교재정가의 인상을 검토해야 할 단계이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교사업의 예산도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교재정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시중가보다 낮은 기조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상가의 일부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인상에 따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다.

고교 비연계교재 부문에서는 새 교육과정의 도입과 출판시장의 변화, 수요자의 새로운 학습 수요 등을 조사하여 비연계교재 기획 및 개발 시 반영하는 등, 면밀한 분석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능과 내신 모두 EBS 교재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학습용 교재를 개발하고자 노력한 부분이 돋보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내신 중심 학습 확대, 수행평가 확대 등 내신 평가 변화 등에 따라 국내외 출판시장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후, 명품 기본서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교육부-교육과정평가원과의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하여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오류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평가원 3차 감수와 재택심의〉 등을 통해 교재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수능 연계교재의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계교재 집필진 선정위원회〉, 〈표지검토 위원회〉, 〈교재정정심의위원회〉 등의 운영으로 교재 개발 및 사후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최고의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비연계교재는 학교 내신에 대비하여, 기초부터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연계교재는 연계교재와 달리 수능에 얽매이지 않는 만큼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모든 교재가 수능과 관련되는 단순한 구조에서 직업·진로 교육, 예체능 등을 위한 교재 발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교재 개발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창의융합사업은 체계적인 창의융합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을 위해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창의융합 콘텐츠 커리큘럼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의융합 콘텐츠 아이템 발굴 및 교과과정과의 연계, 커리큘럼 개발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초·중학 강의 콘텐츠 제작에서 강의 출연자를 1차, 2차, 3차 심사를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투입할 수 있었던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표 3-12> 2018년 창의융합 커리큘럼 개발 회의 현황

회의 내용	참석자	비고
<과학할고양> 콘텐츠 커리큘럼 개발회의	현직 교사 6명 융합과학교육원 연구원 1명 EBS 관계자 9명	연 12회 개최
<영동 남매 공작소> 콘텐츠 커리큘럼 개발회의	현직 교사 9명 대학 교수 1명 EBS 관계자 5명	연 12회 개최

다만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등 교육정책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한 토론·실습 및 진로체험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한 정부의 교육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미흡하여 다양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구성원들 간의 협조 체계가 콘텐츠 개발 이상으로 중요도가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업무별로 창의융합사업에 대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 재배치도 과감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영어교육방송 EBS English는 2018년 총 4,347편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이를 영어 전용 사이트인 EBSe(www.ebse.co.kr) 및 전용 모바일 사이트인 m.ebse.co.kr을 통해 서비스함으로써 공교육 보완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전 국민의 평생 교육(평생학습사회)실현을 위한 채널의 설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계층별로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특히 방송과 스마트 기기를 결합한 최적의 영어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총 54명으로 구성된 'EBSe 홍보교사'를 통해 활용도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에 비해 방송 프로그램 VOD 히트 수 21% 상승이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콘텐츠 및 교재개발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진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2019년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교재개발사업은 3년간 정체되어 있어 새로운 교재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사이트를 개편하였는데, 특징으로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사이트를 재설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 ‘레벨 테스트’를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실시,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서 기기와 기종에 관계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반응형 서비스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분산된 콘텐츠를 통합함으로써) 빠르고 쉽게 콘텐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수준에 맞는 개인맞춤형 콘텐츠를 별도의 노력 없이 추천받을 수 있고, 어떠한 모바일 환경에서도 장애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영어교육사업에서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콘텐츠를 분류함으로써 시청 층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사이트 구성이 가능하여 접근이 쉽도록 개선한 점은 매우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를 토대로 누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의무가 추가되어 과제가 늘어나게 되었다.

교과서 저작권 확보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교실 수업 연계성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저자 이상의 경력과 능력을 갖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즉 영어교육사업은 고교강의사업과 달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청 층에 부합하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최적화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교사 대상 채널의 인지도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 시·도 교육청 영어과 장학사 및 홍보교사 협의회를 현행 2회보다 더 강화하고, 찾아가는 EBSe 활용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작과정에서 각 매체별 상호보완시스템을 고려한 성과에서 전년도와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EBS의 특성에 따른 것일 수 있으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상호보완시스템을 고려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EBSMath 수학교육사업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의 도구로서 문제 풀이 중심의 수학이 아닌, 개념 및 원리 이해를 중심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를 계발하기 위한 수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학에 대한 다양한 흥미유발 자료를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2018년 사업내용의 핵심요소인 콘텐츠 제작 ‘대상 학년 및 유형’을 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 대상 EBSMath 중간성과 점검(7월), 장학사협의회 및 핵심교사연수(11월), 자문위원회(12월)를 통해 지속적으로 본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2018년 콘텐츠 제작은 교사 등 현장의 요구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교 수학과정(계속) 및 중학교 과정(보완), 코딩교육(신규) 등으로 결론지었다.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 및 의견 청취로 EBSMath의 성과를 점검하여 개선해 나간 것은 기본을 충실히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EBSMath수학교육 사업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문제 풀이 중심의 수학이 아닌, 개념 및 원리 이해를 중심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를 계발하기 위한 수학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근본 취지를 잘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한 STEAM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실제로 EBSMath수학교육 사업은 현장 교사들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한다. 독창적인 콘텐츠를 계속 개발해야 하는 사명감을 안겨 주고 있다 하겠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지만 EBSMath의 수학교육 콘텐츠는 교육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 소득 및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교육부의 교부금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성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교부금 외의 예산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수학교육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가는 형국이기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SW교육 의무화 지원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정 전문분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모두가 알아야 하는 기초 소양으로 지역이나 경제적 격차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SW를 배울 수 있도록 SW 교육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이다. 특히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예산은 과기정통부의 정보화진흥기금을, SW교육 콘텐츠 제작비는 교

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실수업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명확한 사업 목표를 정해 필요한 예산을 관계 부처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SW교육 의무화 정책 연계와 함께 학회 및 교사 단체와의 적극적 협업으로 실효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교육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BS의 소프트웨어교육 플랫폼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교원직무연수기관 승인을 받아 연수를 진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EBS에서 연수를 진행한 것은 파급력이 여타의 연수기관보다 클 뿐 아니라 SW교육 교실수업을 위한 'EBS 교실 수업지원 콘텐츠' 활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이 정규교과로 편성되어 이미 2년차에 접어든 점, 정보담당교사들의 EBS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은 향후 소프트웨어교육사업에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원인으로는 소프트웨어플랫폼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에 들어가고 나서 구축된 점(2018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에 다소 늦은 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의 EBS는 좀 더 발 빠르게 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소프트웨어교육의 중요성은 이전의 정보화 교육에서 소프트웨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프트웨어교육과 관련된 직업과의 연계성, 대학 입시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함께 분석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콘텐츠 제작 및 학교와 교사들이 공감할 얻어내는 등의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

미래교육연구소는 전사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에 기여하기 위해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기관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방송연구대회, 시범학교 등 정책연계 사업의 토양을 마련하였고 교육복지, 디지털시민성, 다매체 공존의 시대, AI, 웹툰 등 기관의 발전 방향에 입각한 심도 깊은 리포트 및 동향 보고서를 생산하여 전사 업무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미래교육연구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교육 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체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참여기관(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과의 정기적 교류를 통하여 교육정책 협의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교육청 및 연구기관과의 정기 협의회 및 공동 토론회 개최 등 EBS의 발전에 기본이 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 인력 중 박사급 인력이 1인에 불과하여 연구소 자체 수행 연구 추진에 한계가 있고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데도 한계가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는 다양하고 중요성이 높은 반면,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 않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BS의 각 분야별 여론조사,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정기간행물 발간 등도 미래교육연구소의 업무다. 기관의 성장 및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인력 및 기획인력 등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향후의 발전 방향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①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수능강의의 장점은 살리되,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고교강의사업의 재편, ② 인력활용 측면에서 신입사원 보충 등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현실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 및 기존 인력 재편, ③ 교재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EBS의 수익구조를 일시에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타사의 시중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가의 조정 검토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교재 지원 방안 마련, ④ 대부분의 교재가 수능과 관련되는 단순한 구조에서 직업·진로 교육, 예체능 등을 위한 교재 발간 검토, ⑤ 창의융합사업에서 교과 콘텐츠 개발 이상으로 중요성이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창의융합사업에 대한 직무분석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수립, ⑥ 수학교육사업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부 교부금 외의 예산확보 필요, ⑦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학교와 교사들이 공감할 얻어내는 등의 방안 강구, ⑧ 미래교육연구소 연구인력 및 기획인력 보강 등이다.

다. 방송교육 과정

평가 내용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가) 평가 기준

학교교육 보완의 목적으로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교육과 어떻게 연계되어 보완하고 있는지, 보충 및 심화교육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학교교육 보완 작업의 수행 방법의 적정성, ② 학교교육 보완 수행 방법 및 전략 성과, ③ 학교교육 보완 채널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자문이나 감수 과정 및 절차 이행의 적절성, ④ 방송 후에 평가수행 및 그 평가 결과의 사후 반영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학교교육 보완 활동 수행 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고교강의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전년대와 다른 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고1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전체 출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 강의를 개발하여 소수 선택 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등에서도 누구나 수업보충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1 교과서 강의’를 제작하였다는 것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재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국어(11책), 영어(11책), 통합사회(5책), 통합과학(5책) 13개 출판사, 32책을 개발하였다. 주요 내용은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기본개념 위주의 학습 강의(32편) 및 시험대비 단기 특강(8편)으로 구분하여 기획하였으며, 〈교과서 진도 특강〉은 총 1,046편을 제작하였다. 여기에 〈교과서 시험 직전 요약〉 283편을 제작하여 시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공부법 특강〉은 51편을 제작하여 학습 동기 부여 및 학년별, 교과별 학습 방법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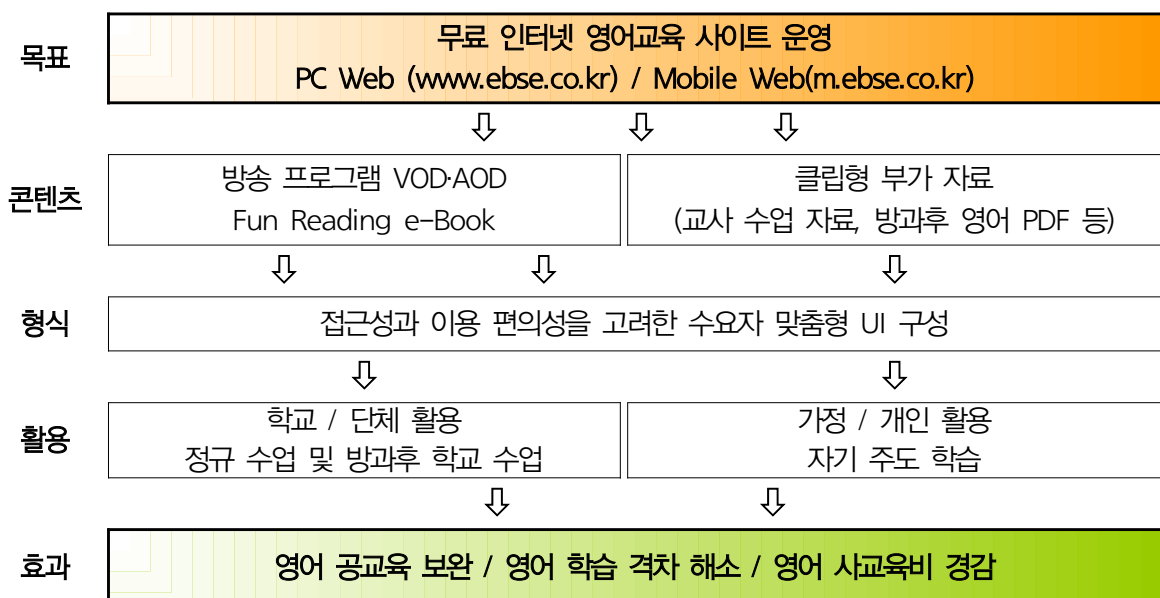
학교 수업 보완을 위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수준별 콘텐츠 제공은 문·이과 통합과목 콘텐츠 제작, 국, 영, 수 기본 강좌 제작,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하위권 학생의 기초 실력 향상을 위한 ‘초보탈출 No.1’ 및 ‘표, 그래프, 그림 특강

신규 기획, '탐구 선택 가이드'와 같은 고교 기초 특강 신규 기획, 학교 현장 활용 및 보완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실현하여 학교수업 보완에 활용도를 높였다.

그 밖에 대입 선발 과정에서의 내신 중요도 상승에 따라 학생들의 내신 학습 지원을 위한 '내신 콘텐츠' 강화, 대입정보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별 콘텐츠 강화, 교육 관련 의제 설정 및 진로 진학 콘텐츠 제작, 입시 콘텐츠 제작을 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에서는 초·중학 학교교육 보완 콘텐츠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초등 3~4학년, 중학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영역별 맞춤형 콘텐츠, 예비 초등학생, 중학생을 위한 학교생활 안내 콘텐츠, 학교 현장 교실 수업 지원을 위한 과학 실험 영상 클립 콘텐츠 등을 제작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게 필요한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메이커 콘텐츠 <엥똥남매 공작소>, <엥똥남매 요리조리쇼> 등도 제작하였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창의융합형 콘텐츠의 학습 지도안을 제작하여, 학교교육 보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무료 인터넷 영어교육 사이트(PC Web: www.ebse.co.kr/Mobile Web: m.ebse.co.kr) 운영으로 영어 공교육 보완, 영어 학습 격차 해소,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그림 3-3> 영어 교육사업 운영 개요

또한 방과 후 영어 방학 Lv1~Lv3, 중학 프로그램과 방학 시리즈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여 자기 주도형 가정 학습 지원을 하면서 학교교육 보완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다.

수학교육사업 수학교육의교육부에서 운영하는 EBSMath 사이트와 모든 콘텐츠는 '2015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위탁에 의한 것으로 수학 과목 흥미 향상, 동기유발 및 수학 학습 효과성 증대, 공교육 보완을 통한 수학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내용연구 및 제작회의 시 수학과수학교육과 교수와 현직 중학교 수학교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개정된 수학교육과정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제작과정에서 전문성을 제고하며, 자문위원회, 핵심 교원 및 실제 이용자들의 평가에 의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질을 높이고 있다.

EBSMath 콘텐츠는 '2015년 개정 수학교육과정' 및 『수학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세부 아이템을 선정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세부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기획·제작하고 있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교육사업과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 협의체(시도교육청 SW교육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책협의회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EBS,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7개 시도교육청 등이 분기당 1회의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BS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수행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SW교육 교실수업 의무화 지원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EBS SW교육 플랫폼의 학교현장 활용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대표강사 연수를 실시하였다.

② 학교교육 보완 활동의 성과

고교강의사업은 연 1회 시행되는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 및 '2019년 EBSi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능강의에 대한 보완점을 파악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는 수능강의 사업 및 강좌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커리큘럼 기획 시 반영하고 있다.

<표 3-13> 2018년 EBSi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 [교사] 조사 결과 요약

항 목		결 과
활 용 도(직접 활용)(%)		98.0
활 용 도(학생 권유)(%)		90.6
측면별 만족율/효과	강의만족도	93.0
	교재만족도	91.2
	수능도움정도	96.0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만족도 조사 결과 강의, 교재, 수능 도움 정도 모두 90% 이상이 만족하고 있어 학교교육 보완 활동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중학 교육사업은 연 1회 시행되는 'EBS 초등/중학 사이트 이용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EBS 초·중학 사이트 강의 수강자들(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점을 파악하여 콘텐츠 기획 시 반영하고 있다.

<표 3-14> 2018년 EBS 초등 강의 만족도 (설문 완료 응답자 1,836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다양한 과목	15	24	176	368	1,225
다양한 난이도	22	29	222	427	1,106
강의 분량	27	38	241	441	1,064
강의 내용	20	19	191	441	1,142
강의 속도	23	35	230	453	1,074
선생님 강의 방식	20	23	224	435	1,100
강의 업데이트	30	37	276	423	1,002
성적 향상 도움	29	16	217	436	1,081
합계	186 (1.3%)	221 (1.5%)	1,777 (12.3%)	3,424 (23.8%)	8,794 (61.1%)

<표 3-15> 2018년 EBS 중학 강의 만족도 (설문 완료 응답자 1,299명)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다양한 과목	12	21	138	320	777
다양한 난이도	10	30	164	349	718
강의 분량	13	26	169	370	699
강의 내용	9	17	135	339	778
강의 속도	11	21	171	347	727
선생님 강의 방식	11	18	163	342	739
강의 업데이트	12	31	171	338	695
성적 향상 도움	7	19	174	340	715
합계	85 (0.8%)	183 (1.8%)	1,285 (12.7%)	2,745 (27.1%)	5,848 (57.6%)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초등, 중학 모두 '만족'과 '매우 만족'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교육 보완 활동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었다.

영어교육사업은 학생 858명, 교사 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EBS English 운영성과 분석 및 놀이·활동 중심 영어교육 방안을 통한 의사소통 중심 영어 능력 신장 연구>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 일반인 등 모든 층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수학교육사업은 연 1회 시행되는 'EBSMath 이용행태 및 효과성 조사'를 통하여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능강의에 대한 보완점을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의 결과는 수능강의 사업 및 강좌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커리큘럼 기획 시 반영하고 있다. 2018년 조사는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를 통해 9월~11월 중 진행되었다.

③ 학교교육 채널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참여 절차의 적정성 및 참여 정도

고교강의사업은 강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제작 참여자가 전원 숙지하고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능 콘텐츠의 내용 및 표현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한 강의 품질 향상, 교과 전문성을 보유한 검수 교사(현직 교사)를 통한 내용 검토 전문성 강화, 수능강의 내용에 피드백을 통한 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능강의 검수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특히 일반 교과는 단일 검수, 역사는 복수 검수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질 높은 제작을 할 수 있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창의융합 콘텐츠 <생방송 판다다>, <과학할고양>, <엉뚱 남매 공작소>, <엉뚱 남매 요리조리쇼> 기획 및 제작에 창의융합 커리큘럼 개발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매 편마다 자문과 검수를 진행하였고, 초·중학 강의 콘텐츠는 모든 강의 검수자(현직 교사)가 검수를 실시하여 질적 향상을 이끌어 내었다.

영어교육사업은 현직 초·중등교사 54인(EBSe 홍보교사)이 주요 프로그램 검수 및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를 EBSe 사이트(교사지원센터)에 탑재하였고, 17개 시·도 교육청 EBSe 담당 장학사 회의(상·하반기 각 1회) 및 교육부, 홍보교사 의견을 수시로 청취·반영하였다. 또한 2018년 EBS English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사 65명의 의견을 파악하였다.

수학교육부에서 기획·제작되는 모든 콘텐츠는 수학과수학교육과 교수의 자문을 바탕으로 현직 초·중학교 수학교사들의 내용연구를 통해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작이 완료된 이후에도 참여 교수와 교사들과의 공동 시사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콘텐츠가 제작되었는지 재평가 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여 질 높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현직에서 EBSMath 콘텐츠를 활용하는 전국 수학 담당 교사들을 주축으로 교육청의 추천하에 'EBSMath 핵심교원'(17개 교육청 총 46명)을 선발하여 워크숍을 진행, 의견을 청취하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 및 사이트 운영에 관한 피드백을 상시 받고 있는 것도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④ 방송 후 평가수행 및 평가 결과의 반영 정도

고교강의사업은 연 1회 시행되는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 의견을 수렴(EBS 수능강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하였다.

조사 목적은 수능강의 및 사교육 이용 실태 파악 및 성과 점검, 수능 연계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조사 실시, EBS 수능강의 및 교재 활용 현황 파악, EBS 수능강의의 성과(수능과의 연계성, 사교육 절감 효과) 등을 점검하고, EBS 수능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수능강의 수요자 총 2,500명이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연 1회 시행하는 '2019년 EBSi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설문 의견을 수렴하고 커리큘럼 기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2019년 EBSi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소비자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영어와 수학 강좌의 서술형에 대한 어려움 지원을 위한 콘텐츠 요청, 내신 대비를 위한 기출 문제집 구매 경향 파악, 국어 문법 강좌, 영어 문법 강좌, 수학은 4점 문항 연습 강좌 및 문제 해석 강좌 필요, 수준별 커리큘럼에 적합한 내용과 구성을 갖춘 인강 교재 개발로 요약된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연 1회 시행되는 'EBS 초등/중학 사이트 이용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콘텐츠 기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고, EBS 시범학교 학생,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EBS 홍보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부모 카페 ‘똑똑e맘’, SNS 채널 ‘EBS 스토리’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 의견도 함께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방송 프로그램 주간 현황 파악 및 프로그램별 히트수 모니터링, EBSe 프로그램 게시판 및 CSR을 통한 의견을 수시 확인하여 제작진에게 전달 및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연 1회 EBS English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자 의견 수렴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학교육사업 역시 연 1회 시행되는 ‘EBSMath 이용행태 및 효과성 조사’를 통하여 학생,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능강의에 대한 보완점을 파악하고, 해당 조사의 결과를 수능강의 사업 및 강좌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다음 커리큘럼 기획 시 반영하였다.

평가 결과 및 제언

방송교육과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학교교육 보완 활동 수행 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학교교육 보완 활동의 성과’, ‘학교교육 채널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참여 절차의 적정성 및 참여 정도’, ‘방송 후 평가수행 및 평가 결과의 반영 정도’ 등 4가지 요소를 점검한 후 평가하였다.

고교강의사업은 교육 정책 지원과 학교교육 보완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개발하여 제공,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목표로 하는 학생 참여형 수업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한 콘텐츠 제공, 학교 수업 보완을 위한 자기 주도 학습 지원 수준별 콘텐츠 제공, 대입 선발 과정에서의 내신 중요도 상승에 따라 학생들의 내신 학습 지원을 위한 ‘내신 콘텐츠’ 강화, 대입 정보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학별 콘텐츠 강화, 교육 관련 의제 설정 및 진로 진학 콘텐츠 제작, 검수 시스템 운영 원칙 준수 등 우수한 평가를 받은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 결과 수능강의 개선 사항으로 연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어떻게 연계가 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주는 등의 방법을 찾는 것이 향후 고교강의사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강사 적합자를 추천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고1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전체 출판사를 대상으로 교과서 강의를 개발하여 소수 선택 교과서 채택 학교 및 농어촌 지역 등에서 누구나 수업 보충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1 교과서 강의’를 제작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과제로 농어촌 지역에서 EBS 고교강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하다. 초·중학강의 콘텐츠 제작 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정책 변화 등을 반영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학교교육 보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초·중학교에

서의 활용도를 높여 향후 고교강의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당장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자유학년제 실시, 지필고사 전면폐지 및 과정 중심평가 확대 등 교육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을 듯하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효과적인 소프트웨어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정책 협의체(시·도 교육청 SW교육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EBS 설립 목적에 충실한 수행을 위해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SW교육 교실수업 의무화 지원 콘텐츠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EBS SW교육 플랫폼의 학교 현장 활용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 교육청 대표강사 연수를 실시하였고, 특수분야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부분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 위한 소프트웨어 콘텐츠개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연구와 노력의 필요성이 높아 보이며 일선 학교의 정보담당교사들과 소통할 기회를 만들고 이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 후 평가수행 및 평가 결과의 반영에서는 만족도 조사가 모든 영역에서 잘 진행되고 있었다. 만족도 결과를 실제 편성에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즉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왔지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향후의 발전 방향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① 창의융합교육사업에서 자유학년제 실시, 지필고사 전면폐지 및 과정 중심평가 확대 등 교육정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콘텐츠 제작, ② 방송 후의 만족도 조사 결과는 만족스럽게 나왔지만,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방안의 구체적인 검토 등이다.

라. 방송교육 성과

평가 내용

1) 타겟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 적정성

가) 평가 기준

학교교육 보완 목적으로 제작된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활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강의, 문제 풀이, 해설 강의, 인덱스 등의 구체적인 이용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은 ① 인터넷 강의 이용 수준의 적정성, ② 문항별 해설 강의 및 인덱스 이용 수준의 적정성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인터넷 강의 콘텐츠 이용 정도

- 산정지수: 인터넷 강의 이용자 수(15) + 문제 풀이 이용자 수(5)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이 항목은 정량평가로 고교강의사업은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가 120%로 나타나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향후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의융합사업은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63.23%로 나타나 좀 더 분발이 요구되며, 영어교육사업은 91.34%, 수학교육사업은 197%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 교육사업은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가 197%로 나타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표 3-16> 연도별 인터넷 영어교육의 강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실적 (단위: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스트리밍	32,162,274	32,012,379	33,504,037	32,186,986
다운로드	4,054,896	3,706,910	4,404,554	4,832,164
합계	36,217,170	35,719,289	37,908,591	37,019,150

② 문항별 해설 강의 이용 정도

- 산정지수: 문항별 해설 강의 이용 건수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이 항목 역시 정량 평가로 고교강의 사업의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가 143%로 나타나 이전 년도 보다 증가하였다. 이 부분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강의를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2018년부터 일부 시범 서비스 중으로 산출식 적용이 불가능하여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③ 인덱스 이용 정도

- 산정지수: 인덱스 이용 건수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이 항목은 정량평가로 고교강의사업의 실적은 전년도 보다 이용 건수가 다소 낮아졌으나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100%로 나타나 전년도와 실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년도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질적인 성과는 낮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어,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인덱스 정보가 없어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가) 평가 기준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보완의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만족도와 성취도는 어떠한지 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영향 정도, 성취도 정도, ② 교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 정도, ③ 학부모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학생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 정도

- 산정지수: 학생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산출식(%): 실적평가 60점과 개선도 평가 40점으로 나누어 총합 100점으로 평가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40\text{점}$$

(※ 당해 연도 실적이 90점 이상인 경우 개선도 평가는 40점 만점을 부여함)

이 항목은 정량평가로 고교강의사업은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96.7로 나타났고,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98.02점으로 나타났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초등 강의 만족도가 88.4로 나타났고,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91.74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중학강의 만족도는 실적이 87.8로 나타났고,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91.74점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사업의 경우는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가 94%로 나타났고, 산정지수는 4.29점(100점 만점 환산 85.8점)으로 나타나 전년도(2017 만족도 100점 환산 79점)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전년도에 비해 리커트 5점 척도 기준 및 100점 환산점수가 소폭 높아졌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에서는 EBS SW교육 플랫폼 ‘이숲’ 서비스 학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6, 87.2%으로 나타났다.

② 교사, 교육행정가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활용 정도

- 산정지수: 교사 및 교육행정가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산출식(%): 실적평가 60점과 개선도 평가 40점으로 나누어 총합 100점으로 평가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40\text{점}$$

(※ 당해 연도 실적이 90점 이상인 경우 개선도 평가는 40점 만점을 부여함)

이 항목은 정량평가로 고교강의사업의 실적은 93.0, 산출 결과는(산출식에 따른 결괏값)은 95.80점으로 나타났다.

$$\frac{93.0}{100} \times 60 + \frac{93.0}{92.8 + (100 - 92.8) \times 10\%} \times 40 = \frac{93.0}{100} \times 60 + 40 = 95.80$$

영어교육사업의 산정지수는 4.10점(5점 척도/100점 환산 82점)으로 2017년의 만족도 100점 환산 72점에 비해 향상된 환산점수를 얻었다. 산출 결과(산출식에 따른 결괏값)는 93.2%로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얻었다

③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활용 정도

- 산정지수: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
- 산출식(%): 실적평가 60점과 개선도 평가 40점으로 나누어 총합 100점으로 평가

$$\frac{\text{실적}}{100\text{점}} \times 60\text{점} + \frac{\text{실적}}{\text{전년도 실적} + (100\text{점} - \text{전년도 실적}) \times 10\%} \times 40\text{점}$$

(※ 당해 연도 실적이 90점 이상인 경우 개선도 평가는 40점 만점을 부여함)

이 항목은 정량평가로 고교강의사업의 실적은 86.0, 산출 결과(산출식에 따른 결과 값)는 89.74점으로 나타났다.

$$\frac{86.0}{100} \times 60 + \frac{86.0}{89.1 + (100 - 89.1) \times 10\%} \times 40 = \frac{86.0}{100} \times 60 + 38.14 = 89.74$$

이 항목은 정량평가로 영어교육사업은 4.10점(5점 척도/ 100점 환산 82점)으로 전년도 만족도 100점 환산 83.3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산출 결과(산출식에 따른 결괏값)은 87.6%로 나타났다.

미래교육연구소는 EBS 고교강의 서비스 도움 여부에 대한 설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가) 평가기준

교육방송이 제공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과 교재 및 각종 출판물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EBS 학습프로그램 및 출판물 내용의 충실성, ② EBS 학습프로그램 및 출판물 가격 수준의 적정성, ③ EBS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내용의 충실 정도

고교강의사업은 <2018년 EBS 수능강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EBS 수능 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27.4%, 학부모 67.3%가 EBS 수능강의로 사교육비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학부모의 86.0%는 EBS 수능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EBS 교재가 타 출판사 교재보다 더 우수하다는 의견이 48.8%로 타 출판사가 더 우수하다는 의견 8.8%보다 월등히 높았다.

교재발간사업(고교 교재-수능교재기획부)은 연계교재는 교육과정상의 내용과 수능 출제 난이도의 충실한 반영, 석·박사급 교과위원과 국내 최고수준의 집필진, 수능출제 기관의 감수 등 수능연계에 최적화된 교재로 우수한 면이 많지만, 가격은 시중 수능 대비 문제집의 42%이다.

수시 확대에 의해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 내신과 비교과 활동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시험 및 수행평가에 대비할 수 있는 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교육과정을 벗어나거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검증되지 않은 교재, 고가의 교재를 판매하는 사교육 업체로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해 시중 교재의 60% 미만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검증된 전문가인 EBS 집필진과 교재개발자가 만든 비연계 교재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수능 대비 학습의 경우는, 학습기출·모의고사 중심, 최근 시험 트렌드에 따라 고난도 학습 수요 확대 등을 반영하여, 모의고사 <고난도 시크릿 X> 시리즈, 고난도 문제집 <4주특강 신유형 고난도> 시리즈 등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학습 트렌드에 맞춰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 정책은 가계의 교재비 지출 부담을 감소시켜 사교육비 억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창의융합교육사업은 <EBS 초중학 사이트 이용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초등 강의 만족도 88.4점(100점 기준), 중학 강의 만족도 87.8점(100점 기준)로 나타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영어교육사업은 ‘생활영어’ 교재, ‘왕초보 영어’ 교재, ‘매일 10분 영어’ 교재 등의 발간을 통해 교재 내용의 충실도를 꾸준히 입증해 나가고 있다.

②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가격의 적정성

고교강의사업의 대표적 사교육업체인 M사와 E사의 인터넷 강의(RT60분, 20강 기준) 가격은 EBS와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표 3-17> 인터넷 강의(RT60분, 20강 기준) 가격

구 분	가 격
EBSi	무 료
M사	약 84,000원
E사	약 74,000원

교재출판사업의 EBS 교재는 타 출판사 대비 평균 정가는 67.7%, 교재별 면수를 고려한 평균 면당 단가는 66.2% 수준으로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고 교재의 대부분은 인터넷 무료 강의로 제공 중이다.

영어교육사업의 EBS English는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프로그램 스트리밍, 다운로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2018년 EBS에서 출간한 교재의 평균가는 8,000원으로, 시중의 유사 교재 평균 판매가보다 42.8%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시중 유사 교재 평균가 14,000원)하고 있다.

<표 3-18> EBS 교재 가격

구분	EBS 교재	타사 유사 교재	타사대비 비중
정가 평균	9,187	13,578	67.7%
면당 단가 평균	36.2	54.7	66.2%

③ EBS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정도

EBS를 통해 교육소외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꿈장학생 장학금 확대> 사업은 2017년 장학금 95백만원 → 2018년 장학금 25명 선발, 140백만 원으로 확대하고, 실제 어려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육소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등 교육격차 해소 역할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려운 학습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대한민국 교육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EBS 수능강의 동영상 및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룬 사례를 발굴, 소개함으로써 EBS 수능사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고교강의사업에서 'EBS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는 사교육 감소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67.3%,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32.7%로 나타나 사교육 절감 효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

영어교육사업 역시 2018년 'EBSe 콘텐츠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한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5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보이며, 평균 3.97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19> EBS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인	평균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한다.	4.18	4.00	3.91	3.77	3.97

<표 3-20> EBS English 수강 여부에 따른 연간 사교육비 절감액 <자료: 교육부>

(단위: 만 원)

학교급	EBS English		
	수강	미수강	절감액
초등학교	53.7	80.0	-26.3
중학교	82.1	119.6	-37.5
일반고	94.4	104	-9.6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초등학교급과 중학교급에서 'EBS English'를 수강함에 따른 사교육비 절감액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EBS English가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평가 결과 및 제언

방송교육 성과에서는 주로 정량평가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타겟 이용자의 콘텐츠 활용 적정성',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교육격차 해소 기여 정도'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방송교육의 성과는 EBS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이용자가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교교육 보완 효과를 얻어야 한다. EBS에서는 콘텐츠 제작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교강의사업에서 인터넷 강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다만 2018년도는 2017년도에 비해 감소 폭이 다소 둔화되었을 뿐이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로 볼 수도 있지만, 2018년도에서 나타났듯이 감소 폭이 둔화된 것은 노력에 따라서 인터넷 강의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120%로 나타나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언제든지 대폭감소의 충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창의융합사업은 중학교에서의 이용률이 다소 저조할 뿐 아니라, 다운로드에서도 저조하다. 이는 창의융합수업에 대한 관심도 부족에서 오는 문제로 분석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스트리밍의 이용 건수가 감소되고 있는 것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원인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추후에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 한다. 향후의 교육은 창의융합교육이 더욱더 중요시 되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교육사업의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는 91.34%로 나타났고, 수학교육사업은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가 197%로 나타났다. 수학교육사업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입시에서의 중요성과 변별력이 큰 과목임을 감안할 때 이용률이 당분간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저출산과 사교육업체와의 경쟁을 위해 질 높은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여 변화하는 교육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문항별 해설 강의 이용률이 2016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공교육 보완의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평가가 어떠한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학생들은 고교강의사업에서 산출식에 따른 산출결과가 98.02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창의융합교육에서도 초등, 중등 모두 91.74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EBS SW교육 플랫폼 ‘이숲’ 서비스 학습자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6, 87.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향후 해를 거듭하면 높은 만족도가 기대된다.

교사들의 만족도는 고교강의사업에서 산출식에 따른 산출 결과가 95.80점, 영어교육사업에서 93.2%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영어교육사업의 산정지수가 전년도의 72점에서 2018년도에는 82점으로 높아졌다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발전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산출식에 의한 산출 결과 고교강의사업 89.74점, 영어교육사업 87.6%로 나타나 다소 보수적인 평가를 내렸다. 영어교육사업의 산정지수가 전년도(83.8점) 보다 2018년도(82점)에 소폭 하락한 것이 특징적이다.

프로그램 및 출판물이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고교강의사업에서 교육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EBS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높아진 수시 비중으로 학습자 가정에서 컨설팅 등 입시 관련 사교육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부 전형에 비롯한 입시 관련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교재발간사업(고교 교재)에서는 EBS 교재는 현직 고교교사 및 교수인 집필진과 교과 및 교과교육 석박사급 위주로 구성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인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교재는 시중 타 출판사 교재의 절반 정도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2018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상인 2018년 고1 교재를 전면 개정 및 신규 개발하였으며, 수행평가 및 과정중심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지 이외

다양한 형태의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수행평가 워크북의 형태로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영어교육사업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영어 교과 프로그램 기획 및 작업을 실시하여 4개 출판사 5개 교과서의 저작권 확보를 통해 교과서별, 차시별 핵심 내용을 제작하였고,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콘텐츠로 방송, 클립, 게임 콘텐츠 등 차시별 다양하고 흥미로운 구성으로 지속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실현에 도움을 주었다.

EBS의 인터넷 강의는 무료이고, 교재의 타 출판사 대비 평균 정가는 67.7% 정도이다. 2018년 EBS에서 출간한 교재의 평균가는 8,000원으로, 시중의 유사 교재 평균 판매가보다 42.8%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시중 유사 교재 평균가 14,000원)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EBS가 교육격차 해소에 60% 이상이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EBS의 존재 이유가 확실해졌다. 만족도 높은 콘텐츠 및 교재 발간으로 학교교육의 보완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교육격차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변화하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다소 대응이 늦은 부분이 존재하는 것과 교재 가격이 타사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여 수익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재의 질을 높이면서 적정 수준의 정가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사항이다. 또한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이 다소 늦게 시작되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이 늦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여기에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평가 방법이나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강의 콘텐츠 개발도 필수로 보인다.

향후의 발전 방향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① 고교강의사업에서 인터넷 강의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 ②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 등에 관련 예산 추가 확보, ③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평가 방법,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강의 콘텐츠 개발 등이다.

마.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평가 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가) 평가 기준

경영평가의 목적은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평가 항목은 '전년도 교육 부문 경영평가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및 반영 정도'이다.

나) 평가사항

① 전년도 교육부문 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전년도 교육부문 개선 권고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미래 창의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확대 둘째, 수능방송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콘텐츠를 다변화,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 넷째, 고령화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영역 개척 등이다.

전년도의 교육부문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개선을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미래 창의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확대는 미래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창의교육임을 볼 때,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창의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과 중학교의 자유학기제·자유학년제와 연결될 수 있고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시범 도입되는 고교 학점제와도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고교강의사업에서는 2018년은 미래교육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교육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첫해로 이에 EBS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중심의 참여 수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 교과서 강의] 콘텐츠를 2018년 4월부터 제공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강의 제공 소개】

○ 취지

- 교과서 기반 기본개념강의 제공을 통해 학교교육을 보완
- 도서산간농어촌지역 및 학교 밖 아이들에게 양질의 기본개념강의 제공을 통한 학생 간 학력격차 및 지역 별 교육격차 해소 목적

○ 개요

- 제공 교과목: 국어,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고1 대상 과목)
- 제공 교과서: 총 32책
 - ※ 국어(11책)·영어(11책)·통합사회(5책)·통합과학(5책) 13개 출판사, 32책
- 오픈일: 2018년 4월 23일
- 주요내용: 고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기본개념 위주의 학습 강의 및 시험대비 단기 특강 제공

2019년에도 창의·융합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거꾸로 교실 등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개념 단위의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창의융합교육사업에서는 2016년~2017년에 <대도서관 잡(JOB)쇼> 52편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진로, 직업을 탐색하는데 가이드를 제공하였고 그 내용은 책으로도 출판되었다. <대도서관 잡(JOB)쇼> 영상 콘텐츠와 책은 중학교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기제 보조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 <과학뽕Q>, <사이언스타Q>, <미스터리식당Q>, <미래강연Q> 등 과학 중심 창의교육 콘텐츠를 통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인재가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18년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결합한 메이커 프로그램 <영똥남매공작소>, <영똥남매요리쇼> 를 제작 중에 있고, 향후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학, 고교 교육과정과 결합한 창의교육 콘텐츠의 개발·확대가 필요해 이 부분을 더 노력하고 있었다.

수학교육사업에서는 EBSMath 콘텐츠와 STEAM 교육을 강조하여, 교과서 속 수학 개념과 타 교과, 실생활 이슈를 접목한 STEAM형 콘텐츠를 개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합형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고, 2018년 실생활 속 고교 수학 개념을 탐구하는 ‘고교 개념형 영상시리즈’ 44편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슈 속 중학 수학 개념을 탐구한 ‘4차 산업혁명은 수학 혁명’ 시리즈 6편을 제작하였다. EBSMath 콘텐츠와 학교 교육 보완 분야에서는 동영상, 게임 등 EBSMath

의 다양한 창의교육 콘텐츠를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였고, 2018년 교사의 활용 수업을 직접 촬영, 편집한 ‘교실 속 EBSMath’ 시리즈 9편을 제작하였다. 최근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교육사업은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 오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교육을 강화해 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으며, SW에 관심 있는 전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숲’을 2018년 10월 중 오픈하였다. 2019년 3월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 지원을 위해 ‘교실 수업지원 서비스’를 개통해 창의융합교육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대입제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능체제의 변화 및 EBS 연계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언제 부딪치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수능방송사업 이외의 교육 콘텐츠 수요 확대를 통해 수능 비연계교재 발간 사업의 비중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화두를 던져두고 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교재발간사업(수능교재기획부)에서 2018년 수능 비연계교재 발간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개선으로 “내신 기초 학습 기본서인 ‘수학의 왕도’, ‘개념완성’ 등을 개발”, “학교 현장 교수 학습용 단기 특강 교재인 ‘올림포스’, ‘개념완성 문항집’ 등을 개발”, “수준별 수학 커리큘럼 교재인 ‘수학 닥터링’, ‘올림포스 고난도’ 등을 개발”, ‘내신 수행평가 대비용 학습자료 부록 확대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능방송 등의 활용도를 보여주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치가 감소하는 현상은 저출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재발간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기존의 매체나 서비스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져두고 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고교강의사업에서 미래 교육 대응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수준별 맞춤형 커리큘럼 제시,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을 통한 강좌, 문제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2018년 12월 오픈)하였다. 또한 강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기출문제의 스마트북 서비스를 통한 EBS 강의 활성화 추진, (기출 관련 모든 교재의 사진을 찍을 경우 EBS 해설 강의 노출 가능), 신청 강좌의 목표 설정 기능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서비스 개선(12월 오픈)을 위해 노력하였다.

넷째, 고령화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영역 개척에 대한 권고 사항은 ‘청장년층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과정의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MOOC¹⁾와 연계하는 방안이나 기업과 연계하여 단기 직업 교육 자격과정을 운영하는 나노 디그리(Nano Degree)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화두를 던져두고 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창의융합교육사업에서 EBS는 초등중학직업채널인 EBS플러스 2채널을 통해 직업역량 개발을 위한 자격증 과정을 방송하고 있는데, 예로 최근 4차산업의 대표적 산업인 드론 관련 산업의 인력 양성과 자격증 과정을 대비한 <드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시험대비 강좌>를 2018년 11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추진하고 한국형 MOOC인 K-MOOC사업에는 지난 2016년 EBS가 제작한 콘텐츠로 순천향대학교가 K-MOOC사업의 대학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향후 청장년층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참여 주체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향후의 발전 방향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과정중심평가, 교사별 평가, 핵심역량 강화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콘텐츠 개발, ② 비연계 교재 및 콘텐츠를 강화하여 수능강의 변화에 대비 등이다.

1) 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

평가 결과 및 제언

전년도 개선평가 사항 네 가지에 대하여 개선 혹은 추가사업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네 가지는 첫째, 미래 창의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확대, 둘째, 수능방송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콘텐츠를 다변화, 셋째,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 넷째, 고령화 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영역 개척 등이다.

첫 번째 권고사항인 미래창의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확대는 급변하는 교육환경(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인식변화에 따른 수요사항 증가, 교육과정 개선 주기의 단축 등)변화에 맞춰 노력하였다는 점은 긍정 평가 요소이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단과 처방에서 학교교육 대체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엿보인다. 가령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나 교사별 평가, 핵심역량 강화 등을 중점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위한 콘텐츠 개발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EBS의 핵심인 수능방송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콘텐츠를 다변화 한다는 것으로 이는 꼭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수능 관련 정책은 대입제도의 변화에 따라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재빠른 정책변화가 필요하나, 대입제도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관련 사업의 수익구조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수능방송사업의 비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콘텐츠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수능 비연계 교재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대입제도 변화에 따라 수능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더라도 EBS 교육부분의 전체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인데, 이 권고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콘텐츠 제공 등을 중점으로 노력하였는데, 저출산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결국 학생 수가 감소할 것이고, EBS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학생 친화적인 강좌 개발 및 운영도 중

요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전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요구된다.

네 번째는 고령화 사회와 직업 세계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영역 개척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적절해 보인다. 청·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이나 자격과정 확대 등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저출산과 맞물려 시니어 층들이 EBS TV나 인터넷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바.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평가 내용

1)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력과 성과

가) 평가 기준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계획 대비 실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계획의 적정성 ②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계획 대비 노력과 성과의 적정성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계획과 자원투입의 적정성

창의융합교육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사회 환경과 학교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하여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등 현실과 직결되고 에듀테크가 적용된 창의융합형 콘텐츠를 본격 제작하였다.

<표 3-21> 창의융합 콘텐츠 제작 현황

콘텐츠명	제작 예산	제작 인력
<티라노의 심장 대탐험>	0 원 (SK에서 예산 지원)	6명 (PD 2명, AD1명, CM1명, 파견교사 2명)
<역사탐험 경북궁>	80백만 원	7명 (PD 2명, AD 1명, CM1명, 파견교사 3명)
<생방송 판다다>	580백만 원	4명(PD 3명, AD 2명)
<과학할고양>	221백만 원	2명(PD 1명, AD 1명)
<영똥 남매 공작소>	364백만 원	5명(CP 1명, PD 3명, AD 3명)
<영똥 남매 요리조리쇼>	100백만 원	5명(CP 1명, PD 3명, AD 3명)

수학교육사업의 EBSMath 사이트는 ‘수학에 관한 흥미 및 동기 유발 학습 자료 지원 사이트’로서 기존의 문제 풀이, 공식 암기, 단순 강의 위주의 콘텐츠를 지양하고 포맷상으로는 애니메이션, 미니다큐, 웹툰, 게임, 카드뉴스 등 다채로운 포맷을 활용하고 내용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공학/예술 속 수학 개념 탐구, 실생활과 접목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한 창의융합 인재교육을 지향하는 이른바 STEAM형 수학 콘텐츠를 주로 제작하고 있었다.

2018년에는 제작 예산 286백여만 원을 투입하여 실생활 속 다양한 이슈와 고교 수학 개념의 연결고리를 조명한 <고교 수학 개념형> 동영상 시리즈(47편)와 <중학수학 업데이트>(6편), 드론, 암호화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이슈 속 중학교 수학 개념의 연관성을 소개한 <4차 산업혁명은 수학혁명> 시리즈(6편) 등을 제작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제작 예산 360백여만 원을 투입, 제작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은 고1·2 단원별 핵심개념 이해 및 생각열기 동영상(20편) 제작, 수학을 통해 본 미래 핵심 기술 시리즈(10편) 제작, 수학적 사고력과 컴퓨팅 능력 동시 배양하는 ‘코딩 수학’(10편) 제작, 중학 1~3학년 중단원별 개념형 콘텐츠(20편) 제작 등이다.

☞ **수학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ing):** 수학적 언어로 실세계 현상을 수치화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는 과정, 수학을 활용해 실세계 문제를 탐구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Jennifer Suh, PH.D. 조지메이슨대 수학교육과 교수)

소프트웨어교육사업에서는 전 국민 SW기본교육을 위한 핵심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SW교육 의무화 지원 교실 수업 지원 콘텐츠 제작 등을 하였다.

②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계획 대비 성과의 적정성

창의융합교육사업은 동식물과 자연현상, 생활용품 및 발명품을 관찰하는 데서 시작하여 질문을 던지고 탐색하는 가운데 놀라운 자연의 법칙과 과학 현상의 원리를 발견하는 과학 중심 STEAM 콘텐츠인 <과학할고양>과 일상생활 속 불편했던 경험이나 호기심, 재미있는 아이디어로부터 질문과 미션을 찾아내서 세상에 하나뿐인 창작물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메이커교육 콘텐츠인 <엉뚱 남매 공작소>가 「2018

EBS 방송 대상」 우수 작품상을 받으며 내부적으로 우수한 콘텐츠로 평가받았다. 창의융합교육 콘텐츠 보급 및 확산을 위해 'EBS 창의융합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 연수'와 '티라노와 함께 떠나는 심장 대탐험 VR 체험 교육'을 진행하였고, 콘텐츠를 평가받았다.

<표 3-22> 티라노와 함께 떠나는 심장 대탐험 VR 체험 교육 내용 및 콘텐츠 평가 결과

일시	행사명	참가 인원	체험교육 내용 및 콘텐츠 평가 결과
2018. 1.24 ~ 1.26 (3일)	제15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2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박 3일간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VR 체험활동 실시 - 심장 탐험 VR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것에 관심이 많은 편 - 애니메이션 접근과 교실 모드에 대한 반응이 좋았으며,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음
2018. 4.17.	휴전선 접경지역 EBS 콘텐츠 교육	5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전선 접경지역 학생들을 상대로 VR체험 - 학급 모드로 실시하는 그룹과 개인 모드로 나눠 진행하였으며 심장 체험에 호기심을 가짐
2018. 7.13.	스마트기기 활용 배움중심수업 연수 (창원 북면초등학교)	2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장 대탐험 VR 교육용 콘텐츠를 교사 대상으로 심장을 학습지 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적 측면에서 접근 - VR과 AR을 접목한 MR 콘텐츠 활용 교육의 실제와 과학교과와 연계성을 만족스러워함
2018. 8.1.	예천중학교 VR 체험	4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천 중학생을 대상으로 카드보드 HMD 활용하여 학생 개인 스마트 폰으로 App 다운로드 후 체험 - VR 체험활동에 관심이 많았고 교육적 활용 가치가 있다고 평가

수학교육사업은 [2018 EBSMath 인지도 및 사용자 효과성 조사]의 결과 내용 중 '사이트 속성 평가' 항목에 따르면 학생과 교사 이용자의 콘텐츠 만족도가 각각 82.49점, 84.6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교사의 창의융합형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항목인 '수학사, 실생활 속 수학 영상은 수업에 유익' 부분에서 84.97점으로 교사 만족도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교육은 SW교육 수요를 고려한 핵심 콘텐츠로 언플러그드(명령이다 비트, 10편), 엔트리(하상욱의 슬기로운 코딩, 10편), 파이선(내손안의 파이선, 15편), EBS가 제작한 영상 클립을 활용한 이러닝 콘텐츠 12종 83편 제작, 교양/상식으로 2014년부터 제작한 SW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공(17종 194편), SW교육 관련 교육뉴스 제공(28편), SW교육 의무화 지원 교실 수업 지원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초·중·고에 균형을 맞춰 창의융합형 콘텐츠를 제작·보급하였다.

평가 결과 및 제언

당해년도 중점평가사항은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계획 대비 실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계획의 적정성',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계획 대비 노력과 성과의 적정성'이다.

2018년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함께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중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정규교과에서 교과가 신설되어 소프트웨어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자리가 잡히면 소프트웨어교육과 창의융합교육을 적절히 융합하면 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발맞춰 EBS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에 기여할 창의융합교육 콘텐츠와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초·중학 강의 콘텐츠 제작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유학년제 등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콘텐츠 기획 개발 인력 및 예산 투자가 필요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창의융합 콘텐츠 기획 제작 인력 및 예산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

총 인력 중 휴직자를 제외하고는 전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투입하고 있을 정도로 전략적으로 창의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어,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부문 대표 집필위원: 이창희 위원

4. 기술부문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교육공영방송이다. 기술부문 평가의 목적은 EBS 설립 목적 및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은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부문 경영평가는 모두 5개 항목, 12개 지표를 평가한다. 경영 목표에 부합하는 방송기술 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1개 지표, 변화하는 IT 환경 및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IT 환경 대응 3개 지표, 미디어 환경 대응 6개 지표로 나누어 방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 및 운영 관리 실태를 평가하며,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 정도 1개 지표 및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1개 지표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표 4-1> 기술부문 경영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가. 방송기술 목표	1.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나. IT 환경 대응	1.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2.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3.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다. 미디어 환경 대응	1. 융합서비스 추진 노력의 적정성
	2.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적정성
	3. 프로그램 품질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4.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5.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적정성
	6. 방송망 관리의 안정성
라.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 이행 노력 및 성과
마.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

가. 방송기술 목표

평가 내용

1) 방송기술 목표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방송기술 목표가 당해연도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와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평가 항목은 ① 당해 연도 경영목표에 따른 방송기술목표의 부합 정도, ② 방송기술 목표 달성 정도와 성과로 설정하였다.

나) 평가 사항

① 경영 목표와 방송기술 목표의 부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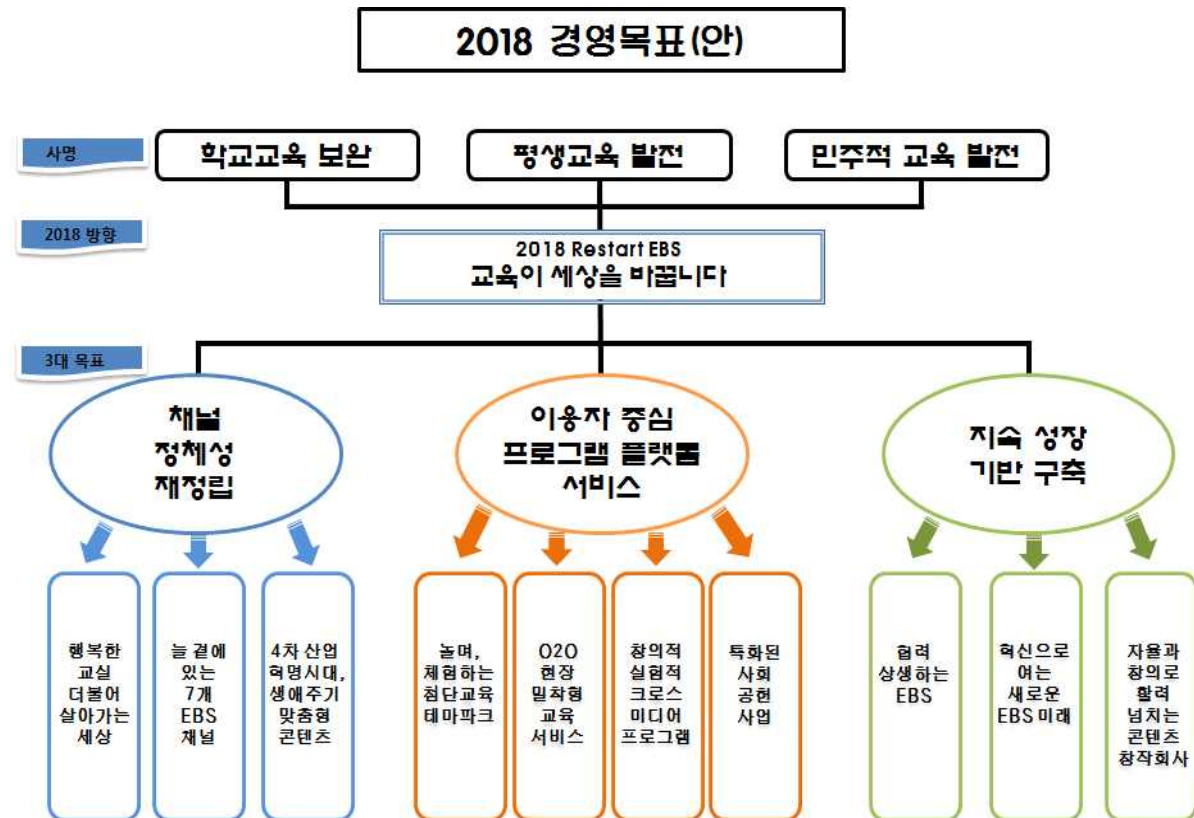
2018년 방송기술 목표인 ‘서비스 플랫폼 혁신’, ‘콘텐츠 제작 혁신’, ‘미래 서비스 발굴’은 EBS 경영 목표인 ‘채널 정체성 재정립’,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지속 성장 기반 구축’에 부합하도록 설정하였다.

경영목표	상관관계	방송기술목표
<3대 목표 및 10대 추진과제> ○ 채널 정체성 재정립 - 행복한 교육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 늘 곁에 있는 7개 EBS 채널 - 4차 산업혁명시대, 생애주기 맞춤형 콘텐츠 ○ 이용자 중심 프로그램 플랫폼 서비스 - 놀며 체험하는 첨단교육 테마파크 - O2O 현장 밀착형 교육 서비스 - 창의적 실험적 크로스 미디어 프로그램 - 특화된 사회 공헌 사업 ○ 지속 성장 기반 구축 - 협력 상생하는 EBS - 혁신으로 여는 새로운 EBS 미래 - 자율과 창의로 활력 넘치는 콘텐츠 창작회사		<3대 목표 및 10대 추진과제> ○ 서비스 플랫폼 혁신 - 웹 사이트 클라우드 도입 - New 밴디 개발 -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 ○ 콘텐츠 제작 혁신 -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작 기술 활성화 - UHD 워크플로우 마련 - 소통과 참여 중심의 제작 환경 마련 ○ 미래 서비스 발굴 - 자체 기술 사업화 - 대외 협력 사업 강화 - 신규 서비스 동향 분석 및 발굴

<그림 4-1> 경영 목표와 방송기술 목표 비교

[참고]

1. 2018년 EBS 경영목표



2. 2018년 방송기술목표

부서 목표	서비스 플랫폼 혁신	콘텐츠 제작 혁신	미래 서비스 발굴
추진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웹 사이트 클라우드 도입 2. New 반디 개발 3.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작 기술 활성화 5. UHD 워크플로우 마련 6. 소통과 참여 중심의 제작 환경 마련 7. 자체 기술 사업화 8. 대외 협력 사업 강화 9. 신규 서비스 동향 분석 및 발굴 		

② 방송기술 목표의 달성 정도와 성과

2018년 방송기술 목표는 ‘서비스 플랫폼 혁신’, ‘콘텐츠 제작 혁신’, ‘미래 서비스 발굴’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과제를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하였다.

1) 서비스 플랫폼 혁신

- (웹 사이트 클라우드 도입) 수학 사이트 웹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IT 인프라의 클라우드 단계적 전환 방안 마련을 통해 IT인프라 운영의 효율성 제고
- (‘New 반디’ 개발) UI/UX 개선을 통한 사용성 강화, 어학 AOD 및 관련 기능 강화, 결제 기능 도입, 국내 방송사 최초 하이브리드 라디오 구현 등 사용자 편의성과 EBS 공적 역할 강화
-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 EBS 메인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 향상

2) 콘텐츠 제작 혁신

- (VR/AR 콘텐츠 제작 활성화) TV3부조 ‘판다다’, TV1부조 ‘공룡대백과’ VR/AR 제작, R2부조 ‘CAN CAN CAN’ AR 제작, TV ‘모여라 덩동댕’ VR 촬영 편집 등 VR/AR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및 ‘(생)보니하니’, ‘창사특집 생방송’ 등에 화상통화 서비스 적용을 통한 제작 활성화
- (UHD 워크플로우 마련) UHD 파일 기반 방송시스템 구축, UHD 종합편집 · HDR · 리마스터링, IP기반 제작 인프라 검토 등 UHD 제작 전반의 업무 설계를 통한 UHD 제작 기반 마련
- (LTE 및 드론을 활용한 중계 시스템 개선) LTE망 도입을 통한 중계망의 비용 효율화 및 드론 촬영을 통한 다양한 영상 제공
- (소통과 참여 중심의 제작 환경 마련) 프로그램 전담제 시행 및 제작소통 회의체 운영을 통해 PD-제작 스텝 간의 소통 강화
- (제작시스템 개선) 라디오 4·5부조, TV 더빙실의 오픈 제작시스템 도입으로 제작 편의성 개선

3) 미래 서비스 발굴

- (자체 기술 사업화) e.MOTION(라디오방송솔루션) 사업화를 통한 보급으로 신규 매출 창출 및 EBS의 공적인 이미지 제고
-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ETRI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효율적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수행
- (수능교재 수요 예측 모델 마련) 동국대 산학협력 과제로 수능교재 폐기율 절감을 위해 출판 수요 예측 모델 마련을 통한 현안 해결 및 학생들에게 현장 실무 경험 제공
- (신규 서비스 동향 분석) 에듀테크,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교육 및 미디어 관련 서비스 동향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모색

평가 결과 및 제언

유관부서인 정책기획부와 유기적인 협의 및 융합기술본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경영 목표에 부합되도록 방송기술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방송기술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설정된 3개 목표 아래 10개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다음의 성과들이 도출되었다.

- 웹 사이트 클라우드 도입, New 반디 개발, 개인화 추천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 플랫폼 혁신’을 이루었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작 기술 활성화, UHD 워크플로우 마련, 소통과 참여 중심의 제작 환경 마련 등을 통해 ‘콘텐츠 제작 혁신’을 하였다.
- 자체 기술 사업화, 대외 협력 사업 강화, 신규 서비스 동향 분석 및 발굴 등을 통해 ‘미래 서비스 발굴’을 하였다.

그러나 UHD 방송 서비스 실시를 위해 요구되는 UHD 방송 송신설비 구축이 전년도에 이어 당해연도에도 KBS의 송신 지원 문제 미해결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UHD 본방송 실시가 늦어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017년 5월 31일 지상파 3사가 수도권 UHD 방송을 시작하였으나, EBS만 주파수 배정을 받고도 UHD 방송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국회 EBS·KBS 결산감사와 감사원의 KBS 감사 등에서 EBS의 UHD 방송 미실시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으며, 방송법 제54조에 따른 KBS의 선 송신 지원, 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EBS의 UHD 방송 송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적극적인 해결방안 제시 요청과 KBS에 협조 요청을 지속하는 한편, 학계,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KBS의 선 송신 지원과 후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등 다각도의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나. IT 환경 대응

평가 내용

1)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IT 기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통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했던 IT 서비스 활성화 노력에 대해 ① I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노력 및 성과, ② IT 서비스 품질 개선 노력 및 성과 평가 항목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이용자 중심의 IT 서비스 개선 정도

개선된 사항은 모바일 사용자 증가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한 모바일서비스 개선 확대, 영어사이트 재구축을 통한 EBS 공통플랫폼 확대 적용, 사이트/교재/앱/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 서비스 확대, 메인사이트 방송VOD 개인화 추천 서비스 적용 등이다.

▣ 모바일 사용자 증가 및 편의성 제공을 위한 모바일서비스 개선 확대

- 1) 메인/초·중학/클립뱅크 사이트 반응형 웹서비스 95% 이상 완료
 - 2016년부터 시작된 반응형 웹서비스가 사업지원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순차적 적용되어 2018년말 메인>직업사이트까지 완료됨
- 2) 기존 <반디>앱의 고도화 사업으로 EBS 하이브리드 라디오 <반디> 버전5 구축 완료

▣ 영어사이트 재구축을 통한 EBS 공통플랫폼 확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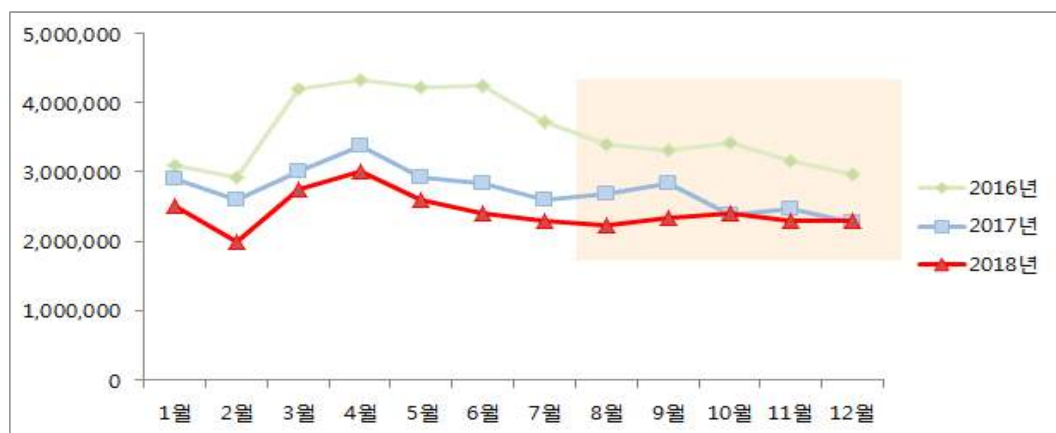
- 1) 기존 공통플랫폼은 사업지원사이트(메인/초·중학/클립뱅크)만 통합되어 있었으나, 영어사이트를 공통플랫폼 기반으로 설계하고 재구축하면서 공교육지원사이트의 공통플랫폼화에 성공함
- 2) LMS Data 통합으로 추후 학습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 사이트/앱/유튜브/교재 등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 서비스 확대

- 1) 교재 내 QR코드를 활용한 초·중·고·대 사이트의 학습 콘텐츠 연계 서비스
- 2) EBSi, EBSmath 통합검색 시 클립뱅크사이트 연계 서비스
- 3) MOMOe, EBS컬렉션 등 자사 유튜브 콘텐츠의 메인사이트 및 play앱 연계 서비스

■ 메인사이트 방송VOD 개인화추천서비스 적용

- 1) 사이트 방문자의 개인별 관심 및 선호도에 맞춘 추천콘텐츠 전면 노출
- 2) 대형플랫폼 업체의 레퍼런스가 있는 검증된 솔루션의 활용
- 3) 방송콘텐츠 히트 수가 메인페이지 적용 시점인 8월부터 소폭 상승, TV 다시보기 영역까지 적용된 시점인 10월부터는 과거 추이와는 다른 하방경직성을 띠고 있음



<그림 4-2> 메인사이트 방송콘텐츠 히트 수

■ 클립뱅크 사이트의 각종 지표 꾸준히 상승

<표 4-2> 페이지뷰 대비 클립이용율

구 분	2016	2017	2018	전년대비 증가율
방문자수	1,035,614	1,214,842	1,891,794	55.72%
페이지뷰수	4,773,502	5,179,716	6,492,903	25.35%
클립이용건수	3,964,531	5,646,597	7,315,861	29.56%
페이지뷰대비 클립이용율	83.05%	109.01%	112.67%	3.36%

② IT 서비스 개선 요청 적기 처리율

IT 서비스 개선요청 관련하여 서비스 개선 요청(CSR) 건수와 이의 적기 처리 건수를 적용한 아래의 산출식을 이용한 산정지수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산정지수: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4개 사이트의 서비스 개선 요청(CSR) 건수 및 적기 처리 건수

-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최근 3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 요청(CSR) 연도별 사이트별 적기처리율을 분석한 결과 3년 평균은 98.77%이며, 산출식에 의한 적기 처리율은 89.1%로 산출되었다.

<표 4-3> 연도별 사이트별 적기처리율

사이트	2015	2016	2017	2018
메인	99.7	99.6	99.7	99.1
초등	98.2	99.1	99.6	99.5
중학	98.4	98.9	98.7	96.8
클립뱅크	94.9	98.8	99.6	100.0
평균	97.80	99.10	99.40	98.85

※ 직전 3개년도 실적 평균: 98.77

▣ 적기 처리 비율 결과

1) 산출식(%)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 \left(\frac{\text{실적}(98.85) - \text{최저목표}(98.77 \times 60\%)}{\text{최고목표}(98.77 \times 105\%) - \text{최저목표}(98.77 \times 60\%)} \right) \times 100 = 89.1$$

2) 결과: 89.1%

2) IT 인프라 운영의 효율성

가) 평가 기준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지속적인 개선과 유지를 통해 중단 없고 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은 방송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 정도, ② 연간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IT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정도

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전년 대비 아래와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표 4-4> 인프라 개선 사항과 시행 내역

구분	개선 사항	시행 내역
수학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전환
영어	U2L 전환 구축	○ 재구축 시스템 U2L 전환 및 Open
고교강의	운영 안정성 강화	○ 2019학년도 수능 서비스 비상 대응
공통(네트워크, 보안)	운영 안정성 강화	○ 네트워크 구조개선
		○ ISMS/PIMS 인증심사

■ 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

- 1)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전환을 통한 기술적 검증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향후 IT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 플랫폼 전환에 대비
- 2) 영어사이트의 서비스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노후한 웹 시스템의 U2L 전환을 통한 Linux 기반의 운영 플랫폼 표준화 및 클라우드 환경 전환의 인프라 기반 마련
- 3) 임시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구축을 통한 2019학년도 수능 풀 서비스 비상 대응
- 4) 네트워크 구조 개선을 통한 웹 사이트 인터넷 서비스 안정화
- 5) EBS 웹 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조치 수행

② 연간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 비율

IT 서비스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 비율의 산정은 수능, 영어, 수학, 외국어, 통합웹 및 초중학 6개 사이트의 연간 인프라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을 반영한 비율로써 평가되며, 산출식은 아래와 같다.

- 산출식(%): 무장애 서비스 유지 비율 - (장애건수 × 3점)

$$\left(\frac{\text{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text{연간 서비스 총 시간}} \times 100 \right) - (\text{장애 건수} \times 3)$$

※ 장애건수의 경우 EBS(계약에 의한 용역사 포함)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건수임

<표 4-5> 2018년 인프라 가동률

구 분	당해연도 실적(A)	직전 3개년도 실적 평균(B)	최저목표 (C=B*0.6)	최고목표 (D=전체가동시간)	평 가
수능	8,760	8,767.996	5,260.798	8,760	100%
영어	8,760	8,767.972	5,260.783	8,760	100%
수학	8,760	8,768	5,260.800	8,760	100%
외국어	8,760	8,767.972	5,260.783	8,760	100%
통합웹	8,760	8,768	5,260.800	8,760	100%
초중학	8,760	8,768	5,260.800	8,760	100%
평균	8,760.00	8,767.99	5,260.79	8,760	100%

※ 2015년 365일=8,760시간, 2016년 366일=8,784시간, 2017년 365일=8,760시간임

▣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 비율 산출식과 결과

$$\left(\frac{\text{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text{연간 서비스 총 시간}} \times 100 \right) - (\text{장애 건수} \times 3) = \left(\frac{8,760}{8,760} \times 100 \right) - (0 \times 3) = 100\%$$

3)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가) 평가 기준

모바일, 인터넷 등 IT 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통한 서비스 만족도 제고 노력에 대해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IT 서비스의 고객만족도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는 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한 사이트 서비스 품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사이트의 고객 만족도는 산정지수에 의한 산출식 결과로 평가된다.

(가) 외부 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한 사이트 서비스 품질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목적

- 이용자의 사이트의 활용 방법/빈도 분석 및 서비스 개선에 대한 VOC 접수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과업을 진행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 평가 방법

- 대상: 사이트 이용자 중 로그인 회원 기준(중복 참여 불가)
- 형식: 인터넷 설문조사
- 평가 문항 수

구분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문항 수	38	47	50	44

○ 추진 일정: 2018. 11. 26.(월) ~ 12. 18.(화)

○ 참여 인원(명)

구분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참여인원	2,233	2,559	1,621	1,440
응답완료수	1,860	1,836	1,299	1,440
응답완료율	83.3%	71.7%	80.1%	100%

▣ 전년 대비 고객 만족도 증감 현황

<표 4-6> 전년 대비 고객 만족도 증감 현황

사이트	2017년	2018년	증감률
메인	81.7	81.3	-0.5%
초등	89.6	86.8	-3.2%
중학	87.5	86.5	-1.2%
클립뱅크	86.3	85.6	-0.8%
평균	86.3	85.1	-1.4%

▣ 고객 만족도 지수

<표 4-7> 웹사이트 서비스 품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사이트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직전 3년 실적 평균 (2015-2017)
메인	81.1	78.6	81.7	81.3	80.47
초등	86.5	89.1	89.6	86.8	88.40
중학	85.6	87.7	87.5	86.5	86.93
클립뱅크	82.9	81.9	86.3	85.6	83.70
평균	84.03	84.33	86.28	85.05	84.88

※ 직전 3년 실적 평균: 84.88

▣ 고객 만족도 지수 결과

1) 산출식

$$\begin{aligned}
 &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
 & = \left(\frac{\text{실적}(85.05) - \text{최저목표}(84.88 \times 60\%)}{\text{최고목표}(84.88 \times 105\%) - \text{최저목표}(84.88 \times 60\%)} \right) \times 100 = 89.36
 \end{aligned}$$

2) 결과: 89.36%

평가 결과 및 제언

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 클라우드 시범 서비스 전환을 통한 기술적 검증 및 안정적인 운영으로 향후 IT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 플랫폼 전환에 대비
- 영어사이트의 서비스 재구조화 사업에 따라 노후한 웹 시스템의 U2L 전환을 통한 Linux 기반의 운영 플랫폼 표준화 및 클라우드 환경 전환의 인프라 기반 마련
- 임시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구축을 통한 2019학년도 수능 폴 서비스 비상 대응
- 네트워크 구조 개선을 통한 웹 사이트 인터넷 서비스 안정화
- EBS 웹 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조치 수행

IT 서비스 무장애 서비스 유지는 장애 예방 활동 및 적극적인 장애 대응을 통한 IT 인프라 가동률이 매우 우수하였다.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등 4개 웹사이트의 고객만족도는 모두 소폭 하락하였다. 고객 만족도 하락 원인을 분석하여 고객만족도가 조금씩이라도 상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증가율을 보면, 초등 사이트가 -3.2%P로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고객만족도 지수로 보면 메인 사이트가 81.3%로 가장 낮아 이들 두 사이트의 고객만족도 하락 원인 분석과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다. 미디어 환경 대응

평가 내용

1) 융합 서비스 추진 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융합 서비스 추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융합 서비스 추진 노력 정도, ② 융합 서비스 추진 성과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융합 서비스 추진 노력 정도

융합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빅데이터(데이터 분석), 블록체인, 에듀테크, 음성인식 기반 기기 제어 솔루션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적용이 시도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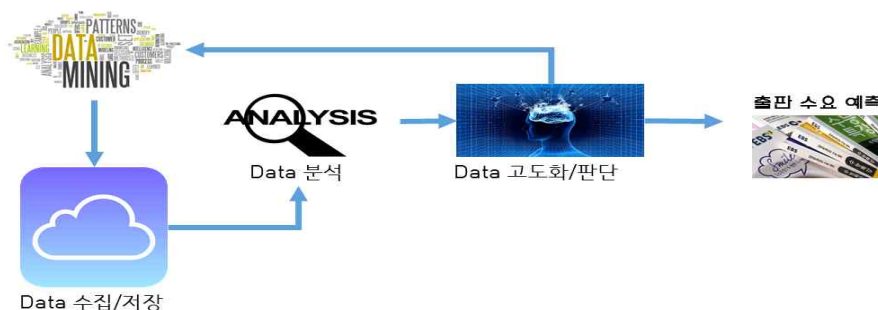
(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능교재 출판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

1) 추진 목적

- 수능교재 출판 수요 예측을 통한 교재 폐기 비용 절감 시도
- 교재 재고 절감 노력을 통한 EBS 공익적인 이미지 제고

2) 추진 계획

- 수능교재 출판 물류 프로세스 및 과거 교재 출고 자료 검토
- 데이터의 일부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시계열, 회귀 분석 등) 및 예측 모델 검토



<그림 4-3> 출판 수요 예측 과정

- 동국대 산학협력 프로그램(ICIP) 연계를 통해 진행
 - ※ ICIP(Internship & Capstone-design Integrated Program) : 4학년 과정에서 산업체와 연계해서 프로젝트 과제 수행
- 수요 예측을 위해 데이터 구조화 모델 도출
- 현재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 ※ 예측 모델은 지속해서 데이터 축적 및 다양한 예측 모델로 개선 필요

(나) 블록체인 기반 교육콘텐츠 유통플랫폼 개발

1) 추진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18년도 문화기술(CT) 연구개발사업 기획대상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EBS의 교육콘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개발

2) 추진 계획

- ETRI 등 공동연구기관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기획 및 시범 운영
 - 공동연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ETRI, SBS, (주)포멀웍스, (주)잇츠아이, (주)미니게이트
 - 연구 기간: 2018.3 ~ 2020.12(1차연도: 2018.3 ~ 2018.12)



<그림 4-4>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유통 플랫폼 개발 연구체제

(다) 에듀테크(Edu-Tech) 서비스 분석

1) 추진 목적

- 에듀테크(Edu-Tech) 서비스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EBS 교육 서비스 고도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에 활용

2) 추진 계획

- IT 기술과 교육을 접목한 에듀테크 서비스 중 사용자와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타사 주요 서비스의 특징 조사 · 분석
- 기술기반 스타트업 미팅을 통한 협력방안 모색

(라) 음성인식 기반 방송기기 제어 솔루션 개발

1) 추진 목적

- 딥러닝 기술을 응용한 AI 음성인식 기술 현장 적용
- AI 음성인식 기술 확보를 통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개발 기반 마련

2) 추진 계획

- 음성인식 기반 스위처 제어 솔루션 구성 및 설계
- 음성인식 기반 스위처 제어 솔루션 코딩 및 프로토타입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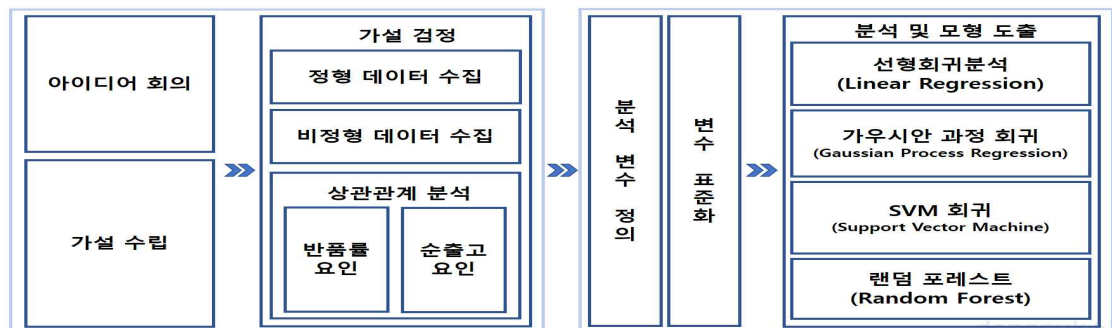
② 융합 서비스 추진 성과 정도

융합 서비스 추진 성과는 융합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성과 및 추진계획 대비 성과 등으로 평가되며, 융합 서비스 관련 주요 연구개발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가)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재 출판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

1) 추진 성과

- 출판사업부와 협력하여 수능교재 출판 프로세스 현황 파악 및 수요 예측 데이터 수집 분석 및 솔루션 개발 방향 설정



<그림 4-5> 수요 예측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

○ 교재 판매와 반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식별

구분	변수
판매 요인	EBSi 강의 후기 수, 수험생 커뮤니티 언급량, 시험 난이도
반품 요인	시험 난이도, 수능 응시 인원

○ 회귀분석 및 머신러닝을 이용한 순출고 예측 모델 도출

영역	출고부수	순출고 부수	순출고 부수 예측 값 (비율)			
			선형 회귀	가우스 과정 회귀	SVM 회귀	랜덤 포레스트
과탐	1,980,613	1,736,922	1,642,792 (94.6%)	1,646,627 (94.8%)	1,553,534 (89.4%)	1,601,870 (92.2%)
국어	2,947,253	2,631,444	2,738,444 (104.1%)	2,325,617 (88.4%)	3,007,699 (114.3%)	2,251,912 (85.6%)
사탐	2,162,969	1,754,264	1,815,381 (103.5%)	1,755,087 (100.0%)	1,622,384 (92.5%)	2,222,212 (126.7%)
수학	2,366,969	2,079,847	2,760,057 (132.7%)	2,484,035 (119.4%)	2,431,012 (116.9%)	2,095,400 (100.7%)
영어	3,505,242	3,380,373	2,975,423 (88.0%)	2,981,218 (88.2%)	2,379,852 (70.4%)	3,186,046 (94.3%)
제2외국어	26,726	20,502	21,708 (105.9%)	21,813 (106.4%)	23,058 (112.5%)	22,201 (108.3%)
총합계	12,989,772	11,603,352	11,953,805 (103.0%)	11,214,397 (96.6%)	11,017,538 (95.0%)	11,379,641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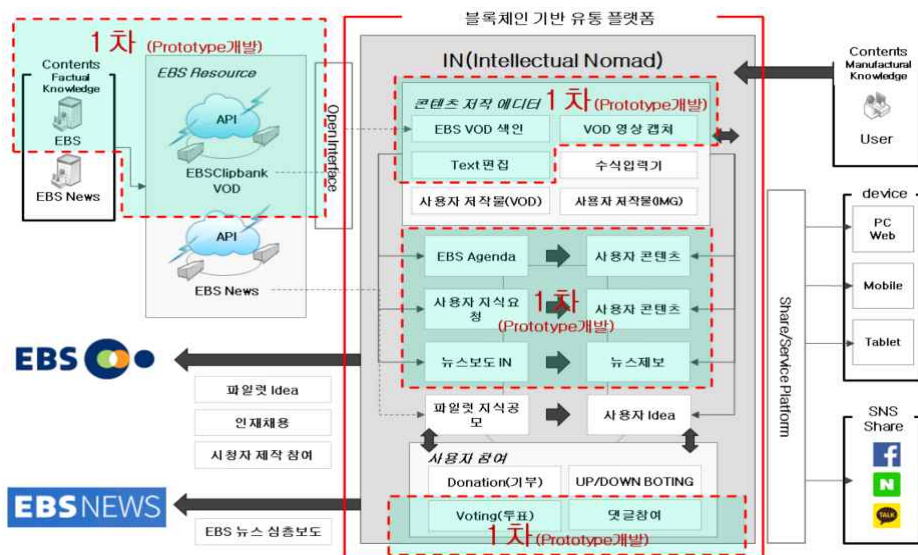
2) 결과 및 기대효과

-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반품률 감소 기대
- 수능교재 수요분석, 출판별 반품 성향 등 추가 분석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나) 블록체인 기반 교육콘텐츠 유통플랫폼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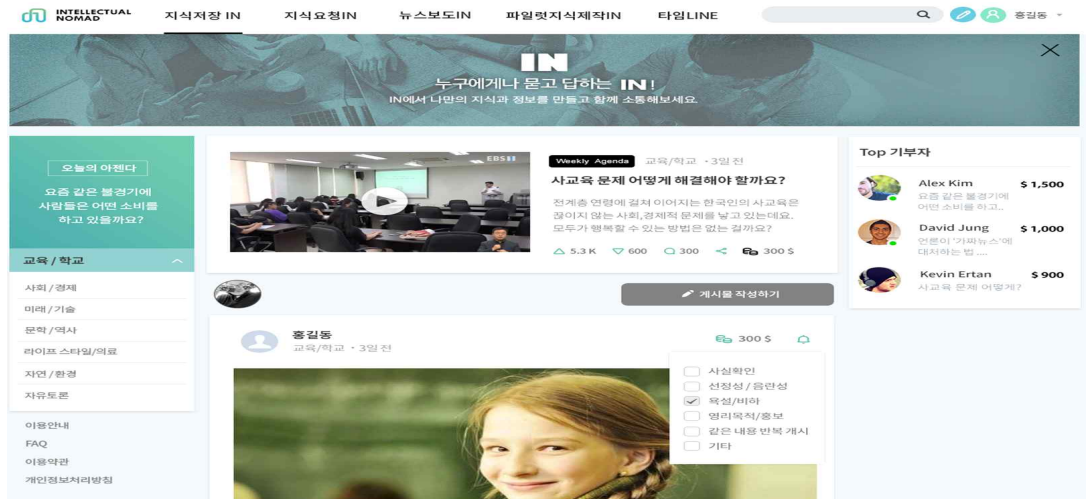
1) 추진 성과

-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플랫폼 서비스 모델 개념 및 시나리오 작성



<그림 4-6>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플랫폼 서비스 시나리오

○ 블록체인 기반 유통플랫폼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그림 4-7> 유통플랫폼 서비스 프로토타입

2) 결과 및 기대효과

- 서비스 시나리오 및 프로토타입 개발
- 1차연도에 기획·개발한 서비스 시나리오 및 프로토타입을 기반으로 2·3차연도에 연구개발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서비스 론칭 기반 마련

(다) 에듀테크(Edu-Tech) 서비스 분석

1) 추진 성과

- 에듀테크 스타트업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구분	에듀테크	EBS 유사서비스
SNS	아이엠스쿨	
플립러닝	클래스팅 러닝	클립뱅크 스토리랩
맞춤형교육(AI)	산타토익, 공단기 스텔라	EBS단추, 수목달
집단지성(Q&A)	바풀, 오누이, 칸다	EBS단추, EBSi, 스마트코치
MCN/크리에이터	Diva Jessica, Tasty, 토아푸딩, 용감한컴퍼니	
플랫폼	에어클래스, 커넥츠 애스크	
음성인식(AI)	스피킹맥스, 호두잉글리시	
VR, AR	Google Expedition	
코딩/메이커교육	마인크래프트, 디지털레고, 닌텐도라보	SW 교육플랫폼 이숲
유튜브 활용	슈퍼펜	
O2O	지덕체, 프리프, 핀덴튜터링	
모바일 퀴즈쇼	잼라이브, 더 퀴즈 라이브,페이큐	

○ 기술기반 스타트업 미팅을 통한 협력방안 모색

- 음성인식, 영상인식 등 AI엔진을 보유한 마인즈랩 미팅을 통한 EBSlang 어학 과정 협력방안 검토
- 교육 관련 동영상 오픈 플랫폼 서비스 에어클래스 미팅을 통한 자격증 분야 어학 강의 활성화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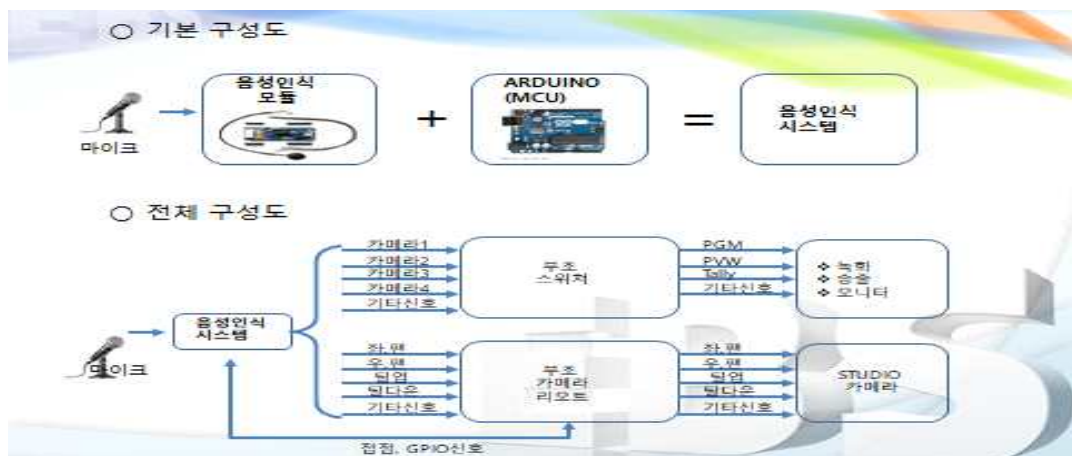
2) 결과 및 기대효과

- 에듀테크 스타트업 서비스 분석을 통한 서비스 동향파악 및 시사점 도출
-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외부 협력 강화 기대

(라) 음성인식 기반 방송기기 제어 솔루션 개발

1) 추진 성과

- 음성인식 모듈을 이용한 스위처 제어 솔루션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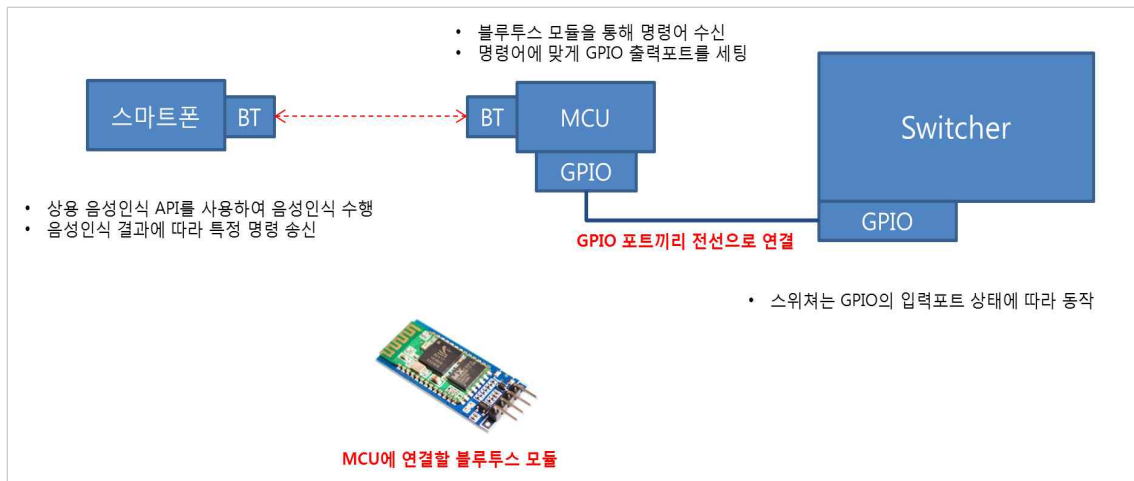


<그림 4-8> 음성인식 모듈을 이용한 제어 솔루션 개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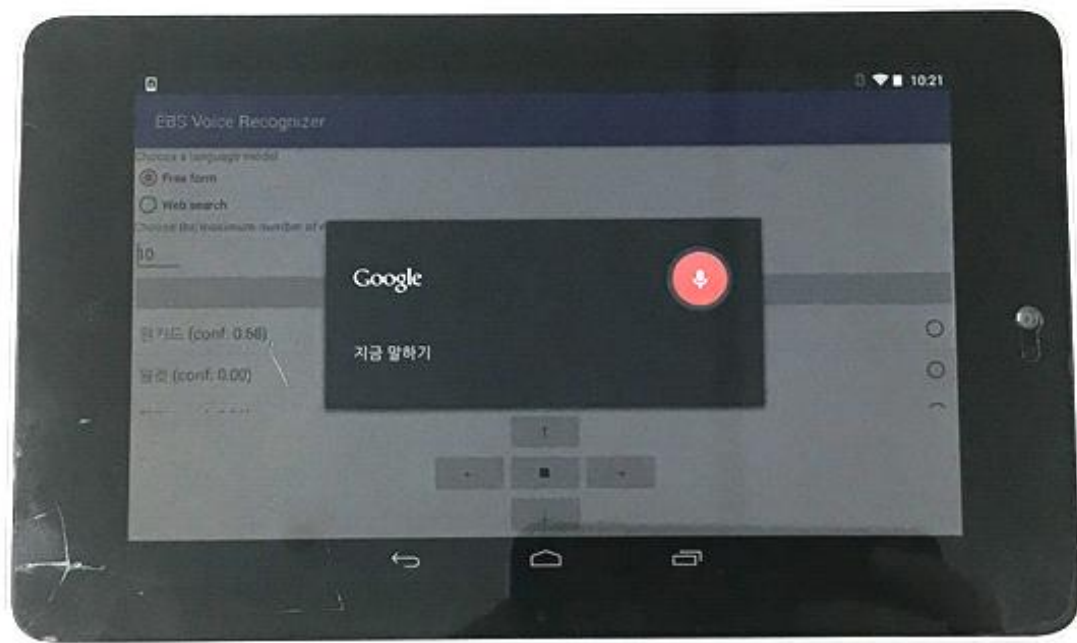
<그림 4-9> 음성인식 솔루션 개발 보드 및 코딩

○ 스마트폰을 이용한 기기 제어 솔루션 개발



<그림 4-10>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스위처 제어

※ 스위처 대신 모터와 TV를 제어하는 것으로 시연



<그림 4-11> 스마트폰 음성인식 제어 앱

2) 결과 및 기대효과

○ 음성인식 기반 기술 확보를 통한 융합서비스 개발 기반 마련

2)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미디어 환경 변화 및 글로벌 융합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부문 전문성 강화 노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적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 기술 트렌드 파악을 위한 인재 양성 연수', '신규 직원 직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 연수',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가) 차세대 기술 트렌드 파악을 위한 인재 양성 연수 실시

- 1) 차세대 플랫폼 전략기술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 관람
- 2) 미래 융합기술 동향 파악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 트렌드 연수 실시

(나) 신규 직원 직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 연수 수행

- 1) 방송기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방송기술교육원 신입 직원 대상 교육 참가
- 2) 중계기술 연수를 통해 종합적인 방송 현장 실무 이해도 강화

(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추진

- 1) 이종 산업 기술 트렌드 및 미디어 신기술 연수 수행
- 2) 방송통신모바일 교육을 통해 방송 통신 융합형 엔지니어 육성 체계 구성

(라) 직무 연수 기본 방향에 부합한 체계적인 연수 실시

- 1) UHD 본방송에 대비한 체계적인 제작송출 교육 실시
- 2) 통합사옥 이전 시 신규 도입된 방송 장비 연수를 통한 전문 운용인력 양성

(마) 개인별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한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

- 1) 직무 변동 인원에 대한 적절한 기술교육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
- 2) 기존 업무 연속 수행자는 해당 분야의 중고급 과정 연수 수행을 통해 전문성 향상

※ 기술 위주 교육으로 인해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수가 부족했고, 인문사회과학과 기술을 연계하여 통합적 관점을 제시하는 교육과정 발굴이 필요하다.

3) 프로그램 품질 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지원 정도 및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노력 정도, ②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 평가 시스템의 운영 정도로 구성되었다.

나) 평가 사항

①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노력 정도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하여 TV 영상/음향/조명 및 라디오 음향 등 각 부문에서 기술지원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 전년 대비 주요 개선사항

<TV 영상 부문>

- ▣ 방송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기반 마련
- ▣ 다양한 제작기술을 활용해 시청자와 쌍방향 소통 지향 및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 ▣ 프로그램 사전협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 제작 프로세스 마련

<TV 음향 부문>

- ▣ 오디오 품질 개선을 위한 워크플로우 점검 및 개선
 - 1) 녹화 및 후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향 품질 열화 원인 분석 및 개선
- ▣ IT 제작기술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음질 개선
 - 1) 아이패드, 휴대폰 등 원격제어를 통한 모바일 제작기법 적용

<TV 조명 부문>

- ▣ TV 3스튜디오에 LED LIGHT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ENG 촬영 시 안정적 제작이 가능함으로 스튜디오 제작 효율 증대
- ▣ 스페이스 공감 공연 제작에 조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Wysiwyg) 사전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완성도 제고
- ▣ 조명 무빙 장비(MAC QUANTUM WASH 24대)를 도입하여 스튜디오별 다양한 제작 여건에 맞는 조명연출 구현

<라디오 음향 부문>

▣ 라디오 부조 공간의 최적화를 통해 제작 환경 개선

- 1) 라디오 부조 내 생방진행용 MONITORING(APC, 보이는 라디오, PROMPTER) 개선
작업 및 시청 확보를 위한 개선작업(CD PLAYER 단 높이 수정 및 Emotion
track backup monitor 철거)
- 2) 라디오 3부조 DESK를 교체하여 CR MONITORING 환경 개선

▣ 라디오 1스튜디오 Drum room 내 음질 개선

- 1) Drum room내 실내 음향 환경개선(흡음재 설비보완) 작업으로 음질 개선 및
영상부가 서비스 가능

▣ DJ가 직접 소스 플레이를 위한 제작환경 구축

- 1) 라디오 4부조 내 DJ 운용 콘솔 신규 설비 및 시연

▣ 보이는 라디오 외에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

- 1) 라디오 5부조 SNS(Youtube, facebook)등 스트리밍 서비스 설치 및 운용법 전달 교육

(나) 잘된 점

<TV 영상 부문>

▣ 광, LTE 및 IP망을 이용하여 중계차와 원격지 연결 및 다양한 신호 활용

- 1) ‘특별 생방송’, ‘EBS뉴스’ 등 이원 및 삼원 현장 연결을 통한 다양한 포맷 연출
및 신속한 보도 지원

▣ 사옥 내 도처에서의 방송 제작을 통해 다채로운 프로그램 포맷 지원

- 1) ‘17인의 교육감에 묻는다’,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등 이원 및 삼원 방송 제작 지원

▣ 방송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기반 마련

- 1) 방송시스템 개선으로 생방송 안정화 및 제작여건 효율화 마련
- 2) 회선조정실 운영 및 방송단자함을 활용해 이원, 삼원 방송 가능
- 3) TV5 스페이스홀 LED 비디오월 설치 및 프로그램 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경쟁력 강화

▣ 시스템 유지보수 및 예방점검으로 안정적인 제작 기반 마련

- 1) 방송장비 점검 및 최적화 유지로 효율적 제작환경 지원
- 2) ‘보니하니’, ‘교육대토론’ 등 생방송 안정화

▣ 다양한 효과 구현을 통해 버추얼 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 추구

- 1) AR적용(공룡대백과)으로 시청자 흥미유발 및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 생방송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판다다” 등 시청자 참여 및 소통 강화

- 1) 화상통화를 통해 일반 시청자 참여 유도
- 2) 유튜브 스트리밍을 이용해 시청자와 실시간 쌍방향 대화

▣ 사전협의를 통한 제작부서와 소통 추구 및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 1) 사전협의를 통한 제작 및 기술부서 간 현안 조율 정례화
- 2) 고품질 프로그램 및 제작 효율화 지향

▣ 프로그램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 및 품질향상 기대

▣ 다양한 직무 교육 연수를 통한 제작 기술 능력 함양 및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에 기여

<TV 음향 부문>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음질 개선

- 1) 콘텐츠 음향 품질관리를 위해 부서 간 협업을 주관, 스튜디오 제작 현장뿐 아니라 후반 편집단계에서의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도 신경 씀

▣ 원격제어를 활용해 제작 편의성 향상 및 제작 시간 일부 단축

- 1) 모바일 APP으로 홀 사운드 세팅(PA 스피커 및 콘솔 시스템)으로 공연 장르에 맞게 섬세한 사운드 구현 가능

<TV 조명 부문>

▣ 사전에 컴퓨터 기반의 가상환경에서 조명 시뮬레이션함으로써 다양한 연출 기법의 구현 및 그에 따른 작업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짐

▣ TV 스튜디오별 다양한 조명 무빙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다채로운 효과가 구현 가능함으로써 새로운 연출효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음

▣ 신규 조명 장비(MAC QUANTUM WASH) 도입에 따른 무빙 라이트의 소음 감소로 제작환경이 개선됨

<라디오 음향 부문>

▣ 라디오 부조 내 작업 환경 개선(CD, 모니터 설비 이동 및 분리)으로 제작 시 원활한 모니터링 환경이 개선됨

▣ 라디오 1스튜디오 Drum room 음향 환경개선으로 풀밴드 LIVE공연 시 품질 좋은 수음과 부가 영상 서비스 가능

▣ 보이는 라디오를 통하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접하는 청취자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증강현실(AR) 환경구축(ETRI수탁사업)

▣ 라디오 1, 2, 5부조 내 스트림 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언제든지 외부망과 연계한 서비스 가능(2월 수능파트에서 초빙한 유명 강사의 Youtube와 EBSI 동시 생방송)

<TV 편집 부문>

■ 실감미디어(VR·AR) 제작 기반 마련

- 1) 실감미디어 제작 관련 연수 및 세미나 실시
- 2) 실감미디어 동향 조사 및 제작 인프라 조성
- 3) 실감미디어 파일럿 콘텐츠 제작 및 상생 협력 방안 모색

■ UHD 후반 제작 역량 강화

- 1) UHD 후반 편집 연수 및 세미나 실시
- 2) UHD 타사 사례 및 동향 조사
- 3) UHD 후반 편집 장비 보강
- 4) UHD 파일럿 콘텐츠 제작

※ <TV 음향 부문>은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범위와 빈도 확대가 필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해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②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 평가 시스템의 운영 정도

프로그램 시사회를 통한 품질 평가 횟수 등을 고려한 산정지수로 평가된다.

- 산정지수 : 프로그램 시사회를 통한 품질 평가 횟수
- 산출식(%) :

$$\left(\frac{\text{실적(당해년도)}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text{최고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105\%) - \text{최저목표(직전3개년도 실적의 평균} \times 60\%)} \right) \times 100$$

<TV 영상/음향/조명 부문>

■ 프로그램 시사회 개최

- 1) 12회(당해 연도), 12회(3년 평균)
- 2) 산출식(%)

$$\left(\frac{\text{실적}(12) - \text{최저목표}(12 \times 60\%)}{\text{최고목표}(12 \times 105\%) - \text{최저목표}(12 \times 60\%)} \right) \times 100 = 89$$

- 3) 최종 결과: 89%

▣ 프로그램 시사회 결과(2018년)

회차	일자	프로그램명	결과
1	1/12	딩동댕 유치원	탈인형의 동선에 따른 조명 밝기 및 크로마 합성 관련 개선 협의
2	2/9	최고의 요리비결	세트 및 소품 조명 관련 영상 협의
3	3/16	장학퀴즈	월 모니터의 비디오 밝기 및 퀴즈 출연자간 오디오 수음 레벨 관련 개선 협의
4	4/6	모여라 딩동댕	무대 음향 PA 레벨 및 핀조명 관련 개선 협의
5	5/11	방귀대장 뽕뽕이	출연아동 동선에 따른 광량 및 HORRI 칼라 조명에 대한 개선 협의
6	6/8	배워서 남줄랩	랩퍼들의 랩 공연 시 오디오 음질 관련 개선 협의
7	7/13	생방송 판다다	LED 조명 사용에 따른 밝기 및 색온도 관련 협의
8	8/10	생방송 보니하니	신규 세트 변화에 따른 조명효과 관련 개선 협의
9	9/14	스페이스공감	색조명 및 서버 녹화본 싱크 외 기타 관련 개선 협의
10	10/12	질문있는 특강쇼	진행자 및 방청 질문자 간 오디오 음질 관련 개선 협의
11	11/9	랄랄라 뿌우	세트별 조명 위치와 HORRI 고보무늬 관련 협의
12	12/14	엉뚱남매 공작소	카메라 위치 및 오디오 마이크 노이즈 관련 개선 협의

<TV 편집 부문>

▣ 프로그램 시사회 개최

- 1) 12회(당해 연도), 12회(3년 평균)
- 2) 산출식(%)

$$\left(\frac{\text{실적}(12) - \text{최저목표}(12 \times 60\%)}{\text{최고목표}(12 \times 105\%) - \text{최저목표}(12 \times 60\%)} \right) \times 100 = 89$$

- 3) 최종 결과: 89%

▣ 프로그램 시사회 결과(2018년)

회차	일자	프로그램명	결과
1	1/31	최고의 요리비결 <최경숙의 소고기 덮밥>	오디오 밸런스 양호, 일부 비디오 게인(노출) 과다에 대한 개선 조치
2	2/21	다큐 로그인 <허드슨 만의 북극곰들>	수입 외화, 오·비디오 상태 양호
3	3/7	지식채널e <듣기좋고 말하기좋은>	특수편집 양호, 종이 넘기고 쌓이는 효과 우수
4	4/18	랄랄라 뿌우 <1화>	크로마 키 작업 양호, 발바닥 그림자 제거는 개선 협의
5	5/9	스페이스공감 <바닐라 어쿠스틱X강아술>	인터뷰 믹싱 밸런스 양호
6	6/20	EBS초대석 <한의학, 이응세 원장>	스튜디오 오·비디오 녹화 상태 양호, 종합 편집 양호
7	7/18	모여라 덩동댕 <태양이 싫어/요술피리>	얼었다 깨지는 특수 효과 우수, 오디오 믹싱 밸런스 양호
8	8/22	행복한 교육세상 <부산 토성초등학교>	오디오 믹싱 밸런스 양호, 종합 편집 양호
9	9/19	질문 있는 특강쇼-빅뱅 <이만열 교수>	오디오 수음, 믹싱 상태 개선 조치
10	10/24	고양이를 부탁해 <만두속이 궁금해>	색보정 양호, 야외촬영·다양한 카메라로 인한 비디오 상태 개선 협의
11	11/27	명의 <위기의 심장혈관>	색보정 우수
12	12/18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거봉이 편>	색보정 양호, 야외촬영·다양한 카메라로 인한 비디오 상태 개선 협의

〈라디오 음향 부문〉

▣ 프로그램 시사회 개최

1) 12회(당해 연도), 12회(3년 평균)

2) 산출식(%)

$$\left(\frac{\text{실적}(12) - \text{최저목표}(12 \times 60\%)}{\text{최고목표}(12 \times 105\%) - \text{최저목표}(12 \times 60\%)} \right) \times 100 = 89$$

3) 최종 결과: 89%

▣ 프로그램 시사회 결과(2018년)

일자	일자	프로그램명	결과
1	1/19	심야책방	전체적인 믹싱상태는 좋으나 코너 별 MC톤이 바뀔때 따른 개선 조치
2	2/19	시콘서트	생방송 전 게스트 마이크 입력신호 및 레벨을 충분히 체크 개선 조치
3	3/12	모닝스페셜	게스트 등장시 진행자와 초대 게스트 간 음향 레벨 차이가 다소 있으므로 사전 마이크 테스트 강화
4	4/16	행복한 교육세상	믹싱 상태는 B.G와 음성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으나, 진행자의 오디오 레벨이 각 코너 마다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
5	5/10	포켓중국어	효과음들의 레벨 차이에 대한 개선 협의
6	6/18	English GoGo	청취자 전화 연결 시 노이즈 존재 발견 및 개선 조치 (전화 연결 전 전화라인 사전 체크하고, 연결 시 유선 전화로 유도)
7	7/25	책으로 행복한 12시	진행자 및 게스트 Reverb 레벨 밸런스를 사전 조율
8	8/19	경청	전반적인 믹싱상태 좋으나 효과음들의 레벨 사전 점검 조치
9	9/13	세계음악기행	각 음원의 CD 오디오 레벨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
10	10/24	뮤직 원더랜드	게스트 사전 마이크 테스트 필요, LIVE 밴드 연주 시 충분한 리허설 시간 필요, 오디오 입력 및 레벨 점검 필요
11	11/19	북카페	진행자와 게스트의 마이크사용에 따라 음향 레벨 차이가 다소 있어 사전 체크 강화
12	12/16	일요음악여행	전체적인 음향 믹싱상태는 좋으나 음원소스 별로 레벨 차이에 대한 체크 강화

4) 방송장비 도입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새롭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방송장비의 도입 및 활용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방송장비 도입을 위한 신기술 정보 취득 방법 및 공유의 적정성과 도입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① 신기술 정보의 취득 및 활용의 정도, ②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정도이다.

나) 평가 사항

① 신기술 정보의 취득 및 활용의 정도

방송장비 관련 신기술 정보의 취득 방법 및 활용에 대한 평가는 투자 적합성 (장비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진 신기술 정보 취득 방법과 취득한 정보의 공유, 활용 실적 중심으로 실시되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가) 방송관련 신기술 정보 취득 활동은 아래와 같음

- 1) 2018 NAB 참관
 - 일시: '18년 4월 9일~12일
 - 장소: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 내용: 세계 최대 방송 장비 전시회
- 2) KOBA 2018 참관
 - 일시: '18년 5월 15일~18일
 - 장소: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
 - 내용: 지상파 및 방송장비 부스 참관 자료조사, 컨퍼런스 참석
- 3) IBC 2018 참관
 - 일시: '18년 9월 14일~18일
 - 장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RAI 컨벤션센터
 - 내용: 글로벌 UHD 방송서비스 및 최신 방송통신융합기술 트렌드 조사
- 4) KOC 2018 참가
 - 일시: '18년 11월 8일
 - 장소: 한국방송회관 2층 코바코홀
 - 내용: 인공지능과 미디어의 미래
- 5) CES 2018 참관
 - 일시: '18년 1월 9일~12일
 - 장소: 미국 라스베이거스
 - 내용: UHD TV, 사물인터넷, 가상 현실, 드론 및 액션캠 등
- 6) 2018 월드 IT쇼 참석
 - 일시: '17년 5월 23일~26일
 - 장소: 코엑스
 - 내용: 모바일, 클라우드 및 신규 ICT 기술 동향 파악

7) 2018 글로벌 모바일 비전 참석

- 일시: '18년 10월 10일~10월 12일
- 장소: 킨텍스
- 내용: 신규 모바일 플랫폼 기술 / 클라우드 컴퓨팅, 무선 네트워크 장비 등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파악

8) MWC 2018 참관

- 일시: '18년 2월 26일~3월 1일
- 장소: 스페인 바르셀로나
- 내용: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9) 2018 ABU DBS 참석

- 일시: '18년 3월 4일~3월 9일
-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내용: 아시아 지역의 방송 장비 전시회 / E-MOTION 라디오 부스 운영 및 홍보

10) CCBN 2018 참석

- 일시: '18년 3월 22일~3월 24일
- 장소: 중국 북경
- 내용: 방송 콘텐츠 & 네트워크 전시회

11) 기술세미나 및 장비 시연회

- 중계부 드론 교육
- 다목적홀 Video Wall System 교육
- 동양디지털 Lawo IP solution 교육
- 미디어큐브 AoIP Intercom & Audio Console System 기술 세미나 참석
- LDI SHOW 2018 조명 전시회 참석
- 4K 실시간 편집 장비 설명회 개최
- 2018년 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참석
- UHD 송출시스템 타사구축 사례분석
- 방송장비 통합관리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타사 사례조사(KBS, MBC, SBS)
- 블록체인 산업혁신 컨퍼런스(BIIC 2018) 참석
- 스마트 수어방송 추진협약체 회의 참석
- 홀로그램 기술 현황 관련 학술단체 참석(광운대학교)
- 미래방송미디어표준포럼 디지털라디오분과위원회 회의 참석(ETRI)

- UHD TV주조정실 외부사례 조사(KBS, 강릉MBC)
- 무선설비규칙 및 기술고시 개정 관련 회의 참석(과기정통부)
- MEDIA TECH DAY 참관(ETRI)
- UHD 제작 워크플로우 동향 조사(MBC 방문)
- UHD 파일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사 현황 조사(KBS 본사 방문)
- UHD DTV 송신소 방문을 통한 송신 기술 이슈 파악(관악산, 남산, 검단산)
- 신규서비스 및 미디어 동향 조사(하이브리드 라디오, 유튜브 등)
- 2018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 참관(코엑스)
- UHD 송출시스템 효율적 구축을 위한 타사 방문 및 현황조사(KBS UHD 주조정실)
- FOR-A CONVERTER 시연회 참석
- 차세대 뉴미디어 트렌드 교육 참석(방송회관)
- TV음향 콘솔 데모 시연(DIGICO, LAWOW, CARLEC, TAMURA)
- 글로벌 UHD 실감형 오디오 제작 전문가 양성과정 참석(독일 에를랑겐)
- 글로벌 HDR 컬러리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참석(ICA-Abelcine, LA)
- UHD 콘텐츠 제작 관련 실무 교육 참석(한국전파진흥협회)
- TV음향 노이즈 캔슬링 장비 시연 및 교육
- 차세대 방송과 실감미디어 기술세미나 참석(한국전파진흥협회)
- 모션그래픽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 교육 참석(한국전파진흥협회)
- 서울 VR·AR 엑스포 2018 참관(코엑스)

②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정도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정도는 방송장비 도입의 '방법 및 절차'의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가) 방송장비 도입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장비 도입 절차

- 현업 부서에서 수요 장비에 대해 장비관리부서(기술기획부)로 구매 요청
- 장비관리부서에서는 장비의 스펙 및 수량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방송장비 도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비구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의
- 심의를 통과한 장비에 대해 장비구매 품의 후 예산부 총괄승인, 내부감사를 거쳐 장비 구매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정밀 검토

- 검토를 거친 최종 구매 서류를 계약부서(운영지원부)로 송부, 구매 계약 의뢰
- 계약부서에서는 내용 검토 후 입찰 공고 및 구매 계약 체결

2) 방송장비 구매 시 고려 사항

- EBS는 입찰 시 구매할 장비의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모든 업체의 장비를 경쟁시키는 공개 경쟁입찰 방식을 채택
- 방송장비 구매 시 최소 2개 이상 업체의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검토
- 방송장비 검토 시 고려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성능 및 호환성	안정성	가격	유지보수	업체인지도 및 신뢰도	납품실적	수요부서 의견	국산 및 외산 여부

- 제품 간 성능 차가 있을 때는 성능 테스트(BMT)를 통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입찰 시 배제할 수도 있음
- 제품 성능 차이가 없을 때는 최저가 제품을 구매

5)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 기준

고품격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정립과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방송 제작 시스템 및 워크플로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 적정성

(가) UHD 프로그램 제작 시범운영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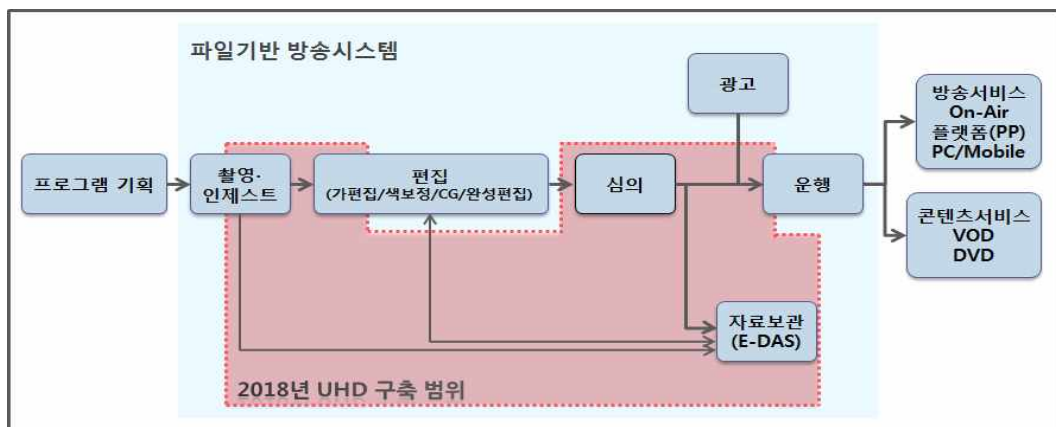
1) 추진 목적

- UHD 디지털 워크플로우 시범운영 기반마련을 통한 개선 사항 및 향후 확장 방안 도출
- EBS에 최적화된 UHD 워크플로우 구성으로 향후 UHD 송출 서비스에 대응

2) 주요 구축 사항

- 파일 기반 방송시스템(NPS, 아카이브, 송출) 인프라 구축
- UHD MAM 개발 및 제작 워크플로우 마련

구분	상세 내용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영상 인제스트 장비 도입 - UHD 파일 전송을 위한 고속네트워크(10G, SAN) 장비 증설 - UHD 파일전송 서버 및 저해상도 생성 서버 증설
UHD MAM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편집용 영상(HD화질) 생성 및 관리 기능 개발 - NLE 종편 완성 파일 송출 전송 기능 개발 - 오디오/비디오 이상 유무(Quality Check) 검출시스템 도입 - E-DAS UHD 패키지(전타이틀, 내용, 후타이틀) 관리 구현



<그림 4-12> 파일기반 방송 시스템

3) 추진 경과

2018년	
상반기(1월 ~ 6월)	하반기(9월 ~ 12월)
[구축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사 구축운영 사례 분석 ▶ 장비 및 소프트웨어 검토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및 솔루션 구축 ▶ 제작 워크플로우 마련 및 시범운영환경 구성

4) 기대 효과

- UHD 제작 환경 구성으로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 EBS에 최적화된 UHD 워크플로우 구성으로 향후 UHD 송출 서비스에 대응

5) 향후 계획

1단계 : 도입기 (~ 2019)	2단계 : 전환기 (~ 2023)	3단계 : 정착기 (2024 ~ 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로 제작된 프로그램의 자료보관 및 활용 ▶ UHD 송출 개시에 따른 NPS-송출-E-DAS 워크플로우 구성 ▶ 파일기반인프라 (네트워크, 스토리지)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부조 및 마스터링 편집실 UHD 전환 및 연계 ▶ UHD 표준 디지털 워크플로우 정립 ▶ UHD 제작 비율에 따라 기반인프라 (스토리지, 네트워크)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HD 시스템 전환 완료 ▶ 내·외부 서비스 시스템 (미디어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나) 이러닝 스튜디오(고교강의) NPS 전환

1) 추진 배경

- 이러닝 스튜디오 파일 전환 필요성 대두(장비 연한 도래 및 블루레이 변환 인력 소요)
- 블루레이디스크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비용 발생
- 블루레이디스크 전달 및 보관·관리가 수작업으로 운영되어 업무 비효율 발생

2) 주요 구축 사항

- NPS 전환 구축 경과
 - 본사 이러닝 스튜디오 12실 중 7실 NPS 전환 완료
 - 일산사옥의 고교강의 제작 이러닝 스튜디오 8실 중 3실 스튜디오 전환 완료

스튜디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강남센터		
													13	14	
시스템 전환	완료			-	완료		-	-	-	완료	-	완료			
비고				고교 강의										고교강의	

※ 강남 센터는 블루레이 제작 방식 사용

- 고교 강좌 관리를 위한 인코딩시스템(콘텐츠관리솔루션) 구축
 - 고교 강의는 TV 프로그램 제작과 달리 사이트 전용으로 제작됨에 따라 사이트 탑재용 영상 생성 및 관리를 위한 인코딩시스템(콘텐츠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3) 추진 경과

2018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계획 수립		장비 구매		인코딩시스템 구축 (강의 파일 관리변환 솔루션)				시범 운영 (1실)		운영 확대 (1→3실)	

(다) 통합 심의시스템 구축

1) 추진 배경

- 대외적으로 방송심의규정 준수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부서 위임심의의 경우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수작업으로 결과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정확성 상존
- 선거방송심의 기간과 같이 유의가 필요한 기간에 위임심의에 대한 관리 미흡

2) 주요 구축 사항

- 심의시스템을 통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심의위원 심의, 부서 위임심의) 심의 일원화
- 심의시스템 주요 변경 사항

- 심의 프로그램 대상 확대 운영
 - ▶ (기존) 심의위원 심의 대상 프로그램 → (변경) 지상파 전 프로그램
- 심의시스템을 통한 부서 위임심의(CP) 진행
 - ▶ (기존) 심의 결과 엑셀 전달 → (변경) 심의시스템 사용
 - ▶ 프로그램 방송 이전 심의시스템에서 방송 적합여부에 대한 심의 진행
- 모든 채널에 대한 심의 결과 관리
 - ▶ EBS 1,2 채널과 라디오 채널의 프로그램 심의 결과 관리

3) 추진 경과

2018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
↔	↔	↔		↔		→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시범 운영		본격 운영

4) 기대효과

-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절차와 심의 결과를 일원화하여 업무 효율화
- 유의사항(선거 방송 기간, 심의 지침 변경사항 등) 알림 기능을 통한 방송심의규정 준수 노력
- 수작업 및 프로그램 심의 결과 부정확성 최소화

6) 방송망 관리의 안정성

가) 평가 기준

- 중단 없는 방송을 위해 ① 방송망 안정성 확보 노력 및 방송사고 대처능력 정도,
②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방송망의 안정성 확보 노력 및 방송사고 대처능력 정도

(가) EBS 방송 송중계소 방송망 조사 및 송출·송신환경 개선작업 실시

1) 추진 목적

- EBS 송신을 담당하고 있는 KBS 송·중계소 방문과 송신시설 조사를 통해 지상파 TV 및 FM 방송현황 파악
- KBS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방송망 운영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시·청취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책무 수행

2) 추진 내용

- EBS TV/FM 송·중계소 방송망 현황 파악 : EBS 방송권역, 송신장비의 운용 현황
- 각 송·중계소의 방송매체별 PIC 입력 방송신호 현황 파악
- KT 전송장비와 EBS 방송 송·중계소 간 연결 루트 및 신호형태 파악
- 방송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 장비 도입
- 방문 송·중계소 근무자와 인적네트워크 형성 및 우호적 관계 유지

3) 추진실적

내 용	일 자	방문지	방문자
FM 방송 개선을 위한 장비 설치 및 회선시설 점검	3.29(목)	관악산 (KBS)	김동신 외 1명
인천지역 DTV 수신환경 조사	6.27(수)~29(금)	인천 서구 지역	송준봉 차장 외 1명
춘천지역 DTV 수신 불안정 민원에 따른 현장 조사/분석	7.3(화)	강원도 춘천시	박종화 차장 외 1명

(나) EBS TV / FM 방송전송망 (KT 방송 전용회선) 점검

1) 2018년 EBS 방송전송망 (KT 방송 전용회선) 점검 주요 내용

○ TV방송회선 품질측정

- 측정 기간: `18.5.11(금) ~ 5.24(목)
- 측정 장소: 5개소 (일산M/W실, TV주조, 관악산, 남산, 검단산 전국망)
- 주요 항목: Baseband SDI Eye Pattern 측정 등
- 측정 결과: 양호함
 - MPEG-2 Transport PCR특성 (양호)
 - MPEG-TS Video PID 변동없음 (양호)
 - PSI tables 입력/출력 PAT Version 변동 없음 (양호)
 - PSI tables 입력/출력 PMT Version 변동 없음 (양호)

○ Radio 방송회선 품질측정

- 측정기간: `18.5.11(금) ~ 5.25(금)
- 측정국소: 10개소 (KBS관악산 청주 춘천 대구 전주 대전 부산 광주 제주 강릉)
- 주요항목: Audio 레벨, 주파수, 잡음비 특성 등
- 측정결과: 양호함
 - 일산EBS~지역총국간(9국소): 레벨변동 없음 (양호)
 - 일산EBS~관악산송신(1국소): 레벨변동 없음 (양호)

2) 주요 조치 사항

○ KBS 지역총국의 KT DABS(라디오코덱) 프레임 타 방송사와 분리

- 일 시: `18.7.4(수) ~ 7.18(수)
- 대 상: KBS 춘천, 제주, 대전총국 내 KT전송장비 (3개소)
- 분리 사유: 타 방송사 프레임 작업 등에 의해 EBS FM 방송에 받는 영향 제거

- 일산EBS KT M/W 전용 DABS TRU 모듈 교체
 - 일 시: `18.8.17(화) 13:00 ~ 15:00
 - 대 상: 일산EBS KT M/W 구간 KT전송장비 (2개소)
 - 교체 사유: 신규 모듈 사용을 통해 송출 안정성 확보

(다) EBS DTV 무선국 정기검사 수검

1) 검사 개요

- 전파법 제24조(검사) 및 전파법시행령 제45조 관련하여 무선국 정기검사 수검
- 관악산 EBS DTV 무선국 대상으로 송신 품질 법정 기준 준수 여부 판단

2) 주요 내용

- 일시 및 장소: `18.10.18(목), 관악산 송신소
- 대상 무선국: EBS DTV 방송국 (3년 주기)
- 평가항목
 - 무선시설의 전파형식, 공중선 구성, 접지방식 등 일반현황
 - 공중선 전력, 점유주파수 대역폭, 지정채널 외 전파방사 스펙트럼, SNR 등의 측정값 등
 - DTV 지상파 전계강도 현장 측정값
- 수검 결과: 합격

②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도

(가) 방송재난 대비 비상송출 시스템 운용

1) 비상송출 시스템 운용 현황

- 지상파 TV

지상파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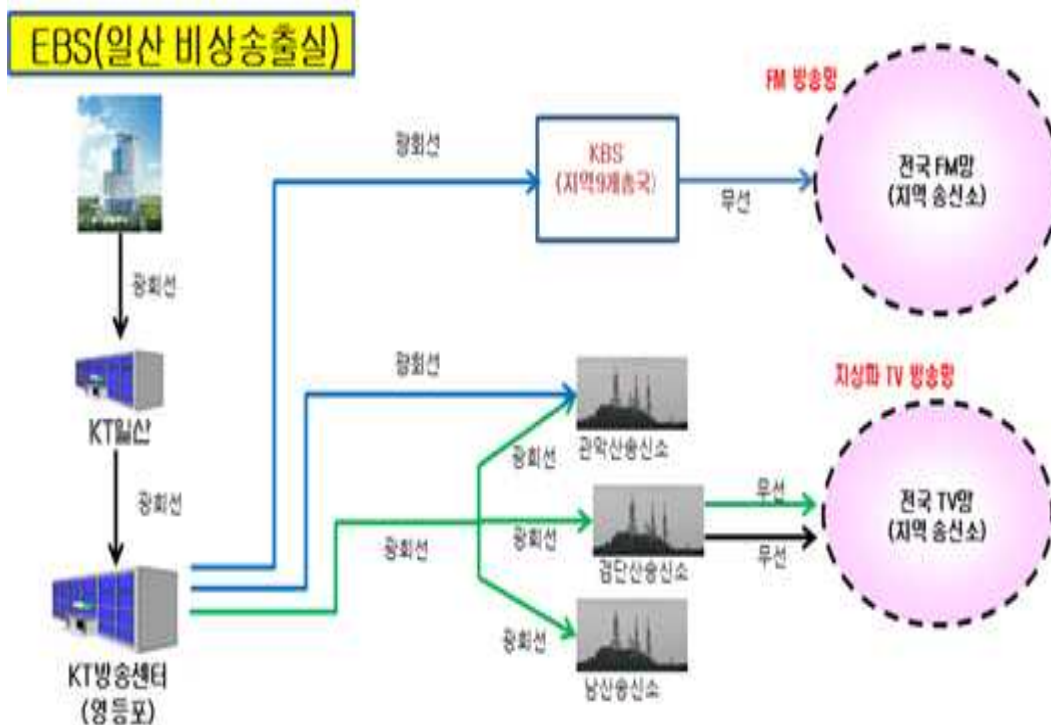
- 임시 주조: 비상송출실(B1)→ 임시 지상파 TV주조로 전환
- 신호 전송: 비상송출실(B1)→ KT 일산→ KT 영등포 방송센터→ KT 검단산TRC, 관악산, 남산송신소
- 방송 방법: 전국 13개 송신소로 DTV 전송
 - 수도권(관악산, 남산송신소), 지방(KT 검단산TRC→KBS 11개 지역 송신소)
- 비상 송신 시설 구축(KBS 협조요청 사항) 운영 유지
 - 비상 방송 플레이 시스템 구축(관악산, 남산 송신소)

○ 지상파 FM

지상파 FM

- 임시 주조: 비상송출실(B1)→ 임시 지상파 FM주조
- 신호 전송: 비상송출실(B1)→ KT 일산→ KT 영등포 방송센터→ KBS 9개 지역총국, 관악산송신소
- 방송 방법: 전국 9개 지역총국 및 1개 송신소(관악산)로 FM 전송
- 비상 송신 시설 구축(KBS 협조 요청 사항) 운영 유지
 - KBS 화악산 송신소 EBS FM(106.5Mhz) 재송신(관악산 송신소)

○ 우회 방송망 구성도



<그림 4-13> 우회 방송망 구성도

(나) 방송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 교육 실시

- 1) 주조 운영 매뉴얼 작성 및 비치
- 2) 반기별 근무자 시스템 교육 및 비상조치 재교육: 연 2회
- 3) 비상조치용 회로도면 근무자 옆 비치

(다)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점검 실시

1) 예방 점검

- DTV headend 주요 장비: 매일 육안점검 및 NMS 상시 모니터링
- 비디오 서버: 1개월 단위 점검 및 매일 에러로그 확인
- 자동송출시스템(APC): 1개월 단위 점검 및 매일 육안점검
- CG장비: 1개월 단위 점검 및 매일 육안점검
- 콘텐츠관리시스템 서버 및 DB: 자동화 정책 시스템으로 운용
- 기타 방송 장비: 매일 육안점검
- FM 주요 장비: 매월 점검 및 Cleaning (연 4회 이상)

2) 송출시스템 보완 및 설치

- TV 재난·민방위경보방송 고도화 (경보음 및 음성 안내 송출기능 추가, 민방위경보방송 CG 포맷 변경)
- TV 방송신호 및 장비 알람 시스템 (iControl) 시인성 개선을 위해 대상 장비 선별 및 화면 구성 변경
- TV 생방송 신호 안정화를 위해 케이블 신호 점검 및 패치 제거 후 직결 연결
- FM 주조 상호 독립적인 3중화 송출 시스템 구성으로 고도의 안정성 유지
- FM 주조 재난 방송시스템 구축으로 지진 민방위 경보 등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즉시 재난 방송 송출
- FM 전체 5개 부조에서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주조와 신호 연결 구성을 하였으며, 생방송 전용 3개 부조의 오디오 콘솔을 2중화하여 장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함

평가 결과 및 제언

미디어 환경 대응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융합기술 적용을 시도하였으며,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서비스 발굴 및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다음의 사항들은 좋은 실적들로 평가된다.

- EBS 내 서비스 적용을 위한 다양한 융합기술 적용 시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국대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외부환경 분석 노력
- 적은 인력에 적절한 대응
- 차세대 기술 트렌드 파악을 위한 인재 양성 연수 실시
- 신규 직원 직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 연수 수행
- 4차 산업혁명 기술 대응 인재 양성을 위한 연수 추진
- 직무 연수 기본 방향에 부합한 체계적인 연수 실시
- 개인별 맞춤형 직무 교육을 통한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

상기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사항들의 개선 및 추진이 요구된다.

- UHD 본방송이 지연됨에 따라 UHD주조 구축 및 스튜디오 등의 제작 시설 전환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HD와 UHD 모두 대응 가능한 하이브리드 형태의 장비 위주로 투자하여, 본방송 시작 시점의 지연 여부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방송 인프라 마련에 노력해야 함
- 고교 강의 관련 이러닝 스튜디오의 NPS 전환 확대 필요
 - 이러닝 스튜디오의 NPS 확대 운영 계획 수립
-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테이프로 제작되어 납품되고 있음
 -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NPS 전환 운영 검토

라.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평가 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노력 및 성과

가) 평가 기준

경영평가의 목적은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EBS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 데 있다. 전년도 기술부문 경영평가에서 권고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 노력 및 성과 정도를 평가한다.

나) 평가 사항

① 전년도 기술부문 평가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개선 정도

(가) UHD 방송 지연 관련

추진 전략/계획의 재점검

UHD 방송 송신설비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BS에 협조 요청을 계속하는 한편, 학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지원 요청 등 다각도의 대응 노력이 요구됨. 송신 설비 구축 노력 이외에도 제작 편집 장비 및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1) UHD 송신설비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 KBS와 협의 진행

- UHD 송신지원 문제는 정책적 사안으로 '18년 말 EBS와 KBS 정책부서 중심으로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19년 상반기 내로 정책·기술부서와 함께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이와는 별도로 KBS 기술부서와는 지상파 4사 정기회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KBS 송신지원 관련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 UHD 송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EBS 시청자들에게 UHD 방송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UHD 제작 편집 장비 구축 확대

○ UHD 인프라 투자 계획에 따라 UHD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표 4-8> EBS UHD 인프라 투자 실적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실적	0.85억	0.77억	2.1억	3.6억	4.1억	15.9억	34.58억	61.9억

<표 4-9> EBS UHD 인프라 투자 계획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송출/제작	58.4	8.7	57.7	37.7	41.7	48	56	308.2
네트워크	10	20	20	20	20	20		110
투자액	68.4	28.7	77.7	57.7	61.7	68	56	418.2억

○ '18년은 2차례 방송장비도입심의를 통해 UHD NPS, UHD 후반편집, UHD 카메라, UHD 컴퓨터그래픽 장비 등을 도입했으며, 향후에도 UHD 송신지원과 별개로 UHD 인프라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임

<표 4-10> '18년도 UHD 인프라 투자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 개요	금액 (원)
1	UHD 파일기반시스템 도입	■ UHD 본방송을 대비한 UHD 파일기반 시스템(NPS)	16억
2	UHD 방송인프라 보완	■ UHD 후반편집 시스템 ■ 야외 촬영용 UHD 카메라 ■ 스튜디오 촬영용 UHD 카메라 ■ UHD 컴퓨터그래픽 장비 ■ 조명 시스템	19억
	합 계		35억

(나) 교육/연수/인력확보

미디어 환경 변화 및 신기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들이 향후 방송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예측하고 방송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 능력의 제고
사내 전문 인력 육성 및 외부 기관/전문가 협력 등 포함.

1) 미디어 신기술 동향 파악을 위한 지속적 노력

- 매주 미디어 동향 회의 실시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동향 공유 및 시사점을 도출하여 신규 서비스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매월 신규 서비스 추진 점검 회의를 통해 서비스 추진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특히, 하이브리드 라디오 추진,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생태계 마련, 클라우드 전환, 음성인식 스위처, 에듀테크 추진, 넷플릭스 및 유튜브 분석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2) 산학연 협력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 동국대와 협력하여 수능교재 수요 예측 솔루션을 개발하였으며, ETRI와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서비스를 개발 중임
- 다양한 서비스 발굴을 위해 산학연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3) 기술 연구 기능 확대 강화

- 뉴미디어 동향 파악 및 신규 서비스 개발, 산학연 협력 과제 추진 등 보다 내실 있는 업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 확충을 통한 기술연구 소 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다) 방송품질 제고 및 경쟁력 확보

교육방송 본연의 책무인 교육 중심 방송 서비스에 신기술들을 도입하여 타 방송채널들과의 차별화. 4차 산업 혁명, 자율주행차/Connected Car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방송서비스 제공(UHD 모바일, 라디오 등 모바일 방송망을 이용한 재난, 교통, 기상, 위치 정보 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소홀한 FM 라디오방송의 수신 커버리지 특성 및 청취율 조사 및 품질 관리 강화. TV 시청 형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PTV, 케이블TV, 위성 TV 등 유료방송 채널들 대상 방송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 체계 도입.

1) 타 방송사와 차별화된 다양한 서비스 발굴 추진

- 라디오방송솔루션(이모션) 자체 개발을 통한 사업화, 이러닝 스튜디오 선진화 등 에듀테크 추진, 콘텐츠 유통 선진화를 위한 블록체인 추진, 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라디오 추진, 수능교재 수요 예측을 통한 폐기율

절감 방안 검토, 음성인식을 통한 장비 제어, VR/AR 콘텐츠 제작 활성화, 양방향 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EBS Play 앱 고도화를 통한 AI 맞춤형 서비스 검토 등 현재 EBS가 처한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추진 중임

- 특히, 라디오방송솔루션 사업화를 통해 국내외 방송사에 저렴한 비용으로 국산 장비를 보급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2) FM 라디오 방송 수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

- 라디오 송수신은 KBS가 담당하고 있어 전국단위의 수신 커버리지 조사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민원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 EBS에서는 모바일(앱) 중심으로 변화하는 매체 이용환경에 따라 청취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반디 라디오 앱을 개선하여 뉴반디 앱을 만들었음. 국내 방송사 최초로 하이브리드 라디오 기능을 탑재하여 청취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향후에도 라디오 청취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음

3) 유료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등 품질 체크 실시

- 통합주조정실 내 유료방송(IPTV, 스카이라이프, SO)으로 보내는 신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알람 설정으로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 조치하고 있음
- 플랫폼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통신업체(KT, SKB, LGU+, 미디어캔)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상파 직수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모니터링을 통한 품질 개선에 힘쓸 계획임

평가 결과 및 제언

UHD 방송 지연 관련 추진 전략과 계획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UHD 방송 송신 설비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원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KBS에 협조 요청을 계속하는 한편, 학계, 시민단체 등과도 연계한 지원 요청 등 다각도의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송신 설비 구축 노력 이외에도 제작, 편집 장비 및 설비를 확대해야 한다.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강화와 관련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 및 신기술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들이 향후 방송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 예측하고 방송에 적용하기 위한 전략 수립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사내 전문 인력 육성 및 외부 기관/전문가 협력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마. 당해연도 중점평가사항

평가 내용

1)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역량 강화 노력과 성과

가) 평가 기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역량 강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항목으로는 ① 기술 역량 강화 계획 대비 자원 투입의 적정성, ② 기술역량 강화 계획 대비 성과의 적정성으로 되어 있다.

나) 평가 사항

① 기술 역량 강화 계획 대비 자원 투입의 적정성

(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3단계로 세분화하여 업무 추진

- 1) 대외 동향 및 기본 지식 습득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연수 강화
- 2) 매주 정기적인 동향 회의를 통한 서비스 분석 등 기획
- 3) 신규 서비스의 프로그램 제작 및 업무에 적용 등 추진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연수 강화

- 1) 연수 방향
 -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역량 강화 및 신규 서비스 발굴·추진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연수 강화
- 2) 연수 계획
 - 연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수 효과를 고려하여 진행

분류	교육 과정	지 역	비 고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박람회 및 세미나	국내외	
	ICT 관련 교육	국내외	
	방송공학회 워크숍	국내	
제작 역량 강화	UHD 방송기술 전문가 과정	국내외	
	글로벌 전문가 양성 과정	국외	외부 지원
	신규장비 운용교육	국내외	
	신입사원 제작 연수	국내	

(다) 4차 산업혁명 서비스 동향 파악 및 분석

- 1) 4차 산업혁명 동향 수집 및 분석 등 매주 동향 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 서비스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 2) 국가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방문을 통한 외부기관과 협력 사업 발굴 논의
- 3) 유튜브, 넷플릭스 등 미디어 전반에 대한 서비스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프로그램 제작 및 서비스 적용

- 1) 수능교재 수요예측 모델 개발
- 2)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 3) 음성인식 기반 방송장비 제어 솔루션 개발
- 4) 실감미디어(AR·VR) 관련 기술의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
- 5)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자간 화상통화 기술의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
- 6) 자체 개발한 라디오 제작 송출 솔루션(eMOTION) 보급

② 기술 역량 강화 계획 대비 성과에 대한 내부평가 정도

(가) 연수를 통한 기술 역량 강화

- 1) EBS Restart를 위한 신기술 연수 강화
 - 에듀테크, 블록체인, AI, AR·VR, 홀로그램 관련 박람회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해 기술 서비스 동향 파악 및 적용방안 모색 등 신기술 대응 역량 강화
- 2) 체계적인 UHD 제작·송출 전문교육을 통한 UHD 본방송 대비 및 제작
역량 강화
 - UHD 영상, 음향, 조명, 편집, 송출 실무교육을 통한 UHD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
- 3) 4차 산업혁명 관련 연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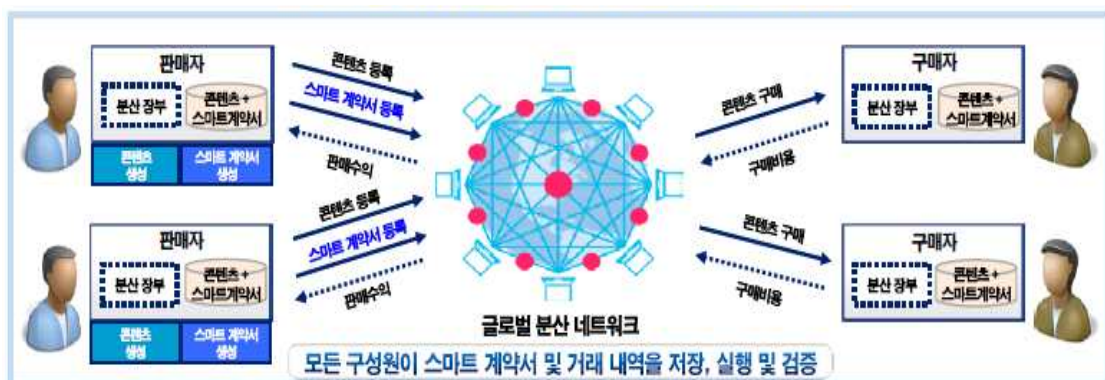
	2016	2017	2018
횟 수	9/28	12/34	25/46
비 중	32.1%	35.3%	54.3%

(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서비스 발굴 노력

- 1) 매주 동향 회의 실시를 통한 서비스 동향 파악 및 분석
 - 박람회 및 세미나 참석 후기, 업체 탐방 및 인터넷 서핑을 통한 자료 조사 공유를 통해 미디어 전반의 서비스 동향 파악 및 시사점 분석
- 2) 외부 협력을 통한 서비스 발굴 협의
 - 동국대와 공동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 논의
 - KT와 AR·VR, AI, 빅데이터 등 다양한 협력 사업 발굴 논의 진행
- 3) 미디어 전반에 대한 서비스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교육 서비스 적용을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유튜브, 넷플릭스 등 거대 미디어 기업의 영향력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적용

- 1) 동국대와 산학협력으로 EBS 현안 과제 해결 및 신규 서비스 추진
 - 수능교재 수요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교재 폐기율 절감 시도
 - 과년도 교재 출고 및 반품현황 분석, 통계적 기법 및 AI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차년도 교재판매 수량을 예측할 수 있는 분석모형 도출
 - AI 영어 회화 앱 시범 개발을 통해 영어 회화 학습 능력 배양
 - 산학협력 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로 AI 영어회화 학습 에이전트 개발
- 2) ETRI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유통 플랫폼 기획 및 개발 진행 (총 3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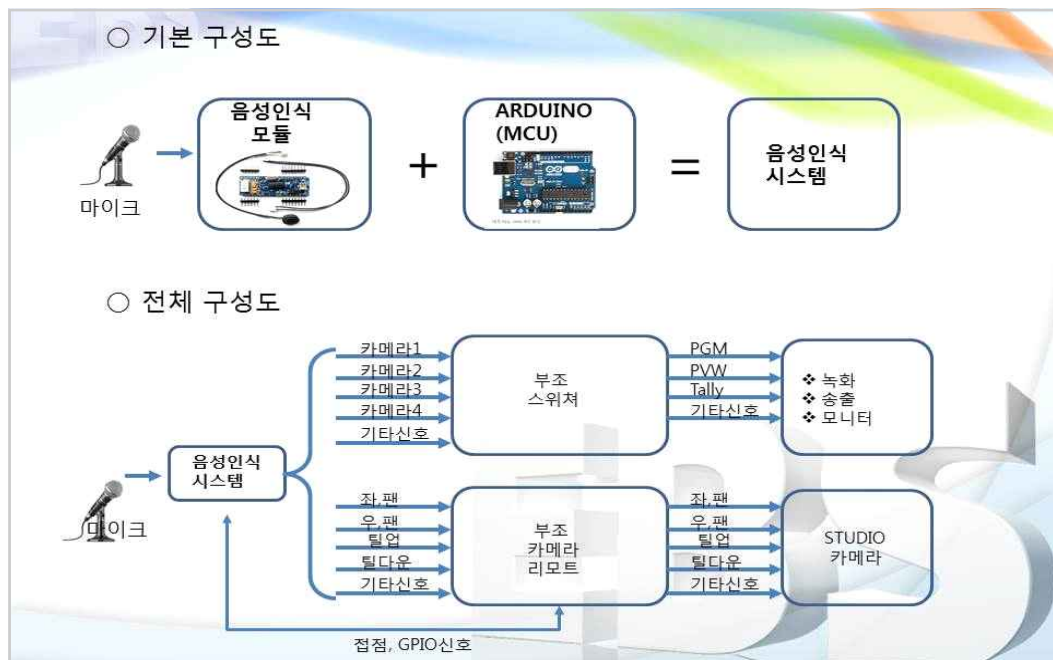


〈그림 4-14〉 유통 플랫폼

- 과제명: 블록체인 기반 웹 콘텐츠 생성 및 유통 플랫폼 기술 개발
- 주관기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참여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 SBS, (주)포털웍스, (주)잇츠아이, (주)미니게이트
- 연구 기간: 2018.3 ~ 2020.12(1차연도: 2018.3 ~ 2018.12)
- 정부출연금: 9천만원(1차연도, EBS 배분액)
- EBS 역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콘텐츠 유통플랫폼 기획 및 시범운영

3) 음성인식 기반 방송장비 제어 솔루션 개발

- 음성인식 기반 스위처, 카메라 작동 제어 솔루션 개발 진행을 통한 1인 제작 시스템 검토



<그림 4-8> 음성인식 모듈을 이용한 제어 솔루션 개발 구성도

4) 실감미디어(AR·VR) 관련 기술의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

- ‘CAN, CAN, CAN’ 보이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AR 기술 적용
 - 증강현실을 이용한 참여형 양방향 과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
- ‘모여라 덩동댕’ VR 촬영 편집을 통한 VR 제작 워크플로우 검토
 - VR 콘텐츠 완성과정을 통해 VR 제작 역량 강화
- ‘판다다’, ‘공룡 대백과 사전’ TV 프로그램에 AR 기술 적용
 - AR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프로그램 내 다양한 영상 구현

5) 스마트폰을 활용한 화상통화 기술의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

-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창사특집 생방송’ 프로그램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 기술 적용으로 양방향 제작 환경 마련
- 2019년부터 1:다수 화상통화 도입하여 프로그램에 적용 시도



〈그림 4-15〉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6) 자체 개발한 라디오방송 솔루션(eMOTION) 보급

- 4년간의 자체 인력으로 개발한 라디오 제작 송출 솔루션의 사업화를 통해 국내 방송국 및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에 솔루션 보급
- RAPA 지원, 파키스탄 물탄 방송국 대상 ODA 사업자 선정 및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전파방송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을 통한 대외 EBS 기술력 입증

평가 결과 및 제언

4차 산업혁명 관련 연수 확대 등 대응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서비스 추진 업무도 강화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 서비스 발굴 노력
 - 1) 매주 동향 회의 실시를 통한 서비스 동향 분석
 - 2) 미디어 전반에 대한 서비스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 마련
2. 외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현안 해결 등 다양한 협력 사업 추진
 - 1) 동국대 산학협력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추진
 - 2) ETRI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3.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용 시도
 - 1) 수능교재 수요예측 모델 개발
 - 2)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 3) 음성인식 기반 방송장비 제어 솔루션 개발
 - 4) 실감미디어(AR·VR) 관련 기술의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
 - 5)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자간 화상통화 기술의 프로그램 제작에 적용
 - 6) 자체 개발한 라디오 제작 송출 솔루션(eMOTION) 보급

방송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인프라 중 5G(5세대 이동통신)와 관련이 많은데, 5G에 대한 언급 및 대비가 부족하다. 5G 확산에 어떻게 대응하며 5G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술부문 대표 집필위원: 문형남 위원

지식채널 **EBS**

세계를 연결하는 GLOBAL 學問
INNOVATION